

한국의 바울서 문헌학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A Korean Paul
Min. Eunsuk Kim**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0, 2020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발간사



김성철 목사 부부와 힐요한(John Hill) 선교사(1990년 5월 13일)

<국제적 인물> 비교적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의 내 삶에 대한 평가이다. “김 형은 국제적 인물이야.” 나의 82년의 생을 돌아다보았다.

1938년 5월

17일 일본 야마구찌(山口) 현(縣) 아사(厚狹)에서 김주일 구봉림 부부 사이에서 2남으로 태어났다. 1946년 5월경 해방된 조국으로 8살 무렵에 이주하였다.

1947년 3월경 생부님의 동역자이자 친구이신 김은석 김완례 부부의 양자로 입적되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쓰라린 가난과 전쟁의 공포와 눈물겨운 성장과정을 거쳐 1972년 11월 20일 유신헌법을 위해 투표가 실시되던 날 34세의 나이로 도미하였다.

이국생활의 적응과 특히 신분관계인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지낸 일들이 눈물겹다.

양부 김은석 목사님이 남겨 주신 혈령한 가방 속에 담겨있었던 50여년 간직한 성경책 한 권과 임종의 순간을 지켜 주셨던 총곡교회 최봉석 장로님께서 전언해주신 “성철이를 만나면 내 대를 이어 주의 종이 되기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받들어 1974년 7월 초 금요일 미

국 워싱턴 주 야키마(Yakima)에서 존경하는 필요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최선을 다해 교회들을 섬겨왔다.

내 삶을 정리해봐야 할 때가 된 듯싶은 나이가 되고 보니 지난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이다. 2000년에 뜻하지 않게 의사의 오진으로 당뇨병을 얻게 되고 오늘까지 투병생활을 하면서 주사기를 몸에 찌를 때마다 “주님의 가시관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곤 한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라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세어보게 된다. 내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양부모님과 생부모님이 온 맘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친 헌신에 힘입어, 나 또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잘 살았다는 작은 흔적이라도 후대에 남겨졌으면 하는 것이다.

루선 벨리(Lucerne Valley)의 바위산 언덕 아래에 위치한 아름다운 선교센터(Mission Vision Christian Center)에 고 김은석 목사님의 기념관을 설치하고 그분의 생애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협조해주신 안대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김은석 목사님의 생애 자취를 집필해 주신 조동호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린다.

2020년 캘리포니아 주 토런스(Torrance)에서,
김성철 목사.

머리말

김은석 목사는 성경으로 완전무장한 하나님의 용사였다.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말하며, 성경의 내용만을 설교하고, 성경의 내용만을 가르친, 성경에 목숨 건 성경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김은석 목사가 보여준 실천적 목회자의 삶이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지식은 그의 설교나 강해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마치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의 짝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았다. 오직 성경만을 말하고 그 성경 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던 신약성경교회의 개척자였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도 바울이었다.

1940-60년대 목회자의 삶은 갈등과 가난함과 곤고함과 괴로움 그 자체였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전쟁까지 겪은 직후라서 한국경제는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 필자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애환과 수고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애린가슴과 감동의 눈물로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메모를 읽을 수밖에 없었다. 메모내용을 옮겨 적는 일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달프고 힘든 작업이었다. 확대경을 손에 들고 낡고 오래된 그의 성경에 쓰인 메모들, 특히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 많이 흐려진 글씨들, 지금과는 많이 다른 어법과 용어들, 그리고 한자까지, 판독하고 옮겨 적느라 등에 담이 심하게 들었고, 병원엘 다니며 치료받느라 한동안 고생이 많았다.

필자는 10년 전 본서를 작성할 때 김은석 목사의 전기를 쓰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러기에는 자료가 너무 빈약했기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 10년 반이나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필자는 김

은석 목사의 생애와 업적을 전수조사하거나 이런 저런 자료들을 수집하여 종합하려하지 않았다. 단지 그 같은 거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작은 일을 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 작은 일이 김은석 목사가 남긴 성경통독메모를 꼼꼼히 정리하고 소개한 자료집을 만든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본서의 상당부분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6년간 성경통독 메모에 담긴 김은석 목사의 행적이다. 최근에 써서 본서에 추가한 몇 편의 글들은 김성철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¹⁾와 A4용지에 친필로 적어서 보내주신 글들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메모는 성경통독일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상세하다. 그 이유는 아마 이들 메모가 자신의 기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 그의 메모를 읽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메모를 읽다보면, 훗날 누군가가 자신의 메모를 읽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드는데, 그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적고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였던 성경책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 품으로 떠난 지 무려 46년만인 2009년에서야 다른 누군가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되어 그의 메모를 읽게 된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그분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김은석 목사의 메모를 읽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그분의 깊은 영성과 복음에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다.

2010년 1월 10일 및 2020년 7월 2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1) 김성철 목사의 자서전,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도서출판 진흥, 2000).

차례

발간사	3
머리말	5
제1장 김은석 목사의 생애/11	
1. 해방 전 활동	11
2. 해방 후 활동	13
제2장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21	
1. 김은석 목사와 세상사	21
2. 신약성경교회들의 개척자	24
3.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29
4.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33
제3장 떠돌이 전도인 김은석과 성경책/37	
1. 떠돌이 전도인 김은석 목사	37
2. 성경낙서를 통해서 본 김은석 목사	39
3.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41
제4장 예수님의 카리마 넘치는 떠돌이 예언자적 삶의 추종자 김은석 목사/45	
1. 김은석 목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45
2.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47
3. 김은석 목사의 인간관계	49
4. 김은석 목사의 성경강의 활동	51
제5장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은 김은석 목사/59	
1.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	59
2.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실천한 김은석 목사	63

제6장 김은석 목사의 인생추스/69

- 1. 김은석 목사와 세상 즐거움 69
- 2.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71
- 3.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72
- 4. 김은석 목사가 끼친 충격과 74

제7장 김은석 목사의 삶과 신앙에 관한 단상(斷想)/79

- 1. 가미사마는 일본에서 높지만, 그리스도는... 79
- 2. 순교를 면(免)한 김은석 목사 82
- 3. 눈물겨운 예배 85
- 4. 김은석 목사의 깊은 밤의 번민 86
- 5. 원수를 사랑한 김은석 목사 87
- 6. 김은석 목사의 영웅적 삶 88

제8장 김은석 목사의 양아들 김성철 목사의 성공적인 삶/91

- 1. 김성철의 역설적인 성공 91
- 2. 친부모와 양부모의 신앙유산 93
- 3. 피난생활과 주경야독 93
- 4. 약혼과 군복무 및 김은석 목사의 소천 94
- 5. 결혼과 충남대 재학 및 신학교 근무 96
- 6. 영주권 취득과 가족상봉 99
- 7. 미국에서의 목회와 사업 101
- 8. 김성철 목사의 약력 104

제9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3년/107

- 1. 1953년 1-6월 107
- 2. 1953년 7-12월 107

제10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4년/111

- 1. 1954년 1-6월 111
- 2. 1954년 7-12월 125

제11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5년/135

- 1. 1955년 1-6월 135

2. 1955년 7-12월	151
----------------------	-----

제12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6년/169

1. 1956년 1-6월	169
2. 1956년 7-12월	183

제13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7년/189

1. 1957년 1-6월	189
2. 1957년 7-12월	202

제14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8년/217

1. 1958년 1-6월	217
2. 1958년 7-12월	220

제15장 김은석 목사의 반천련(伴天連)/221

1. 김명석(주일) 목사	222
2. 박점상 목사/장로	222
3. 김교인 장로	227
4. 신현창 장로	228
5. 정찬성 목사	229
6. 김상호 목사	231
7. 만교 최춘선 목사	233
8. 창현 함태영 목사	237
9. 이신 목사	244
10. 김정만 목사	250
11. 장주열 목사	253
12. 최요한(용환) 목사	254
13. 고광석 목사	264
14. 지철희 목사	266
15. 심영진 목사	269
16. 김동열 목사	271



김은석 목사가 개척하여 섬겼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당 내부 모습
1961년 8월 17일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원 안은 김완리 사모, 할 제인 선교사, 김은석 목사(?), 김찬영 목사

제1장 김은석 목사의 생애

1. 해방 전 활동



김은석 목사(1902-1963)

김은석은 1902년 5월 14일(음력) 황해도 평산군 당구리(속칭 붉은 바위 마을)에서 유교적이며 지주층의 가정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김종은이었고, 성격은 급하고 고집스러웠다. 동네 개구쟁이에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른에게도 겁을 주었는데, 걸핏하면 나무위로 새끼줄을 매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을 주는 괴팍한 성격이었고, 큰아들로서 대우받고 자란 터라 안하무인이었다.

김은석은 한자와 한학에 깊은 학식이 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자와 한학에 조예가 있었다. 그는 1m 70cm 이상의 키에 70kg정도의 체격의 소유자로 16살 때 자기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여인에게 부모의 결정으로 장가를 들었다. 부인은 다섯 살 위였는데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다가 집에 불을 놓았다. 이 방화 이후 집안이 몰락해서 당구리를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 김은석은 중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재혼해서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은 3살 때 사망하고 연이어 부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²⁾

2)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도서출판 진흥, 2000), 33-35;

그는 젊은 시절 크게 실망 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100독할 때 성령을 체험하였다. 이후 그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독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였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성령충만으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³⁾

김은석은 주로 만주, 일본, 한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 1930년대 초 20대 후반의 김은석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만주 길림성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가 복음전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자, 한국으로 돌아와 장로교 전도자로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한국에서도 일본 경찰의 탄압이 있자 1935년경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그는 일본에 입국 증명없이 들어왔기에 늘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평일에는 막노동판이나 탄광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시모노세키(하관), 아사(김성철의 친부 김주일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 오사카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였다.⁴⁾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임하자 유명세를 타게 되고 특히 1941년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김은석은 다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는 1936년 시모노세키(하관)에서 김명석(주일)을 만나고,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김명석(주일)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 300명 정도의 교인이 모였다. 그가 “세례와 성만찬을 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역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⁵⁾ 김은석은 신사참배를 죄라고 믿어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주일이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한국인 교인들을 찾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그리스도의교회 50년사』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301-04. 김은석 목사의 신장과 체중이 180cm와 80kg 정도였다는 목격담이 있으나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로 볼 때, 박점상 목사보다는 작고, 심영진 목사보다는 컸다. 몸도 가날 퍼서 체중이 70kg을 크게 상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정기철, “김은석목사의 환원운동: 성령운동에서 시작된 환원운동,”(서울기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7.

4)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그리스도의교회 50년사』, 301-04.

5) 앞의 책, 312.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말라. 신사참배는 죄다”라고 선포하였다. 신사 참배 반대로 인하여 그의 신변은 항상 위태하였다. 일본에서 그는 ‘간다킨세기 신전 은석’으로 불렸고, 별명은 합바지를 입고 다니는 합바지(무명바지) 조사(전도사)였다.⁶⁾

김은석은 세 번째 부인을 일본에서 얻게 되었다. 처녀장가는 아니었고, 교회에서 중매로 맺어졌는데, 그분이 김완례이다. 김완례는 품위가 있고 현대적 감각을 가진 인텔리였다. 김은석을 만나 재혼하였으나 남편이 쫓기는 신세라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김완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원래 고향은 이북이었다. 서울에 와서 경성신학교에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었다. 김완례의 첫 남편은 충남 연산 사람으로서 결혼하자마자 고향에 좀 다녀오겠다고 한국에 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편지가 날아왔는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가지 못한다.”고 했고, 얼마 후에는 “죽었으니까 오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전도 부인이 되어 열심히 교우들을 심방하고 다녔는데, 교우들이 접대로 떠준 얼음물을 마시고 냉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서 김은석 목사와의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

2. 해방 후 활동

김은석은 해방 직전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한일해협이 봉쇄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에서 그는 전도생활에 전념하는 한편 서울 역 앞에 있는 빨간색 벽돌(세브란스) 빌딩을 빌려 ‘백만 귀환동포 영접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였다. 큰 술을 걸고, 교회에서 쌀을 공급받아, 오가는 사람을 먹이고 재우면서 귀환 동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당시 한국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빌딩은 일본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귀환 동포들의 수용소 역할을 하였다. 강신명 목사, 한경직 목사도 그 때 함께 활동하였다. 또 구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애국활동을 하였

6) 앞의 책, 301-04.

다.7)

1945년 가을 김은석은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 교회에 부임하였다. 김은석은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며, 노회의 자제하라는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제명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에 김은석은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의교회로 환원하였고, 동년에 '부강 그리스도의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시작하였다. 김은석은, 마치 사도 바울이 주후 46년부터 63년까지 선교여행을 통해서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운 후 장로를 택하여 목회자로 삼은 것처럼, 1946년부터 1963년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함으로써 충청이남 지역에 수십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였다.8)

김은석 목사는 예배 중심의 3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교파를 초월하라 - 초교파 운동

둘째, 성경대로, 교리대로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셋째, 교회 명칭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야 한다. 또한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해야 한다.

성경대로 이 세 가지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기독교나 천주교나 세례 받는 형식이 순수한 침례가 아니었으며 주의 만찬 방법도 가령 신부만 잔을 마시고 신자들은 떡만 받아먹곤 하였다. 이렇게 근본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인근의 교인들이 몰려와 부흥되고 교세가 확장되었다.

김은석 목사는 잉여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대전시 선화동 351번 1호의 땅 385평을 샀다.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6.25사건이 터지기 이전의 일이었다(*1.4후퇴 이후의 일, 대략 1952년경으로 보인다).9)

7)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5.

8) 채이스는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1949년 7월호에서 교회숫자를 10개라고 했다가 돌연 19개로 수정하여 보고한바가 있고,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6년 6월호에서 교회숫자를 75개로 보고하였으며,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서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



필요한 선교사가 대전시 가장동에 신학교 교사를 건축하던 1964년 충청이남지역에는 60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6, 충남 19, 전북 1, 전남 2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이것을 김은석이 일으킨 부흥운동의 결과로 보았다.¹⁰⁾

김은석은 말년에 창병(瘡病)으로 고생하였다. 그 때 그는 창병의 치료를 위해서 '강신규'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악성루머가 퍼졌고, 루머의 사실여부를 밝히고자하여 모인 50여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김은석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사건을 연민과 동정으로 받아드렸고, 일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며 복음전파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까지 돌보지 않았던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은석 자신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충격이었다.¹¹⁾

김은석 목사의 침거는 만 2년을 넘지 않았다. 김은석의 성경통독

9) 김은석 목사의 읍야(아오바다) 끝 여백에 남긴 메모에 의하면,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주소는 선화동 2구 315번 였다. "1953년 8월 25일에는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나의 주택에서 봉독하였다."

10)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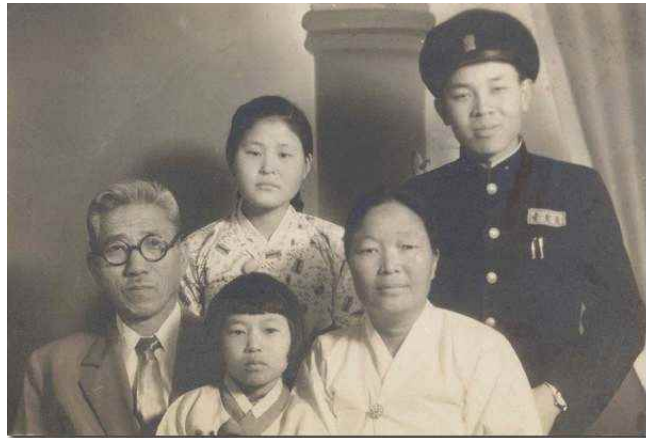
11)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316-17. 강신규는 김은석의 충실한 여성 동료이자 김완례 사모의 율케의 율케 또는 율케의 아들인 김은영 목사의 외숙모였다.



좌측 김은석 목사, 우측 심영진 목사
(1958년 4월 13일 산상예배기념)

진들이 남아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58년 4월 13일 산상예배기념으로 심영진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제공 김성철 목사), 그보다

이틀 뒤에 찍은 가족사진(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김은석 목사, 양녀 김순희, 김완례 사모)이 있으며(제공 박점상 목사), 1960년 김은석 목사와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1958년 4월 15일)
양자 김성철(목사), 양녀 김명순(뒷줄), 양녀 김순희(앞줄)

메모는 “1958년 4월 26일 오후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고동주씨, 우정에 자매 댁에서 (역대 기하 ?-21장) 봉독”에서 멈췄다가 “1958년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 침례회 병원에 입원 후 16일에 본서 호세아를 다 봉독”이라는 메모로 완전히 끝이 난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 통독메모가 중단된 1958년 이후의 활동자료가 전무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몇 장의 사



1960년 초 박점상 목사의 침례신학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

김완례 사모가 박점상 목사의 침례신학교 졸업식 날 셋이서 찍은 사진이 있다 (제공 김성철 목사). 또 다른 사진은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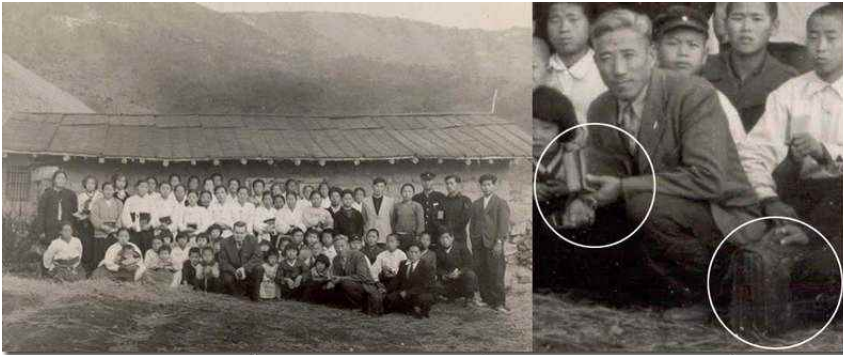
함께 대전시 도마동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 심영진 목사 시무)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찍은 것으로써 가장 최근의 활동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성서신학교는 1959년 12월 1일에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앞서 언급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당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60년 초에 이신 목사가 부산에서 교수진에 합류하였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학교를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1959년에 부산에서 버트 엘리스 선교사 부부와 조 세걸키 선교사 부부가 한국방송밋손 (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을 내보고 있었고, 1958년 12월에 이들 선교사들로부터 방송설교자로 채용된 이신 목사는 1960년 4월 15일 사임할 때까지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방송설교를 내보고 있었다.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서 1980년에 펴낸 책이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다. 또 김은석 목사는 1963년 1월 하순에 소천 하였다. 따라서 이 사진은 1959-60년 겨울철 곧 개교직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무리 늦어도 1960-61년 겨울철이다. 이 사진에 나오는 알만한 인물들은 앞줄 왼쪽부터 필요한 선교사 부부, 김은석 목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 뒷줄 왼쪽부터 오재건 장로(사진 제공자), 고재운 목사, 뒷줄 오른쪽부터 고광석 목사, 김찬영 목사 등이다. 뒤편



한국성서대학교 개교 당시 교수와 학생들(1959-60년 겨울)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심영진 목사 시무 성화 교회당 앞(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줄 왼쪽부터 할 제인, 힐요한,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뒷줄 왼쪽부터 오재건, 고재윤, 뒷줄 오른쪽부터 고광석, 김한영
진 후 촬영한
단체 사진이 남아 있다. 특히 이 사진 속에는 김은석 목사가 김성철
목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과 가방이 담겨있다(제공 힐요한 선
교사). 그 성경이 바로 성경통독메모가 담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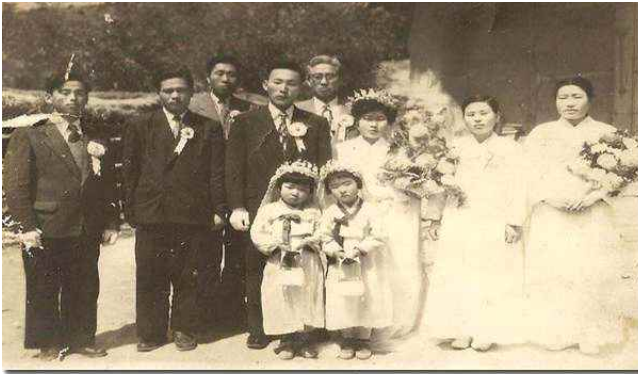
에 서 있는 사
람들은 대부분
도마리 성화교
회에서 신학공
부를 시작했던
분들이다.

이 밖 에
1960-1962년 사
이 힐요한 선교
사와 함께 모쳐
의 교회를 방문
하여 집회를 가



1960-1962년 사이 힐요한 선교사와 함께 모쳐(덕 래쉬 선교사가 사역했던
강원도 태백이나 영월?)의 교회를 방문하여 집회를 가진 후 촬영한 단체 사진이다.
우측의 사진은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과 가방을 보여주기 위해 확대시킨 것이다.

이밖에 1957년 4월 2일(화)자 논산시 증곡 그리스도의 교회 안촌
말 최영식의 장녀 정순 자매(신랑 서은배) 결혼주례 후 기념사진(제
공 김성철 목사)이 있고,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조00권사, 부장
역장 김윤구 집사, 김은석 목사, 김완례 사모가 함께 촬영한 1958년



1957년 4월 2일(화)자 본산시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 안초말
최영식의 장녀 정순 자매 결혼주례 후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신랑(서른배), 신부(최정순) 뒤에 서신 분이 주례자 김은석 목사이다.

7월 4일자 가
족 사진 (제공
김성철 목사),
김은석 목사가
동생들과 함께
찍은 연도 미
상의 사진(형
제들의 이름은
김중석, 김정
원, 김경원 목
사, 김종인, 제

공 김성철 목사) 및 박점상 목사와 함께 경전여관 앞에서 촬영한 연도와 장소 미상의 사진(제공 힐요한 선교사)이 남아있다.

이들 사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은석 목사의 공백기(침거)가 1958년 후반기 또는 1959년도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힐요한 선교사가 재입국하여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한 1959년 12월부터 1963년 1월 하순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만 3년간 활동을 재개하였다는 증거이다.

힐요한 선교사가 1959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대전으로 유

치한 분은 김은석 목사였다. 김은석 목사는 1963년 1월 20일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밤 10시가 넘어 찢고구마와 날고구마를 먹고 탈장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1958년 7월 4일)
앞줄 좌측부터 김윤규 집사(부장역장), 김은석 목사, 김완례 사모
뒷줄 좌측부터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조007권사



김은석 목사의 형제들(연도 미상)

이 되었다. 3년 전 위 수술을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복통을 일으켜 앓다가 다음 날 21일(월요일) 최봉석 장로(고 명달재 목사 장인)에서 사망하였다.¹²⁾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하였다. 최봉석 장로(당시는 집사, 명

달재 목사의 장인) 김성철 목사에게 김은석 목사의 유언과 남긴 물품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양아들 김성철 목사가 대를 이어 꼭 목사가 되길 바랐다. 그가 그에게 남긴 것은 험령한 가방하나였는데, 그 초라하고 낡은 가방 속에는 구리돈, 납 돈 몇 푼과 가방만큼이나 낡은 성경책 한 권만이 달랑 들어 있었다.



경전연관 입구에 선 박진상 목사와 김은석 목사(연도 미상)

12)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3, 87-89.

제2장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

1. 김은석 목사와 세상사

김은석 목사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를 보면, 1963년 1월 21일 충남 논산시 증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소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양아들 김성철 목사의 자서전,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에는 “63년 1월 하순”으로만 나와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양아들 김성철 목사가 군에 입대한지 얼마 안 된 훈련병 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군에서는 이 소식을 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지 꽤 날짜가 지난 후에야 알았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은석 목사의 생신 날짜는 정확하게 음력 5월 14일이다. 성경통독메모에 생신에 관한 언급이 1955년 7월 3일과 1956년 6월 22일에 두 번 나온다. 모두가 음력 5월 14일이다. 다만 출생연도가 정확하지 않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를 보면, 1902년으로 되어 있는데, 1955년 7월 3일 메모를 보면, “금일 주일 아(我) 생일인데 갈산교회당 골방에서 시편 83:1-89:12까지 봉독함. 완례씨도 내(來)함. 4288년 5월 14일 황우재, 이정자, 암(임?)정례, 집사님들도 내(來)함. 아(我) 출생(出生) 52년 주이다.”고 적고 있다. 1955년이 52주년이라면, 1903년생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적은 글일지라도 착각이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902년생인지, 1903년생인지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

김은석 목사는 매년 한 차례 이상씩, 때로는 자택에서, 때로는 타지에서, 병이 들어 앓아눕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1958년 10월 13일에는 부산침례회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다. 김완례 사모도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김은석 목사는 사모의 병약함이

심령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심한 말까지 적고 있다. 사모의 불평과 불만생활에 화가 나서 쓴 말이다. 그러나 사모의 불만불평에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 년이면 대부분의 날들을 전도 집회며 성경연구집회로 타지에서 보내는 남편, 그것도 먹고살기가 지극히 곤란했던 1950년대, 끼니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역자들을 떼거리로 몰고 들어오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 어찌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 김은석 목사는 하나님의 일과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의 1957년 8월 26일(월)자 메모를 보면 당시의 곤란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57년 8월 26일(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1:1-2:9까지 봉독함. 어젯밤 고린도전서 7장 3절대로 지내었고, 편지를 받은 최춘선,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태일러, 박은병씨가 온 것이었다. 집이 민망함은 완례씨가 항상 불만생활을 함입니다. 심영(령)병이 있음으로 육신병이 임함. 오전 9시 48분경에 고린도전서 3:9-4장말까지 봉독하는 중 내가 크게 각성을 가지게 된 것은 4장 9절과 4장 11절 이하 바울이 경천애인 생활한 것을 보고 위안 받음.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5-6장까지 봉독함. 김은영, 최근수, 이신, 김윤구, 김영애, 고광석, 임운년, 7남매가 다녀가심. 최근수, 김은영은 혼인사로, 이신은 목포 강사로.

여기서 “고린도전서 7장 3절대로 지내었고”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는 성경 말씀대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뜻이다. 일 년의 대부분을 타지에서 보내는 만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집이 민망함은 완례씨가 항상 불만생활을 함입니다.”는 몰려오는 동역자들을 어찌 대접할 것인가라는 현실문제로 김완례 사모가 화를 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은석 목사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와 4장 11절의 말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

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치가 없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사도 바울의 것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라는 고백은 자신과 가족의 처지뿐 아니라, 동역자들의 처지가 어떠했는가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김은석 목사의 8월 26일(월)자 김완례 사모에 대한 비난은 이보다 4일전에 꾸 꿈과도 전혀 무관치 않는 듯싶다. 1957년 8월 22일(목) 메모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꿈을 꾸었다. 그 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밤 몽사에는 안해(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에 갔다고 하며 가정물건도 가지고 갔다며 성철이 섭섭함을 보다 나도 기분이 상함을 지내었음.” 이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채 험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전도자 김은석 목사의 심리적 불안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는가 싶다. 이 꿈을 꾸기 하루 전인 1957년 8월 21일(수)만 해도 아침에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교회에서 사도행전 26-28장까지를 봉독하면서 “계시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로마서 4장을 봉독하고 있다. “계시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와는 상관없이 가정문제, 경제문제, 교회문제, 핍박과 비난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세를 높여 김은석 목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갈등과 고민을 우리는 1954년 7월 24일자 메모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성경을 봉독 중 들이난(들리는) 말리(말이) 나올(나를) 거짓 선지자라는 말과 나를 불신용자(不信用者)은(나를 신용하지 못하는 자는) 말만타(말이 많다?) 그런 고로 어이할까.” 또 1957년 8월 23일(금)자 메모에서는 “저녁집회는 기독교장로회 전도자 지(池)씨가 합석하였는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책잡으려는 주의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각 교회 분위 형편은 대체가 그러하다.” 1957년 8월 23일(금)자 메모는 사모에 대한 불안한 꿈을 꾸 다음 날의 일이었다. 그가 유명세를 탈수록 그를 비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 외부의 비난과 핍박과 내부의 이단과 분열과 갈등과 가난함과 곤고함과 괴로움이 늘 있어 왔다. 그 길을 예수님이 걸었고, 바울 사도가 걸었으며,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도 걸었던 것이다. 김은석 목사에게도 갈등과 시련

은 언제나 있었고, 그 때마다 성경봉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곤 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는 1950년대의 물가지수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록들이 있다. 그가 지불한 몇 가지 비용들을 보면, 이발료 120환, 안경 3,200환, 모자 80환, 냉면1기 2백환, 배표 300환, 부강에서 서정리(평택)까지 열차표 890환이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가 자주 탔던 열차들에는 경부선 5, 6, 14열 급행열차, 호남선 33, 34열차, 전라선 태극호 601열차, 통근차가 있었고, 버스로는 금성버스와 계룡버스 등이 있었다.

2. 신약성경교회들의 개척자

김은석 목사의 충실한 동역자들은 목사 이신(13회), 김재순(24회), 전도사 김명석(26회), 김은영(22회), 고광석(12회), 임남규(10회), 전도희(23회), 자매 강신규(26회), 이혜순(9회), 김숙명(12회), 박종예 등이었다. 이들은 김은석 목사의 동역자들일 뿐 아니라, 순회여행을 함께 한 동행자들이기도 하였다. 이름 옆의 가로 속 횡수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이름이 적힌 빈도수이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 적힌 목회자, 전도사, 장로, 집사, 성도들의 이름만 하여도 220여명이나 된다. 메모에 적힌 사람들은 아래에 나열한 명단보다 실제로는 더 많다. 편집자가 빠뜨리고 옮겨 적지 못한 이름들도 꽤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명단은 주소록 명단과 통신 명단과는 별개의 것이다.

강만수 강순임 강신규 강월선 고광석 고동주 광형도 권영숙
 권종철 귀제원 김경수 김경열 김광우 김교인 김규상 김기주 김남산
 김녹기 김대석 김도철 김동국 김동열 김만석 김명석 김명순 김봉구
 김봉섭 김삼용 김상열 김상욱 김선원 김성철 김숙명 김순식 김영애
 김영환 김오봉 김 완 김완례 김윤구 김은영 김일례 김일순 김일제
 김재수 김재순 김정만 김주한 김준수 김준철 김창수 김천금 김철길
 김철봉 김철성 김태규 김태달 김태수 김태열 김향자 김호민 김홍석
 김확실 나연찬 노광수 노의수 노이석 도주일 도화당 마은정 목고환

문광예 문대연 문옥자 문원섭 박근영 박기서 박병우 박상호 박순애
 박승호 박신상 박신애 박옥순 박용기 박유선 박은병 박인순 박자매
 박전도 박집상 박정업 박중승 박중식 박중예 박진식 박치환 배문순
 배운순 백전순 백정순 서석용 석중한 설하운 성소녀 송석희 송안성
 신상득 신숙길 신영두 신정철 안명수 안영천 안혜옥 오연홍 우정예
 원교선 원용숙 유재춘 윤근오 윤묘중 윤양춘 윤옥동 윤일상 윤철호
 이경남 이공남 이기철 이명근 이문구 이복동 이성하 이숙준 이순애
 이 신 이원노 이원화 이은우 이은희 이재균 이재천 이정자 이종만
 이종원 이종철 이학재 이한상 이혜순 이홍식 임남규 임미라 임은년
 임현건 임혜숙 전대현 전도희 전봉상 전상규 전현동 전현재 정곡간
 정귀남 정매실 정옥순 정유순 정찬성 정희건 조국형 조규석 조대식
 조봉순 조장환 조종화 조태국 주관보 주기현 주명삼 주안성 지철휘
 진성구 진이삭 진중운 진중열 천세영 천정희 최근수 최길수 최병록
 최병수 최성대 최성례 최성운 최순국 최영식 최영임 최요열 최요한
 최일복 최장석 최재호 최재화 최정순 최정택 최춘선 최한주 태일러
 한명희 한미자 한정석 한홍석 홍기형 홍사운 황순홍 황하주 황현옥

김은석 목사가 개입한 교회들은 80여개 교회들에 이른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지만, 타 교단의 교회들도 섞여 있다. 타 교단들의 교회 방문은 대개가 부흥회 인도 때문이었다. 김은석 목사의 주 활동무대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도였다. 이곳에 그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백일집중성경연구회'를 주도한 지역들도 이들 지역이었다. 이 기간 김은석 목사는 제자양육을 위해서 집을 떠나 이들 지역들에 장기간 머물렀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엘 다녀오지 않았다. 김은석 목사는 이들 기간에 지역교회들을 순방하며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인근에 가정교회들을 세웠으며, 목회자를 임명하여 세웠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키워 임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적인 활동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바울과 동일한 수고를 남녀 동역자들과 함께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가 관여하였거나 방문한 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교단의 명칭이 따로 없을 경우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다.

경기도 서정리(평택) 교회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1구 1통 30반 천막교회

- 경남 진주 칠암동 318 교회(김은석 목사 동생 김경원 목사 시무)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
경남 함양군 안의면 안의 교회
경북 금릉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¹³⁾
경북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
경북 대구시 동인동 교회
경북 청도군 금천면 명포교회
서울 마포구 아현동 교회
서울 이태원 교회(순복음, 최요열목사)
서울시 도원동 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4번지 70호 성결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평동 16의 23호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서울시 성동구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서울시 중구 도동 2가 5번 그리스도의회 대한 감리회 감남교회
양동교회(?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
전남 강진군 작천면 작천 교회
전남 강진읍 기룡리 용동 교회
전남 광주 남구 사동 22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광산동 80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금동 46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목포 유달 교회 (편집자 주: 최요한 목사가 개척한 순복음교회
였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가 이 교회에 있었음)
전남 목포시 죽교동 사구 동 399번지 교회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 (김완례 사모의 질녀 내외 시
무)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교회
전남 순천 오순절교회
전남 영광읍 교회
전남 영광읍 도동리 교회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 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촌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
전남 해남 송지면 매화리 교회
전남 해남군 백호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교회

13) 편집자 주: 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씨가 설립)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도림리 김응임 노부인 댁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 윤철호씨 댁 동리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화랑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황당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교회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최정택 형제 예배처소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교회
 충남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대전시 반암동 교회
 충남 대전시 신탄진 교회 석봉리 집회소
 충남 대전시 판암동 교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하리 교회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교회(현 교역자회)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교회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칠미부락 교회
 충남 연기군 동면 월산동 활골교회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교회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면 수리 교회
 충북 증원군(충주시)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정유순 자매 집 교회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
 충북 청원군 복이면 송정교회
 충북 청원군 복이면 송정리 새테말 교회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교회
 충북 충주시 영운동 교회
 충북 충주시 동양면 조동 교회
 충북 충주군 소태면 복탄리 교회
 형성교회
 화동교회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를 보면, 일 년의 대부분을 교회순회와 성경연구집회를 위해서 타지에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행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정확하게 부흥회의 일로 나갔는지, 성경연구집회의 일로 나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이 해마다 지역을 바뀌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김은석 목사가 메모에서 분명하게 집회의 성격을 밝힌 경우들이다. 이들 집회들의 경우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씩 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54년 5월 14일 부강교회에서 일일 성경학을 마치고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 방문차로 가는 중 강신규, 임혜숙 두 자매와 같이 동행하였다.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 (최요한 목사 시무, 순복음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이밖에도 부흥회 인도를 언급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최용호 목사의 박정자 사모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가 지방에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수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1953년 8월초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연합성경사경회를 9월 15일까지 개최하다.

1953년 9월 중하순에 전남 순천시 영동 5번지 오순절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2월 중순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3월 초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황당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6월 초에 대구 동인동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5년 6월 말에 서울 성경신학원 부흥회 인도하다.

1956년 4월 하순에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6년 11월 중순 경북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7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목포성경연구소에서 전남 전도자 수양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최되다.

3.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박점상 목사에 의하면, 1946년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시작되었다. 김은석은 부강에서 병원을 개업한 신현창 장로와 더불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설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처음에 '경천학'이라 불렀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로 신화신학으로 개명되었다.¹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초기에 공부했던 목회자들은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김동열, 이원노 등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55년 4월 12일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소수교회당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 참석하여 당일 4시까지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유경희, 곡봉예, 전도희, 최옥순, 이혜순, 정희순, 김옥희"(이상 여자), "이원노, 박장봉, 차대훈, 나연찬, 김명석, 김웅석"(이상 남자)이었다. 김은석의 성경통독 메모에 의하면, 성경연구집회들에 참석한 인원이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에 달했다.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이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며, 이신(이만수)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회에서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한 목회자요 교수였다. 이처럼 수많은 인재들이

14)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10.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목회자와 교회개척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백일성경연구집회였다. 김은석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면, 일일, 열흘, 한 달 혹은 한 달 반 등 제한 없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백일집회를 선호하였다. 그가 1945년 가을 부강 오대골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일집회였다. 이런 집회가 일 년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년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 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1953년 8월초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연합성경사경회를 9월 15일까지 개최하다.

(2)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¹⁵⁾

(3)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4)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공부하는 기간에 봉독함.¹⁶⁾

(5) 1957년 8월 31일(토)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¹⁷⁾

이밖에도 1955년 10월 15일부터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연말까지 성경공부가 있었다. 김규상 목사의 증언에

15) 유달 교회는 최요한 목사가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무렵에 이적하여 세운 순복음교회였다.

16) 이것은 1957년 3월 6일 수요일 메모로써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17) 최요한 목사는 8월과 9월에 이 목포에서 속개된 성경연구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키로 마음을 확정하고 목포시 대안동 11번지 자택에서 9월 말부터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여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담임하던 목포 복음교회는 10월 5일 정식으로 사임하였다.

의하면, 1951년경 영광에서 100일 집회가 개최되었다.

둘째, 이동 신학교였다. 김은석은 이신과 같은 동료들과 더불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장소들은 부강, 광주, 목포, 해남, 함평, 부여, 오창, 괴산, 충주, 대구 등지였다.

(1)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광주에서 있었다. 이때 교수는 김은석, 이신, 창현 함태영 등이었다.

(2) 1952년에 광주에서 운영되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이신이 시무하던 부여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합송은 이흥식이 1950년 3월 19일 개척하였고,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 제1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10월까지 시무하였다.

(3) 1953년 8월초에서 9월 15일까지 개최된 연합성경사경회는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집회소에서 열렸다.

(4) 1954년 5월 25일에 백호리 교회에서... 공부하였다.¹⁸⁾

(5) 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김은석은 10일간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6) 1954년 6월 14일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던 목포 유달 순복음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운영되었다.

(7)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인도되었다.

(8) 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1월까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과 청학동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있었다.

(9)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와 9월 17일부터 시작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에서 인도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성경통독강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8) 이 메모는 전남 해남군에서 성경연구집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 1954년 4월 21일(수)... 모여든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5-6장 공부함.

(2) 1954년 4월 23일(금)... 저녁에 부강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공부 오신 분들과 같이 돌려 봉독하여 사도행전 8장 공부함.

(3) 1954년 4월 30일(금)... 명(明) 5월 1일부터는 에스겔을 공부하기로 함.

(4) 1955년 4월 16일(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2월 25일부터 시작한 백일집회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바 4월 16일은 수십 명이 공부하였다.

(5) 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 의하면,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서는 로마서를 공부하였다.

(6) 1955년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김은석 목사의 학업방식은 성경통독강의였다. 백일성경연구와 집중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김은석 목사는 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서 “금(今)번 이 공부 중에는 천신만고에 난관이 있었다.”고 적고 있고, 동년 10월 20일(목)자 메모에서는 “의외(意外)에 이 신생동에 성경 공부한다는 시작이 되어 일기가 치귀서(차가서) 고생이다.”고 하였다. 신생동이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을 말하며, 12월 16일(금)자 메모에서는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었습).”이라고 적었다. 김은석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고충은 대개가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또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데서 오는 가족들의 불만이였다.

넷째, 성령 충만함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에서 보듯이 김은석 목사 사역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그 당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봉례 집사, 김규상(목사), 김교인 장로, 윤정렬 사모, 김철수(목사), 오연우 장로, 전도희 집사, 황 집사, 김복수 집사와 그의 딸 김은영, 박오덕, 장 집사,

전도 부인 민명옥 등 70여 명으로 추산된다.”¹⁹⁾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철수, 김복수는 김교인 장로의 자녀들이고, 구봉례 집사는 김규상의 모친이다. 여기서만 목회자가 세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김규상 목사, 김철수 목사, 전도회 전도사이다. 김교인 장로의 또 다른 두 아들인 김재순과 김태수도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되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장주열과 최요한도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였다.²⁰⁾ 김규상은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100일 집회에 참석하여 김동열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동년에 16살의 나이로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한다. 이신도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 때 피난생활을 하던 중 1951년 김은석이 인도하는 광주집회에 참석하여 김은석의 성령 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²¹⁾

다섯 번째 특징은 전도실습이었다. 1955년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 때인 5월의 성경통독메모를 보면,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고, 27일 금요일에는 동리에 나가서 축호전도를 하였다.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는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 가게한 후에 본인도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최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4.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김은석 목사의 박애(博愛) 정신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많다. 그의 성경통독메모들을 통해서 김은석 목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 특히 교회와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경비를 써가며 동분서주하는

19) 앞의 책, 307.

20) 앞의 책, 315.

21) 앞의 책, 320-22; 조동호, 『환원 운동사』, 483.

모습을 볼 수 있다.

첫째, 김은석牧사는 1957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육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종만 목사가 운영하던 인천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오양군, 김규제, 김규성 세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고 있다. 3월 23일 토요일 아침에 수원 동생네 집에 들러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인 후 오후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김은석 목사는 수시로 충남 부여군 합송리 구애보육원, 판암동 애생원, 인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인천시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청주시 영운동 박인회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둘째, 김은석 목사는 1955년 7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충북 청주 예배당 구입 문제로 이한상 형제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선교부에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 일도 하루에 처리하지 못하고 오던 길 밤에 천안에 있는 황해여인숙에서 하루 밤을 보내게 된다.

셋째, 김은석 목사는 1956년 7월 10일 화요일 새벽 2시경에 대전 은행동 자택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봉독한 후에 새벽 4시 31분발 서울행 제6열 급행열차를 타고 선교부에 가고 있다. 선교부 방문의 목적은 김명석 전도사 부인²²⁾에게 급하게 도와야 할 일이 생겨서 도와줄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뿐만 아니라, 가좌교회의 일과 또 다른 일들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1955년 12월 27일자 메모에서 김은석 목사는 가좌교회를 “핍박이 심한 개척이다.”라고 적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처지의 개척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은석 목사는 가좌교회에서 힘겹게 분투하는 전도회 전도사를 자주 위로 방문하였고, 여러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성경연구집회를 갖곤 하였다. 또 김은석 목사는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하게 한 후에 본인은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척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월요일 그곳을 떠날 때, 느낀 점을 이렇게 적고 있다.

22) 김성철 목사의 생부 생모.

“오늘 하의에서 떠날 때 임혜숙 자매에 외로와함 보면서 동정심이 심하였다.” 주의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의 일꾼들,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김은석 목사는 깊은 동정심을 가졌던 것 같다. 공부할 때나 전도할 때나 항상 그의 곁에는 남성 동역자들과 제자들에 못지않게 헌신적인 많은 여성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넷째, 김은석 목사는 병석에 누운 동역자들을 찾아 위문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1955년 8월 16일자에는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와 판암동 애생원을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 김완례 사모 등과 함께 위로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석 목사는 자주 병이 나는 김완례 사모의 병간호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김은석 목사는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김은석 목사가 개척하여 섬겼던 북강 그리스도의 교회당 내부 모습
1961년 8월 17일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제3장 떠돌이 전도인 김은석과 성경책

1. 떠돌이 전도인 김은석 목사



2009년 10월경 미국을 방문한 장성우 목사에게 김성철 목사가 김은석 목사의 동안액자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 액자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루션 밸리(Lucerne Valley)의 바위산 언덕 아래 미션 비전 크리스천 센터(Mission vision christian center)에 소장되어 있다.

김은석 목사는 일생을 떠돌이 전도인으로 보냈다. 그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생각난 구절이 창세기 47장 9절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삶이 짧고 험난하긴 하였지만, 선배들이 살아온 풍상의 세월과 헌신과 희생의 세월에 비하면, 심히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은석 목사는 1902년 황해도 평산군 단구리 출생으로 16살에 결혼하였으나 다섯 살 연상의 부인이 우울증으로 살림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집안이 몰락하였다. 중국에서 신학을 하고 재혼도 하였지만, 세 살배기 아들과 부인이 모두 죽었다. 다시 떠돌다가 일본에서

전도부인이었던 김완례를 만나 세 번째로 결혼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명순과 성철을 각각 입양하여 키웠으나 김은석 목사는 떠돌이 전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두 곤궁했던 일제시대와 6.25동란과 1950년대를 힘들고 고독하게 보냈다. 이 시대의 가장들은 집을 나가 변변찮은 돈벌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인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살림을 꾸려나가기에 했다.

김은석은 본래 장로교 목사였다. 일본에서 귀국한 것은 1945년 해방직전이었다. 1945년 가을에 충청북도 부강에 내려가 장로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중, 이듬해 1946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이후 16년 동안 김은석 목사는 비교파운동과 침수세례와 매주 성만찬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을 펼쳤다. 그의 활기찬 활동으로 충청도, 전라도, 서울, 경기도 지역에 무려 80여개가 넘는 교회들이 세워졌다. 양자인 김성철 목사의 글에 의하면, 김은석 목사는 늘 교회 일로 집을 비우고 지방에서 살다시피 하여 집에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다녀갔다고 한다. 이것은 김은석 목사가 남긴 성경통독 일일메모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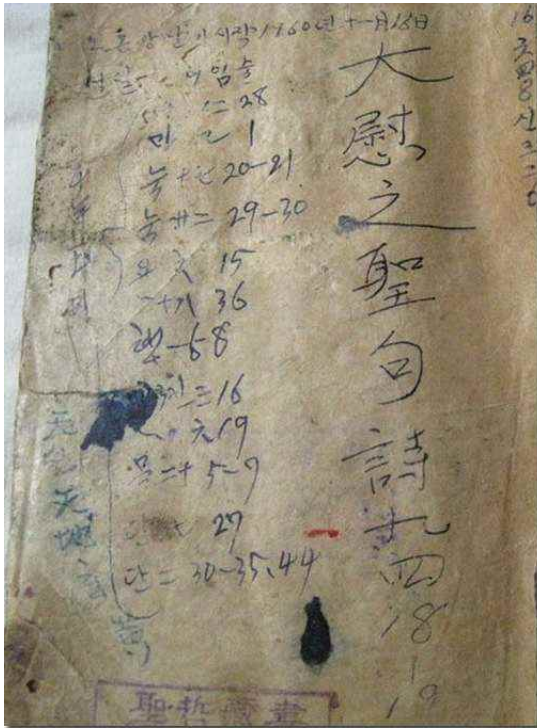
2009년 10월경 미국을 방문한 장성우 목사에게 김성철 목사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목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루션 밸리(Lucerne valley)의 바위산 언덕 아래 미션 비전 크리스천 센터(Mission vision christian center)에 소장되어 있다.

김은석 목사는 만 61세를 일기(一期)로 1963년 1월 소천 하셨다.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밤 10시가 넘어서 쥘고 구마와 날고구마를 먹고 복

통을 일으켜 앓다가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3년 전에 받은 위 수술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하였다. 그때 양아들 김성철은 군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약혼자의 전보를 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통보해 주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난 뒤에야 편지를 받고 특별휴가를 얻어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갔을 때, 비로소 김은석 목사의 유언과 유품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김은석 목사는 양아들 성철이 자신의 대를 이어 꼭 목사가 되길 바랐다. 그것이 유언이었다. 유품은 낡은 가방하나였는데, 그 초라한 가방 속에는 구리돈과 납돈 몇 푼과 낡고 허름한 성경책 한 권만이 달랑 들어 있었다. 그의 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鮮漢文) 관주 성경책으로써 너털너털해져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성경을 읍기와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께매어 성경의 일부처럼 만들었으며, 많은 낙서들을 남겨 놓았다.

2. 성경낙서를 통해서 본 김은석 목사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그의 손에서 떠난 지 46년 9개월여 만에 필자가 운영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로 오게 되었다. 그의 성경책은 온통 낙서투성이다. 가죽커버를 열면, 첫 페이지에 ‘大慰之聖句 詩 九四 18-19’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다. 가장 크게 위로를 받는 성경말씀이 시편 94편 18-19절이란 뜻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150편 끝 여백에 남긴 메모에서 시편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1954년 7월 25일 주일에 본 시편 94편 9-150편까지 봉독하며 은혜받음 할렐루야 성도의 노래 이 시편을 이와갓치 부족한 자 깃뿔으로 봉독함은 진실노 주님의 은혜로다.”



김은석 목사가 성경학에 삼입한 간지에 쓴 자필 메모. '대위지성구 시 94편 18-19절'라고 썼다. 이 말은 가장 크게 위로를 받는 성구가 시편 94편 18-19절이란 뜻이다.

김은석 목사는 요한 계시록을 자주 읽었다. 천년왕국에 관련된 성구를 적어놓은 것을 보면, 그가 전천년설을 믿었던 것 같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로써 삶이 피곤하고 곤궁했던 시절에는 대부분 이 전천년설이 유행하였다.

헌금(왕하 12:14-15, 22:7)과 헌물(출 36:3-7)과 헌납물(대상 29:8-14)에 대한 성구도 적어두었다. 특히 헌금은 계수하지 않는다고 적어 놓

았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볼 때, 김은석 목사는 사례금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았으며, 헌금과 헌물은 풍족하고 넘치게 하되,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쳤을 것으로 보인다.

구약성경목록이 적힌 곳에 종(縱)으로 "1917년에 중국에서 느진비 성신이 임하여 참 예수교회 났다났쌌."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1917년은 김은석 목사가 첫 부인을 맞이했던 때이다.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1917년 중국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아래 산동성 출신의 장로교회 집사들이었던 장빈(안식일준수 주장), 은파(침수세례 주장), 장 바나바(방언은사 주장) 세 사람이 창설한 '참예수교회'(진야소교회)를 두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김은석 목사가 참예수교회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참예수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영

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예 수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달리, 제칠 안식일(토요일) 준수와 방언 말함을 성령세례 받은 것으로 각별히 강조한다는 점을 빼 나며 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과 침례와 매주 성만찬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비슷하다는 점이다.²³⁾ 특히 김은석 목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정통보수주의 견해와는 달리 성령체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점에서 낮은 비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참예수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는 1961년 5월 28일 새벽에 꿈 중에서 신명기 4장 8, 31절의 말씀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

김은석 목사가 제칠 안식일 준수를 주장했거나 그날을 지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의 기록들은 그가 주일을 철저히 지켰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 목사는 교황의 호칭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Vicarius Filii Dei)를 666으로 믿었던 것 같고, 천주교가 “십계명을 꺾은 사실. 요리강령 28 페이지에 참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한 것. 364년 7월에 나오데게아 총회에서 선언함, 천주교 대요리 문답 제2편 81-83페이지 참고, 개신교에서도 1554년 일요일을 안식일로 변함. 넷째 계명이 인침 받는 것이다.”고 적은 것을 보면, 잠시나마 참예수교회의 안식일준수 주장에 공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밖에도 ‘혼인에 관계한 일,’ ‘1955년에 전도한 사람들,’ ‘교회 명칭을 명시함,’ ‘성경연구회 참가자 명단,’ ‘별세자 명단,’ 수많은 교회 주소를 각 도별로 적어놓고 있다.

3.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김은석 목사는 일 년 365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자신의 교회와 집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집에서도 읽었고, 여행 중에 버스와 기차 안에서

23) 자료: http://tjc.or.kr/our_believes.

읽었으며, 식사 중에 대중식당에서도 읽었고, 역전에서도 읽었으며, 병석에서도 그날 분량을 반드시 읽었다. 다만 1954, 56, 57년 주일에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욱기를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매 장마다 언제 어디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메모해 놓았다. 여기서는 창세기 한 곳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김은석 목사는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빈 공간에 “‘하나님’이란 말 씀이 총 209회 있다”고 적었다. 그는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체크했던 것이다. 그는 또 “1954년 1월 17일 주일에 평택(?) 역전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봉독한 창세기를 다 봉독하였다. 봉독한 장소는 역전광장이었다.”고 적고 있다. 또 그 옆에는 “출애굽서를 봉독하기 시작함.”이라고 적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는 그 해에 신구약성경 전체를 9월 26일 새벽 3시경에, 전남 광주 사동 다리 밑 자신의 누이 금인의 집에서, 269일 만에 완독을 마쳤다.

김은석 목사의 창세기 통독을 자세히 살펴보면, 1955년, 56년, 57년에 각각 읽고 있는데, 55년에는 1월과 11-12월까지 읽고 있고, 56년과 57년에는 각각 1월에 읽고 있다. 55년에는 매일 아침 한 장씩을, 56년에는 힘닿는 대로 많이, 57년에는 하루 세장씩을 읽고 있다. 1955년 1월의 경우를 보면, 논산 충곡리 교회에서, 부여 합송리 교회에서, 광주 광산동 80번지 집회소 등지에서 주일을 빼 매일 2장씩을 읽고 있다. 1955년 11월의 경우를 보면, 1955년 11월 2일(수) 시작하여 하루 한 장씩 읽은 후 12월 28일(수)에 끝을 내고 있다. 11월 첫 주에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다시 석성리의 교회들을 돌면서 한 장씩 읽었고, 둘째 주에는 광주 김재순 목사 댁, 대전 자택, 충북 부강교회, 문암리 교회, 충주읍 제일 감리교회에서 각각 한 장씩 읽었으며, 셋째 주 주일에는 충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어서,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각각 읽었고, 충주시 성남동과 호암리 도장골 성도의 집에서, 대중식당에서 조식 중에, 충주시 양성면 능곡리와 도장골 성도의 집에서 각각 한 장씩 읽었다. 넷째 주에는 충주 충인동과 소태면 북탄리의 성도의 집과 대전 자택에서, 청주시 영운동 성도의 집과

충주로 가는 길에서 각각 한 장씩 읽고 있고, 다섯 켤 주에는 충주시 동령면 조동리 교회 강단 뒤에서 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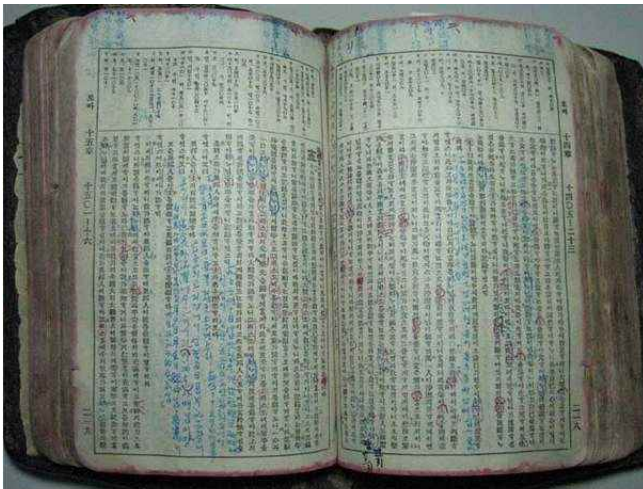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가 남긴 성경낙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떠돌이 전도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를 존경하였다. 1955년 12월 16일(금) 아침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창세기 40장을 읽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적고 있다.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엿슴). 금일 나는 대전을 향거(向去)할 것이다.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 그는 또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교회를 자주 들렀는데, 1955년 12월 27일 아침에 이 가좌교회에서 창세기 49장을 봉독한 후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곳은 전도회 자매님이 계심. 핏박이 심한 개척이다.” 환난당하는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처자가 있는 집에는 오다가다 혹은 병들어 오갈 곳이 없을 때만 잠시 들렀다. 김은석 목사는 수원에 계신 모친을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뵈었고, 자신의 부인의 이름에는 항상 ‘씨’를 붙여 존대하였다.



김완리케 사모와 힐 제인(Jane Hill) 사모

제4장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떠돌이 예언자적 삶의 추종자 김은석 목사

1. 김은석 목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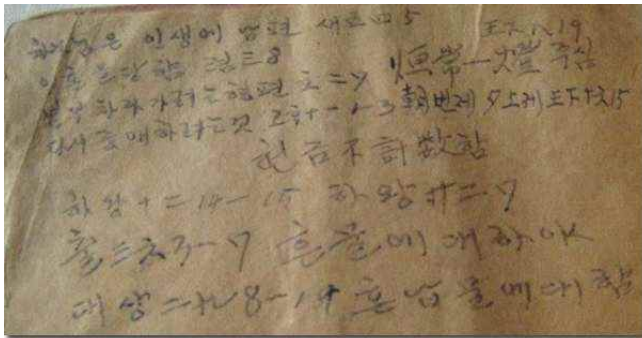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학원 관주 성경책으로서 너털너털해서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 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신앙성경을 록기와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꾸며매었다. 김은석 목사는 이 성경의 행간에 1953년 3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성경통독일지를 메모로 남겼다.

김은석 목사는 '하나님'이란 단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 빈도수를 209회로 체크했던 그는 출

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용빈도수를 112회로 체크하였고<성경 66권 전체에 쓰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란 단어에 동그라미 마크를 해놓았다>, 총 1134절로 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 이는 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김은석 목사가 성경통독에 자필로 쓴 '항상일등주심'과 '헌금불계수' 메모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

힘’이라 적고 있고, 헌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에는 한 가지 특이한 원칙이 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구약의 책은 장(章)의 순서대로 읽고, 신약의 책은 장(章)의 역순으로 끝장에서 시작하여 첫 장을 향해서 읽곤 하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언제나 이 원칙을 취하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를 통독했던 1955년 1-2월 중에서 대전 자택에 머문 날은 단 하루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광주 집회소(김재순)에 있다가 대전 선화동교회로 바로 갔고,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대보교회를²⁴⁾ 거쳐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수리교회(장천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6일을 머문 후에 대전의 집에 와서는 단 하루 밤만 지내고 다시 논산 증곡교회(안영천)로 옮겨 가서 5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전남 영광으로 떠나 그곳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1954년 2월 2일에도 해남군에서 영산포행 차를 기

24) 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씨가 설립.

다리는 중에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고, 1956년 1월 19일에는 목포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친 54, 55, 56, 57년의 시점이 모두 1-2월경이고, 57년만 부강교회이고, 나머지 세 번은 전남의 끝자락이어서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으로 여겨진다. 또 이런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김완례 사모와 명순, 성철 자녀들의 희생은 김은석 목사에 못지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은석 목사는 일 년이면 대부분의 날들을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순방하는데 할애하였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그토록 많았고, 집에도 잘 가지 못했을까? 교통은 물론이고 생활형편이 심히 어려웠던 당시에 타지에서 옷가지들의 세탁은 어떻게 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녔을까? 이런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가 성경에 남긴 메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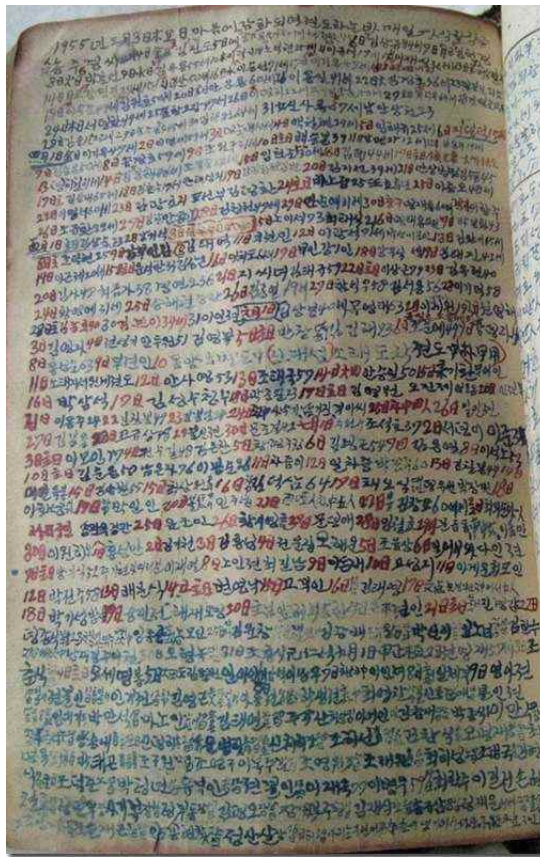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의 이동수단은 버스, 기차, 배 그리고 도보였고, 이렇게 자주 이동했던 것은 집회와 강의와 전도 때문이었다. 숙식은 교회주택이나 성도의 집에서 해결하였고, 세탁은 형편에 따라서 손수 하거나 맡겨서 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김은석 목사의 교회 순방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집회를 포함한 전도활동과 성경강의였을 것이다. 그의 메모는 주로 성경을 어느 장소 누구의 집에서 몇 장까지를 읽었는가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교회에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모친방문, 병석 등 특별한 경우들을 빼놓고서는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그의 설교나 강의를 더 많이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 최용호 목사의 박정자 사모는 처녀 때 이 일의 목격자로서 김은석 목사가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에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몇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실로 그는 존경받는 목사였던 것이다.

김은석 목사가 전도하는 날은 365일 매일이었다. “1955년 3월 3일 목요일 마음에 감화되어 전도하는바 매일 일인씩 할 작정”이라고 적고 이어서 한 페이지 촘촘하게 전도한 일자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고 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와 그



김은석 목사가 1955년 3월 3일(목) 마음에 감화되어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바로 실천에 옮긴 날짜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은 성경 속 메모지.

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가 남긴 성경의 한 페이지, 모세오경이 끝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의 빈 공간에 3월 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매일 일인 이상씩 전도하였다. 일일 단위로 전도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빼곡히 적고 있다. 그는 심지어 주일에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 마는 김은석 목사의 의지와 실천력은 가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10월 26일자에 더 이상 글씨를 쓸 공간이 없어

간의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공과(功過)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과(過)보다는 공(功)이 앞세워지게 된다.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크고 작은 실수가 없지 않다. 이 점은 김은석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대에까지 존경을 받는 것은 공(功)이 과(過)보다 크고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의 좋은 인간관계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많다. 먼저, 그가 관계한 혼인의 일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본국에서 60쌍, 총 70쌍이나 된다. 이들 중에는 지철희 목사(뱌엘교회에서 소천), 문원섭 목사(유성교회에서 은퇴), 김태수 목사(미국), 최요열 목사(조동호 목사의 소년시절 교회 담임목사), 김규상 목사, 박점상 목사, 최순국 목사(미국 시카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61세의 짧은 일생을 마친 김은석 목사로서 70쌍 이상의 혼인에 관계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김은석 목사가 1960년에 연하장을 보낸 곳은 개인 38명, 교회 31곳이었다. 당시는 형편이 곤궁한 때였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연하장을 보냈다. 그런 면에서 개인 38명과 교회 31곳은 결코 작지 아니한 숫자이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또 양녀 김명순의 결혼통첩을 개인 37명 교회 25곳에 보내고 있다. 연하장을 보낸 곳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름들도 꽤 발견되었다. 이뿐 아니라, 김은석 목사는 별세자들의 명단까지 적어두었는데, 여기에는 정찬성 목사(1957년 4월 25일), 김재순 목사(1958년 2월 26일), 강순명 목사(1959년 3월 12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이신 목사 부친(1954년 6월 16일)과 이종만 목사의 모친(1957년 8월 14일) 별세 일자까지 적어놓고 있다. 이것은 동료의 기일까지 챙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그의 전도사역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고 동역자들이 늘 곁에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서 분

투하였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의 다음의 글에서 발견된다.

1956년 1월 19일 아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진성구 장로 댁에서 출애굽기 37-40장 끝까지 봉독하였다. 그런데 이번 또한 출애굽 성경을 봉독하는 중 더욱 깨달은 것은 출애굽이 문제인 동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 치는 법과 장막 위에서 구름이 덮여서 떠오르고 덮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더욱 깨달은 점이다. 지금 교회들도 다만 한 가지 믿음만으로도 아니요, 사랑만으로도 아니요, 믿음으로써 구체적인 문제를 가르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7절에 나타난 말씀을 아울러 생각할 것이다. 진실로 이런 것을 누구보다 주님 사명을 받아진 교역자가 분명히 알고 가르치면서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47절의 내용은 이렇다. “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4. 김은석 목사의 성경강의 활동

1955년 5월 중에 있었던 메모를 보면, 그가 진행시켰을 법한 여러 일들, 곧 집회, 성경강의, 전도 가운데 한 가지인 성경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은석 목사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당에서 열고 있던 일백일 성경공부의 과정을 메모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8장부터 37장 끝에 적힌 메모를 살펴보면, 1955년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27일 금요일에는 동리에 나가서 축호전도를 하였다. 따라서 성경통독메모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김재순, 이신, 이재재, 전도희, 주명삼, 고광석, 권영수, 전도희 등은 김은석 목사와 만나서 신앙체험을 나눴거나 공부에 집중했던 이들로 보인다. 참고로 다음은 그가 빌립보서 끝장 여백에 남긴 글이다.

1956년 12월 13일 새벽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일어나 앉아 기도)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으로 서울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 난(드러난) 일리(일이) 있음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뉘에(생각하여) 작정(작성)하고 김재순 목사께 편지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야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 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빌립보서)를 보난 중 1장 27-2:1-2, 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갖치(같이)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갖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져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갓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야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었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택 객실에서 記(기록)함. 김은석 止(?끝).

김은석 목사는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이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지철휘(벤엘교회), 김교인(부강교회 장로), 임춘봉(한국성서신학교 교수, 교가작사자), 김용순(신탄진교회), 설하운, 최요열(조동호 목사의 소년시절 담임목사), 장주열, 최춘선(흔히 맨발의 전도자로 불리는 목사로 소천 전 30년간 맨발로 거리전도를 하였고 고아원 운영 등 많은 사회사업도 하였으며,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소천), 이종만(인천고아원), 김명석, 이신(미국 밴더빌트대 신학박사), 김정만, 김태수, 김동렬, 강순명(광주 천혜경로원) 등이었으며, 총 65명이었다. 또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 성경학이 개설된다는 것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을 총 54명과 6곳의 교회에 보내고 있다.

김은석 목사의 강의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된 침례와 매주 성만찬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교회명칭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있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간지에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놓고 있다.

교회명칭을 명시함

1. 광야교회라. 이는 구약시대(행 7:38)

2. 하나님의 교회라(행 20:28, 고전 1:2, 갈1:13, 고후 1:1)
3.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마 16:18)
4.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롬 16:16,
5. 하나님 교회라(고전 11:16)
6. 모든 성도의 교회(고전 14:33)
7.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딤후전 3:15)

이후에 나타난 교회말고도 만코만치만 이외는 지명을 따라 말한 것과 또 장소명에 따라서 있는데

一 아모개집에 있는 교회 예를 들면(문 1:2)

二 아모대 사람의 교회 예를 들면(살전 1:1, 살후 1:1)에 말씀 갖든 것인데 이를 드러라 말하자면 모도가 다 한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것인데 지금 이 교회명칭에 대하여 신중이 생각할 바 있는 이유는 지금 현세에 있어서 인위적이며 인본주의의 행동을 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갹주시고 사신 것이라고 행 20:28에 말삼되었고 고전 14:33에도 하나님은 어지로운 일에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한 일에 하나님이시라 하며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시다 하였스니 우리 모든 신도는 잇태에 교회를 좀 잘 신중이 생각할 것시다.

김은석 목사는 동일한 페이지의 공간에 두 단어를 각각 삽입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는 “心裂(심렬) 요엘 2:13”이고, 다른 단어는 “하나님 會堂(회당) 시 74:8”이다.

(을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시 74: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1) 영양지송신 1958년 5월 5일 발

최용환, 박치환, 지철휘, 박석주, 박삼예, 조규석, 모정오, 김교인, 장순옥, 임춘봉, 조주일, 이재우, 주관교, 임남규, 윤효순, 김일순, 최영택, 박종식, 박종승, 이공임, 염신이, 김용순, 윤금아, 이종균, 설하운, 최요열, 장주열, 이시우, 이진우, 이덕재, 최병록, 원경선, 최춘선, 이종만, 안영천, 김명석, 전도희, 강신규, 이혜순, 최덕임, 노의수, 전

현재, 박병우, 한순환, 이덕인, 김은영, 김순예, 한영희, 이 신, 김정만, 박은영, 주명삼, 이원노, 권영심, 송안성, 김은성, 김태수, 김호민, 김동열, 임현민, 안영숙, 강순명, 김확실, 신상오, 이순오 <이상 65명>.

2)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과 8월 1일로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 통신 보냄. 아래와 같이



주관보, 임춘봉, 영신교회, 김일순, 박삼예, 김교인, 모갑경, 박석주, 지철취, 김철수, 이종만, 이순도, 마명교회, 연화교(회), 박치환, 안영숙, 임남규, 김동열, 윤금아,

김은석 목사가 성경책에 삽입한 간지에 쓴 자필 메모. '교회 명칭을 명시함', '영양지송신 1958년 5월 5일 발',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과 8월 1일로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 통신 보냄' 및 '1960년 연하장 보냄'이란 제목과 수신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다.

김용순, 최영택, 윤효순, 박종승, 안영교(회), 장순옥, 이공임, 최용환, 한순환, 전현재, 김은영, 김순예, 이신, 이혜순, 최덕임, 김영희, 엄진섭, 신상호, 김영원, 이덕재, 이시우, 김영만, 박은병, 주명삼, 노은교, 양성교, 김은성, 김천금, 전도희, 천안교(회), 오광석, 김명석, 황골교(회), 박장봉, 최춘선, 최요열, 김금인, 한영희, 이덕인, 설하운, 박병후<이상 54명과 교회 6곳>.

3) 1960년 연하장 보냄

에리스(Ellis), 세갈키(Seggelki), 리(이)신, 라의도, 간호원 조이련, 진이삭, 최춘선, 최요한, 박은병, 김규상, 선화교(회), 고재권, 라시득, 강릉교(회), 신흥교(회), 영광교(회), 신생교(회), 서응배, 부강교(회),

신탄교(회), 논산교(회), 상월교(회), 연이교(회), 관암교(회), 이종만, 화강교(회), 평산교(회), 천안교(회), 황골교(회), 문암교(회), 양촌교(회), 황청교(회), 송정교(회), 소수교(회), 반능교(회), 노은교(회), 김경국, 소태교(회), 조동교(회), 심영선, 반골교(회), 이덕재, 인천교(회), 주관보, 작천교(회), 용동교(회), 연화교(회), 주문진교(회), 김의성, 안혜옥, 전종식, 박형진, 이흥환, 안명수, 정도선, 김영희, 전형제, 안영천, 오현팔, 임순형, 하래교(회), 박삼례, 장성만, 안홍렬, 이홍식, 김창, 문옥자, 강신열, 현순환<이상 개인 38명, 교회 31곳>.

4) 김명순, 안영표 결혼동침 보냄

주문진교(회), 강릉 홍대위, 강병천, 세갈키(Seggelki), 에리스(Ellis), 리히용, 임순형, 장성만, 오현팔, 조이전, 박오득, 이공임, 고현교(회), 김중현, 연정교(회), 영광교(회), 권태용, 조장환, 김일순, 방종승, 서일래, 임남규, 주관보, 연화교(회), 상월교(회), 작천교(회), 목포교(회), 박석주, 평산교(회), 신생교(회), 박삼례, 동리교(회), 신흥교(회), 학동교(회), 도리교(회), 충곡교(회), 신교교(회), 황골교(회), 충주교(회), 김대석, 양촌교(회), 이겨재, 원경선, 설하운, 고인환, 리홍식, 성낙소, 김은성, 잣말교(회), 김경수, 김의성, 송정교(회), 황천교(회), 최병옥, 가좌교(회), 태일라(Taylor), 조남철, 김윤석, 이종만, 천안교(회), 동막교(회), 최춘선<이상 개인 37명, 교회 25곳>

5) 혼인에 대한 관계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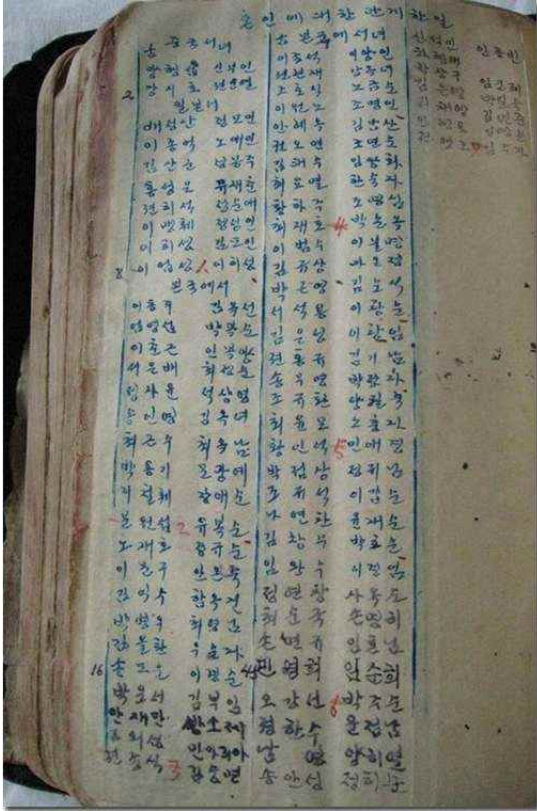
중국에서

양형섭 신부인, 장시호 전순열.

일본에서

배성산 정모인, 이종억 노애인, 김산군 정몽주, 홍성은 유재춘, 전히석 정순애, 이맹휘 정성인, 이희성 김모인, 이엽성 이희성.

본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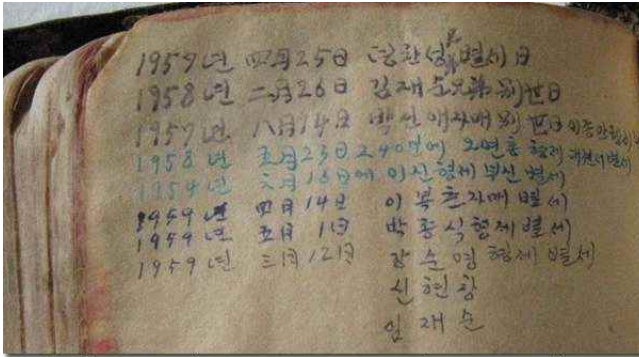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가 성경학제에 삽입한 간지에 쓴 자필 메모. 주례자로서 호인에 관계한 총 70쌍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본국에서 60쌍)의 신랑신부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동주 김옥선, 엄영
 섭 박복순, 이춘근 인복
 양, 서은배 최정순, 성
 사윤 석상영, 송인영 김
 옥녀, 최근수 최옥남,
 박용기 문광예, 지철혜
 장애순, 문원섭 유복순,
 노재호 정규순, 이문구
 안은숙, 김익수 함옥진,
 박병우 최영님, 김을환
 우순자, 송도운 이경순,
 박운서 김부임, 안재만
 방소제, 조의성 민마리
 아, 전종식 김승연, 이
 종석 이양인, 전현재 강
 옥녀, 조춘식 노금순,
 이원노 조명인, 안혜옥
 김남산, 권오연 조연순,
 김태수 임양화, 최요열
 한숙자, 황하주 조영심,
 최재호 박순옥, 이범수

이불명, 김규상 마은정, 박근영 김순식, 서석용 이창순, 김은성 이창
 임, 전흥규 김기남, 송무영 박정자, 조규환 양길숙, 최윤모 노충자,
 황인석 민애경, 박점상 정귀님, 조규석 이갑순, 나연찬 윤재순, 김창
 무 박효순, 임완수 이정임, 정연창 사옥순, 최순국 손영희(명희), 손연
 규 임훈님, 민영희 임순희, 오강선 박주순, 정한수 윤점남, 남영 양희
 열, 송안성 정희순, 신석인 임종빈, 차형태 (없음), 박상구 임군례, 김
 은영 박길숙, 리채영 김연준, 인영표 김명순, 권영조 김수자.

6) 별세자 명단



정찬성 목사 (1957년 4월 25일), 김재순 목사 (1958년 2월 26일), 강순명 목사 (1959년 3월 12일) 등의 별세자들의 기일을 적어놓고

김은석 목사가 성경책에 삽입한 간지에 자필로 쓴 별세자들의 명단 있다.



김은석 목사의 동역자들: 좌측부터 심영진 목사, 이신 목사, 고광석 목사

제5장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은 김은석 목사

1.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

김은석 목사는 성경말씀 그대로 추호(秋毫)도 가감(加減) 없이 그대로 실천하였다. 특히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와 제자들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추종하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삼고 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옛 언약 백성의 지상 이스라엘 나라 건립과 지상 가나안땅의 정복에 관한 말씀이다. 반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의 그리스도의 나라 건립과 하늘 가나안땅의 침노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들 책들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담고 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궁극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펼치고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펼치고 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침례의 그림자와 모형)를 건넌 옛 언약 백성은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지상 가나안땅)을 향하여 광야순례를 펼치고 있다. 반면에 세속을 버리고 침례를 받은 새 언약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하늘 가나안땅)을 향하여 교회순례를 펼치고 있다.

그 순례지가 광야이든 교회이든, 순례에는 필연적으로 배척이 수반된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환란과 핍박이 동반한다. 순례의 길은 모래밭길이요 자갈밭길이다. 순례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가 배척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일(눅 4:16-30),

수난 예고(눅 9:44-45),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신 일(눅 9:52), 그리고 므나 비유를(눅 19:11-27) 통해서 배척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

누가는 제자들의 공적활동도 배척으로 시작하고 있다(행 2:14-40).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며(행 7:59-8:1), 야고보는 순교 당했고(행 12:1-5), 제자들과 바울은 자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다(행 5:18; 12:5; 14:19; 16:22-24; 23:35). 그러나 이러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날로 확장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고(9:51-19:44), 사도행전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의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다(13-28장). 특히 누가는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유럽의 교회들을 순방한 후에 오순절에 맞추어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19:21-21:17). 예루살렘은 순례자가 목적하고 걷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한다. 비록 그곳에 간힘과 매 맞음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음을 누가는 리얼하게 설명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졌던 심정과 똑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의 아픔과 고난을 읽을 수 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 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 20:22-24).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말렸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지 말도록 말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말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고 단호하게 평안과 안일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 잡혀서 예수님처럼 다섯 번의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된 ‘성령’이란 용어의 사용 빈도수를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영’(Spirit)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19번, 요한복음에 17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27번, 사도행전에는 28번 쓰이고 있고, ‘성령’(Holy Spirit)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요한복음에 4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11번, 사도행전에는 41번이 쓰이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사도들(교회)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다.²⁵⁾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약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가 합쳐서 90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47회가 소개되고 있다. 전체의 52%를 상회하는 많은 숫자이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하는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눅 3:21-22),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9:28-29)고 기록하고 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생애 전에 금식기도(4:1), 병 고치신 후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

25) 김득중,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1), 287-290.

는 기도(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전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겐세마네 기도(22:41-46),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9-14)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²⁶⁾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해서도 누가는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기도장소는 주로 성전과 집에서 행하였다(행 2:1,46; 3:11; 5:12,21,42). 그들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맞디아를 뽑을 때(1:24), 성령을 대망할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10:3,9), 병자를 고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하), 지도자를 뽑아 인수할 때(6:6), 스테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다.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확실한 동질성은 쉽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었다. 이 두 가지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척당함과 천로역정(天路歷程)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자주 배척을 당한다. 그러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성애로의 순례를 멈추지 않는다. 배척을 극복하고 순례를 성공리에 마치는 힘은 쉽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함께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들에 속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개입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연속된다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누가는 하나님

26) 앞의 책, 264-287.

의 구원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힘을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보았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갖게 된 힘은 구름기둥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인들의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 누가는 인류에게 평강의 길을 열었던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모두 성령 충만했던 부모들의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이미 성령 충만한 모친의 태중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모태 때부터 성령 충만했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성령 충만한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왔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속된다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인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자들은 이렇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되었다.

사도행전이 제시한 과제는 이렇다. 바울이 예수님을 좇아 그분이 가신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좇아 밟았던 것처럼, 스테반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테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순례자의 길을 어렵다고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멈추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까지,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완주하자는 것이다.

2.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실천한 김은석 목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적될만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은석 목사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와 핵심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김은석 목사가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김은석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이 같은 분을 보았거나 만나본 적이 있는가? 필자를 포함해서 십중팔구 그 대답은 “없어요. 못 봤어요.”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였고, 쉼 없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성령 충만한 복음의 일꾼이었다. 따라서 김은석 목사는 기도 중에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자주 받았다. 그 사례들을 몇 개 열거해 보고자 한다.

1954년 4월 15일(목) 아침에는 부강 남산 절지 었던(절터였던) 곳 부속건물 집안에서 사무엘하 19장을 봉독함. 부강 남산 절은 교회당 있던 때 같이 지었던 것인데 내가 성신 감화되어 기도드리기를 예배당 위에(위해) 절 업해(없애?) 주십소서 하였더니 과연 허러(헐어) 바침이다.

1956년 3월 25일(일) 아침에 마음에 감화됨에 따라 사도행전 1:1-2:12까지를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주일 아침에 시편 52-62장까지 봉독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1955년 8월 25일 새벽 안의 교회 강단에서 잠언 22:22-24:21까지 봉독. 박태수 목(사) 요한복음 5:9-24까지 봉독함. 안의 이성하 씨 댁에서 아침에 잠언 24:22-26:27까지 봉독함. 오전에 안의면 후산(後山) 상(上) 제월당이라는 데서 잠언 26:1-31:31절까지 봉독함. 나의 주님은 나를 이와 같이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고 이 잠언의 오묘한 교훈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정에 전도서 1:1-8:17까지 봉독하면서 참 심히 깨닫는 것은 인생은 만사(萬事) 부지(不知)의 성신님에게?(판독 불가). 진실로 이상하도다. 지금 나는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교회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된 때인데 이 경남에 와서 함양군 안의면 상산 제월당이라는 정각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봉독하니 무궁한 인생 무지 무각을 보게 됨이라. 내가 이번 이곳을 온 것은 전연 내 마음이 한 일이 아닌데 나의 주님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나는 아지 못한다. 내가 금일 이곳을 떠나 통영으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든지 하려하였는데 김준철 집사 형제가 나를 보고자 한다 함으로 못 떠났는데 이성하 선생님은 대구를 가시었다. 내가 내일은 떠나겠는데 지금 마음은 통영으로 갈 것으로 되어 있음. 통영을 가려는 이유는 김명석 형제가 있는 곳 도산면 교회에서 지금 농촌에 좀 한가한 때니 집회를 좀 하고 가려는 마음인데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고 가려함이다.

김은석 목사는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헌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1956년 7월 18일(수) 아침은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교회당 간판 옆에서 사도행전 16:1-19:41까지 봉독함. 아침 식전과 식후도 읽다가 나가서 기도드리다가 사도행전 20장 1절로 23장 26절까지 수리교회당에서.

1956년 12월 13일 새벽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일어나 앉아 기도)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으로 서울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 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드러난) 일리(일이) 있습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思에(생각하여) 작당(작정)하고 김재순 목사께 편지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여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 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빌립보서)를 보난 중 1장 27:2:1-2, 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갖치(같이)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갖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져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갓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여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었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택 객실에서 記(기록)함. 김은석 止(?끝).

1957년 9월 7일(토, 추석명절) 아침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에서 전도하시는 윤 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5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 윤양춘씨 방에 계시면서 전도하시는 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데살로니가후서 3장까지 봉독함. 본 빌레몬서, 히브리서 4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하태 뒷산을 나가서 수 시간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만해천산을 바라보는바 하나님에 능력을 자랑하는

듯함을 보는 중 한배위가 이상하게 솟아남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 이름은 지실이라고 한답니다. 산에서 내려와 히브리서 5:7:7까지 봉독함. 산에서 본 옥명한 지실이란 바위를 보았다. 저녁에 노루먹이 심방하고 전도한 후 히브리서 7:8-10:23까지 봉독함.

1955년 11월 말 김은석 목사를 사로잡은 것은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서”란 말이였다. 김은석 목사는 자신을 비롯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동료들을 일컬어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 11월 28일(월)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서 1955년 11월 28일 월요일은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를 도착하는데, 강신규 자매님과 정옥순 자매님은 귀녀(貴女) 신실(信實)이를 업고 조동에 도착한 후에 교회당에서 기도드린 후에 주거소(住居所) 방에 입(入)하여 차(此) 에베소서 1장으로 5장까지 봉독하는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는 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주님의 은혜인데 이 에베소서는 각 장을 분해해 보면, 1장은 소망론, 2장은 중생통일론, 3장은 입신(入神)입천(入天)론, 4장은 하나를 이루는 론, 5장은 오묘한 도덕론, 6장은 마귀대적 훈계론이다. 이 에베소는 목 2장 1절에27) 말씀한대로 사랑 버렸다(버렸다)고 하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6장에는 마귀를 극 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심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하여 씌름하려하는데 우리는 경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군인이다. 전쟁군인은 무장을 허술이 못함. 참 성경의 말씀은 오묘한 것이다. 성경전체가 다 생명에 말씀으로 된 것이며 오묘한 것인바 에베소서 하나만도 넉넉히 영생론을 배우고 나갈 수 있다. 1955년 11월 28일 저녁에 조동교회 강신규 자매님 방에서 이상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

1955년 11월 30일(수) 아침에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창세기 27장을 봉독함. 신숙길(申淑吉) 형제 같이 있었다.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1955년 11월 30일 오후에 이 책을 봉독하는바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교회에 일꾼이라 하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의 말씀함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평안한 것이며, 주님 교회에서 참된 봉사자라고 하기에 어렵고 되레 죄송한 부족한 박운(薄雲?)과 같다 아니 할 수 없음이라. 강신규 자매와 같이 말함. 조동교회 주거대에서

27)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비록 여기에 열거한 사례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가 남긴 성경통독메모 전체가 김은석 목사의 순례와 기도와 성경통독과 집회와 성령 충만한 삶을 증언한다. 그러나 그 같은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요, 희생이요, 십자가요, 아픔이다. 그러나 김은석 목사는 그 같은 삶을 잘 참아냈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교회에 일꾼이라 하지만은 이 빌립 보서에 바울 사도의 말씀함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평안한 것이며, 주님 교회에서 참된 봉사자라고 하기에 어렵고 되레 죄송한 부족한 박운(薄雲?)과 같다 아니 할 수 없음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수고와 겸손이 우리에게 10퍼센트나 20퍼센트만 있거나 있었다라면,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을까를 그려보자 절로 숙연(肅然)해진다.



김은석 목사의 동역자들인 박점삼 목사와 김정만 목사(앞줄 중앙)가 이천 한나요양원에 계시신 김완호께 사모를 방문하였다. 양아들 김성철 목사(우측)와 그의 친구 김찬영 목사(좌측)도 함께하였다.

제6장 김은석 목사의 인생추수

1. 김은석 목사와 세상 즐거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겹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4-39).

위의 마태복음 10장 34-39절의 말씀은 인생의 추수에 관한 말씀이다. 가을걷이에서 알곡을 수확하듯이, 인생추수에서는 '자기 목숨'을 수확한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다. 참 목숨, 영원한 목숨을 수확한다. 이 목숨은 값비싼 진주나 보물처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므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팔아야 한다(마 13장). 여기서 다른 모든 가치는 자기 육신과 일가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현세의 것이요, 참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현세는 내세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모형은 참과 실체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 영원한 목숨을 수확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 김은석 목사는 참 자기 목숨을 수확하기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의 농장에서 헌신한 농부였다.

김은석 목사는 세상 즐거움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었다. 성경에 남긴 메모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의 행적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6년이나 된다. 일 년 365일 거의 매일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 그의 일상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고 교회순방을 위해서 기차타고, 버스타고, 배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교회당에서, 강단 앞에서, 강단 옆에서, 강단 뒤에서, 교회의 골방에서, 목회자의 방에서, 자택의 방에서, 다락방에서, 심방한 성도의 방에서, 식사하던 식당에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배에서, 정류장에서, 터미널에서, 누구와 있든지, 누구와 동행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향하든지 상관없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매일 그렇게 읽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반 전에, 조반 후에, 오후에, 늦은 밤에, 새벽에 읽었다.

170센티미터 이상의 흰칠한 키, 가름하고 잘 생긴 얼굴, 수심이 찬 듯하면서도 예리한 눈빛, 짧은 머리, 굵은 테 안경, 허름한 옷, 낡은 성경가방, 이것이 50대 중후반의 김은석 목사의 초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 사진을 찍어 남기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니, 실로 그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부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만을 귀하게 여기셨다.

김은석 목사는 사생활이 없었다. 일 년이면 거의 대부분을 남의 교회와 남의 집에 머물렀고, 그것조차도 동역자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그가 어쩌다 자택을 찾는 경우에도 동역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마 12:50)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김은석 목사도 함께한 주의 일꾼들이 그의 형제요 자매였다. 김은석 목사는 자기보다 어린 동역자들까지도 자주 ‘형’(兄)이라 썼고, ‘형제’라 호칭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김재순, 김명석, 이신, 최요한 등이 있었다. 진성구, 김교인 장로들을 호칭할 때는 항상 ‘남’를 붙여 썼다. 동역들이 여성인 경우에도 ‘남’자를 붙여, 박종예 자매님, 이원화 자매님, 전도희 자매님 하는 식으로 깎듯하게 불렀다.

2.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김은석 목사에게 세상일은 그다지 중요치 않았다. 그는 양아들 김성철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평소 세상 공부는 필요치 않다며 학교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김성철 목사가 충남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김성철의 친부인 김명석(김주일) 전도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김은석 목사를 일본에 있을 때부터 추종하였으므로 그 역시 처자식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39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비교삼상 2:29)는 말씀이 있다. 김은석 목사는 1955년 2월 25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백일 성경연구집회를 열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을 5월 27일에 강론하였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취해야할 가족에 관한 태도를 설교하는 김은석 목사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무게가 실렸으리라고 생각된다.

1954년 4월 첫 주말에 전남 교회(최요한 목사)를 다녀온 김은석 목사는 다음날인 4월 6일 화요일 아침에 사무엘상 9:9-12:25까지를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교회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었는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런 중에 특별한 일리 엿숨은 나는 금일부터는 가족을 아주 떠나는 것을 선언.” 또 같은 날 부강 교회로 옮겨서 저녁에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을 읽고는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다음 날인 7일 수요일에도 아침

부터 밤까지 사무엘상을 읽었다. 그리고 10일 토요일 주일예배 참석차 대전에 왔고, 주일인 11일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유호성 전도사에게 전임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 월요일 아침에 평소 습관대로 성경을 읽고 조반 후에 부강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부인 김완례 사모가 병이 났고, 병자를 두고 떠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 할 수 없이 그는 13일 화요일까지 남아서 병상을 지키다가 14일 수요일 부강으로 떠나고 있다. 그러나 김완례 사모의 병은 그 주간 내내 완쾌되지 못했고, 김은석 목사는 16일 금요일에 돌아와 병든 사모 곁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18일 주일을 지킨 후 19일 월요일에 대전시 은행동 2구 1번지 10통 41반으로 이사하였다. 대전 선화동 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구호물품의 잉여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짓고 시작한 자기 교회였다. 그러나 사임을 했으니 집을 비어줘야 했을 것이고, 사모는 이 갑작스런 결정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을 것이다.

이 사건이 있었던 1954년 4월은 김은석 목사의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이 기간에 그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고무되고 업(up)된 상태였으며, 성경을 읽는 시간도 아침에 국한되지 않고, 늦은 밤이나 한 밤중까지 계속되곤 하였다. 그러나 1958년까지의 행적을 볼 때, 그가 가족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부흥집회와 성경연구집회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었지, 가족을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쨌든 그의 출가선언은 가족에게 적지 아니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듯 김은석 목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은 물론 재산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희생적인 신앙인이었다.

3.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김은석 목사에게 설날과 추석 혹은 생일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그의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거나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명절을 맞는 일이 적어도 그의 성경 메모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1954년 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도 그는 집엘 가지 않고 교회를 예방하는 요무(要務)로 2일(화) 전남 해남군 성전시장에서 대전행 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산포행 차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다. 1955년은 1월 23일(일)부터 25일(화)까지가 설날이었는데 그는 22-23일(토-일)에 광주 집회소에 있었고, 24일 월요일 설날에서야 대전 선화동에 도착하여 25일까지 이틀 밤을 묵고, 26일(수)에는 다시 경북 금릉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씨가 설립)에 갔다가 27일(목)에 수리교회로 올라갔다. 1956년은 2월 11일(토)-13일(월)까지가 설날이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부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1957년에는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가 설날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부강교회당 골방에 머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다.

이토록 김은석 목사는 오로지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만큼은 반드시 지참하고 다녔다. 성경과 함께 먹고, 성경과 함께 자고, 성경과 동행하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1954년 4월 6일 저녁 11시경 근경에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까지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그는 일 년 삼백육십오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으며, 전국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집회를 열고 또 날짜를 정하여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쳤다. 특히 그는 일 년이면 몇 차례씩 일백일 또는 석 달 동안씩 집중적으로 성경연구집회를 열었다. 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0일간 부흥회 겸 성경공부를 인도하였으며, 1955년 2월 25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소수교회에서 일백일 신학공부를 열었고, 이 기간에 소수교회에 머물렀으며,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짜리 성경연구집회를 부강교회에서 열었으며, 김은석 목사는 이 기간 동안에 부강교회에 체류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기도의 용사였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강단 앞과 강단 옆과 강단 뒤에서 읽었던 만큼 기도를 곁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읽은 것은 기도를 곁하기 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는 가끔씩 금식 중에 성경을 읽었다. 1955년 3월 16일 수리교회에서, 19일 부강교회에서 금식 중에 성경을 읽고 있다.

김은석 목사의 삶은 하나님사랑, 인간사랑, 특히 인간의 영혼을 사랑한 삶이었다. 따라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었고, 인간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국 각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으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추구한 삶이었다. 그의 굵고 짧은 삶은 오늘 우리에게 “춘몽 같은 인생,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4. 김은석 목사가 기친 충격파

김은석 목사는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인 16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쳤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해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초기 교회에 큰 부흥을 만들어낸 것처럼, 1950년대 김은석 목사와 그를 작은 예수로 생각할 만큼 그를 신뢰하고 따랐던 그의 동료들이 해낸 수고와 헌신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80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공로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김은석 목사와 일부 추종자들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만큼 성경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컸다.

김은석 목사의 주일날 성경통독은 평일의 성경통독과 그 내용이 달랐다. 그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다른 책들(읍,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을 읽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책이 읍기서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4, 56, 57년에 주일마다 읍기를 읽고 있다. 이 읍기서 40장의 여백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1955년 4월 17일 주일 석양 5시후 소수교회 방에서 욕기 38:27-40:11 까지 봉독. 금일도 섭섭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김명석 형제 부인이 육적생활 불만으로 나를 원망한다 하며 또 김은성이는 활교회(교회활동)를 못가겠다는 뜻을 말함. 그 안해(아내)가 불만 언(言).

이 기록은 출가(出家)를 선언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끼친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가늠케 한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모들의 원망과 원성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의 양자인 김성철 목사도 그의 자서전에서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954년 4월 김은석 목사의 폭탄선언이 김완례 사모를 충격에 앓아눕게 만든 점 등은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김은석 목사를 추종했던 동료들 가운데는 남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꽤나 많았다. 이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에게는 여성 협력자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의 창립멤버인 자주옷감장사 루디아(행 16:14, 40),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수년을 함께 동역하며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천막제조업자 브리스길라(롬 16:3-4),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쓴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 뵈뵈(롬 16:1-2) 등이 있었다. 외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따르면, 아름답고 눈물겨운 전설과 미모를 지닌 테클라(Thecla)도 있었다. 이들 여성 동료들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동력이었다. 여성 동료들의 사역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란 점에 있어서는 김은석 목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가 꽤 많은 여성 동료들의 방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아마 그들은 김은석 목사의 집회와 성경연구회를 돕고, 성경토론에 참여했거나 식사와 세탁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의 잦은 접촉은 말 많은 사람들에게 루머의 빌미를 제공한다. 김은석 목사의 몸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과 희생으로 얻은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헤라클레스나 바울처럼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자

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불행하게도 말년에는 악성루머에 휩싸이게 되었다.

김은석 목사가 마태복음 통독을 마친 1956년 6월 22일은 마침 음력으로 5월 14일 곧 김은석 목사의 생일이었다. 이 날에 함께 한 사람들 가운데 '강신규'란 자매의 이름이 기록에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김은석 목사의 동행자로 등장하고 있다.

드러난 메모에 따르면, '강신규'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8월 16일이다. 이날 김은석 목사는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와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愛生園)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김옥여, 이원노, 김완례 사모와 함께 동행하였다. 강신규씨는 김완례 사모의 올케의 올케 또는 김은영 목사의 외숙모이며, 김은영 목사는 김완례 사모의 조카(올케의 아들)이다. 김완례 사모의 또 다른 질녀내외는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의 전도자였다(장우원, 김은순). 1954년 5월 2일 주일에도 강신규 자매가 등장한다.

1956년 6월 22일 (음력 5월) 14일 이 날은 나의 생일입니다. 부강교회당에서 본서 마태복음 26장 1절로 28장 20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예배 참석하신 분은 강순임, 전도희, 강신규, 김완례, 김녹기, 최병수 조모님과 같이 예배드리었습니다. 이혜순 자매님은 음식 준비하심.

김은석 목사는 말년에 창병(瘡病)으로 고생하였다. 그 때 그는 창병의 치료를 위해서 '강신규' 자매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로인해서 악성루머가 퍼졌고, 루머의 사실여부를 밝히고자하여 모인 50여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김은석 목사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사건을 연민과 동정으로 받아드렸고, 일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며 복음전파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까지 돌보지 않았던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은석 목사 자신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루머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악성이다. 예수님

도 여러 가지 악성 루머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뒤집어쓰신 죄목은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과 민중을 선동한다는 것이었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신성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몇 가지 죄목들을 이유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다. 바울도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죄목으로 4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였으며, 석방되었다가 4년 후 67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 때에 목 베임을 당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창병(瘡病)에 걸렸을 때 자택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창병으로 고생할 때 집에 들어가 김완례 사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강신규 자매에게 간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김은석 목사는 김완례 사모를 편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성경통독메모에서 김완례 사모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씨’자가 붙어 나타난다. 혹시 연상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늘 존대하고 있다.

둘째, 김은석 목사는 김완례 사모와 가족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만 짊어지웠다.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전도 집회와 성경강의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집엘 들어가지 못하였다. 집회와 순방이 많았기 때문이다. 1954년 4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즉 출가선언, 교회사임, 이사로 인한 김완례 사모와 가족이 받은 충격을 언급하였듯이, 비록 그 후로도 가족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하였지만, 말년에 창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김은석 목사로서는 차마 김완례 사모에게 자신의 병든 몸을 의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강신규 자매는 김은석 목사의 집회를 돕기 위해서 자주 동행했던 전도회, 김숙명 등 여러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김은석 목사는 성경통독메모에 이들 동행자들의 이름들을 자세히 적고 있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존경하는 김은석 목사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셨던 분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나 강신규 자매 사이에 로맨스를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다. 김은석 목사는 이 때 50대 중후반의 나이였고, 일생동안 부부생활을 멀리하고 살았던 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관계로 보려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 목사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으며, 날아드는 루머의 돌 세례를 온몸으로 받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드리게 만드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과연 김은석 목사는 자신과 세상과 끝없이 싸우며 괴로운 가시밭 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상의 모든 고뇌를, 지상의 모든 수고를 그에게 짐 지웠으나, 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그는 이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내었다. 비록 그는 한 알의 밀알로써 썩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다.

제7장 김은석 목사의 삶과 신앙에 관한 단상(斷想)

1. 가미사마는 일본에서 높지만, 그리스도는...

김은석(金銀石, 1902-1963) 목사는 황해도 평산군 평산면 당구리 출생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했다. 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독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체득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활동하며 전도할 때에 어느 누구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 생겨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김은석은 원래 장로교 출신으로 중국등지에서 전도하다가 신사 참배를 피하여 고국에 돌아왔으나 국내에서는 사정이 더욱 어려워 증명서 없이 일본에 들어가 노동관을 전전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비록 증명서가 없어 늘 쫓기는 신세였지만, 주일날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인도하곤 했다.

한번은 일본 순사가 김은석 목사를 체포하여 경시청에 끌고 가서 묻기를 “가미사마(神, 天皇)가 더 높으나, 그리스도가 더 높으냐?”고 물었고, 김은석은 “가미사마는 일본에서 제일 높지만,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높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높다”고 하여 고문을 당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이 위대한 답변과 신앙은 조선시대의 순교자 정하상이 재상에게 적어 바친 ‘상재상서’(上宰相書)의 내용과 그의 신앙을 빼닮았다.

세상의 도리에 높고 낮음과 일의 가볍고 무거운 사정이 있사옵나이
다. 한 집 안에서 중한 이는 아비만한 이가 없사오나 아비보다 더 높

은 이는 나라 임금이시고, 임금보다 더 중한 이는 천지대군(天地大君)이신 천주이시나이다. 아버 말을 듣고 임금의 영(令)을 듣지 아니 하면 그 죄가 무거운 것이요, 따라서 임금의 명을 듣고 천지 대부모의 명을 듣지 아니하면, 그 죄가 더욱 중대할 것이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주를 받들어 공경하는 것은 임금의 명을 짐짓 거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라, 마지못하여 하는 일이거늘, 어찌 이것으로써 임금도 부모도 몰라본다(無君無父라)고 하나이까?²⁸⁾

순교자 정하상은 나이 불과 7살에 아버지 정약종과 이복형 철상이 예수님을 믿다가 참수당하고, 나이 45세 때에는 자신을 포함한 어머니 유소사와 여동생 정혜마저 예수님을 믿다가 고문당하고 어머니는 옥사하시고 자신과 여동생은 참수당하여 일가족 전체가 순교의 반열에 오른 다산 정약용의 조카이다.

김은석 목사의 이 위대한 답변과 신앙은 조선시대의 또 다른 순교자인 정약용의 조카사위 황사영의 천지대군(天地大君)의 신앙을 빼닮았다.

황사영은 문무를 겸비한 명문거족의 자손답게 영특하고 뛰어난 재간이 있어 1790년에 16세의 어린 나이로 진사시(進士試)에 장원 급제하였다. 이를 대견하고 기특하게 생각한 정조(正祖)는 친히 탑전(임금의 의자)으로 그를 불러 손목을 잡고 "네가 20세가 되거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게 벼슬을 주고 나라의 큰 소임을 맡기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이에 그는 임금의 옥수(玉手)를 잡았던 이들이 하는 풍습에 따라 왕이 손수 잡아주던 손목에 붉은 비단을 감고 다녔고, 왕의 굳은 다짐과 약속으로 앞날이 크게 촉망되었다.

부와 권력을 약속받은 이 소년은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정약종(다산 정약용의 셋째형)의 제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후,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제일 높은 임금을 알았으니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이 군자의 마땅한 도리이다"고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신하가 되었다.

그는 20세에 이르렀으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세속에 대한 미

28)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순교자와 증거자들』(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출판부, 1982), 132-33.

련을 버려 더 이상 전시(殿試)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매년 백시를 냈는데, 임금은 그가 급제하지 못함을 이상히 여겨 대신들에게 사영이 충분히 공부하여 응시하도록 이르게 하였다. 후에 정조(正祖)는 그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면서 그에게 연민의 정을 표했는데, 그는 임금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음전도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황사영은 그 후 백서사건(1801)²⁹으로 체포되어 의금부에 끌려가 23일간 취조와 형벌 끝에 대역부도한 죄인의 판결을 받고 27세의 나이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 형을 받았다. 의금부에서의 취조 때에 황사영이 밝힌 기독교입교 동기는 다음과 같다.

양학(洋學)을 한지 11년이 되는데, 양학을 시작한 이듬해에 조정에서는 집집마다 이것을 엄금하였으며, 친척, 친구들까지도 훼방하고 배척하였다. 나는 백번이나 숙고한 끝에 양학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또 그것이 구세(救世)의 양약(良藥)임을 알고 성심껏 행하였다.³⁰

이 사람의 이름이 정약현(다산의 맏형)의 만사위였던 황사영이다. 그로 인하여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에 귀양살이를 가게 되고, 두 살배기 아들은 추자도에 버려져 촌부가 주워 키우게 되며, 부인은 제주도 모슬포에서 관비로 38년을 살게 되었다.

정약중, 황사영, 정하상, 김은석,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였는가? 출세도 목숨도 분토처럼 버리게 한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모두 “세상을 구제할 양약”이 세상의 임금이나 가미사마에 있지 않고 하늘의 큰 임금(天地大君)에게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비록 순교를 면하였지만, 그의 삶 자체가 순교자의 삶이었다.

29) 1801년 조선천주교회 박해현황과 대책 등을 비단에 적어 북경의 주교에게 보고 건의하려다 압수당한 비밀문서.

30) 배은하 엮음, 『역사의 땅, 배움의 땅』(서울: 바오로딸, 1992), 44.

2. 순교를 면(免)한 김은석 목사

김은석은 석방 후에도 항일선동을 하며 전도하였고, 한번은 경시청으로부터 체포되기 직전에 교회순회를 나가버려 체포를 모면하였으며, 또 한 번은 1944년 초 고국에 계신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는 바람에 체포를 모면하였다. 그 후 해방이 되었고 한일해협이 봉쇄되는 바람에 일본에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전도하다가 장로교 청주노회로부터 부강교회에 파송되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으키며 교회를 부흥시켰다.

아래의 글은 양아들 김성철 목사가 친필로 적어서 필자에게 보내준 증언이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지 7개월만인 1950년 6월 23일³¹⁾ 뜻 밖에도 서울 북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는 집(우리가 살고 있는)에 오셨다. 간이 시설로 지어진 화장실(변소) 배수구를 손봐준다고 종일 일을 하였는데, 그날 밤부터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하였다. 이틀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된다. 공산군이 휴전선 전 지역에서 일제히 공격하여 남하 중이라는 방송을 하며 외출과 휴가 중인 국군 장병들은 즉시 귀대하라고 방송이 수시로 전해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짓궂은 비는 구슬프게 내리고 있었다.

6월 27일 오후엔 산 언덕아래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한 (옥문이 열렸다고 함) 수형자들이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금화산 (우리가 살던 빈민 마을) 중턱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6월 30일에는 우리 집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당시 사보이 호텔 사장 조준호 씨 집이 공산당의 내무서로 변했다.

직선거리 100미터 정도의 언덕 아래 내무서에서 저녁이면 고요한 별빛아래 죽음을 예고하는 비명소리가 간담을 서늘케 들려왔다. “아~ 각, 아~ 각” 우리 집에 건넌방에서 셋방을 살던 이화여자대학

31) 자전적 에세이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에서는 22일이라고 기술하였다.

원에 재학 중이던 윤낙영³²⁾ 목사의 큰 딸이 불안해하며 (언니 뒷바라지를 하던 여동생과 함께) 야음을 틈타 피신을 위해 내무서 정문을 지나다가 “누구야?” 검문을 받고 영접결에 “요 언덕 위에 목사님댁에 사는데요.”라고 답하였다. 아버지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낸 후 내무서원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여기 목사가 산다는데 나오라고 하시오.” 마루 위로 올라서는 내무서원들에게 어머니는 하소연하신다. “목사인 것은 맞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시오.”라고 했다. 방문을 열어 몰골이 형편없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병 낫거든 내무서로 오시라요.”하곤 갔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8월경에 아버지는 건강이 회복되어갔다. 어머니의 극진한 병수발을 지난날 보지 못하게 된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다. 그때 내 나이 12세 내무서원의 방문이 또 있을듯하여 피난길을 떠나게 된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아버지와 작은 붓짐을 짊어진 어린 나는 목적지인 부여로 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장춘단을 넘어 북서빙고에 도착하여 배 샅을 넉넉히 주고 한강을 건넜다. 햇살이 넉넉해질 무렵 뒤에서 썩썩기(당시에는 폭격기를 그렇게 부름)가 폭격을 하는 것을 보니, 도강하는 배를 공격하는듯했다. 살아남은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게 되었다. 도로변 산언덕에서 생식으로 노숙하면서 오산지역을 지날 때 부근에 윤낙영 목사님의 집을 방문코자 경부선 병점과 오산사이에 굴(기차굴)이 있는 기점에 아버지를 쉬게 하고 혼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굴 앞으로 갔는데 굴 안에서 인민군들이 뛰어나와 나를 오란다. 그때다 또 썩썩기가 굴속으로 폭격을 가하는 바람에

32) 윤낙영 목사는 1930-40년대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윤낙영 목사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동경성서학원(성결교)에서 공부하였고,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1927년에 동경기독교교회(성결교)를 설립하여 28년까지 시무하였고 풍교교회와 3개의 기도처를 개설하였다. 1930년대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이 세운 요츠야(동경 사곡)선교부에 고용되어 조선선교회 기독교교회(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 산하 기독교회들(아현정, 영등포)을 개척하였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중평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이 무렵 윤낙영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인도로 기독교회 선교부(선교사 존 채이스)에 합류하여 1940년대 말까지 아현동에서 목회하였다. 그리고 1955년 7월 6일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영등포교회 제3대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여 1958년 전반기까지 목회하였다.

나는 멀리 도망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네 입구에서 내 무서원들에게 붙들렸다. 문제는 보따리 속에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염려되고 아버지의 실망스런 모습이 눈앞을 아른거릴 때 오늘 아침 빈 냄비 속에 담겨진 성경책을 확인하고 안도의 맘을 가질 즈음 내 교과서를 가지고 피난 갈 정도로 소중히 간직했는데, “이승만 괴뢰도당의 책은 압수한다.”며 냄비 속은 지나쳤다. 아쉬운 마음이었으나 오히려 감사하며 보따리를 다시 챙겼다. 멀지 않은 곳에 윤낙영 목사님 댁이 있었다. 가족들을 위해서 둘째 따님이 내무서에 가서 부역을 하며 윤 목사님 가족 모두를 피신시킨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 머물지 않고 떠나서 평택을 경유 청양방향으로 향했다.

평택과 아산을 지나 청양부근을 지날 때 야산에 대추밭이 많이 있어 대추를 주어서 내려오는데 신작로 길에 마차에 벚가마니를 신고 올라오는 인민군 두 사람과 마주쳤다. 한 사람은 계급이 높은 것 같았다.

“동무들, 무엇하는 사람들이요?” 매서운 눈초리를 한 상급자가 물었다. “예, 몸이 아파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이리와 보시오. 손바닥 좀 보이시라요.” 손을 내민 아버지의 손이 부드럽고 하얗게 빛나 보였다. “동무, 국방군 패잔병 아녜지비?” 체격이 좋고 얼굴이 잘 생긴 김은석 목사님이 국방군 장성으로 판단된 모양이었다.

“저 애는 누구요?” “예, 제 자식입니다.” “요양 중에 도와달라고.” 대답하였다. “직업이 무엇이요?” 서슴지 않고 “목사”라고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대답이 전해지자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고개를 저어 신호를 보냈다. 그 광경을 뒤에서 나는 보았다. “동무들, 나를 따라오라요.” 마차는 가던 길을 계속가고 우린 병사의 지시대로 동산 뒤편으로 따라갔다. 분명 우린 죽나보다 예측했다. “목사님, 저도 교인이며 부모님들도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제가 총을 쏠테이니게니 절대 따라 오시지 마시라요.” 하고는 총 2발을 “따꿍 따꿍” 하늘 쪽에 대고 쏘았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름이라도 물어보았더라면... 생각하였고 총총히 사라지는 옛된 병사의 뒷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주여, 또 생명을 연장해 주셨군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주께 삶

이 보답이 되겠나이까?” 아버지 김은석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록해 보였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피난민촌)에 도착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김부인³³⁾ 댁에서 기적의 경험들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바 있다.

14후퇴 때 미처 북으로 철군을 못했던 패잔병들이 산으로 피신을 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 약탈을 하던 시기였다. 아버지 김은석 목사가 전라도에 장성이라는 곳에서 하루 두 번만 다니는 버스를 타려고 시도했다가 타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 버스가 이미 승객으로 가득 찬데다가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승객이 10여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그 버스에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으므로 김은석 목사는 결국 승차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그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김은석 목사 한 사람뿐이었다. 약속한 집회 장소에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탔어야했지만, 김은석 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태운 후 마지막에 타려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였다. 그 버스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감사했는데 김은석 목사가 타고자 했으나 타지 못한 바로 그 버스가 공비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뉴스를 전해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속속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역사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김은석 목사의 순교자적 삶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해답이 “주여, 또 생명을 연장해 주셨군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주께 삶이 보답이 되겠나이까?”라고 한 기도에 있지 않나 추정해본다. 여러 차례 직면한 위기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데 있었음을 헤아려볼 수 있다.

3. 눈물겨운 예배

33) 자전적 에세이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에서는 김은석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다녔던 딸 일곱을 둔 최 집사 댁이라고 기술하였다.

김은석牧사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영웅이자 한국의 바울이었다. 충청이남지역 교회들에서 농한기를 이용해 백일집회를 열어 일꾼들을 교육하고 파송하여 교회들을 세우게 하였고, 또 세워진 수십여 개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집회를 열어 부흥을 돕고 가난한 목회자들을 격려하느라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았던 문자 그대로 떠돌이 사도나 다름이 없었다. 한번은 그가 7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 날이 1950년 6월 23일이었다.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괴로운 탓이었는데 바로 몸져눕게 되었다. 그 덕분에 공산군에 잡혀가지 않게 되었고, 한 달여가 지난 8월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12살 된 양아들 김성철(목사)의 등에 봇짐을 지운 후 피난길에 올랐다.

오산지역을 벗어나 평택을 향해 국도를 따라 가는데 10여대의 공산군의 탱크가 불타있는데, 인민군 병사들의 시신도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며 섬뜩한 마음을 가졌다. “저들도 귀한 집 자식들이며 인생의 꽃을 못다 피운 젊음을 누구를 위해 바쳤나?”를 생각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한바 있었다. 참으로 수도 없는 죽음을 보았다.

피난길에서 몇 차례의 위험한 고비들을 넘긴 후 주일을 맞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산모퉁이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찬송은 가사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며, 성경을 다섯 장 읽었다. 그리고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떡과 잔을 봇짐에서 꺼내 눈물로써 주의 만찬을 성수하였다. 피난길에서조차 주일예배와 주의 만찬을 행한 이들, 특히 아들 김성철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1972년에 도미하여 개척한 교회들과 시작한 사업들에 성공을 주셨다.

4. 김은석 목사의 깊은 밤의 변민

앞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순경의 체포를 모면케 해주셨다. 6.25동란 때도 두 차례나 인민군의 총살을 모면케 해주셨다. 전쟁발발직후에는 가난하고 병든 모습 때문이었고, 피난 중에는 총살을 담당하는 인민군 병사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직후에는 공비(共匪)들의 습격을 미리 피하게 해주셨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체험이 있고난 다음 김은석 목사는 남은 10여년의 삶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온전히 바쳤다. 다음은 그가 빌립보서 끝장 여백에 남긴 글이다.

1956년 12월 13일 새벽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일어나 앉아 기도)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으로 서울성서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드러난) 일리(일이) 있음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뉘에(생각하여) 작당(작정)하고 김재순 목사께 편지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여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빌립보서)를 보난 중 1장 27:2:1-2, 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갖치(같이)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갖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져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갓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여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였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댁 객실에서 記(기록)함. 김은석 止(?끝).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겠다는 김은석 목사의 깊은 밤의 변민은 체포되시던 밤 예수님의 변민의 기도를 따르고 있다.

5. 원수를 사랑한 김은석 목사

다음은 목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철수 목사가 증언한 내용을 김성철 목사가 적어 보낸 것이다.

1947년 8월로 기억된 어느 날 빈사상태의 김은석 목사님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온 몸이 구타를 당하여 내의를 가위로 잘라냈어야 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였다.

충청북도 부강에 성결교회의 담임 김중환 목사가 대동청년단 단장

으로 긴장한 단원인 두 청년을 사주하여 김은석 목사를 공산당원이란? 혐의를 씌워서 처결하도록 한 것인데, 당시엔 공산당이라는 혐의만 있으면 어떤 처벌을 가해도 벌을 받지 않는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김중환은 자신이 목회하는 지역에 새 교역자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립하고 크게 부흥을 하니 시기하여 구타를 사주한 것이었음이 훗날 밝혀졌다.

구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약국을 경영하던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인 김교인(김태수, 김철수 목사님들의 부친) 장로에게 알려줌으로써 병원시설이 빈약한 곳임으로 당시 부강역에 부역장인 김영구 집사의 도움을 얻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원수를 사랑하라”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김은석 목사는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결과 가해들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그러나 장대한 40대의 두 청년들은 3-4년 안에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 소문이 퍼지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는 몰려든 사람들로 크게 부흥했다고 한다.

이토록 김은석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한 인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6. 김은석 목사의 영웅적 삶

김은석 목사는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화신학 성경연구회’라는 간판을 내세워 백일성경공부 등을 농번기를 피해 실시하였는데,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북도 등에서 많은 교직자, 평신도들이 모여 들었고, 밤마다 열린 성령집회 때에 김은석 목사님은 기도할 때 마치 스프링이 튀어 오르듯이 앉는 자세에서 바닥과 허공사이를 10cm 이상 떠올랐다가 내려앉았다가를 반복 하였고, 방언과 입신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명을 주고 놀라운 신앙체험들을 갖게 한바 있었다. 김성철 목사는 이 놀라운 현상을 11살 때에 직접 목격하였다. 이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충청이남지역 곳곳에 수십여 개의 교회들이 설립되었고, 김은석 목사는 이들 교회들을 순회하며 집

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4-39절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 목사는 이 십자가를 영웅적으로 짊어졌다.

김은석 목사의 주일날 성서통독은 평일의 성서통독과 그 내용이 달랐다. 그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다른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책이 욱기서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4, 56, 57년에 주일마다 욱기를 읽었다. 이 욱기서 40장의 여백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1955년 4월 17일 주일 석양 5시후 소수교회 방에서 욱기 38:27-40:11까지 봉독. 금일도 섭섭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김명석³⁴⁾ 형제 부인이 육적생활 불만으로 나를 원망한다 하며 또 김은성이는 활교회를 못가겠다는 뜻을 말함. 그 안해(아내)가 불만 언(言).

이 기록은 복음을 위해 출가(出家)를 선언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끼친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가늠케 한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모들의 원망과 원성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의 양자인 김성철 목사도 그의 자전적 에세이에서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이런 몸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과 희생으로 얻은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확이었으며, 헤라클레스만큼이나 사도 바울만큼이나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냈다. 김은석 목사는 자신과 세상과 끝없이 싸우며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상의 모든 고뇌를, 지상의 모든 수고를 그에게 짐 지웠으나, 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그는 이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내었다. 비록 그는 한 알의 밀알로써 썩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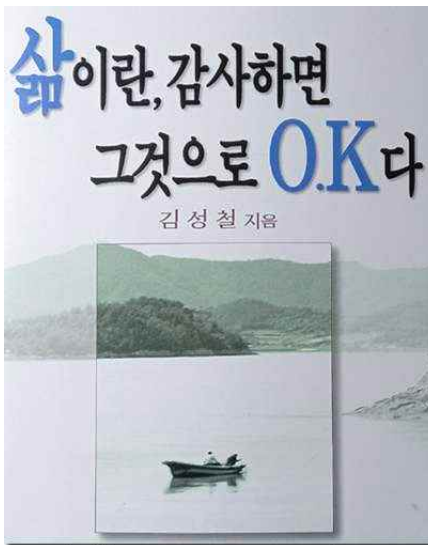
34) 김성철 목사의 친부 김주일 목사



김성철 목사와 양정애 사모의 결혼식 직후의 모습

제8장 김은석 목사의 양아들 김성철 목사의 성공적인 삶

1. 김성철의 역설적인 성공³⁵⁾



김성철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진흥, 2000)

김성철은 극한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난 성공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이다. 그의 성공적인 삶에 작용한 힘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오롯이 바친 헌신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자신의 성품 곧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었다.

상당한 부모들이 자식들의 성공에 엄청난 공을 들이지만,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고 따라서 부모들

에게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다. 그런데 김성철은 양부모든 생부모든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주경야독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도미하여 목회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에서까지 성공을 거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역설이었다. 김성철의

35) <제7장 김은석 목사의 양아들 김성철 목사의 성공적인 삶>은 김성철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도서출판 진흥, 2000)와 자필로 작성하신 자료와 제공해주신 사진들에 근거한 것이다.

성공이 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고, 남겨준 것이 없는 양부 김은석 목사와 생부 김주일 목사가 오롯이 하나님께 바친 헌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쏟고 대신에 가족과 자식에게는 아무런 정성도 쏟지 못했는데도 가족이 잘되고 자식이 성공한 것은 성공법칙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역설의 증거가 바로 김성철 목사이다.

김성철은 삶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선량한 사람들도 만났고, 반면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해를 끼친 불량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의 실망과 배신은 어쩌면 병가지상사요, 인간사에 흔히 있는 자연스런 일일는지 모른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자연스러움이 자연법칙이고, 열역학 제2법칙이며, 엔트로피(Entropy) 법칙이다. 반면에 목회에 성공을 한다든지, 사업에 성공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같은 것들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같은 것들은 자연스러움을 거스르고, 자연법칙에 맞설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성철 목사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자연스러움과 망가지는 것들에 맞서 살았다. 그가 살면서 겪었던 실망과 배신과 실패는 그가 살면서 겪었던 희망과 기쁨과 성공에 비하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었다. 소수의 사람들한테서 받았던 실망감과 배신감은 다수의 사람들한테서 받은 사랑과 격려와 응원에 비하면 실로 아무 것도 아니었다. 성공은 그렇게 이뤄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 곧 필요할 때 조건 없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것이 인간 김성철 목사가 목회활동에서도 성공하고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가 된다.

2. 친부모와 양부모의 신앙유산

김은석 목사가 양아들 김성철에게 남긴 유산은 수차례에 걸쳐 제본을 반복하고, 메모용 속지들을 삽입한 1920-30년대에 출판된 아주 낡은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鮮漢文) 관주 성경책 한권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 권의 책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위대한 신앙유산이 담겨 있었다. 그 유산은 다름 아닌 김성철의 성공적 삶을 위한 종자씨앗이었다.

김성철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집,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를 보면, 일평생 김성철 목사가 받아 누린 그 많은 은총과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양부 김은석 목사와 생부 김주일 목사가, 비록 그들이 아들 김성철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준 것이 없고 남겨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바친 그 지극한 충성과 헌신을 보답한 것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연히 김성철 목사가 복을 받게 된 것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히 신실했고, 진실하고 성실한 불굴의 노력과 특유의 부지런함에 기인한바가 컸다. 또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가르쳐 명문 학교를 나오게 하고, 돈 많이 벌어 억만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중요할는지 몰라도, 자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넉넉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쳐 그 은총의 보답이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김성철 목사의 삶이 입증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3. 피난생활과 주경야독

김성철은 1938년 5월 17일 일본 야마구찌(山口) 현(縣) 아사(厚狹)에서 김주일(명석) 구봉림 부부 사이에서 2남으로 태어났다. 아사는 시모노세키에서 가까운 바닷가 마을이었다. 위로 세 살이 더 많은 형이 있었다. 네 살 때쯤 아버지가 징용을 피해서 산골 마을 '셋토

쓰스미'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미호'로 이사하였다. 김성철은 이 '미호'에서 여섯 살 때 집에 찾아온 김은석 목사 내외를 처음 뵈었다.

전쟁직후에 무법천지가 된 위급한 상황을 피해 온 가족이 시모노 세키까지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하였고, 일본을 탈출하려는 조선인들의 아비규환 속에서 가까스로 부산행 배에 올라 죽을 고생 끝에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밀양시에서 가까운 '예림'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리고 3년쯤 후인 1948년경에 김은석 목사의 양자가 되었다.

집은 서울 북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다. 이 집은 양어머니 김완례 사모, 누나 김명순, 어린 김성철의 힘만으로 지은 방 세 칸짜리 집이었다.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는 늘 교회들을 순회하였기 때문에 집에 계신 날이 거의 없었다.

1950년 6.25전쟁이 터진 직후에는 13살 어린 나이에 한 달가량 몸져누웠다가 일어난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를 모시고 부여 규암면 합송리로 피난을 갔었고, 1950년 9월 중순에 펼쳐진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로 되돌아갔다가 1951년 1.4후퇴 때에는, 김은석 목사가 경남 사창(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형제들의 집에 가셨기 때문에, 양어머니 김완례 사모를 모시고, 부강에서 북쪽으로 20여리 떨어진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칠미'라는 시골동리로 가서 3개월 정도 지내다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리에 계신 친부모 근처로 가서 지낸 후에 서울이 재탈환되고 나서 서울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 후에 집을 팔고 대전 은행동으로 이사하였다.

대전에서는 새벽에 조선일보 호남 업무국에 나가 일하며 오후에는 충남상고(당시 남대전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19살(1957년)이었다. 얼마간 잡지와 신문가두판매도 겸하였다.

김성철은 1960년 만 22살이 다돼서야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충남대학교 사학과 야간대학에 입학하면서 새벽에 하던 신문사 일을 그만두고 기독교 세계 봉사회의 간사로 근무하였다.

4. 약혼과 군복무 및 김은석 목사의 소천

1960년 5.16군사혁명이 있고나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자는 모든 직장에서 축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김성철은 일본 태생이라 호적이 없었으나 이승만 때 가호적제도가 생겨 호적을 만들 수 있었다. 가호적의 생년월일이 4살이나 줄어있었는데, 몇 차례의 입영연기 끝에 군에 입대한 것은 1962년 10월경이었다. 김성철은 김은석 목사가 소천한 이듬해 1963년 1월까지도 부관학교 교육병이었다. 이 때문에 김성철은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다.

1960년은 필요한 선교사가 대전에 정착하여 신학교를 시작하던 때였는데, 1960년 초에는 신학교 수업을 선화교회에서 하고 있었다. 김은석 목사도 칩거(1958-59년 사이)를 끝내고 활동을 재개한 해였다.

1962년에 김은석 목사의 동향인 황해도 평산 출신의 양재문, 신용출 부부의 4남매 중 둘째 딸이었던 양정애 씨와 약혼하였다. 김성철은 혼전순결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교제하던 여성들과 일정한 선을 넘은 일이 없었다. 약혼자하고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리고 그해 학보영장이 나왔고, 10월초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다. 친구 김만영(찬영)이 6개월 먼저 입대하여 김성철이 입소한 논산훈련소 29연대 1대대 1중대 의무대 기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훈련소에 근무했던 김진현 병장과 김만영(찬영) 일병이 도움을 줘서 인사행정 주특기를 받아 육군 부관학교에 입교할 수가 있었다.

1963년 1월에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가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소천하였지만, 약혼녀로부터 편지를 받고서야 그 전에 이미 전보와 관보 등이 영천 부관학교에 송달되었지만, 교육을 받고 있던 훈련병이어서 규칙상 그것들이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부대에서 일주일 외출증을 끊어줘서 김은석 목사가 돌아가신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약혼녀와 함께 산소에 다녀올 수 있었다.

산소에서 내려와 김은석 목사의 임종을 지켜본 최봉석 집사를 찾아뵈었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다. 최봉석 집사는 아버지가 운명하시기 전에 아들 김성철을 여러 번 찾으셨다는

것과 성철이가 자기를 이어 꼭 목사가 되어야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김은석 목사가 늘 들고 다녔던 낡은 가죽가방과 그 속에 담긴 동전 몇 개와 낡고 오래된 성경책 한 권뿐이었다.

5. 결혼과 중남대 재학 및 신학교 근무



김성철 목사와 양정애 사모의 결혼식 사진

군대생활은 20사단 예하 연대에서 근무하였다. 그 시절 예하 2대에서 어떤 선임하사가 유언장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에 갑자기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유언 곧 “내 뒤를 이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를 떠올리게 되었다. 김성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의 유언을 무수히 되새김질하게 되었고, “부친의 마음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성철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서 “그는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오직 신앙만을 위해 사셨는데, 아들 하나 목사 만들려고 세상 공부 외면해 가며 죽으면서까지 바란 유언...”이라고 기술하였다.

김성철이 양정애씨와 결혼식을 올린 것은 제대를 1년 반 정도 앞둔, 즉 군대생활 1년 8개월 정도를 마친 때였다. 결혼식 직후 김은석



김성철 목사와 양정애 사모가 결혼식 직후 김은석 목사의 산소 곁에 나란히 선 모습 (장소: 충남 논산시 부곡면 충곡리)

목사 산소 곁에서 부부가 찍은 사진에는 인화한 날짜로 추정되는 '1964 7'이란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그 후 양정애 사모가 첫 아이를 출산한 때는 김성철이 제대를 10개월 앞둔 때였다. 군대생

활을 38개월 했기 때문에 제대는 1965년 12월경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철이 한국성서신학교 졸업식 사진에 처음 등장한 때는 1966년 6월 30일 제8회 졸업식 때이다.

제대 후 대전 교도소 교무과장이었던 김치연 목사가 섬기는 선화교회 재건축의 책임과 관리를 맡았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김은석 목사의 유언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선화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1951-52년경에 서울 북아현동의 집을 팔고 대전으로 내려와 대전시 선화동 351번 1호의 땅 385평을 매입하여 판자로 지은 예배당과 주택이 붙은 건물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를 운영하는 필요한 선교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에서 일인다역을 감당하였다. 그는 서무과장, 기숙사 사감, 급식조달 책임자, 근로 장학생 관리책임자, 문과 과목 교수였다. 이뿐 아니라, 김성철은 충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후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선교부의 총무와 <한국 크리스천 미션> 총무도 맡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김성철은 부관학교 인사행정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행정력이 탁월했다. 그 덕분에 한국성서신학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둘째,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 업무 뿐 아니라, 조가맨(Joe Garman) 선교사의 전도 집회 때에도 무대장치, 섭외, 포스터 인쇄, 안내문 발송 등의 일도 도맡아 하였다. 조가맨의 전도 집회는 많게는 1,500-3,000여명까지 모이는 대 집회였다.

셋째, 김성철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설적인 인물인 김은석 목사의 아들이었으므로 신뢰도가 높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함으로 인해서 김성철이 사표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때, 혈요한 선교사는 전 직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대단히 섭섭한 날입니다. 오늘로써 신학교를 단숨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김성철 씨를 내보내고 나도 미국으로 떠납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런 충격 선언에 난리가 나고 수습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하였다.

넷째, 김성철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로써는 높은 학력의



김성철 목사의 충남대 경영대학원 졸업 기념사진
 양정애 사모, 기원, 김성철 목사, 조사환 목사, 김찬영 목사

소유자였다. 김성철은 충남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충남 지역 유지급 인사들과 교분을 쌓았고, 계룡 와이즈맨 클럽(30대) 제2대 회장도 역임하였다. 이 무렵 김희영 한국성서신학교 교수는 한 발 와이즈맨

클럽(40대)의 회장이었고, 훗날 국제 총재를 역임하였다.

1970년 사표를 쓰기까지 김성철은 대략 5년간 온갖 꾀은일을 다 맡아 하면서 한국성서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학교를 사직한 후 필요한 선교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김성철은 대전의 선교부와 서울의 '데이빗 리빙스톤 파운데이션'이란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972년 미국에 이민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행한 마지막 일이었다.

김성철은 서울에서 각 교역자들이 일하는 40여 곳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재단관리, 문서관리, 법적 공문관리, 고아원 협조, 그 모두를 종합해서 미국에 보고하는 일을 맡아했다.

6. 영주권 취득과 가족상봉

미국에는 1972년 11월 20일에 도착하였다. 미국에 건너가서 조정 자격증과 풀 깎기 자격증부터 취득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우미들을 붙여주셔서 은혜가운데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자를 도우신다. 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김찬영 목사는 미국으로 떠나는 김성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였다. 그의 권면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셨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입료만 챙기는 변호사에게 영주권신청을 맡겨 영주권취득이 물 건너갈 뻔했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면부지의 조사관 패튼부부를 알게 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영주권신청을 맡기게 하셨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세워진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하게 하셨다.

김성철 전도사는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도 애리조나의 그 뜨거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폐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또 목사안수문제도 마음에 걸렸다. 일찍이 “지금까지 내게 앞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만으로 내 앞길을 가립니다.”라고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지켜야할지를 결단해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성철은 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유언을 따라 목사가 되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냐 받지 못하게 될 것이냐를 놓고 뜨거운 땅바닥에 앉아 뜨겁게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토롤라 회사의 기술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영수 집사를 붙여 주셨다. 그는 가족과 처가식구들까지 모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민에 관련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말하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보증이니, 인터뷰 갈 때 자기 교회에서 보증을 서주겠노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인터뷰를 한 달 앞두고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결과를 담은 봉투를 받아 들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터인데 너는 무얼 할 거냐?”는



김성철 목사 장립식 직후
웨싱턴 주 시애틀 야키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974년 7월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고, “내 뒤를 이어 목사가 되라”는 양부 김은석 목사의 유언도 상기되었다. 그래서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필요한 선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크리스천 미션 파운데이션 안에 재미한인을 위한 목사안수제도가 있다고 했다. 3일을 금식하고 신앙간증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한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는 시애틀 야키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974년 7월 초 금요일에 필요한 선교사를 비롯하여 총 다섯 분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영주권 취득인터뷰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 보증서를 써준 김영수 집사로 하여금 인터뷰에 동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민관의 질문에 그가 알아서 대답하게 하셨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민관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게 하셨고, “가족을 못 만난 지 2년이 되어 가족이 몹시 보고프다. 매일 아이들이 아른거린다”고 대답했더니, 이민관이 말하기를, “내가 가족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돕겠다.”며 즉석에서 “이 사람의 가족 모두 시급히 이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문을 한국 대사관에 쳐주게 하셨다. 이런 특별한 은혜로 온 가족이 여권을 내고 특급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1974년 11월 5일 미국에 도착하였다. 한국을 떠난 지 2년 안에 이뤄진 가족상봉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십 수 년째 비자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여행사 직원조차도 이런 비자는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뜻과 양부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목사안수를 받자마자 영주권인터뷰에 통과됐고, 영주권을 받고 또 4개월여 만에 특급으로 가족이민이 이뤄지게 되었던 것이다.

7. 미국에서의 목회와 사업

김성철 목사는 애리조나 주에서 시작한 첫 목회 때 사레비 전역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되돌려드렸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사모가 풍토병으로 고생했고, 둘째 아들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주 코피를 쏟곤 하였다. 때마침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목회도 하고 식료품 가게도 운영하던 홍린원 목사가 그곳의 습한 기후로 인해서 기관지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애리조나 주 피닉스로 요양차 김성철 목사를 찾아오게 되었다. 홍린원 목사는 피닉스에 머물면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래서 김성철 목사는 그분에게 교회를 떠맡기다시피 하고 가족과 함께 LA로 이사를 하였다. LA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피닉스에서 가족을 괴롭혔던 질병들이 모두 사라졌다. 홍린원 목사는 피닉스가 체질에 맞고, 김성철 목사 가족에게는 LA가

체질에 맞았던 것이다.

LA에서는 글렌데일에 거주하면서 글렌데일 중앙 기독교회를 설립 하였다. 목회와 병행한 햄버거가게의 수입이 신통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두를 빚어서 팔아 돈을 벌게 해주셨다. 햄버거가게가 잘 되자 가게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 제 값을 받고 팔아버리고, 채소와 과일을 받아다 파는 가게를 다시 열었다. 건물주가 “당신들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고 말할 정도로 매출이 대단하였다. 돈 셀 시간도 없고 은행에 입금할 시간도 없어서 집 뒤뜰에 장독을 묻어두고 그곳에 돈을 쌓아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였다.

김성철牧사는 자신의 채소가게가 유명해져 지속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접고, 하나님 사역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채소가게를 남에게 세주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의 일인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채소 과일 장사할 때 열심히 했더니 돈도 벌고 집도 샀는데, 교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와 ‘서부 한인 기독교회’를 세웠다.

김성철牧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몇 가지 방침을 세워 실천하였다.

첫째,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

둘째, 헌금함을 비치해두고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한다.

셋째,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다.

넷째, 헌금한 사람을 호명하거나 후보에 실지 않는다.

다섯째, 건축 헌금을 건지 않는다.

여섯째,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심방한다.

일곱째, 교회 행사는 교인의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실시한다.

여덟째, 주일 예배는 한 시간 안에 마친다.

‘서부 한인 기독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었을 때 출석 교인 수가 350여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부흥하게 된 데에는 김성철牧사의 특



서복 한인 기독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장면 (1990년)

유의 부지런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일에 사용하곤 있었다.

김성철 목사는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공항에서부터 픽업하여 아파트

를 얻기까지 집에서 기거하게 해주었고, 아파트를 얻으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운전을 해주거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서 해결해 주었으며, 어린이가 있으면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고, 미국에 오면 누구나 가져야 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도 받게 해주었으며, 영주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영사관에 동행해서 거주 신고하는 일을 대행해주었고, 자동차 사는 일도 알선해 주었으며, 보험에 들어야 하면 보험을 알선해주었고,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절차를 밟아 주었다.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해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통편도 제공하였다.

김성철 목사는 자기 시간을 포기한 채 이민자들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가 되어주었고,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주는데 헌신하였다. 그 결과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었을 때 등록교인의 70퍼센트가 초신자들로 채워졌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나머지 20퍼센트는 수평이동 교인들이었다.

김성철 목사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도 원칙을 세워 실천하였다.

- 첫째, 매주 출석해야 할 것,
- 둘째, 십일조를 생활화해야 할 것,
- 셋째, 전 가족이 교회에 나와야 할 것,

넷째, 술과 담배를 삼가해야 할 것,
다섯째, 이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이어야 할 것.

김성철牧사는 네 개의 이민교회를 개척하여 섬겼고, 두 개의 어린이학교를 세워 운영하였으며, 세 곳의 쇼핑몰(비즈니스)을 매입하여 관리하였다. 또 안대진 목사님과 함께 루선 밸리(Lucerne Valley) 바위산 언덕 아래 세운 미션 비전 크리스천 센터(Mission Vision Christian Center)에 고 김은석 목사의 기념관을 설치하였으며, 본서를 발간하였다.

8. 김성철(Kim, Samuel Sung) 목사의 약력

1) 출생

1938년 5월 17일 일본 야마구찌(山口) 현(縣) 아사(厚狹)에서 출생

2) 학력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로스앤젤레스 신학대학원 교육학석사
남가주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로스앤젤리스 칼리지 아동교육학 과정 수료
퍼시픽 옥스 칼리지(Pacific Oaks College) 유아교육과정 수료
UCLA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3) 경력

국제 와이즈멘스 클럽 계룡클럽 회장(1968년)
의원법인 한국 크리스천 미션 상무이사(1965-70)
한국성서신학교 교수 및 사감(1965-70)
의원법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파운데이션 총무이사(1970)
의원법인 한국 십자군 연맹 사회사업 부장(1970-72)

미국 크리스천 미션 한국선교회 이사 및 부회장(1980-85)
남가주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1990-91)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부회장(1993)
비영리법인 재미 유아교육협회 회장(1997-2005)
비영리법인 기독교 유아선교회 회장(1995-2019)
패튼 대학교(Patten University) 유아교육과정 강사(1998-2015)
국제성서대학교 유아교육과정 강사(1999-2015)

4) 목사안수

1974년 7월 초 금요일 미국 워싱턴 주 야키마 그리스도의 교회(Yakima Christian Church)에서 필요한 목사님(전 한국 주재 선교사 및 한국성서신학교 교장)의 주심으로 5인의 목사 및 장로님들에게 목사안수를 받음.

5) 교회개척 및 목회

피닉스 기독교회(1974, Phoenix, AZ).
글렌데일 기독교회(1975, Glendale, CA). 안재관 목사와 함께 개척.
가데나 기독교회(1976, Gardena, CA). 안재관 목사와 함께 개척.
김영철 목사 후임으로 부임.
서부 기독교회(1980-2000, Lawndale, CA). 당뇨병으로 긴급 은퇴.
미션 비전 교회(2018-현재, Lucerne Valley, CA). 원로목사로 취임, 안대진 목사와 협동.

6) 유아원 운영

벤네스 어린이 학교 운영(1974-2015)
레인보우 어린이학교(주정부허가) 운영(1976-2017)
세 곳의 쇼핑몰(비즈니스) 매입, 관리 및 경영(1990-현재)

7) 저서

『유아 정서 발달』(1997). 유아교육 교재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도서출판 진흥, 2000). 신앙 자서전 에세이

8) 가족

처: 양(김)정애

아들: 기수, 기원

손자: 준호, 민호

손녀: 은혜, 민지, 혜리



충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기념사진
김은석 목사의 사모 김완희, 김성철 목사

제9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3년

1953년 3월

1953년 3월 5일 아침에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사무엘상 9:9-13말 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3년 6월



초창기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모습

1953년 6월 25일에 평산교회 박신상 전도사 댁에서 독함.

1953년 6월 29일 아침에 상월리 교회 진성구 장로 댁에서 (예레미야애가서) 봉독함.

1953년 8월

1953년 8월 18일 순천 하나님의 성회 부흥회 인도차로 가는 도중에 장흥 버스 중에서 별교와 순천 향(向)에 호세아 봉독.

1953년 8월 24일에 충북 충주시 남주동 2구 350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정찬성 형제 상봉 중에 차서(此書)를 봉독하였다. 금일 이복춘,

이시봉, 최춘선, 아(我) 3인이 동행 동거하였다.

1953년 8월 23일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나의 주택에서 오바다를 봉독하였다.

1953년 8월 26일에 전남 순천 오순절교회 부흥회를 인하여 호남선 차중에서 봉독함. 시간은 오전 8시반경 김주일(김명석) 전도사님과 동행됨. 호남선 차중에서 미가서 봉독하는바 목포로 가는 도중 오후 6시 30분경에 송정리를 통과 중이었다. 순천 부흥회는 허락이 나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함인 줄 알고 가는 중이다.

1953년 8월 27일 오전 7시경에 이 나흠서를 봉독하는바 목포시 동명동 1번지 10반 정곡간씨 부인은 김의?옥씨 댁에서 봉독하였다. 전도부인은 전봉상 자매이다.

1953년 8월 28일 아침에 전남 강진군 군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이재균 집사 댁에서 봉독하였다. 최요한 형제도 상봉함. 김주일 형제도 동거함.

1953년 8월 31일 조(朝) 7시경부터 차(此) 학개서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봉독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깨달은 것은 1장 6절과 2장 14절을 특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 중에 경착하신 말삼 주택 화려한 것이다.

1953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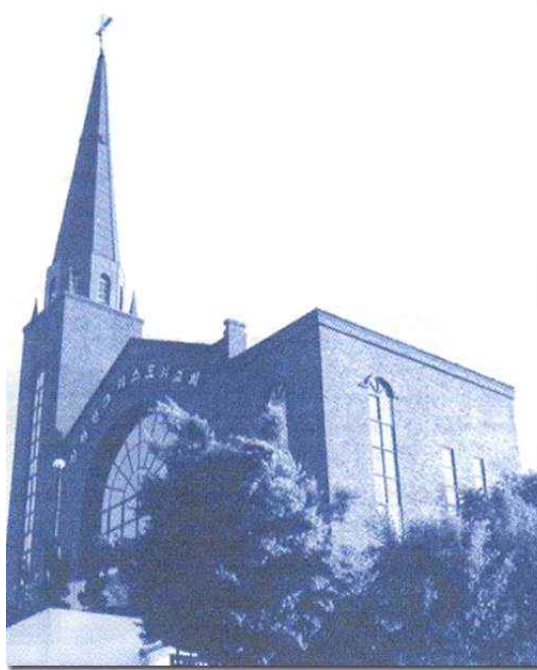
1953년 9월 3일 조(朝) 7시경에 차서를 봉독하는바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에서 연합성경학을 하는 중 8월초부터 시작하여 실행 중인바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봉독하였다. 금번 사경회는 15일까지 예정이다.

1953년 9월 4일 조 7시 20분경에 이 구약전서를 마지막으로 보난(본 것)과 말라기서를 1-4장까지 보난(는)바 전남 강진군 군동면 연화동 이재균 형제 댁에서 보았다. 이후 계속하여 신약 마태를 봉독하기로 함.

1953년 9월 19일 아침에 전남 순천시 영동 5번지 오순절교회 부흥회를 마치던 날에 마태복음을 마지막 장까지 보았다.

1953년 11월

1953년 11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석봉리 집회소에서 사도행전 봉독함.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상굴리 교회(전남 영암군 학산면)

제10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4년

1954년 1월

1954년 1월 22일 금식 중 오후 4시경에 한 시간 이내에 봉독하였다. 로마서를 읽는 중 은혜 받음.

1954년 2월

1954년 2월 2일(화) 전남 해남군 성전시장에 영산포행 차를 기다리는 중 이 출애굽 책을 봉독함. 요무(要務)는 교회 예방.

1954년 2월 2일부터 (레위기)를 매일 봉독하는 중 11일 아침에 성(聖) 글을 서대문구 송월동 326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사무실에서 오전 7시 반경에 다 봉독하였다.

1954년 2월 16일(화)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에 교회 부흥회 가는 중 목포시 남교동 106번지 하나님의 성회 내 최요한 목사 방에서 민수기 14-16장까지 봄.

1954년 2월 16일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최재호씨 댁에서 봉독함.

1954년 2월 17일(수) 아침에 상월리 교회 이순애씨 자매 댁에서 봉독하고 본(민수기) 19장 -. 이순애 아들은 조남열.

1954년 2월 24일(수)은 아침은 부강으로 가는 중 신탄을 잠시 들 어갔다가 신탄역에 나가서 본 민수기서를 수 삼장을 봉독하는 중 차 내에서 지꼬앗다(?). 2월 3일부터 24일 봉독함.

1954년 2월 24일부터 본 신명기를 봉독하기 시작하여 3월 11일까지 34장을 다 봉독하였는바 경부선 부강역전 그리스도의 교회당 내에서 봉독하였다. 금일 계속하여 여호수아서를 봉독 시작.

1954년 3월

1954년 3월 1일(월)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황당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 중 차중에서 요한복음 1-10장까지 봉독.

1954년 3월 2일(화)에 신명기 10장부터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하(?)당 부락교회 부흥회 중에 봉독하는 바 16:12까지.

1954년 3월 5일(금) 아침에 영광군 상월리 교회에서 신명기 16:13-22:9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7일(일) 전남 무안군 현강면 평산리 그리스도의 교회 박신상 형제 방에서 떠나 정귀남 형제 방에서 욥기 33-36장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8일(월) 새벽에 전남 영광읍 도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태수 형제 방에서 신명기 22-25장을 봉독함.

1954년 3월 11일에 부강예배당 내에서 본 여호수아서를 봉독 시작함.

1954년 3월 14일 주일에 경부선 서정리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 김종석 방에서 욥기 37-38장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17일(수)에 경부선 부강역전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여호수아서 8:8-9:27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18일(목) 충남 연기군 갈산리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여호수아서 10장을 봉독함. 경부선 부강역전교회에서 오후 1시 25분 경 여호수아서 11-13장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19일(금) 경부선 부강역전교회에서 여호수아서 14-15장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20일(토) 아침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당 내에서 여호수아서 16-18장까지 봉독.

1954년 3월 21일 주일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당 주택 방에서 욥기 39-40장까지 봉독. 조식 후에 또한 41-42장까지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당 주택 방에서 봉독함.

주일 오후 제5시 후에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

회당 천장 속에서 시편 1-7장까지 봉독.

1954년 3월 22일(월) 아침에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당 주택 방에서 여호수아서 19-21장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23일 화요일에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당 주택 방에서 봉독하는바 여호수아서 12-24장까지 봉독함. 봉독한 기간은 12일간이다. 하오 2시경에 이 잠언 2-6장까지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주택 방에서 봉독함. 잠언 7장 봉독. 오후 1시 후에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주택에서 8장 봉독. 대전 교회 주택에서 잠언 9-11장까지 봉독.

1954년 3월 24일(수)에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사사기 1-2장을 봉독함.

1954년 3월 25일(목) 조(朝, 아침)에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3-4장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26일(금) 아침에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5-7장까지 봉독. 8:1까지.

1954년 3월 27일(토) 아침에 8장부터 9:27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27일에 부여군 규암면 함송리를 박종예 자매님과 같이 가는 중 논산시 계룡버스 정유(류)소 대합실에서 사사기 9:28-57절까지 봉독함.

1954년 3월 28일 주일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함송리 교회당서 시편 8-9봉독.

1954년 3월 29일(월) 새벽에 부여군 규암면 노하리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에서 사사기 10-11장을 봉독함.

1954년 3월 29일 아침 구애보육원 원아실에 사사기 12장을 봉독시작. 윤?남 자매 방에서도 봉독.

1954년 3월 30일(화) 아침에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 안에서 14장 봉독. 아침 대전 교회에서 공동기도회에 잠언 23장을 봉독함.

1954년 3월 31일(수) 오전 9시경에 경부선 부강역전 부강리 김영환씨 댁 방에서 15-16장 봉독. 15-16장초는 교회당에서 봉독.

1954년 4월

1954년 4월 1일(목) 아침에 부강예배당에서 사사기 17-19장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2일(금) 아침에 사사기서를 다 봉독하는데 부강교회 당에서 마쳤다. 십일 동안이라.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니까.

1954년 4월 3일(토) 호남선 차중 목포 행(行)하면서 진성구 장로님과 동행하면서 오전 9시 중으로써 룻기 1-4장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3일 아침 7시경에 호남선 차 중에서 사무엘상 1-5장까지 봉독함. 하교역 도착까지 동행 진성구 장로. 요한복음 다 봉독.

1954년 4월 4일 주일에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시편 10-14장 봉독함. 원경선 형제가 설교 듣는 중 봉독함.

1954년 4월 5일(월)에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 최요한 목사 댁에서 출발하여 호남선 차중에서 6장부터 9:8까지 봉독. 대전교회 강단 앞에서 저녁 10시 불원(不遠)경에 요한일서 1-5장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6일(화) 아침에 사무엘상 9:9-12:25까지 봉독함. 대전시 선화동 2구 315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그런 중 특별한 일리(일이) 엿슴은(없으면) 나는 금일부터는 가족을 아주 떠나는 것을 선언.

1954년 4월 6일 저녁 11시경 근경에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14:52까지 사랑받으며 봉독함.

1954년 4월 7일(수) 아침 부강교회 전도사 김영철 제 방에서 (사무엘상 15장) 봉독.

1954년 4월 7일(수) 조반 후 부강교회 오연홍 장로 형 방에서 사무엘상 16장 봉독.

1954년 4월 7일(수) 부강교회 강단에서 사무엘상 17장 봉독.

1954년 4월 7일(수) 밤에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8-19장 봉독.

1954년 4월 8일 목요일 아침 6시후에 사무엘상 20-22장까지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봉독함.

1954년 4월 9일(금) 아침에 경부선 부강역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강단 뒤에서 사무엘상 23-28장까지 봉독. 주님의 고난 일에 시편 21-23장까지 경부선 부강역전 교회 강단 뒤에서 봉독함.

1954년 4월 3일부터 이 사무엘상을 봉독 시작하였는데 처음 봉독 시작한 함평 가는 길 호남선 차 중에서 시작하였음. 동년 4월 10일 아침까지 다 봉독하는바 경부선 부강역전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당 강단 뒤에서 사무엘상 31장까지인데 마치는 10일에는 29-31장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10일 대전행 중 경부선 차중에서 사무엘하 1-2장 봉독.

1954년 4월 11일 주일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에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봉사하던 일은 (유호성) 전도사에게 전임시키었다. 주일은 대전교회에서 오전 6시 전후에 시편 15-19장까지 봉독함. 주일 오전 9시 후에 대전교회당에서 또한 시편 20-21장까지 봉독. 오후 6시 전후에 대전교회 주택 다락방에서 시편 24-27장까지 봉독. 금일 주일은 김은석 내가 봉사하던 이 대전시 선화동 이구 삼백 십오 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호성) 형제께 ?사임을 위임식이었다.

1954년 4월 12일 월요일 아침에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당 강단 옆에서 사무엘하 3-8장까지 봉독함.

이 사무엘하 9장은 1954년 4월 12일 부강으로 갈 것인데 김완례씨가 병중임으로 못가고 병자 옆에서 봉독함.

1954년 4월 13일 아침에 대전교회 주택 방에서 병자 옆에서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 11절까지 봉독하는 중 참으로 깊이 생각하는 바는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 된 일이다.

1954년 4월 13일(화) 부강 향중(向中) 경부선 차에서 사무엘하 12:12-31절 봉독.

1954년 4월 13일 저녁 반시에 부강교회 오연홍 장로님 방에서 사무엘하 13장을 봉독함.

1954년 4월 14일(수) 아침에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사무엘하 14-16장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14일 밤 11시 전후에 부강예배당 강단 옆에서 (17장을) 봉독함.

1954년 4월 15일(목) 아침에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사무엘하 18장

을 봉독함.

1954년 4월 15일(목) 아침에는 부강 남산 절지 었(였)던 곳 부속건물 집안에서 사무엘하 19장을 봉독함. 부강 남산 절은 교회당 것던 때 같이 지었던 것인데 내가 성신 감화되어 기도드리기를 예배당 우에(위해) 절 업해(없애?)주십소서 하였더니 과연 허러(헐어) 바침이다.

1954년 4월 16일(금)에는 대전교회 주택에서 김완례씨 병위로 하는 중 사무엘하 20-22장까지 봉독하였으며, 특(特) 장문원이 전도사로 감.

1954년 4월 10일 차중에서 이 사무엘하를 봉독하기 시작하였는데, 17일(토)인 금일은 대전교회 강단 앞에서 24장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17일(토) 아침에 열왕기상 1-2장을 성철이와 같이 대전교회 강단 앞에서 봉독함.

1954년 4월 17일 토요일에 오후 2시 전후로 열왕기상 3-4장을 대전교회 강단 옆에서 봉독함.

1954년 4월 18일 일요일 아침에 대전 교회 주택 다락방에서 성철이와 같이 열왕기상 5-7장까지 봉독함. 주일 아침에 대전교회당 강단 옆에서 시편 28-35편까지 성철이와 같이 봉독함.

1954년 4월 19일(월) 저녁에 대전시 은행동 2구 1번지 10통 41방금일에 이사 온 주택에서 밤 10시경에 열왕기상 8-9장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20일(화) 아침은 은행동 주택에서 열왕기상 10-11장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20일(화) 밤 11시경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열왕기상 12장을 봉독함.

1954년 4월 21일(수) 아침에 부강교회당 옆에서 열왕기상 13-15장까지 봉독함. 모여든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5-6장 공부함. 저녁에 대전시 은행동 2구 1번지 자택에서 예배드리는 중 완례씨 명순씨와 3인이 이 6장을 봉독함.

1954년 4월 22일(목) 아침은 청원군 남이면 산수리 삼거리 신상득씨 댁에서 열왕기상 16장 봉독 시작하다가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교회 강단 옆에서 열왕기상 17장까지 봉독.

1954년 4월 23일(금) 아침 부강교회 강단 옆에서 열왕기상 18-21장

까지 봉독함. 저녁에 부강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공부오신 분들과 같이 돌려 봉독하여 사도행전 8장 공부함.

1954년 4월 17일부터 봉독 시작하여 4월 24일 조(朝)까지 봉독하는바 경부선 부강역전 그리스도의 교회당 강단 옆에서 봉독하였다.

1954년 4월 25일(일)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1장을 봉독함. 주일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예배드리는 중 본서 시편 38장까지 봉독. 명순. 성철, 완례, 4이다. 주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시편 39-41장까지 봉독함. 부강교회와 황교회가 산상예배를 충남 연기군 명확리 산상에서 드리는 중 시편 42-43편을 봉독함.

1954년 4월 26일 월요일 아침 열왕기하 2:1-3:3까지 부강교회 강당 옆에서 봉독. 새벽에 부강교회당에서 회중이 돌려 봉독하였음.

1954년 4월 27일(화) 부강교회 강단 옆에서 3:4-4:20까지 봉독함.

1954년 4월 28일(수) 아침은 부강교회 오연홍 장로댁 방에서 열왕기하 4:21-5장을 봉독함. 오전 9시경 6장을 봉독.

1954년 4월 29일(목) 아침에 열왕기하 7장까지 봉독함. 충남 대덕군 구죽면 ??리 새뜸 이은우씨 댁에서.

1954년 4월 30일(금) 아침에 수원시 고등동 268번지 1통 1반에 김정아 소방(小房)에서 열왕기하 8장 봉독함. 명(明) 5월 1일부터는 에스겔을 공부하기로 함. 오후 1시경에 인천시 부평2동 66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에서 에스겔 1-2장 봉독.

1954년 5월

1954년 5월 1일(토) 아침에 서울시 송월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대문집회소에서 정희건 형제 계신 곳에서 에스겔 3장 봉독. 서울 출발하여 차중에서 에스겔 4장부터 14장까지로 부강에 도착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김활석, 강신규 같이 신탄 도착함.

1954년 5월 2일 주일에 신탄교회 김활석 형 방에서 시편 44장 봉독. 주일 오(전) 신탄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부강을 안 가고 대전 자택에 와서 시편 45-46 두 장을 다락방에서 봉독함. 김재순 형과 동행. 강신규 자매도 같이 오심.

1954년 5월 3일 아침 대전 주택에서 에스겔 15-17장까지 봉독함.

1954년 5월 4일 아침에 부강교회 강단 옆 앞에서 에스겔 18-19장을 봉독함. 저녁 11시전 후에 부강교회 강단 옆에서 (에스겔 20장) 봉독.

1954년 5월 5일에 경부선 부강역전 부강교회당 강단 옆에서 (이사야 47장을) 봉독함. 아침에 부강교회 강단 옆에서 봉독함. 에스겔 21-22장까지. 경부선 부강역전 부강리 김영환씨 댁에서 오후에 에스겔 23장으로 24:7까지 봉독함.

1954년 5월 6일 아침에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에스겔 24장에서 26장 2절까지 봉독. 오후 6시 후에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에스겔 26:3-21까지 봉독.

1954년 5월 7일 아침 부강교회 강단 옆에서 에스겔 27장 봉독.

1954년 5월 8일 아침에 부강교회 강단 옆에서 (에스겔 28장) 봉독. 밤 10시후 경부선 신탄진 교회당 강단 앞에서 에스겔 29장을 봉독함.

1954년 5월 9일 주일 새벽에 신탄진교회당에서 수 자매와 같이 목시록 22:6-7, 20장 말절까지 봉독. 나는 혼자 시편 47-50편까지 봉독. 오후 경부선 차중에서 시편 52-55장까지를 신탄진서 부강까지 오며 봉독함.

1954년 5월 10일 아침에 부강교회 남산 상에서 갈라디아서 1-5장까지 봉독함. 본서는 다 봉독함이라. 에베소서 1-2장을 봉독함. 3-6장도 봉독함.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에스겔 30-32장까지 봉독함. 9시경에 에스겔 47장을 봉독. 1-12절은 저녁에 설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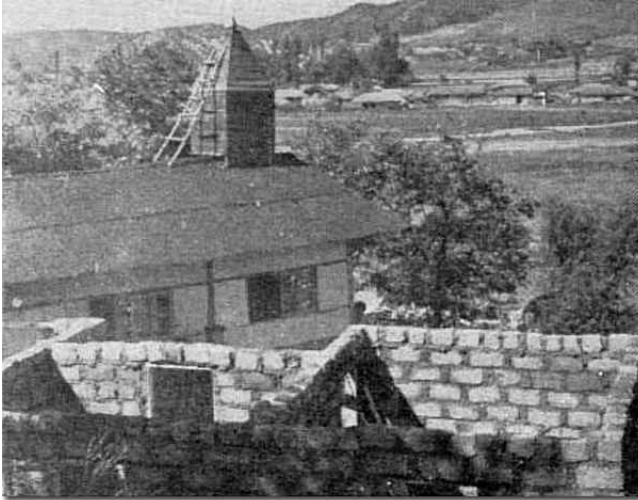
1954년 5월 11일 아침 9시경에 이 빌립보서를 봉독하는바 부강교회강단에서 독함. 아침에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봉독. 금일에는 새벽에는 오연홍 장로가 성경증언. 베드로후서 1:12로 말 3:16이었다.

1954년 5월 12일 아침에 본 (에스겔 33-34)장을 봉독하는 중 목자와 양에 대한 교훈에 큰 교훈을 받았음. 이상 34-35장을 부강교회당 앞에서.

1954년 5월 13일 금일은 에스겔 36장을 여러 번에 부강교회에서 봉독함.

1954년 5월 14일 금일 부강교회에서 일일 성경학을 마치고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 방문차로 가는 중 강신규, 임혜숙 두 자매와 같이 동행하였다. 충북선 차중에서 에스겔 37장을 봉독하면서 충주 도착.



조동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충주시 동양면, 1957년)

1954년 5월 15일 아침예배 후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에서 아침 예배드리는데 사도행전 2:47, 야고보서 5:3, 베드로전서 4:7-8을 인도한 후 에스겔 38장을 봉독함.

전(前) 장에 낮하게 되것 갖치 조동교회 교우 송복진 주택에서 에스겔 39장을 봉독함. 동명(同名)은 대밋이라 함. 오후에 조동 신축교회당에서 에스겔 40장 봉독.

1954년 5월 17(16)일 주일 아침 식사하고 시편 56-57장 봉독.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 공말 김경열 처임. 병숙 댁에서. 오전 8시 47분경에 충북 동양면 조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대현씨 댁 방에서 시편 58-59장을 봉독함. 자유(自由) ?대현... 주일 오(전) 예배를 조동서 지내고 전현재씨 형제가 지내는 내실에서 시편 62-63편까지 봉독함. 오(전) 예배시 교훈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5:14-19까지 봉독하고 화목에 대한 말씀에 교훈을 받음.

1954년 5월 18일 아침에 청주시 운천동 박인회 양로원 강만수씨 방에서 에스겔 41장 봉독. 강신규 자매와 동행하여 부강 가는 중 조치원역에서 에스겔 42장을 봉독함. 조치원역에서 봉독시작 에스겔 43-44장.

1954년 5월 19일(수) 아침 대전주택에서 에스겔 44장을 봉독함. 목

포시 유달산 교회당에서 열왕기하 9장을 봉독하였다. 해남군 방축리 교회 가는 중, 목포시 연호리 가는 중 해남호라는 배를 타고 열왕기하 10-12장까지 봉독함. 동행 박종예 자매.

1954년 5월 19일 방축 죽이교회 가는 중 버스차를 타고 연호리 가는 중에 열왕기하 13장 봉독. 해남 가는 중 호남선 차중에서 박종예 씨 자매와 에스겔 45-46장 봉독함. 호남 가는 차중에서 에스겔 48장까지 봉독함.

1954년 5월 19일 방축교회 가는 중 전남 차 버스를 해남읍에서 타고 열왕기하 14장 봉독. 동(同) 박종식, 박종예.³⁶⁾ 방축교회 가는 중 호남선 차중에서 박종예씨 자매와 동행하며 오바다 봉독. 방축교회를 가는 중 호남선 차중에서 박종예씨 자매와 동행하며 요나 1-4장까지 봉독함.

1954년 5월 20일(목) 아침에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열왕기하 15장 봉독. 금(今) 새벽에 성경 김재순 형.

1954년 5월 21일(금) 아침에 열왕기하 16장을 방축리 교회당에서 강단 옆에서 봉독. 교회당 후문 앞에서 누가복음 1장 봉독. 밤 11시 열왕기하 17장을 봉독.

1954년 5월 22일(토) 아침 9시경에 방축리 박종승 형 댁 사랑에서 열왕기하 18-19장을 봉독하는바 앗수르 망한 것 봄.

1954년 5월 22일에 방축리 집회소 인(人) 5명이 침례를 받는 중 박상옥, 김종만, 최명님, 김선예, 박풍심가 김재순 형이 시행함. 나는 이 열왕기하 20장을 봉독함.

1954년 5월 23일 새벽 예배드리러 나가지 못함. 방축리교회 박종승 형제 댁 사랑에서 시편 64-67장까지 봉독함. 주일에 방축교회 박종승 형 댁에서 (시편 68-69장) 봉독. 나는 우연 식체(食滯)가 생기여 식불(食不)함.

1954년 5월 24일(월) 아침 예배당은 대우(大雨)로 인하여 못가고

36) 방축교회는 최용호 목사의 부인 박정자 사모의 고향교회로써 사모의 증언에 따르면, 박종예 자매는 방축교회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광주에서 모 보육원에 근무하였고, 박종식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써 시계가 없던 시절에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종을 치던 분이셨다고 한다.

방축교회 박종식 형제 댁에서 열왕기하 21장 봉독.

1954년 5월 24일 아침 박종승 형 방에서 열왕기하 22장 봉독.

1954년 5월 25일(화) 아침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나즉 장로교인으로 있는 진중운씨 댁에서 열왕기하 23장을 봉독.

1954년 5월 25일에 백호리 교회에서 오전 공부한 후 열왕기하 24-25장을 봉독하는바 4월 25일부터 봉독 시작하였다. 백호리 교회 진씨 댁 잠실 방에서 이사야 53-54장을 봉독.

1954년 5월 26일(수) 금일 아침은 여러 가지로 분망하여서 성경 봉독을 못하였고, 8시경에 역대기상 1장을 봉독함.

1957년 5월 27일(목) 아침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그리스도의 교회 모임 중에서 요한복음 14:8-24까지 봉독한 후 산상(山上)에 거(去)하여 본서 역대기 2장을 봉독함.

1954년 5월 27일 오전 10시경 영신교회 강단 뒤에서 역대기 3장을 봉독함.

1954년 5월 28일(금) 영신교회 양호민 집사 대청마루에서 역대기상 4장을 봉독함.

1954년 5월 28일 영신교회에서 출발하여 14명 형제자매가 동행. 해남군 마산면 안정리에 오후에 휴식 중 민흥기 댁에서 역대기상 5장을 봄.

1954년 5월 29일(토)에 해남군 마산면 덕인리 장로파 소속 집회당에서 역대기상 6장 봉독함.

1954년 5월 29일 토요일에 덕인리 출발 공세포라는 곳에서 배타고 용지라는 곳에 하선하여 오후는 가리재라는 곳을 봤음. 해남군 개(계)곡면 여수리 새네미 임현진씨 댁을 방문. 동행 임남규, 김숙?(명)

1954년 5월 29일 토요일 상월리 교인 김상옥씨 댁에서 역대기상 8장을 봉독함.

1954년 5월 30일 주일 아침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에서 시편 69편을 봉독함. 상월리 교회로 이사 오신 분 이재균 형제 댁에서 5월 30일 주일 (시편 70편) 봉독. 주일 오후 상월리 교회에서 떠나서 목포향중 용당포에서 배 기다리는 중 시편 71편 봉독. 동행은 임남규, 진성구, 김숙명씨였다.

1954년 5월 31(월) 아침에 목포 유달산 밑 하나님의 성회라는 간판 있는 교회당에서 역대기상 9장을 봉독.

1954년 5월 31(월)에 목포를 떠나서 대전 향(向) 중(中) 차에서 김숙명 자매와 같이 동행하며 역대기상 11-15장까지 봉독함.

1954년 6월

1954년 6월 1일(화) 아침에 가정예배는 히브리서 12장을 돌려보고 나는 역대기상 16장을 봉독함.

1954년 6월 1일(화) 대구 동인동 교회 부흥회 인도 차로 가는 중 차에서 역대기상 17-18까지 봉독. 동행 김숙명씨.

1954년 6월 2일(수) 오전 공부 시간 전 대구시 동인동 190의 3 그리스도의 교회당 강단 옆에서 역대기상 19-20장까지 봉독함.

1954년 6월 2일(수) 저녁 집회 후에 대구교회 숙소에서 역대기상 21-23장까지 봉독함.

1954년 6월 3일(목) 아침 식사 후 대구교회 강단 뒤에서 역대기상 24-25장을 봉독함.

1954년 6월 3일(목) 오후는 대구시 장관동 55번지에 거주하는 김선원??씨 댁 방에서 역대기상 26-27장을 봉독함.

1954년 6월 3일(목) 밤 집회 후 10시후 대구교회 내 숙소에서 (역대기상 28장) 봉독.

1954년 5월 26일부터 봉독시작한 곳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백호동에서 하였는데 역대기상 29장을 마지막으로 봉독하기는 6월 4일 아침 대구시 동인동 190의 3 교회에서 봉독함.

1954년 6월 4일(금) 아침 역대기상 29장까지 봉독함. 또한 분서 역대기하 1장을 봉독함. 대구교회당 옆방에서.

1954년 6월 4일(금) 오후 공부 후 대구교회당 옆방에서 역대기하 2-4장 봉독.

1954년 6월 5일(토) 아침 역대기하 5-6장을 대구교회당 옆방에서 봉독. 장관동 55번지 김태달 방에서 봉독함. 오후는 대구시 중구 대봉동 123번지 대구 메무관 원용숙씨 댁 방문 중 (역대기하 7장) 봉

독. 김명석 동행. 저녁 집회 후 대구교회당 옆방에서 역대기하 8장 봉독.

1954년 6월 6일 주일에 대구 교회에서 아침부터 밤 11시경 될 때까지 수차 봉독. 시편 72-26장까지다.

1954년 6월 7일(월) 아침 교회 주택에 좀 앉아서 역대기하 9-12장까지 봉독. 저녁 집회 후 밤에 역대기하 13장까지를 봉독. 대구교회 숙소에서.

1954년 6월 8일(화) 아침에 역대기하 14-17장까지 봉독. 대구교회 강단 옆에서.

1954년 6월 9일(수) 아침 예배는 베드로전서 5장을 봉독해설하고 나는 본서 역대기하 18-19장을 봉독함. 대구교회 숙소에서 20장까지 봉독함.

1954년 6월 10일(목) 아침 예배 요한복음 19:23-27까지 봉독함과 나 혼자 역대기하 21-22장을 봉독함. 금일은 대전을 향함. 동행 김명석, 김숙명이었다. 대전 향중 경부선 차중에서 역대기하 23장을 봉독.

1954년 6월 11일(금) 아침은 대전 거주소에서 역대기하 24장을 봉독함.

1954년 6월 12일(토) 역대기하 25장을 대전 주택에서 새벽에 봉독. 26-27장은 호남선 장성역에서 영광 가는 중에 봉독.

1954년 6월 13일 주일 아침 영광읍 도동리 교회에서 새벽에 누가복음 21장 31절로 38절까지 봉독 후 시편 78편을 봉독함.

1954년 6월 14일(월) 함평군 궁산리 교회에서 아침에 성경을 못보고 김교인 장로 댁에서도 보기 시작만 하고 못 봄. 목포에 도착.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을 붙이고 3개월 공부하는 중에서 묵시록 1-22장까지를 공부하며 봉독하였다.

1954년 6월 15일(화) 아침 목포 유달 교회당에서 역대기하 28-31장까지 봉독함.

1954년 6월 16일(수) 아침은 새벽기도회에 앞섰고, 나도 식사 후에 야 역대기하 32-33장을 유달 교회당 숙소에서 봉독.

1954년 6월 16일(수) 이신 형제 부친 별세하신 영산포에 도착함.

1954년 6월 17일(목) 아침에 영산포 장로교회당에 들어가서 역대 기하 34-36장까지 봉독함과 에스라 1-2:8까지 봉독함.

1954년 6월 18일(금) 아침 본서 에스라 2:8-3장까지 목포 유달 교회당에서 김상(성?)철, 김숙명과 3인이 봉독함.

1954년 6월 19일(토) 아침 에스라 4-5장을 유달 교회당에서 봉독함. 강진군 연화동 교회 도착. 6장 봉독.

1954년 6월 20일 주일 강진 연화동 교회에서 시편 79장을 봉독.

1954년 6월 21일(일) 해남 방축 박종승 방 도착 에스라 7장 봉독. 박종식 방 김재순 거유처에서 에스라 8장 봉독. 금일 남창 김숙명 오빠 덕 광주차 정유 소장 네게 갔었다. 해남읍 차부에서 에스라 9장 봉독. 해남 방축리 박종승 형제 댁에서 본 디모데후서 4장을 봉독함. 고전 13:11-13까지 봉독. 다시 박종승 형제 방에서 베드로전서 1-5장까지 봉독.

1954년 6월 22일(화) 아침 영암 상월리 진장로 형님에서 본서 에스라 10장을 봉독. 목포행 용당 선창에서 느헤미야 1:1-2:5까지 봉독함.

1954년 6월 23일(수) 성경을 아침부터 봉독하는 것이 느헤미야 2:5-3장 전부를 봉독하는 목포 괴정동 교회 수요 예배드리러 가서 봄.

1954년 6월 24일(목) 아침에 목포 산정동 교회당에서 느헤미야 4-6장까지 봉독함.

1954년 6월 25일(금) 아침에 목포 유달 교회 하방(下方)에서 느헤미야 7장 봉독함. 조반 후 시간 될 때 8장 봉독. 목포 유달 교회당 하방. 오후에 유달 교회당 옆 뜰 방에서 9장 봉독. (편집자 주: 연도 표시 없이 6월 25일이라고 썼으나 24일로 착각한 듯함.)

1954년 6월 26일(토) 오후 유달 교회당 하방에서 느헤미야 10-11장 봉독. 원형(元兄) 광주가심. 주님이 빠신 참복음자이라.

1954년 6월 27일 주일 아침 유달교회당 강단 옆방에서 시편 81-83까지 봉독. 유달산 등산함. 84-85까지 봉독. 또 121장 하나는 김일순, 이정자, 황하주, 박진식씨, 나와 동행함. 주일 오후에 김일순, 박치환 부친, 이정자, 황하주 나 5인 동행 유달 등산하야 예배드리는 중 찬

(송가) 310장 부르고 본서 시편 121를 봉독함.

1954년 6월 28일(월) 아침 대단히 늦게 기침(起枕)을 하였다. 6시이다. 성경은 본서 느헤미야를 12-13장까지 봉독하는바 유달 교회당 옆방에서 22일 봉독 시작한 것을 금일에 마침. 유달 교회당 강단에서 에스더 1-2장 봉독.

1954년 6월 29-30일 아침까지 본 잠언을 다 봉독하는 바 유달교회 강단에서 함.

1954년 6월 30일(수) 밤 11시경에 유달 교회 강단 앞에서 에스더 3-5장까지 봉독.

1954년 6월에 목포시 죽교동 해병대 앞 유달교회에서 유다서를 봉독하였다.

1954년 7월

1954년 7월 1일(목) 밤 10시경에 에스더 6-7장을 유달 교회 단 앞에서 봉독.

1954년 7월 2일(금) 아침에 유달 교회당 옆방에서 에스더 8-10장까지 봉독. 본서를 6월 28일부터 봉독 시작하였음. 7월 2일부터 이사야를 봉독 시작함. 아침 유달 교회당 옆방에서 이사야 1장 봉독.

1954년 7월 3일 아침 목포 와이엠시 이발소에 가서 이사야 2-5장까지 봉독. 돌아와서 6장을 봉독. 유달교회 강단에서. 밤 유달교회 강단 앞에서 이정지 누님, 김성철 3인, 이사야 7-8장까지 봉독.

1954년 7월 4일 주일 아침 유달교회였던 곳,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고 간판을 붙인 강단에서 86-87장 봉독. 88-89:23까지 봉독하는바 목포 유다(달)교회에서 함인. 오후는 육체에 오한이 나서 괴로움 받는 중 저녁에는 공식 예배 불참(참).

1954년 7월 5일에는 아침 잘 봉독치 못하고 째째이 이사야 9:1-10:11까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회에서 봉독.

1954년 7월 6일 아침 이사야 9:12-12장까지 유달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에서 봉독.

1954년 7월 7일 아침에 ?형(뉘)이 내방하여 잠시 간담. 화한 후 이

사야 13:1-14:2까지 봉독함.

1954년 7월 8일 아침 송(宋) 형제가 또 오시어서 서울 가시는 의논이 있었고, 식사 후에 이사야 13-16장까지 봉독.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 연구처에서.

1954년 7월 9일 아침 이사야 17-20장까지 봉독. 김재순 형제의 교회 대한 상담함. 저녁 10시 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에서 (21-22장까지) 봉독.

1954년 7월 10일 아침 목포 유달교회 강단 뒤에서 이사야 23-24장까지 봉독. 밤 열시 후에 유달교회 강단에서 이사야 25-26장을 봉독함.

1954년 7월 12일 월요일 아침은 육체가 편치 못함으로 7시 후에 기(起)하게 되는바 주관 ??가 내담(來談)하게 되었고, 이정자, 김숙명 자매가 음(식) 준비함. 성경은 (이사야) 27-28장을 봉독.

1954년 7월 13일 저녁에 나의 병이 좀 차도 와서 유달교 하룻에서 이사야 29장을 봉독.

1954년 7월 14일 아침 나 병(病)이 좀 나서 유달교회 옆방에서 이사야 30-31장을 봉독함.

1954년 7월 15일은 병이 좀 나아서 기동 중에서 32-33장을 봉독함. 유달교회에서.

1954년 7월 16일 아침부터 봉독 중 오(점심) 식사 양동교회 박승호씨가 대접하는 중 원경선 형제 같이 갔다. 후(에) 와이엠씨 이발소에 가서 봉독하며 이발함. 금(일)은 원(元)형이 김재순, 이신, 나 4인분을 백십환을 지불함. 아침에 유달교회당에서 옆에 본서 이사야 38-40장까지 봉독함. 금일 대전을 가기로 됨. 목포 대전행차중에서 이사야 41-46장까지 봉독함. 철도에서 한 사람 별세함. 이 차는 연착하게 되었다. 철도에서 사람 죽은 일. 논산역에서 잠시 정차한 중에서 이사야 48장을 봉독함.

1954년 7월 17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이사야 55-58장까지 봉독함. 참진노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본서 중 참으로 복음이 있음이라.

1954년 7월 18일 주일 아침은 대전시 은행동 2구 1번지 106호 나의 자택에서 김완례, 김명순이 합(合)하여 시편 89편을 봉독하였음. 2

층에서 시편 90장으로 94장 8절까지 봉독함.

1954년 7월 19일 월요일 부강교회에서 이사야 59-60장까지 봉독. 수원시 고등동 사사(舍弟) 정원 집에서 이사야 61-62장 봉독.

1954년 7월 20일 화요일 아침 사제 정원 방에서 이사야 63-64장을 봉독.

1954년 7월 21일(수) 상경 중 차중에서 마태복음 1-8장 봉독.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9의 1호 엄진성 댁에서 이사야 65장 봉독. 7월 2일 아침 본서 이사야를 봉독 시작함. 7월 21일 아침에 서울시 중구 도동 2가 5번 그리스도의회 대한 감리회 감남교회당 안에서 본서 이사야 66장을 마지막으로 봉독함. 김도철 형과 동행이며 그가 댁 이명근씨 댁에서 조식함. 서울 남산 우 감남 교회당내에서 예레미야 1장을 봉독. 아침 서울 남산 상(上)에 있는 감남교회당에서 봉독시작하였는데 24일 오후까지 본서 예레미야 52장까지를 봉독함. 끝까지 봉독한 곳 대전 자택. 1954년 7월 21일 아침 서울 남산 상(上) 감리회 감남교회당 안에서 봉독함. 예레미야 1장부터 1954년 7월 24일 저녁까지에 본서(예레미야애가)까지 봉독하는바 대전 자택에서.

1954년 7월 22일 아침 신탄진 예배당에서 예레미야 2:9-3장을 봉독함. 오정에 신탄교회당내에서 예레미야 4장 봉독. 김도철, 김동렬 합석 교회사 의논함. 밤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예레미야 5장 봉독.

1954년 7월 23일 아침 경부선 부강역전 그리스도의 교회 강단에서 예레미야 6-8장까지 봉독함. 오전에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9-10장을 봉독. 오후에 예레미야 11-13장까지 봉독. 안경을 3,200환주고 매(買)함. 오후에 안경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예레미야 14-18장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저녁에 또한 예레미야 19-24장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특히 예레미야가 20장에서 사명에 탄식을 말함에 감격함.

1954년 7월 24일 오전에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25-30장까지 봉독함. 성경을 봉독 중 들이난(들리는) 말리(말이) 나을(나를) 거짓 선지자라는 말과 나를 불신용자(不信用者)은(나를 신용하지 못하는 자는) 말만타(말이 많다?) 그런 고로 어이할까. 오정으로 1시경까지 예레미야 31-36장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

1954년 7월 25일 주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시편 90-109편까지 봉

독함. 작야(昨夜)는 신?교회 천정희 씨가 내숙(來宿)함. 1954년 7월 25일 주일에 본 시편 94:9-150편까지 봉독하며 은혜 받음. 할렐루야. 성도의 노래 이 시편을 이와 같이 부족한 자 기쁨으로 봉독함은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다. 석양에 본서 전도서 1-3장을 대전 자택에서 봉독. 주일 저녁 예배 후 본 전도서 4-12장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 만사에 때가 있다고 함. 3장 4장 9절을 참고.

1954년 7월 26일(월)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마태복음 10-11장까지 봉독함. 대전 주택에서 본 다니엘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봉독. 금조(今朝)에 김도철 형제 래(來)하시었음.

1954년 7월 27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호세아 1-5장까지 봉독함. 아침 버스로 신탄진을 가려다가 다시 자택에 입하여 호세아 6-12장까지 봉독함. 아침 조담 후에 호세아 13-14장까지 봉독함. 금조 3차에 걸쳐 호세아 1-14장까지 봉독하는바 대전 댁에서.

오전 8시 후에 본서 요엘을 1-3장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저녁에 서울시 동대문구 송인동 72의 77번지 천세영씨 큰 댁에서 아모스 1-2장을 봉독. 김동열 형과 동류(同留)함.

1954년 7월 28일 저녁에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5번지 삼신상회 이기철 형제 댁에서 아모스 8-9장을 봉독함. 동행동류 김동열 형과 모친님. 서울서 대전 자택에 돌아와서 차서(此書) 오바다를 봉독함.

1954년 7월 29일(목) 서울서 대전 오는 중 김동렬 모친 분과 동행 중 차내에서 마태복음 14-16장까지 봉독함.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김완례, 명순이 같이 17장 봉독함. 대전 자택에서 본서 미가를 1-7장까지 봉독함.

1954년 7월 30일(금) 목포행중 호남선 차중에서 마태복음 18-28장까지 봉독함.

1954년 7월 31일 아침 목포 유달교회 성경연구처에서 나훔 1-3장까지 봉독. 오후 7시경 이상에 본서 하박국을 1-3장까지 목포 유달교회당에서 봉독함. 오후 8시경에 목포 유달교회당에서 스바냐 1-3장까지 봉독함. 저녁 9시 55분경에 목포 유달교회당에서 학개 1-2장까지 봉독함. 저녁에 성경 말씀 증거는 정찬성 형제. 저녁 10시 후 차에서

스가랴 1장을 동독함. 목포 유달교회당에서.

1954년 8월

1954년 8월 1일 주일에 목포 유달교회에서 아가서 1-3장까지 봉독함.

1954년 8월 2일 월요일 아침에 목포 유달교회 강단에서 스가랴 2-8장까지 봉독함. 금효(今曉, 새벽)에 김규상 형제 누가복음 19:1-10까지 봉독하고 은혜말씀 전함.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 4구 2반 해병통신대 앞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에서 스가랴 9-14장까지 다 봉독. 본서에서 극하게 각성할 (말)삼 목자 스가랴 11:17. 1-8장까지는 작일 봉독.

1954년 8월 3일 에 목포 유달 교회당에서 말라기 1-4장을 봉독함.

1954년 8월 4일(수) 아침 마가복음 1장을 유달 교회 강단에서 봉독. 새벽예배 나와 재순 형이 증거함.

1954년 8월 6일(금) 아침에 교회 목포 유달에서 봉독함. 마가복음 4-5장.

1954년 8월 7일(토) 마가복음 6장을 아침에 유달 교회에서 봉독함.

1954년 8월 8일 주일 오전에 함평 석성리 김교인 장로덕에서 아가서 4장 봉독. 주일 오후에 함평 신흥교회 주택에서 아가서 4-6장 봉독.

1954년 8월 9일(월) 함평서 목포에 돌아와서 교회 유달서 마가복음 7-8장까지 봉독함.

1954년 8월 10일(화) 아침 목포 유달 교회에서 마가복음 9:1-10:23까지 봉독함.

1954년 8월 11일(수) 아침에 마가복음 10:24-11:33까지 봉독.

1954년 8월 13일(금) 목포 유달 교회에서 마가복음 12장으로 14장 16절까지 봉독함. 목포 유달 교회 강단 상에서 본서 마가복음 14:17-16장까지 봉독함. 4일부터 본서 봉독 시작함.

1954년 8월 14일(토) 저녁 목포 유달 교회당에서 누가복음 1-2장 봉독.

1954년 8월 15일도 예배 목포서 드리고 오후는 전도회 자매님과 동행하여 무안 평산교회 방문. 아가서 6-7장까지 봉독. 주일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김광삼 할머니 자제 정귀남 씨 댁에서 이 아가서를 8장까지 봉독함.

1954년 8월 16일(월) 평산 교회에서 목포로 와서 본 누가복음 3장을 마자 봉독함. 유달 교회에서.

1954년 8월 17일(화) 유달 교회 강단 앞에서 누가복음 4-5장까지 봉독함.

1954년 8월 18일(수) 유달 교회당 옆방에서 6-7장까지 봉독함. 오연홍 (부강교회 장로) 오심. 부강교회 복잡 논(論).

1954년 8월 19일(목) 목포 유달 교회당에서 누가복음 8:1-9:23까지 봉독함.

1954년 8월 20일(금) 누가복음 9:20-43까지만 겨우 봉독.

1954년 8월 21일(토) 아침에는 누가복음 9:44-10:42까지 봉독함. 강진 연화동 교회 가는 중 버스에서 11장 봉독.

1954년 8월 23일(월) 상월리 교회에서 누가복음 13-15장까지 봉독함.

1954년 8월 24일(화) 아침 누가복음 16장은 상월리에서 봉독. 17장은 용당리 선창에서 봉독함.

1954년 8월 25일(수) 아침에 누가복음 18:1-20:18까지 봉독.

1954년 8월 26일(목) 아침에 누가복음 20:19-21장까지 봉독함.

1954년 8월 27일(금) 아침 유달 교회당에서 누가복음 22장을 봉독함.

1954년 8월 28일(토) 누가복음 23장을 유달 교회에서 봉독함.

1954년 8월 30일(월) 새벽에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 4통 2반 하나님 성회 유달 교회당에서 누가복음 24장 봉독. 사도행전 1:1-2:36까지를 목포 유달 교회당에서 봉독함.

1954년 8월 31일(화) 광주에서 봉독함.

1954년 9월

1954년 9월 1일(수) 광주 (남구) 사동 22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봉독.

1954년 9월 3일(금) 아침에 광주시 사동 22번지 10반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사도행전 9장 봉독.

1954년 9월 4일(토) 전남 광주시 사동 22번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봉독.

1954년 9월 10일(금, 추석명절) 황하주 결혼사로 1954년 9월 10일 상월리 가는 중 용당리 선창 해남 이발관에서 사도행전 17-18장까지 봉독.

1954년 9월 11일(토, 추석당일) 토요일 전남 영암 상월리 교회 집회소에서 황하주 결혼식 하기 위하여 모인 이정지 김홍석 나 삼인이 19-20장까지 봉독함.

1954년 9월 13일(월)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 집회 가는 중 성전서 버스정류소에서 사도행전 22-28장까지 봉독함. 동행 김홍석 형제.

1954년 9월 15일(수) 아침 방축교회 박종승형 댁에서 고린도전서 4-6장까지 봉독. 석양에 방축교회 박종승 형제 댁에서 고린도전서 7-9장까지 봉독. 밤에 10장 봉독함. 새벽 3시 전후에 본서 골로새서를 방축리교회에서 1-4장까지 봉독.

1954년 9월 16일(목)에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에서 11-16장까지 봉독함.

1954년 9월 17일(금) 아침에 방축교회당 강단 옆에서 본서 고린도후서 1-13장까지 다 봉독함. 본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전일 광주서 봉독하기 시작하였으나 1954년 9월 17일 방축교회 박종승 형제 댁에서 4-5장을 봉독하여 봉독함. 저녁에 데살로니가후서 1-3장까지를 박종승 형제 댁에서 봉독함.

1954년 9월 18일(토) 아침에 박종승 형제댁에서 본서 디모데전서를 1-6장까지 봉독함. 디모데후서 1-3장까지 봉독함. 오전에 본서 디도서를 박종승 형제댁에서 1-3장까지 봉독함.

1954년 9월 21일(화) 아침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교회에서 산상에 가서 히브리서 7장 봉독. 8장 이양호 민집사 방에서 봉독.

1954년 9월 22일(수) 오전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화랑교회에서 히브리서 9장 봉독. 저녁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에서 히브리서 10-13장까지 봉독함.

1954년 9월 23일 목요일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교회에서 본서 야고보서 1-5장까지 봉독함.

1954년 9월 26일(일) 새벽에 광주 사동 다리 밑에서 본서 베드로 후서 1-3장을 봉독. 1장은 작야에. 2:4까지 이 책을 읽을 때에 김00도 같이 있었다. 주일 새벽에 광주 사동 다리 밑에서 본서 요한2서를 봉독함. 주일 새벽에 전남 광주 사동 다리 밑 집에서 본서 요한3서를 봉독함. 김재순 형제 동생 김철수도 같이 있었다.

참으로 생명 양식이 되는 이 성경책을 수십 년간 봉독하는 중인데, 금년은 1954년 단기 4287년인데 1월 1일에 창세기 1장부터 묵시록 22장까지를 9월 26일 주일 새벽 전남 광주 사동 다리 밑 나의 누이의 주소에서 마지막 봉독하는바 참 때때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 책을 마지막 봉독하던 날은 김철수도 같이 있었고, 전도회 자매님과 나의 동생 금인이라도 있었다. 금년 중 본서 묵시록을 다 봉독 마지막 날은 1954년 9월 26일 주일 새벽 3시경인데, 이 말을 기록하는 시(時)는 3시 35분경이다. 269일만에 다 봉독. 그리스도님이 사랑하심을 입은 중 김은석 서언(誓言). 기(記). 금일부터는 차서가 있게 많이 봉독함을 그만 두고 신기 신비한 뜻을 나의 아버님께 감히 배우려 합니다. 아-멘.

1954년 10월

1954년 10월 30일 주일 아침에 시편 78장을 신생부락에서 노의수 형에서 봉독.

1954년 12월

1954년 12월 27일 새벽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교회 주택에서 요한일서 4-5장을 봉독하는데 금일은 김규상 형제 결혼식을 위하여 전(남) 강진을 가는 날이다.

1954년 12월 28일에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 강단 옆에서 본서 요한2서와 3서를 봉독하는바 금번 이 곳 온 것은 김규상 마은정 형제자매 결혼주례차로 음.



1958년 8월에 흙벽돌로 건축된 20평 규모의 성화교회
(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제11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5년

1955년 1월

1월 1일부터 읽기를 시작하여, 1955년 1월 13일(목)에 충곡교회 주택에서 창세기 34-35장을 봉독. 박근영 형제 혼사로 인하여 금일 부여에 갈 예정.

1955년 1월 13일(목)에 부여 합송리 교회 김광우 전도사 댁에서 창세기 36장 봉독. 김순식 자매 혼사로 방문차중.

1955년 1월 15일(토)에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교회 교역자 김광우 씨 집에서 39-40장 봉독. 묵시록 9장 봉독. 작야(昨夜, 어젯밤) 11시 박근영, 김순식 약혼식 함.

1955년 1월 17일(월) 아침에 광주시 광산동 80번지 집회소에서 창세기 41-42장 봉독. 묵시록 8장 봉독함.

1955년 1월 18일(화) 아침은 광주시 광산동 80번지 모임 중에서 창세기 43-44장과 묵시록 7장 봉독. 석영에 본서 하박국을 1-3장까지 광주 광산동 80번지 최성대씨 댁 2층 집회소에서 봉독함.

1955년 1월 19일(수)은 식전은 김호민 형제를 방문 갔었음으로 오후 30(?)에 45-46장과 묵시록 6장까지 봉독.

1955년 1월 20일(목)은 광주시 호남동 한공빌딩 상신양복점 신영두 형제 댁에 갔었다. 본 창세기 47-48장과 묵시록 5장까지 봉독.

1955년 1월 21일(금)은 이른 아침에 목고환 형제와 이현필 형제 댁에를 가서 다녀왔다. 오전 10시 후에 창세기 49-50장까지를 봉독. 묵시록 4장을 봉독함.

1955년 1월 22일(토) 출애굽기 1-2장과 묵시록 3장까지 광주 집회소에서.

1955년 1월 24일(월) 출애굽기 3-4장과 묵시록 2장을 광주에서와



김천 그리스도의 교회(경북 김천시, 1957년)

차중에서 봉독. 대전도착.

1955년 1월 25일(화) 출애굽기 5-6장과 묵시록 1장을 대전 선화동 교회에서 봉독.

1955년 1월 26일(수) 경북 금능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³⁷⁾ 출애굽기 7-8장과 유다를 봉독.

1955년 1월 27일(목)은 수리교회 가는 중에 버스 안에서 출애굽기 10-11장과 요한이서와 삼서를 봉독함.

1955년 1월 28일(금)에는 수리교회당 주택에서 출애굽기 12-13장과 요한일서 5장 봉독함.

1955년 1월 29일(토) 새벽에 출애굽기 14-15장과 요한일서 4장 봉독함. 수리교회당 주택 방에서.

1955년 1월 30일 주일 새벽에 수리에배당 강단 옆에서 요한일서 3장과 출애굽기 16-17장을 봉독함. 주일에 수리교회 주택 방에서 시편 31장을 봉독.

1955년 1월 31일 월요일 새벽에 수리에배당 강단 옆에서 출애굽기 18-19장을 봉독. 요한일서 1-2장을 봉독함.

1955년 2월

1955년 2월 1일(화) 새벽에 수리교회 옆방에서 출애굽기 20-22장과 베드로후서 3장 봉독.

1955년 2월 2일(수)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출애굽기 23-24장과 베드로후서 2장 봉독.

1955년 2월 3일(목) 아침은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교회당 주택 방에서 출애굽기 25-28장까지와 베드로후서 1장을 봉독함.

37) 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씨가 설립.

1955년 2월 4일(금) 아침에 출애굽기 29-30장과 베드로전서 5장을 봉독함. 충곡교회 강단 옆에서.

1955년 2월 5일(토) 아침 출애굽기 31-32장을 봉독과 베드로전서 4장도 봉독함. 충곡교회에서.

1955년 2월 6일 주일에 논산군 부적면 충곡교회 강단 뒤에서 시편 42편 봉독. 주일에 충곡교회 주택 방에서 시편 58편을 봉독.

1955년 2월 7일(월) 아침 출애굽기 33-34장과 베드로전서 3장을 충곡교회 주택에서 봉독.

1955년 2월 8일 화요일 아침에 충곡교회당 강단 뒤에서 출애굽기 35-37장과 베드로전서 2장까지 봉독.

1955년 2월 9일(수)은 충곡교회를 떠나서 영광교회를 가는 중에, 출애굽기 38장은 충곡교회 주택에서, 39장은 연산역에서 봉독. 베드로전서 1장은 차중에서 봉독.

1955년 2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영광읍 교회 주택 방에서 본 40장을 봉독함.

1955년 2월 10일 목요일 본(레위기) 1 봉독. 영광교회에서 출애굽기 40장 야고보서 5장 함.

1955년 2월 11일(금) 아침 본서(레위기)2-3장과 야고보서 4장을 영광교회 주택에서 봉독.

1955년 2월 12일(토)에 조반식사를 영광교회 최성운씨 덕에서 레위기 4-5장과 야고보서 3장을 봉독.

1955년 2월 13일 주일 영광교회 강단 옆에서 전도서 9-12장까지 봉독함.

1955년 2월 14일(월)은 조식 전에 이 성경을 봉독치 못하고 저녁 10시경에 본서(레위기) 6-7장과 야고보서 2장을 봉독함.

1955년 2월 15일(화) 아침 레위기 8-9장과 야고보서 1장을 봉독함. 영광교회 최성운 덕에서.

1955년 2월 16일 수요일 새벽은 레위기 10-12장과 히브리서 13장을 영광읍 교회당 강단 옆에서 봉독함.

1955년 2월 17일(목)은 박근영군과 김순식 자매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주례를 집행하려고해서 레위기

14-17장과 히브리서 12장을 봉독함.

1955년 2월 18일(금) 합송리교회 구애보육원 식당에서 유숙하고 히브리서 11장과 본서(레위기) 18-19장을 봉독함. 박근영, 김순식 신행길을 갈 것.

1955년 2월 18일 금요일에 박근영 형제와 김순식 두 분이 신행하야 연산교회 출석오심.

1955년 2월 19일 토요일에 충곡예배소에서 히브리서 10장과 레위기 20-21장 봉독.

1955년 2월 20일 주일 부강교회 주택 방에서 시편 39장을 봉독함.

1955년 2월 22일(화) 아침 부강주택골방에서 레위기 24-25장과 히브리서 8장을 봉독.

1955년 2월 23일 수요일은 수리교회를 가는 중 차에서 히브리서 7장과 본 (레위기) 26-27장을 봉독함. 청주서 증평부근까지 중에서.

1955년 2월 24일(목)은 서울 이대동을 뵈이러 가는 중 버스안과 서울 가서까지 민수기 1-2장과 히브리서 6장 봉독.

1955년 2월 25일(금)은 민수기 3-4장과 히브리서 5장을 저녁 10시경 수리교회당에서 봉독. (편집자 주: 일백일 성경연구집회를 시작함.)

1955년 2월 26일(토) 아침은 민수기 5-6장 히브리서 4장을 봉독함

1955년 2월 27일 주일 아침 수리교회에서 시편 148-150장까지 봉독. 심히 기쁨의 찬양이다.

1955년 2월 28일 월요일 아침 히브리서 3장과 본(민수기) 7-8장을 수리교회에서 봉독함.

1955년 3월

1955년 3월 1일(화) 아침에 수리교회 강당 수리중이며 민수기 9-10장과 히브리서 2장 봉독함. 작일(昨日) 소대교회와 노은교회에서 6인이 내(來)하심. 오후에 수리교회에서 예레미야 42장을 봉독.

1955년 양 3월 2일 수요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성경 백일 공부하는 중에 오시어서 조식(造食)과 세탁(洗

濯)에 수고하시던 이혜순 자매님이 양 (백일은 2월 25일 6월 5일까지) 5월 9일 월요일 시모(媿母)님 병환이 계신다하여 귀택(飯宅)하심.



소수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면)

수리교회당 방에서 예레미야 43-47장과 히브리서 10장을 봉독함. 민수기 11장을 봉독할 것인데 급히 불일이 예레미야에서 있음으로 이와 같이 함.

1955년 3월 3일 목요일 마음에 감화되어 전도하는바 매일 일인씩 할 작정.

1955년 3월 4일 금요일 아침 금식하며 예레미야 50-51장과 디도서 3장을 봉독함.

1955년 3월 5일(토) 금일은 예레미야 52장과 딛(디도서) 2장과 본(민수기) 11장을 봉독함. 아침 수리교회 강단 옆에서 예레미야

52장과 디도서 2장을 봉고.

1955년 3월 6일 주일 아침에 수리교회 방에서 시편 70-72편까지 봉독함. 근일은 각처에서 모인 분들 보며 죄 자복하는 일이 분분한대 대개 몸 안 죄가 많다.

1955년 3월 7일(월) 아침에 12-14장과 딛(디도서) 1장을 봉독.

1955년 3월 8일(화)에 수리교회 방에서 딛후 4장과 본문(민수기) 15-16장 봉독.

1955년 3월 9일 수요일 딛후 3장과 본 민수기 17-18장을 봉독함.

1955년 3월 10일(목) 민수기 19-20장과 딛후 2장을 봉독함. 오후에 수리교회 주택에서 욱기 18-19장을 봉독함.

1955년 3월 11일 금요일 아침 민수기 21-22장과 딛후 1장을 봉독함.

1955년 3월 12일 토요일 비가 오는 아침에 민수기 23-24장과 딛전 6장을 수리교회 강단 옆에서 봉독함.

1955년 3월 14일 월요일 민수기 25-26장과 딤전 5장을 수리교회 숙소에서 봉독함.

1955년 3월 15일(화) 아침 민수기 27-28장과 딤전 4장을 수리교회 강단 옆에서 봉독함.

1955년 3월 16일(수) 민수기 29-31장과 딤전 3장으로 1장으로 봉독함. 수리교회 강단 옆에서 금식 중.

1955년 3월 17일(목) 수리교회 강단 옆에서 민수기 33:1-34:12절과 살후 3-1장을 봉독.

1955년 3월 18일(금)에는 아침은 이숙준씨 댁에 조(금?)보고 또는 교회강단 옆에서 보고 함. 본서(민수기) 34-36장과 살전 5-3장을 봉독함.

1955년 3월 19일(토) 신명기 1-2장 31절까지와 살후 2-1장을 봉독함.

1955년 3월 20일 주일에 수리교회 주택에서 욥기 1-5장을 봉독함. 저녁에 수리교회 강단 평에서 나훔 1장을 봉독.

1955년 3월 21일 월요일 아침 소수교회 강단 옆에서 신명기 2:32-4:40절과 골로새서 2-12:4:18.

1955년 3월 22일 화요일 아침 4:41-7:14와 골로새서 2-1장을 소수교회 방에서 봉독.

1955년 3월 23일 수요일 아침 빌립보서 4:1-2:15와 신명기 7:15-10:10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함. 밤에 예배 후 의술이 위하여 연보하는 일 의논한 후 소수교회 방에서 차서(此書) 오바다 봉독.

1955년 3월 24일(목) 낮에 신명기 10:11-13:3과 빌립보서 1:1-2:14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함.

1955년 3월 24일 아침 신명기 13:4-16:16과 에베소서 6:1-4:22까지를 소수교회 방에서 봉독. 목요일에 오후 전도를 나갔다가 서석용 형제 댁에 입하여 본서 학개를 봉독하는바 저녁에 반식함. 주소는 괴산군 소수면 수리 가장골.

1955년 3월 25일(금) 아침에 소수교회 방에서 신명기 16:17-20:10과 에베소서 2:20-4:21까지 봉독함.

1955년 3월 26일(토) 신명기 22:12-23:21과 에베소서 1:1-2:19까지 봉독. 소수교회 강단 옆에서 김명석 전도사 의성이 다리고 서울 가심. 밤에 소수교회 방에서 에스겔 33:31-35:6까지 봉독. 토요일에 저녁에 미가 7장을 소수교회 방에서 봉독.

1955년 3월 27일 주일 오후 소수예배당 방에서 시편 102장을 봉독. 김명석 부자 서울서 오심. 주일 아침에 소수교회 방에서 아가서 1-3장을 봉독. 전대현씨 득남함. 주일 아침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아가서 1-8장까지 봉독.

1955년 3월 28일 월요일 아침에 신명기 23:22-27:15와 갈라디아서 4:28-6:18까지 신애 안고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오후에 가장골 김상응씨 댁에서 오식(午餐) 중(中) 열왕기상 21:14-22:4까지 봉독.

1955년 3월 29일(화) 아침에 신명기 27:16-29:6과 갈라디아서 2:18-4:27까지 봉독. 소수교회당 방에서 박장봉 형과 같이.

1955년 3월 30일(수) 아침 신명기 29:7-31:30과 갈라디아서 1:1-2:27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3월 31일(목) 아침에 신명기 32:1-34:12와 고후 12:15-13:14까지 소수교회 예배당 강단 옆에서 봉독함. 이 신(명기)을 3월 19일부터 시작하여 12일만에 다 보았다.

1955년 4월

1955년 4월 1일 금요일 아침 여호수아서 1:1-4:18과 (고린도후서) 11:7-12:14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4월 2일(토) 아침에 여호수아서 4:19-7:26과 고린도후서 9:3-11:6까지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밤까지 본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소수교회당에서 백 일간 공부 중에서 마침.

1955년 4월 3일 주일 아침에 소수교회당 골방에서 욥기 6:1-12:15까지 봉독함. 주일 오후에 소수교회 골방에서 잠언 18:14-19:29까지 봉독.

1955년 4월 4일(월) 소수교회당 밀실에서 여호수아서 8:1-10:13과 고린도후서 7:5-9:2까지 봉독.

1955년 4월 4일(월) 아침에 고린도후서 7:4과 여호수아서 10:14-13:15까지 소수교회당 강단 옆에서 봉독.

1955년 4월 5일(화)까지 소수교회당에서 백일성경 중에서 요한일서 공부함.

1955년 4월 6일(수) 아침 고린도후서 2:15-5:4과 여호수아서 13:16-17:3 소수교회.

1955년 4월 7일(목) 아침 여호수아서 17:4-20:6과 고린도후서 1:1-2:14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4월 8일(금) 아침에 고린도전서 14:40-16:24와 여호수아서 20:7-22:23까지 소수교회 방에서 봉독.

1955년 4월 9일(토) 아침에 여호수아서 22:34부터 사사기 2:4과 고린도전서 13:6-14:39.

1955년 4월 10일 주일 아침에 본 잠언 7장을 전도회, 이혜순, 김완례씨 같이 교회당 주택 방에서 봉독.

1955년 4월 11일(월)에 사사기 2:5-5:8까지와 고린도전서 11:19-13:5까지 소수교회 방에서 봉독. 김명석 형제이 함께(숨) 함. 4월 11일 월(요)일까지에 본서 빌레몬서를 공부 소수교회당에서 백일공부 중에서도.

1955년 4월 12일(화) 아침 소수교회 방에서 사사기 5:9-7:9과 고린도전서 10:2-11:18까지 봉독. 소수교회당에서 백일간 공부 중에서 4시까지 마침. 공부한 인원 여-유경희, 곡봉예, 전도회, 최옥순, 이혜순, 정희순, 김옥희, 남-이원모?, 박장봉, 차대훈, 나연찬, 김명석, 김웅석.

1955년 4월 13일(수) 아침 고린도전서 8:2-11장과 사사기 7:10-9:28까지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4월 14일(목) 새벽 2시경에 사사기 9:29-11:35까지 봉독. 소수교회당 강단 옆에서. 1955년 4월 14일 새벽 4시경 소수교회당 방에서 사사기 11:36-13:16까지 봉독. 새벽에 소수교회에 예배 23인, 남 7, 여 16인이었다. 1955년 4월 14일 아침 소수교회 방에 사사기 13:17-16:21과 고린도전서 6:20-8:1까지 봉독. 오후 5시후로써 12:1-14:5까지 봉독.

1955년 4월 15일(금) 새벽에 열왕기상 10-14장 봉독. 남 5인, 여 16

인, 합 21인. 아침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사사기 16:22-19:24와 고린도 전서 4:11-6:19까지 봉독함. 저녁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18:1-20:7까지 봉독.

1955년 4월 16일(토) 아침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19:25-21:25와 고린도 전서 2:10- 4:10까지 봉독함.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2월 25일부터 시작한 백일 집회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바 4월 16일은 수십 명이 공부하였다.

1955년 4월 17일 주일 석양 5시후 소수교회 방에서 욕기 38:27-40:11까지 봉독. 금일도 섭섭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김명석 형제 부인이 육적생활 불만으로 나를 원망한다 하며 또 김은성이는 활 교회를 못가겠다는 뜻을 말함. 그 안해(아내)가 불만 언(言).

주일 아침에 김명석 형 주(住)방에 가서 의덕이와 3인이 시편 1:1-9:12까지 봉독함. 오후 2시 변경에 소수교회 방에서 시편 9:13-13:3까지 봉독.

1955년 4월 18일(월) 아침에 룻기 1:1-4:22끝까지와 로마서 16:3-27절 끝까지 봉독. 소수교회 방에서. 새벽에 소수교회에서 남 5, 여 13, 합 18이 열왕기상 18:1-18과 19:17-18까지 봉독함.

1955년 4월 19일(화) 아침 새벽예배 불(不)함. 소수교회당 방에서 사무엘상 1:1-3:8까지와 로마서 15:1-16:2까지 봉독함.

1955년 4월 20일(수) 아침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사무엘상 3:9-7:3까지와 로마서 12:20-14:23까지 봉독.

1955년 4월 21일(목) 아침에 소수교회당 강단 옆에서 사무엘상 7:4-10:17까지와 로마서 1:11-12:19까지 봉독함.

1955년 4월 22일(금) 아침은 소수예배당 골방에서 사무엘상 10:18-14:1까지와 로마서 9:28-11:10까지 봉독. 새벽 수리예배당에서 남 6인, 여 17인 합 23인 본서 누가복음 26-31까지 봉독하고.

1955년 4월 23일(토) 아침에 수리예배당 골방에서 사무엘상 14:2-15:26까지와 로마서 8:27-9:27까지 봉독. 새벽예배 소수예배당에서 김명석 형이 마태복음 19-24장까지 봉독. 남 6, 여 16, 합 22인.

1955년 4월 24일 주일 새벽에 소수 예배당에서 요한복음 20:1-18까지 봉독. 주일 아침에 시편 10:13-18:50까지 봉독함. 주일 석양에 소

수교회당 골방에서 19:1-25:12까지 봉독.

1955년 4월 25일(월) 조반 후 소수예배당 골방에서 사무엘상 15:27-17:48까지와 로마서 7:7-8:26까지 봉독.

1955년 4월 26일 화요일 아침 소수예배당 골방에서 사무엘상 17:49-20:17까지와 로마서 5:13-7:6까지 봉독.

1955년 4월 27일(수) 아침식사 후 사무엘상 20:18-23:13까지와 로마서 3:27-5:12까지 소수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오후에 소수예배당 골방에서 이사야 1-2장까지 봉독.

1955년 4월 28일(목) 아침에 로마서 2:26-3:26과 사무엘상 23:14-25:36까지 소수교회 골방에서 봉독함.

1955년 4월 29일(금) 아침 사무엘상 25:37-29:3까지와 행 27:44-28:31까지 봉독.

1955년 4월 30일(토) 아침에 사무엘상 29:4-31:13까지와 사도행전 26:24-27:43까지 소수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1955년 5월

1955년 5월 1일(일) 아침 소수교회당 골방에서 시편 25:13-28:9까지 봉독. 주일 오전에 시편 29:1-31:20까지 소수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금일 등산예배 감. 오후는 사도행전 25:11-26:23까지와 사무엘하 1-3장까지 봉독함.

1955년 5월 2일(월) 아침은 사무엘하 3:19-6:17까지와 사도행전 23:24-25:10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5월 3일(화) 아침에 사무엘하 6:18-10:13과 사도행전 22:12-23:23까지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5월 4일(수) 아침에 사무엘하 10:14-13:9까지 봉독하고, 오후에 사도행전 21:8-22:11까지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석반(夕飯)을 소수면 입암리 삼거리 박인순 자매 댁에서 10여명이 식사하는 중 요한복음 1장을 봉독. 오후 소수교회당 방에서 스바냐 1-3장까지 봉독.

1955년 5월 5일(목) 아침 소수면 입암리 삼거리 노이석씨 댁에서 사도행전 19:40-21:7까지 와 사무엘하 13:10-15:14까지 봉독. 영부와

같이.

1955년 5월 6일(금) 아침에 사무엘하 15:15-17:23까지와 사도행전 6:23-19:39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5월 7일(토) 아침은 사무엘하 17:24-19:28까지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5월 8일 주일에 시편 31:21-37:5까지 소수예배당에서 봉독.

1955년 5월 9일(월) 아침 사무엘하 19:29-22:2까지 봉독. 사도행전은 17:22-16:6부터. 오늘 아침은 이혜순 자매 가신다는 일과 여러 가지 복잡함. 은영이 서울 감.

1955년 5월 9일 오후에 사무엘하 22:3-23:1까지 봉독.

1955년 5월 10일(화) 아침부터 석양까지에 사무엘하 23장부터 24:25까지와 사도행전 14:26-16:5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5월 11일(수) 아침 소수예배당 방에서 열왕기상 1:1-2:20까지와 사도행전 13:33-14:25까지 봉독.

1955년 5월 12일(목) 아침은 열왕기상 2:21-4:27까지와 사도행전 12:12-13:32까지 봉독. 소수예배당 방에서.

1955년 5월 13일(금) 아침에 열왕기상 4:28-7:28과 사도행전 10:42-12:11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소태교회 김천금, 김남산 두 자매 가심. 남 6, 여 9, 합 15인이 1-12 공부.

1955년 5월 14일(토) 아침 사도행전 9:34-10:41까지와 열왕기상 7:29-8:53까지를 소수 예배당 방에서 봉독. 작일(昨日)부터 육신이 피곤함이어서 아침예배도 못나감.

1955년 5월 14일 오후 6시경 열왕기상 8:54-11:7까지 봉독.

1955년 5월 15일 주일 아침에 소수교회당 37:6-39:11까지 봉독함. 주일 아침 소수교회당에서 시편 40-41장까지 봉독.

1955년 5월 16일(월) 오전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열왕기상 11:8-43까지 봉독.

1955년 5월 16일 오정에 열왕기상 14:6-15:16까지와 사도행전 6:6-7:28까지 봉독. 소수교회당 방에서.

1955년 5월 17일(화) 오후에 열왕기상 15:17-18:4까지를 소수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5월 17일(화) 석양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열왕기상 20:8-21:13까지 봉독함.

1955년 5월 18일(수)에 열왕기상 22:5-53까지와 사도행전 13:14-4:32까지 봉독. 석양에 이사야 2:7-5:3까지 봉독.

1955년 5월 19일(목) 아침 열왕기하 1:1-3:24과 사도행전 2:15-3:13까지 소수교회 골방에서 봉독. 오전 남 10, 여 9, 합 10인. 로마서 16장까지 공부하는 바 양 2월 26일부터 시작함. 금일 맞침이라. 이 로마서 공부하는 이 기간은 백일 지속 6월 5일까지인 때이다. 장소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당에서 금(수)번 이 공부 중에는 천신만고에 난관이 있었다.

1955년 5월 20일(금) 열왕기하 3:25-5:22까지와 사도행전 1:1-2:14까지를 아침과 오후까지를 봉독.

1955년 5월 21일(토) 열왕기하 5:23-8:9까지와 마태복음 1:1-2:18까지 봉독함. 질부 이창님 시가에 감.

1955년 5월 22일 주일에 소수교회당에서 시편 42-45장까지 봉독.

1955년 5월 23일(월) 오전에 마태복음 2:19-4:22까지와 열왕기하 8:10-10:14 소수교회당에서 봉독.

1955년 5월 24일(화) 아침 열왕기하 10:15-13:10과 마태복음 4:23-5:44까지 소수교회당에서 봉독. 남 7, 여 13, 합 20인이 9-23 공부함.

1955년 5월 24일 여 9, 남 7, 합 16인이 출애굽기 35장 공부. 오후 마태복음 10장에서 공부하고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김오봉씨댁에서 서울 정집사, 권집사, 4인 식사함과 본 이사야서 5:4-6:13까지 봉독.

1955년 5월 25일(수) 아침 마태복음 5:45-7:8과 열왕기하 13:11-15:35까지 봉독. 소수교회에서.

1955년 5월 25일 남 7, 여 10, 합 17인이 출애굽기 36-37장을 공부함.

1955년 5월 26일(목) 아침 열왕기하 15:37-18:14까지와 마태복음 7:9-8:31까지를 소수교회당에서 봉독.

1955년 5월 26일 남 8, 여 9, 합 17인이 출애굽기 28-29장 공부함.

소수교회에서 백일 중에서.

1955년 5월 27일(금) 아침에 열왕기하 18:15-21:12까지와 마태복음 8:32-10:14까지 봉독. 소수교회 골방에서.

1955년 5월 27일 남 7(8), 여 11(10), 합 18인이 소수교회당에서 백일간에 공부하는 중에 공부함. 김재순 목사 서울 가심. 고광석 전도 사님은 권영수, 전도회 두 분과 전도 가심. 오후 남 8, 여 16, 합 24인이 11-14 공부. 새벽 1시경 후 마가복음 1:1-2:8까지 봉독함. 소수교회 강단 옆.

1955년 5월 28일(토) 아침 마태복음 10:15-11:29까지와 열왕기하 23:16까지를 소수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남 11, 여 16, 합 27인이 13-24까지 공부함.

1955년 5월 29일 주일 아침 46:1-51:10까지 봉독. 주일 오후에 시편 51:12-58:11까지 소수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1955년 5월 30일(일) 아침에 열왕기하 23:17-25:30까지와 마태복음 11:20-12:37까지 오후에 봉독. 소수교회 강단 옆에서.

1955년 5월 31일(화)은 아침 마태복음 12:38-13:35까지와 본서 역대기 1:1-4:2까지 소수교회 골방에서 봉독. 남 9, 여 15, 합 24인이 1-21 공부.

1955년 6월

1955년 6월 1일(수) 아침 마태복음 13:36-15:2까지와 역대기상 4:3-6:44까지를 오전에 소수교회당에서. 남 9, 여 12, 합 21인이 21-32 공부.

1955년 6월 2일(목) 역대기상 6:46-9:9와 마태복음 15:3-16:18까지 소수교회당에서 봉독. 오후 남 11, 여 11, 합 22인이 33-41 공부.

1955년 6월 3일(금) 역대기상 9:10-12장. 마태복음 16:8-18:8. 남 9, 여 18, 합 27인이 11-13 공부. 오후 남 9, 여 17, 합 26인이 14-30 공부.

1955년 6월 4일(토) 아침 역대기상 12:8-15:25까지와 마태복음 18:9-19:25까지 금일은 소수교회당에서 2월 25일 저녁부터 백일집회

마치는 날인데 석양에 봉독함.

1955년 6월 5일 주일 아침 소수교회당 골방에서 시편 59장에서 65:13까지 봉독함이다. 1955년 6월 5일 소수교회당에서 2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백일 집회 마친 후 6월 5일 주일 오후 황인석 자택에서 석식 함. 남3, 여4 합7인 세례도 함. 시편 66:1-68:25까지 봉독.

1955년 6월 6일(월) 아침은 소수 마태복음 19:26-21:13과 본서 역대기상 16:26-18:13까지 봉독.

1955년 6월 7일(화) 아침은 마태복음 21:14-22:16까지와 본서 역대기상 18:14-22:11까지를 조동교회당 방에서 봉독.

1955년 6월 8일(수)에 마태복음 22:17-23:27까지와 본서 역대기상 22:12-26:12까지를 봉독.

1955년 6월 9일(목) 아침에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역대기상 26:13-29:6까지와 마태복음 23:28-24:42까지 봉독함.

1955년 5월 20일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가장골 예배당에서 봉독 시작하였는데, 역대기상 29장까지 봉독하기는 6월 10일 마침내 충주군 동양면 조동리 교회당 강단 뒤에서 봉독함이다.

1955년 6월 10일(금) 아침에 마태복음 24:43-25:46까지와 역대기상 29:7-역대기하 2:15까지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봉독. 충주군 소태면 북탄리 교회 예배처소 된 집에서 역대기하 6:26-7:14까지 봉독. 석양이다. 동행 권영숙, 전도회 전도사, 안이분 17, 세분이었다.

1955년 6월 11일(토) 아침 역대기하 2:16-6:25까지와 마태복음 26:1-51까지 봉독하는바 소태에서. 금일 오전에 성경을 잘 못 보고, 오후 3시경에 7:15-11:3과 마태복음 26:52-27:26까지를 소태교회 예배소 권중철씨 댁에서 봉독.

1955년 6월 12일(일)에 시편 68:26-71:24까지 봉독. 권영숙 전도회 합 4인이 동행 중 봉독함.

1955년 6월 13일(월) 아침에는 조태국씨 방에 마태복음 27:27-6:20까지 봉독. 본서 역대기하 11:3-15:7까지 봉독. 주덕역에서 대전행 중에서 봉독.

1955년 6월 14일(화)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마가복음 1:1-2:8까지 본서 역대기하 15:7-18:29까지 봉독함.

1955년 6월 15일(수) 아침 역대기하 18:30-21:16, 마가복음 2:9-3:31까지를 대전 자택에서 봉독. 1955년 6월 15일 저녁에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에서 본 이사야 7:1-8:22까지 봉독함.

1955년 6월 16일(목) 오전에 역대기하 21:17-25:1과 마가복음 3:52-5:15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

1955년 6월 17일(금)은 순서대로 다 봉독을 못하고 역대기하 25:2-28:15까지와 마가복음 5:26-6:24까지 18일 아침까지 영운동 교회당에서 봉독. 오후에 청주시 ?(판독불가) 김대석씨 댁에서 이사야 9:1-10:34까지 봉독함.

1955년 6월 18일(토) 아침에 마가복음 6:25-7:20까지와 본서 역대기하 28:16-30:25을 영운동 교회당에서 봉독. 오후에 고광석, 김완례 동행 이한상씨 댁에서 이사야 11:1-13:2까지 봉독. 남주동 2구 372번지 영생약방에서.



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청주시, 1950년대)

1955년 6월 19일 주일 청주 영운동 교회당 강단 위에서 시편 73:1-78:20까지 봉독함. 주일 오후는 김완례씨와 부강에 와서 발생으로 예배 불참하고

시편 78:21-79:23까지 봉독. 밤중에.

1955년 6월 20일(월) 금일은 서정리 올라가기로 한 날인데 우족(右足) 병(病)으로 못 감. 김완례씨가 못 간다고 가심. 오후에 역대기하 30:26-32:11과 마가복음 7:21-8:38까지 부강.

1955년 6월 21일(화) 오후에 역대기하 33:12-35:22까지와 마가복음 9:1-46장까지 봉독함. 부강교회 방에서. 성소녀 자매 다녀오심.

1955년 6월 22일(수) 아침에 역대기하 35:23-36:23 마지막 절까지

봉독과 마가복음 9:47-10:46까지 부강교회 강단 뒤 방에서 봉독.

1955년 6월 23일(목) 오후에 부강교회당 방에서 에스라 1:1-2:59까지 봉독. 김완례씨 대전가심. 오후에야 마가복음 10:47-12:12과 에스라 2:60-6:7까지 봉독함. 김동렬 형제가 부강교회에서 상봉. 전도회 자매 청주가심.

1955년 6월 24일(금) 아침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에스라 6:8-8:36까지와 마가복음 12:13-13:11까지 봉독. 이해순 자매 다녀가심.

1955년 6월 25일(토) 새벽 서울 행 6열차로 신탄진 차탐. 김규상 형제와 같이 동행 하다가 규상 형제 부강서 하차였다가 못 타고 나만 가면서 새벽에 집에서 봉독시작 에스라 9:1-10:49말절까지 다 봉독함과 마가복음 13:12-14:22까지 봉독함. 서울행 6열차 중에서 저녁에 이사야 13:3-17:8까지 봉독. 금일 강우(降雨)인바 서울 지방 창수됨.

1955년 6월 26일 아침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32의 6 성경 신학교 교사 2층 숙직실에서 시편 80:1-82:7까지 봉독.

1955년 6월 27일(월) 아침에 서울시 서대문구 송월동 32의 6 서울성경신학교 교사이층 숙직실에서 느헤미야 1:1-4:14까지와 마가복음 14:23-15장까지 봉독함.

1955년 6월 28일(화) 아침에 신학교 교사 숙소에서 봉독. 느헤미야 4:15-7:60까지와 마가복음 15:4-16:20말절까지는 오후 2시후까지였다. 1955년 6월 14일부터 봉독을 시작하여 금일 28일까지 본서를 봉독함. 원경선 형제와 같이 식당에 가서 오찬 대접받았다.

1955년 6월 29일(수) 오전에 느헤미야 7:61-9:38과 누가복음 1:1-51까지를 서울성경신학교 교사 이층에서 봉독. 아침에 서울성경신학교 교사 숙직실에서 예레미야 35:16-36:32까지 봉독.

1955년 6월 30일(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동 16의 23호 그리스도의 교회 정희곤 계시는 곳에서 아침에 본서 느헤미야 10:1-11:14까지 봉독하였는데, 정희곤 형제를 상봉하기 위하여 갔었으나 상봉하지 못하였다.

1955년 7월

1955년 7월 1일(금)은 서울 성경신학원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떠나면서 바쁜 중에 아독경(我獨經, 나 홀로 성경을 읽지)을 못하고 떠나서 수원 어머니 계시는 사제방(舍弟房)에서 본서 느헤미야를 마지막 장까지 봉독하고 누가복음 1:54-2:28까지 봉독.

1955년 7월 2일(토) 아침에 경부선 서정리 김종석 방에서 에스더 1:1-4:17까지와 누가복음 2:29-3:27까지 봉독. 유숙 작야(昨夜)는 박신상(?).

1955년 7월 3일(음 5월 14일) 금일 주일 아(我) 생일인데 갈산교회 당 골방에서 시편 83:1-89:12까지 봉독함. 완례씨도 내(來)함. 4288년 5월 14일 황우재, 이정자, 암(임?)정례, 집사님들도 내(來)함. 아(我) 출생(出生) 52년 주이다. (편집자 주: 1955년을 52주로 표기한 것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에서 김은석 목사의 출생년도를 1902년으로 한 것과 1년의 오차가 있음. 만일 52주가 정확하다면, 김은석 목사는 1903년에 출생하신 것이 된다.)

1955년 7월 4일(월) 오전에는 봉독치 못하고 오후 5시 후에 에스더 1:1-9:11과 누가복음 3:28-4:34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5일(화) 아침에 누가복음 4:35-5:39와 본서 에스더 9:12-10:3까지 봉독.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칠미부락 교회당 방에서 봉독. 7월 5일 금일은 새(이사야)를 또 봉독 시작. 황골교회 가려 하던 것이 강우(降雨)로 못가고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오후에 17:9-22:25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6일 아침에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누가복음 6:1-99절까지와 새(이사야) 23:1-26:21까지 봉독. 이는 작일 황골 못 감이라.

1955년 7월 7일 아침 충남 연기군 동면 월산동 활골교회당 뒤 야(野)중에서 이사야 27:1-30:6과 누가복음 7:40까지 봉독함. 작야 집회 백여 명이었고, 유숙은 임(林)하수 곳이었다.

1955년 7월 8일 청주서 고평석 형제와 동행 소수가는 중 문옥자 자매 택에서 조금, 역에서 조금, 차중에서 조금 누가복음 7:41-8:38과 본서 이사야 30:7-33:24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9일 아침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이사야 34:1-37:24와 누가복음 8:39-9:31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10일 주일 아침에 소수교회당 방에서 시편 89:13-94:23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11일 아침에 소수 교회당에서 이사야 37:25-40:31까지와 누가복음 9:33-10:10까지 봉독. 새벽 떠나려 함. 이 작야 대(大) 우강(雨降)으로 못 떠남.

1955년 7월 12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이사야 41:1-43:28까지와 누가복음은 10:17-11:20까지를 김은순, 김명순, 김완례씨와 같이 봉독함. 5시 20분 발차로 부강행 차 김동렬 형제 동행. 부강 도착.

1955년 7월 13일 아침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이사야 44:1-47:7과 누가복음 11:21-12:12까지 봉독. 작야부터 대 강우(降雨).

1955년 7월 14일 아침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47:8-50:11과 누가복음 12:13-59까지 봉독.

1955년 7월 15일 아침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누가복음 13:1-14:14와 새(이사야) 51:1-54:17까지 봉독함. 김재순 형제 작야(昨夜) 래(來).

1955년 7월 16일 아침에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새(이사야) 55:1-59:7과 누가복음 14:13-15:32까지 봉독. 김기주(?)씨 청주가심. 새벽예배 조규석씨 성경증거.

1955년 7월 17일 주일 주일은 대전 자택에서 시편 95:1-101장까지 봉독함. 대전시 판암동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수도산(식장산)에서 휴숙(休宿)한 후 시편 103:1-105:4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18일 아침에 대전 판암교회당 안에서 이사야 59:8과 누가복음 17:14까지 봉독 새벽예배 없었다. 오후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1:1-3:13까지 봉독.

1955년 7월 19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새(이사야) 63:9-66:24까지 봉독하고 부강행중 차내에서 누가복음 17:14-18:30까지 봉독함. 부강도착해보니 고광석 형제가 병상에 있어서 수리교회도 못가셨다 함. 작일 18일 김동열목사 내부(來芙, 부강에 오시기로) 약속하였었는데 못 오셨으니 하(何)유사(有事)인가 함이라.

1955년 7월 20일 아침 누가복음 18:31-19:48까지와 본서 예레미야

3:14-5:31까지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봉독. 김은영과 같이 소복호텔 311호에서 천무봉군을 상봉 담화 후 예레미야 37:1-38:13까지 2인이 교독함. 유숙함.

1955년 7월 21일 아침 부강을 향하는 중 서울역에서 예레미야 6:1-8:8과 누가복음 20:1-21:9까지 봉독. 천무봉 군을 상봉차 김은영과 동행함.

1955년 7월 22일 아침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예레미야 8:9-11:5까지와 누가복음 21:9-22:23까지 봉독. 오후에 부강예배당 옆에서 예레미야 11:6-14:9까지 봉독함. 금일 이상한 것은 22세 된 안영숙이라는 불완전자가 가까이 쫓아 노는 일이다.

1955년 7월 23일(토) 오후에 부강리 김칠봉씨 댁에서 열왕기상 10:1-13:5까지 봉독함. 아침에 누가복음 22:24-23:7까지와 본서 예레미야 14:10-17:8까지 봉독.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에스겔 1:1-3:4까지를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봉독. 아침 중에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에스겔 3:5-4장말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24일 주일은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시편 105:5-107:43말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25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17:9-20:8까지 봉독. 누가복음 23:8-24:12까지 봉독함. 부강교회당 뒤에서 말라기 1:1-2:14까지를 봉독함.

1955년 7월 26일 아침 예레미야 20:9-23:13까지와 누가복음 24:13-53까지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봉독. 석양에 에스겔 5:1-8:14까지를 부강중학교 건축지 마당에서 봉독함. 건축일군에게 전도하니 나는 예수 안 믿고 천주교 믿는다함. 석양에 말라기 2:15-4장 말까지 봉독함. 부강교회당에서.

1955년 7월 27일(수) 아침 부강교회 강단에서 예레미야 23:14-25:33까지와 요한복음 2:1-3:24까지 봉독함. 김태열 자매 수리 가심. 서울행 차중에서 마태복음 11-13장까지 봉독. 서울행 하게 되는 사명은 선교사 방문차 김동렬 형 모친님과 삼인 동행. 오후에 교사 1차 요함.

1955년 7월 28일 아침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예레미야 25:34-29:2

까지와 요한복음 3:25-4:38까지 봉독함. 석양에 부강 중학교 건축하는 곳에서 에스겔 15-13:23까지 봉독함.

1955년 7월 29일(금) 밤 서울역에서 차타고 요한복음 6:44-7:24까지 봉독함. 오후 천안행 통근차 중에서 요한복음 4:39-5:35까지와 본서 예레미야 29:3-31:12까지 봉독함. 이 차에 가는 일은 충북 청주 예배당 사는 일로 선교부에 금전 대취하러 가는 중인데, 금조(今朝) 이한상 형이 부강에 오시여 부탁함으로 가게 됨. 밤중에 천안읍 대흥동 1가 22번지 황해여인숙 홍(?)봉모씨 방에서 에스겔 14:1-16:7까지 봉독함. 차(此, 이) 홍씨는 신자인대 신앙생활 교회출석은 못 하고 있던 집이다.

1955년 7월 30일 새벽 14열 급행열차 서울행 천안에서 승차하여 예레미야 31:13-32:44까지와 요한복음 5:36-6:44까지 서울 도착전 봉독.

1955년 7월 31일 주일 아침부터 석양까지 시편 108:1-119:16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1955년 8월 1일 아침 본서 예레미야 33:1-35:15와 요한복음 7:25-8:21까지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봉독.

1955년 8월 2일 아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예레미야 38:14-41:12까지와 요한복음 8:22-9:12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3일 아침 부강교회당에서 대회 중에서 예레미야 41:13-44:23까지와 요한복음 9:13-10:18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4일 아침은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교회당에서 예레미야 43:24-46:28, 48:1-27과 요한복음 10:19-11:39까지 봉독. 작야에 김재순, 박종식, 나 3인 갈산교회에서 유숙함. 2인은 부강가시고, 나는 회(會)의 불관자로서 불참함.

1955년 8월 5일 부강을 떠나서 오창을 가던 중 청주시 내?동 김만석씨 댁에서 예레미야 50:1-51:33과 요한복음 11:40-12:33까지 전도회, 강신규 두 분 자매님과 같이 봉독함.

1955년 8월 6일 아침은 청주시 영운동 박인회 양로원 강만수씨 댁에서 예레미야 51:34-51까지 봉독함. 가와를 가는 도중에 구룡동 어구 동구나루 아래서 전도회, 강신규 자매도 같이 예레미야 52:52-53:6까지 봉독. 오후 석양에 사도행전 6:1-15까지 봉독. 가좌 교회당 앞? 옆에서. 가좌교회 가는 중 노변(路邊) 정목(亭木)하에서 전도회, 강신규 두 자매님과 같이 예레미야 52:7-부터 말까지 봉독함. 요한복음 12:34-13:29까지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전도회 자매님 계신 뚝배기 댁에서 봉독함.

1955년 8월 6일 오후에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 초등학교 앞에서 휴숙하다가 기침(起枕)하여서 본서 예레미야애가 1-5장말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7일 주일 아침에 가좌초등학교 주택에서 시편 119:17-160까지 봉독함. 작야 유숙은 전현동씨와 함. 하오 가좌교회에서 복독. 잠언 4:6-6:35까지. 석양에 가좌교회에서 잠언 8:1-10:12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8일은 가좌교회에서 새벽에 떠나서 서정리로 향하는 중 병천 시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서 에스겔 16:8-17:24까지와 요한복음 13:38-39까지 봉독함. 서정리 도착하여 교회당 내에서 요한복음 14:1-15:4까지 봉독. 강신규 자매님과 동행함.

1955년 8월 9일 아침에 서정리 교회 강단 옆에서 에스겔 18:1-20:29까지와 요한복음 15:5-16:24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10일 아침 에스겔 20:30-33:26과 요한복음 16:25-18:3까지 서정리 교회 강단 옆에서 봉독함. 오후에 서정리 사제(舍弟)의 집에서 에스겔 22:27-24:27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11일 아침에 요한복음 18:4-19:9까지와 본 에스겔 25:1-28:9까지 서정리 교회당 강단 옆에서 봉독. 저녁 황혼에 에스겔 28:10-29장말까지 서정리 교회당 외변(外邊)에서 봉독함.

1955년 8월 12일 아침 서정리 교회당 강단 뒤에서 요한복음 19:10-20:14까지와 본서 에스겔 30:1-32장말까지 봉독함. 에스겔 33:1-35:6까지 봉독 서정리 교회에서.

1955년 8월 13일 아침은 에스겔 36:8-37:28까지 봉독함. 서정리 교

회당에서 35:7-36:7까지는 작일 석양 봉독함. 오후에 서정리 이발관에서 에스겔 38:1-40:5까지 봉독하고 교회당에 돌아와서 40:6-23까지 봉독함. 이발료는 120환이다. 부강 안영천 형제 내외분은 돌아가심. 임진수도 가심. 은영이와 그 어머니가 오심. 모자 80환주고 삼.

1955년 8월 14일 주일 아침 서정리 교회 강단 옆에서 시편 119:161부터 131:3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15일 아침에 서정리 교회당 강단 옆에서 에스겔 40:24-43:20까지 봉독함. 요한복음 19:10-20:14까지.

1955년 8월 16일 아침은 대전 주택에서 에스겔 43:21-44:31까지 봉독하고 45:1-46:12까지는 판암교회 방에 가서 수도산 길옆에서 봉독함. 요한복음 20:15-21:25까지 봉독하였는데, 금일 금년 1월 1일 신약을 다 읽은 날이다.

금일은 금년 초부터 신약봉독 시작하여 다 봉독함.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마치게 됨은 묵시록 22장에 사도행전까지 읽고 난후 마태복음에서 봉독하여 요한복음까지 마침이라. 금일 고광석 전도사 입원한 병원 방문하고 판암동 애생원(愛生園)도 방문하는바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 김완례, 나 같이 방문하였다. 금일 성경봉독은 아침에 에스겔 43:21-44:31까지는 대전 자택이요, 오후 45:1-46:21까지는 대전 판암동 애생원 방문시에 봉독이요, 요한복음 20:15-21:25까지는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6.25 분수(分手)되었던 장중열 청년군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목사도 아가래(我家來)하였으므로 상봉함.

1955년 8월 17일 오전에 청도역 하차하여 우체국에서 박종식, 김성철에게 편지 보내고 청도읍 원정동 동구나

무 하에서 본 에스겔서를 마지막으로 다 읽었다. 46:13-46:9까지는 차
중에서 봉독함.

1955년 8월 18일은 경북 청도군 금전면 독곡을 경유하여 영포교회
에 와서 야(野)중 괴목(槐木) 하에서 호세아 1:1-8:14까지 봉독. 처음
일시 시작은 관화서부터요 영포교회당에서 요(한복음) 좀 봉독함. 작
일 목포 도착하였다가 18일 금일은 ??당 도착예정이었다. 밤 12시 근
경에 경북 청도군 금천면 명포교회당 주택에서 호세아 9:1-10:15까지
봉독함. 히성경학교 졸업식 함.

1955년 8월 19일 청도군 금천면 동곡 박태섭 군에서 떠나 경남 진
주 김경원 나의 동생 있는 곳을 가는 중 경부선 5열차를 경산역서
타고 차중에서 호세아 11:1-14:9말까지 봉독하였음. 나의 지금 이 길
은 예상 못하였던 길이다.

1955년 8월 20일 아침 경남 진주시 칠암동 316번지 교회당 내에서
본서 요엘 1-3장까지 봉독함. 금번 이 경남 진주를 오게 된 일은 의
외의 일로 동생 경원 목사는 삼천포 교역자 수양회 갔다 함. 경남
진주시 칠암동 316번지에 내 동생 경원 목사의 주택에서 아모스 1-9
장까지 봉독함. 동생은 삼천포에서 돌아옴. 저녁에는 주교(主校)반장
예배 공부식으로 경원 목사는 내외간이 다 예배당에 갔다.

1955년 8월 21일 주일 저녁에 진주 칠암동 318. 교회는 불참하고
경원 목사 주택에서 출애굽기 14:1-14 봉독. 주일 아침은 경남 진주
시 칠암동 318내 동생 경원 주택에서 시편 132:1-143:12까지 봉독함.
저녁에 교회당에 불참하고 시편 144:1-146:10까지 봉독하여 시편도
금일까지 다 봉독함. 주일에 진주서 예배당에 나가지 아니하고 경원
주택에서 이사야 34:1-17까지 봉독하였으며, 35:1-10까지 봉독하였음.

1955년 8월 22일 아침에 경남 진주시 칠암동 318번지 교회 시무하
는 김경원 목사 주택에서 요나 1-4장까지 봉독하는바 지금 내 형편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형편 비스듬한 중임을 마음에 생각함. 내
마음에 감사히 생각나는 것은 경원내외간이 새벽마다 예배당에 왕래
함이라. 아침에 요나서를 다 봉독함. 또 다시 본서 미가 1-5:15까지를
진주시 칠암동 318번지 교회 목사 주택에서 봉독함. 또 석양에 미가
6-7장까지 봉독함. 석양에 나훔 2:1-3:19까지를 진주시 칠암동 교회

주택에서 봉독함. 금일은 떠나가려다가 성경 찬송 수선하여 피의(皮衣)를 함.

1955년 8월 23일 아침 진주시 칠암동 318번지 교회 목사 주택에서 스가랴 1:1-8:23까지 봉독함. 오전 10시 30분발 남선버스로 안의 향함. (경남 지곡면) 시목리에 도착하여 보니 이성하 선(생)님 댁은 안의로 이사하시였음으로 교회당에 들어가서 박임규 조사 상봉 오식(午食) 노(老) 여집사 조식(造食).

1955년 8월 24일 오후에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회 이성하 선생을 방문. 후산(後山) 상(上) 제월당(霽月堂)에서 잠언 11:13-17:28까지 봉독. 이성하, 박태수, 이범신, ?순길, 박삼우 등 합 5인. 오후에 안의면 금천리 강변에서 잠언 20:1-22:21까지 봉독함. 하수에 목욕함. 아침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안의교회당내에서 스가랴 9:1-14:21말까지 봉독함. 금일은 이 구약 중 예언 선지서를 다 봉독함. 이 안의를 온것은 이성하 선생과 부인 김금악 집사님을 방문하로이다.

1955년 8월 25일 새벽 안의 교회 강단에서 잠언 22:22-24:21까지 봉독. 박태수 목(사) 요한복음 5:9-24까지 봉독함. 안의 이성하 씨 댁에서 아침에 잠언 24:22-26:27까지 봉독함. 오전에 안의면 후산(後山) 상(上) 제월당이라는 데서 잠언 26:1-31:31절까지 봉독함. 나의 주님은 나를 이와 같이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고 이 잠언의 오묘한 교훈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정에 전도서 1:1-8:17까지 봉독하면서 참 심히 깨닫는 것은 인생은 만사(萬事) 부지(不知)의 성신님에게?(판독 불가). 진실로 이상하도다. 지금 나는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교회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된 때인데 이 경남에 와서 함양군 안의면 상산 제월당이라는 정각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봉독하니 무궁한 인생 무지 무각을 보게 됨이라. 내가 이번 이곳을 온 것은 전연 내 마음이 한 일이 아닌데 나의 주님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나는 아지 못한다. 내가 금일 이곳을 떠나 통영으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든지 하려하였는데 김준철 집사 형제가 나를 보고자 한다 함으로 못 떠났는데 이성하 선생님은 대구를 가시었다. 내가 내일은 떠나겠는데 지금 마음은 통영으로 갈 것으로 되어 있음. 통영을 가려는 이유는 김명석 형제가 있는 곳 도산면 교회에서 지금 농촌에

좀 한가한 때니 집회를 좀 하고 가려는 마음인데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고 가려함이다.

1955년 8월 29일(월) 아침에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당 안에서 욥기 12:16-15:6까지 봉독함. 욥기 40:20-42:17까지 봉독. 대설강(大雪降).

1955년 8월 30일(화) 아침은 대전에서 자택은 헐어 다시 짓게 됨으로 엇전(역전?)집 곡간에서 욥기 15:7-17:16까지 봉독함.

1955년 8월 31일(수) 대전 자택에서 욥기 20:1-28:13까지 봉독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에 봉독함.

1955년 9월

1955년 9월 1일(목) 아침부터 저녁까지 째째이 대전 자택에서 본서 욥기 28:14-39장 말절까지 봉독함.

1955년 9월 2일 금요일 아침에 완례씨 성철이 3인이 전도서 3:1-5:9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

1955년 9월 4일 주일 아침에 안영천, 김명석, 전도희 나 4인이 부강서 (시편 106편) 봉독함. 오장로 부인(박호석) 병원 서울 가심. 부강교회 주택에서 김명석, 양영천, 나 3인이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봉독함.

1955년 9월 8일(목) 아침에 충곡 교회당에서 사도행전 4장 봉독함.

1955년 9월 9일(금) 아침은 충곡 교회당 강단 옆에서 5:1-6:6까지 봉독함.

1955년 9월 10일(토) 아침 사도행전 7:1-말까지 봉독. 충곡교회에서.

1955년 9월 11일 주일은 충남 충곡교회에서 지내며 시편 119:1-64까지 봉독함. 오후에 대전으로 감. 주일 아침에 충곡교회 주택에 시편 119:1-64까지 봉독함.

1955년 9월 18일 아침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이재우 집사 댁에서 시편 (119편) 65-88까지 봉독.

1955년 9월 19일(월) 아침 용동 교회당에서 사도행전 14장 봉독.

김청길 형제 같이 앓음.

1955년 9월 20일(화) 아침 전남 해남군 옥천면 교회당 안에서 사도행전 15장 봉독. 조종화 형제 같이 앓음. 이날에 조종화 형제 침례함.

1955년 9월 22일(목) 아침 해남 옥천면 2일 하에 버스 기다리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봉독함.

1955년 9월 23일(금) 아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당 강단 옆에서 사도행전 18장 봉독함. 박종예 자매와 신앙상담 함.

1955년 9월 24일(토) 아침 방축교회당 옆에서 사도행전 19장 봉독. 김일순 형제가 같이 함. 진장로님 목포가심.

1955년 9월 26일(월) 아침에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최정택 형제 예배처소에서 20:1-21:8까지 봉독함. 오후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 윤철호씨 댁 교회에 김일순 형제 도착. 사도행전 21:9-22:13까지 봉독.

1955년 9월 27일(화) 아침 동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14-30절까지 봉독함.

1955년 9월 28일(수) 아침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진종운씨 댁에서 사도행전 22:14-23:26까지 봉독. 전남 해남군 옥천면 백호동에서 도림리를 가는 중 바람고개에서 김일순, 진이삭, 김은영, 나 4인이 사도행전 23:27-24:27까지 봉독. 석양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도림리 김응임 노부인 댁 교회당에서 빌립보서 2:1-30까지 봉독. 진성구 장로, 김은영, 아(我) 3인 동좌(同坐)함.

1955년 9월 29일(목, 추석명절) 도림리 뒷산 중에서 사도행전 25:1-26:23까지 봉독함. 금일 조조 예배 마태복음 5:1-16봉독. 예배참석 남4, 여4, 합 8인. 해남군 삼산면 칠어를 경유하는 중인바 본 전도서 1:1-2:26까지 봉독. 김일순, 김은영, 조영예, 나 4인 동행.

1955년 9월 30일(금, 추석당일) 아침에 화산장터에서 버스 기다리는 중 27:2까지 봉독함.

1955년 10월

1955년 10월 1일(토, 추석명절) 아침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당에서 사도행전 27:3-43말까지 봉독. 임현지 68세 되신 분은 작야(昨夜) 철야하심.

1955년 10월 2일 아침 상월리 진장로 댁 방에서 (시편 119편) 137-176까지 봉독함.

1955년 10월 3일(월) 아침 상월교회 진장로 댁에서 28장까지 봉독함.

1955년 10월 4일(화) 아침 상월교회당 강단 뒤에서 로마서 1장 봉독.

1955년 10월 5일(수) 진장로님 집에서 본 로마서 2장을 봉독.

1955년 10월 6일(목) 아침 상월교회 강단 뒤에서 로마서 3장 봉독.

1955년 10월 8일(토) 아침 상월리 교회당에서 로마서 5장 봉독. 새벽 합석 예배 불참함. 작야는 금년 중 초(初) 대한(大寒)인바 여야(如野)교회당 숙(宿) 함.

1955년 10월 9일 아침 상월교회강단 뒤에서 시편 122:1-127:5까지 봉독함.

1955년 10월 10일(월) 아침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최재호와 그 부인 박순옥의 댁에서 본 로마서 6장 봉독함.

1955년 10월 11일(화) 아침은 광주 교회 봉사하시는 김재순 형제 방에서 본 로마서 7장을 봉독함.

1955년 10월 12일(수) 아침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로마서 8:1-36까지 봉독함.

1955년 10월 13일(목) 아침 복통 두통으로 새벽예배 불참. 아침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부락 노의수 집사 방에서 봉독. 로마서 8:37-9장말까지.

1955년 10월 14일(금) 아침 김은영과 동행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구 최한주씨 댁에서 본 로마서 10장을 봉독함. 한주씨 장녀는 최연순이라.

1955년 10월 15일(토) 아침 신생동 교회당에서 로마서 11장 봉독.

1955년 10월 16일 주일 아침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노의수 형 방에서 시편 126-133 봉독함.

1955년 10월 17일(월) 아침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 그리스도인 김정열 집사 방에서 로마서 12-13장까지 봉독함.

1955년 10월 18일(화) 아침은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용우동 박삼예 집사 댁에서 본서 로마서 14:1-12까지 봉독함.

1955년 10월 19일(수) 아침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에서 로마서 14:13-15:9까지 봉독.

1955년 10월 20일(목) 아침에 신생동 교회당에서 로마서 15:10-33까지 봉독함. 의외(意外)에 이 신생동에 성경 공부한다는 시작이 되어 일기가 치귀서(차가서) 고생이다.

1955년 10월 21일(금) 아침에 본 로마서 16장을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교회당에서 봉독하는 바 이 때는 이 청학동에서 성경학을 시작하여 1956년 2월 말까지 거할 예정 중에서 다.

1955년 10월 23일 아침에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뒷산 상에서 이른 아침에 시편 78-81장까지 봉독함. 채 밝아지기 전에.

1955년 10월 25일(화) 새벽 2시 후에서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 진이삭 댁에서 고린도전서 2장을 봉독함.

1955년 10월 26일(수) 아침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신생부락 노의수 형 방에서 고린도전서 3장 봉독.

1955년 10월 28일(금) 아침에 본서 디모데전서 1장을 봉독함. 어제는 디모데후서를 1-4장까지 다 봉독함.

1955년 10월 29일(토) 아침에 본 예레미야 21장을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부락 노의수 집사 댁에서 봉독.

1955년 11월

1955년 11월 1일(화) 아침에 본서 에스라 10장.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촌교회당에서 김형권, 박병순 3인이 같이 있었다.

1955년 11월 2일(수) 아침 전남 함평군 함평면(읍) 석성리 신생부락교회당에서 창세기 1장을 봉독. 윤옥동 자매님 같이.

1955년 11월 3일(목) 아침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교회당에서 창세기 2장을 봉독.

1955년 11월 4일(금) 아침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교회당에서 창세기 3장 봉독.

1955년 11월 6일 아침 광주교(회) 김봉섭씨 방에서 잠언 18장 봉독. 박순애 자매도 있는 집. 김재순 형제도 같이 함.

1955년 11월 7일(월) 아침 광주 김재순 형제 댁에서 창세기 4장 봉독.

1955년 11월 8일(화) 아침 대전 자택에서 창세기 5-6장을 봉독. 윤옥동(尹玉同) 누님도 함께 계시었다.

1955년 11월 9일(수) 아침 대전 자택에서 창세기 7장을 봉독.

1955년 11월 10일(목) 아침 부강교회에서 창세기 8-9장 봉독.

1955년 11월 11일(금) 아침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창세기 10장을 봉독.

1955년 11월 12일(토) 아침 충주읍 제일 감이(리)회당에서 창세기 11장을 봉독.

1955년 11월 13일(일) 아침은 충주읍 호암리 이종원씨 댁에서 본시편 73장을 봉독. 김명석, 이원로, 전권재 형제도 왔습니다. 아침 충주읍에 한적한 곳을 원하여 먼저 제일 감리회당에 가서 기도드리고, 11장을 봉독하고, 다시 성결회당에서 기도하다가 창세기 12장을 봉독함. 충주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당이 없음으로.

1955년 11월 14일(월) 아침 충주읍 성남동 모 성도의 자택에서 창세기 13장 봉독.

1955년 11월 15일(화) 아침 도장골 이종원씨 댁의 방에서 창세기 14-15장 봉독.

1955년 11월 16일(수) 아침 충주 호암리 도장골 이종원씨 댁에서 창세기 16장 봉독.

1955년 11월 17일(목) 아침 한정석 결혼일로 소태면 가는 중에 충주읍 대중식당에서 조식 중 창세기 17장 봉독 안희옥도 결혼함. 소태면에서 한정석, 배운순씨 결혼.

1955년 11월 18일(금) 아침 충주군 양성면 능곡리 김경수씨 댁에서 창세기 18장 봉독.

1955년 11월 19일(토) 아침 도장골 이종원씨 댁에서 창세기 19장

봉독.

1955년 11월 21일(월) 아침 충주 충인동 포목상 김일제 족속 댁에서 창세기 20장 봉독.

1955년 11월 22일(화) 미명 충북 충주군 소태면 복탄리 배문순 댁에서 창세기 21장 봉독.

1955년 11월 24일(목) 아침 대전 자택에서 본 창세기 22장을 봉독함. 김은영 함평 감.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살려 주심을 받은 내가 특별히 존귀한 즉분인(직분인) 우리 주 예수님에 종이 되어 각처에 다니며 즉분을 실행하는데 이 근간에는 충북 충주읍에 도장골리라 하는 곳 이종원씨라는 분에 일과 황현욱씨라는 두 분에 일노 말미아마 해결책을 우리 주님 전에서 기도하는 중인바 이종원씨는 5차 결혼을 하여서 4첫 재처는 이혼을 하고, 5차 처을 동거하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시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과거 그 죄을 회개하는 것은 5차 재처을 바라고 전처을 차자야 하는가 현실대로 밋어야 하는가을 해해결책이 이 골노새에 잇는가하야 1955년 11월 24일 오후에 1-4장까지 봉독하는 중 1:13과 2:14과 20-23과 3:3에 낮타난 말삼 중에서 입이 밋음안에서 사는 거는 명생(命生)이 하나님 안에 감초였나 니라는 말삼을 생각함이라. 진실노 나는 미련하고 지혜 부족한 자로서 형제에게 유익되지 못하게 하는 좃치 못한 행(行)할가 염녀 함이라. 황현욱 씨도 초취처(初娶妻)을 이혼하고 재취을 하였다는대 말 2장 14:16과 마 19장 3-9절까지을 보면 이혼은 할 수업난 일린대 그 일들을 불신자 때에 될 일리니 행 17:30-31에 잇는 말삼에 해당하게 생각하야 과거로 돌이고, 아 신득구(信得救)에 신?(信?)을 주장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마음을 가지였다. 진실노 롬 4장 3-15절까지에 말삼을 보면 우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사랑을 감사찬송만 할 것시다. 아-멘.

1955년 11월 25일(금) 아침 대전 자택에서 본 창세기 23장을 봉독함. 애생원에서 소금 한 가마니 가져옴.

1955년 11월 26일(토)은 청주시 연(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이원화 자매님 댁에서 24장 1-27절까지 봉독. 창세기 28-67절까지는 충주

행차 중에서 봉독.

1955년 11월 27일 충주읍 호암리 도강골 이종원씨 댁에서 시편 28-30편까지 봉독함. 강신규 자매님 같이 왔으나 진심으로 갈망하는 상태는 없음. 이종원 전부가 새벽도 같이 안 함.



충북 괴리산도의 교회(충북 충주시 동양면, 1950년대)

1955년 11월 28일(월)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서 1955년 11월 28일 월요일은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를 도착하는데, 강신규 자매님과 정옥순 자매님은 귀녀(貴女) 신실(信實)이를 업고 조동에 도착한 후에 교회

당에서 기도드린 후에 주거소(住居所) 방에 입(入)해야 차(此) 에베소서를 1장으로 5장까지 봉독하는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는 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주님의 은혜인데 이 에베소서는 각 장을 분해해 보면, 1장은 소망론, 2장은 중생통일론, 3장은 입신(入神)입천(入天)론, 4장은 하나를 이루는 론, 5장은 오묘한 도덕론, 6장은 마귀대적 훈계론이다. 이 에베소는 목 2장 1절에 말씀한대로 사랑 바렸다(버렸다)고 하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6장에는 마귀를 극 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심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하여 씨름하려하는데 우리는 경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군인이다. 전쟁군인은 무장을 허술이 못함. 참 성경의 말씀은 오묘한 것이다. 성경전체가 다 생명에 말씀으로 된 것이며 오묘한 것인바 에베소서 하나만도 넉넉히 영생론을 배우고 나갈 수 있다. 1955년 11월 28일 저녁에 조동교회 강신규 자매님 방에서 이상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

1955년 11월 29일(화) 아침 충주군 동양면(충주시 동령면 조동리)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창세기 26장 봉독함.

1955년 11월 30일(수) 아침에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창세기 27

장을 봉독함. 신숙길(申淑吉) 형제 같이 있었다.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1955년 11월 30일 오후에 이 책을 봉독하는바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교회에 일꾼이라 하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의 말씀함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평안한 것이며, 주님 교회에서 참된 봉사자라고 하기에 어렵고 되레 죄송한 부족한 박운(薄雲?)과 같다 아니 할 수 없음이라. 강신규 자매와 같이 말함. 조동교회 주거대에서

1955년 12월

1955년 12월 1일(목) 아침에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창세기 28장을 봉독함. 참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좋은 양식은 이 성경 말씀인데, 1955년 12월 1일인 금일 아침은 조동교회에서 창세기 28장과 데살로니가전서 1-5장까지와 또한 이 고린도후서 1-13장까지 봉독하였는데, 고린도후서 13장 전부는 40분간에 봉독하였다. 참진실로 성경말씀은 보면 눈이 먼 것같이 되는 일이 았(있)다. 4장 14절에 부(보)면 후에 부활을 확실히 말씀하시었으나 우리 한국 교계 내 이단이 되어 았(았은?) 조선기독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부활없다한다는 말이 있다. 진실로 복되도다. 그와 같이 믿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해주시니 감사 찬송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혜 중에서 1955년 12월 1일 아침에 본 데살로니가전서를 봉독하는바 1-5장까지를 18분 동안에 봉독함. 조동교회당 주방(住房)에서 강신규 자매님도 같이 계시었다.

1955년 12월 2일(금) 아침에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창세기 29장과 30장 1절까지 봉독함.

1955년 12월 3일(토) 아침에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30장을 봉독함. 금일은 충주읍으로 감. 4일 주일은 시편 봉독 5일과 6일 여행 중 신약 봉독함.

1955년 12월 7일(수) 아침 신생교회 강단 뒤에서 창세기 31장을 봉독.

1955년 12월 8일(목) 아침은 신생동 교회 강단 뒤에서 창세기 32

장을 봉독.

1955년 12월 9일(금) 아침은 신생교회당에서 창세기 33장을 봉독.

1955년 12월 10일(토) 아침에도 신생동 교회당에서 창세기 34-35장을 봉독함. 김재순 형제 같이 있었다.

1955년 12월 11일 주일 아침 노의수 집사 방에서 시편 59-60까지 봉독함. 새벽 예배는 못 참석 함. 새벽 육체를 불운(不運)하는 시험였음.

1955년 12월 12일(월) 아침은 전남 함평군(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창세기 36장을 봉독함.

1955년 12월 13일(화) 아침은 창세기 37장을 봉독함.

1955년 12월 14일 아침 광주 광산동 80번지에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창세기 38장을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형제 동행.

1955년 12월 15일(목) 아침은 신생 예배당에서 창세기 39장을 봉독함. 이 때 요셉의 모함과 수난을 깊이 생각함.

1955년 12월 16일(금) 아침은 전남 함평군(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창세기 40장을 봉독함.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었슴). 금일 나는 대전을 향거(向去)할 것이다.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

1955년 12월 17일(토)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본 창세기 41장 봉독함.

1955년 12월 18일 작일은 창세기 41장을 대전 자택에서 봉독하였는데, 1955년 12월 18일 주일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시편 96:11하-101장까지 봉독함.

1955년 12월 19일(월) 아침 부강교회당에서 창세기 42장을 봉독함.

1955년 12월 20일(화) 아침은 경부선 서정리(평택?) 교회당에서 박전도 형제계신 데서 창세기 43장 봉독함.

1955년 12월 21일(수) 아침은 서울 성경신학교 숙사에서 고평석 형제와 같이 유(有)하며 나는 본 창세기 44장을 봉독함.

1955년 12월 22일(목) 금일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도당리(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원교선 형제를 방문차로 왕래 중 버스 중에서 창세기 45장을 봉독함. 원 형제는 상봉 답화함.

1955년 12월 23일(금) 아침은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4번지 70호 성결교회내 이은희 자매 방문차로 가서 창세기 46장 봉독. 혜춘(惠春), 혜복(惠福)은 딸.

1955년 12월 24일(토) 아침에 마포구 아현동 교회 이학재 집사와 그 부인 김완씨 댁에서 창세기 47장 봉독.

1955년 12월 25일 음 11월 12일은 김태수 임양화 내외분이 따님 김영희는 따님 장녀인데 출생 1주년 기념일이다. 성경시편 1-2을 봉독함. 엄주열이 태호 김태수 형제 같이함. 1955년 12월 25일(일) 성탄절에 서울에 있었음.

1955년 12월 26일(월) 아침은 경의선 신촌역에서 차타고 수원 어머니께 가는 중 창세기 48장 봉독함. 수원경유 가좌교회에 감.

1955년 12월 27일 아침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교회에서 창세기 49장을 봉독함. 이곳은 전도회 자매님이 계심. 그 옆에 따로 "뽕박이 심한 개척이다."고 기록함.



가좌교회 김순씨 전도사와 딸 조영자(1959년)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에 있었으며, 김은석 목사의 제자 전도회 전도사가 스승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뽕박이 심한 개척"을 하였다(1955년경).

1955년 12월 28일(수) 아침은 가좌교회 주기현씨 댁 전도회 자매님 유하시는 방에서 본 창세기 50장을 봉독함. 이학재 형제 같이 있었다.

1955년 12월 29일(목)은 가좌교회 집회소인 전도부인 계신 방에서 출애굽기 1장을 봉독함. 이학재 집사도 계심.

1955년 12월 30일(금)은 대전 자택에서 출애굽기 2장을 봉독함.

1955년 12월 31일(토) 금일은 연말일인데 대전 자택에서 출애굽기 3장을 봉독함.

제12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6년

1956년 1월

1956년 1월 1일(일) 새벽에 대전본가(本家)에서 창세기 1-2장까지 돌려봄. 완례씨, 명순이와 같이 하였다. 아침에 아독경 창세기 3:1-4:23절 상반 봉독. 대전 자택에서 저녁에 욥기 1-2장말까지 봉독함. 금일은 엇(역)전교회당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오장로님 가족과 같이 예배드리었다.

1956년 1월 2일(월) 대전 자택에서 아침 예배시 창세기 4:23-7:12을 봉독함.

1956년 1월 3일(화) 아침 창세기 10-17장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

1956년 1월 4일(수) 아침 대전 자택에서 병석에서 창세기 17:9-22:11까지 봉독. 김완례씨와 성철이 같이 있음.

1956년 1월 5일(목)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창세기 22장 12절로 26장 25절까지 명순(양녀)과 완례(부인)씨와 돌려봄.

1956년 1월 6일(금)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0장까지를 대전 자택에서 병석에서 봉독.

1956년 1월 7일(토) 아침은 창세기 31장 1절로 부터 35장 말 29절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 오응수, 오난순, 명순(양녀), 완례씨 같이 있었음.

1956년 1월 8일(일) 아침에 욥기 5-7장막절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1956년 1월 9일(월) 아침은 10시 전후에 창세기 36장 1절에서 41장 16절까지 대전 주택에서 봉독함. 함성철이 같이 있었다.

1956년 1월 10일 밤에 대전 주택에서 이사야 1-2장까지 봉독함.

1956년 1월 11일(수) 아침은 대전 주택에서 창세기 45장 19절로 50

장 말절까지 봉독함. 본 창세기를 1월 1일 아침부터 금일 11일까지 봉독함. 두주일(일요일) 빠지고 9일간 6페이지씩 봉독함.

1956년 1월 15일(일) 아침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당 강단 뒤에서 욕기 8-12:25까지 봉독함. 아침은 12:25까지만 봉독하였고, 낮에 다시 13:1-14장말까지 봉독.

1956년 1월 16일(월) 아침 충곡리 교회 강단 뒤에서 출애굽기 16:22-22:15까지 봉독하고 박정업 자매와 같이 있었다.

1956년 1월 17일(화) 아침에 대전 주택에서 출애굽기 22:16-28:35까지 봉독하는바 두 번에 봉독.

1956년 1월 18일(수) 아침은 대전 주택에서 출애굽기 28:36-29:25까지 봉독하고 29:26-33:23까지는 목포행 특급 차에서 봉독함.

1956년 1월 18일 목포행 태극호 특급차중에서 출애굽기 34-36장까지 봉독함.

1956년 1월 19일(목) 아침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 진성구 장로 댁에서 출애굽기 37-40장 끝까지 봉독하였다. 그런데 이번 또한 출애굽 성경을 봉독하는 중 더욱 깨달은 것은 출애굽이 문제인 동시에 애급에서 나와서 장막 치는 법과 장막 위에서 구름이 덮여서 떠오르고 덮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더욱 깨달은 점이다. 지금 교회들도 다만 한 가지 믿음만으로도 아니요, 사랑만으로도 아니요, 믿음으로써 구체적 문제를 가르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7절에 나타난 말씀을 아울러 생각할 것이다. 진실로 이런 것을 누구보다 주님 사명을 받아진 교역자가 분명히 알고 가르치면서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1956년 1월 19일(목) 아침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 진성구 장로 댁에서 출애굽기 37:1-레위기 3장 끝까지 봉독함.

1956년 1월 20일(금) 은 레위기 4-5장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정귀남 씨 적은 방에서 봉독하고, 레위기 6장으로 9장 14절까지는 평산에서,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부락교회에서 집회하는 곳에 가는 중에 노변(路邊)에서 봉독함.

1956년 1월 22일 아침 주일에 신생동 노의수 집사 댁에서 욕기 14:1-21:34까지 봉독하는 중 김칠성 자매가 자기 신앙 운명 문(問?).

1956년 1월 23일(월) 아침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예배당에서 레위기 14:33-19:37절 마지막까지 봉독함.

1956년 1월 24일(화) 아침에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당에서 레위기 20:1-25:12까지 봉독.

1956년 1월 25일(수) 아침은 레위기 25:13-민수기 1:54까지 봉독. 신생부락교회당에서 금일 세례 받은 자.

1956년 1월 28일(토) 아침은 해남군 옥천면 화당 교회에서 민수기 9:15-14:13까지 봉독함.

1956년 1월 30일(월) 아침에 민수기 14:14-19:10까지를 화당 교회 강단 뒤에서 봉독.

1956년 1월 31일(화) 아침은 화당 교회당 강단 뒤에서 민수기 19:11-23:11까지 봉독함. 묘화당 자매님이 같이 들리심.

1956년 2월

1956년 2월 1일(수) 아침에 화당 교회 강단 뒤에서 민수기 23:12-26:65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2일(목) 아침은 예배당 안이 복잡함으로 화(禾)당 뒤 태밭산에서 민수기 27:1-31:54까지 봉독함. 바람에 치움은(?) 혀로(?) 지내었습니다.

1956년 2월 4일(토) 아침에 화당 교회당 강당 뒤에서 이 민수기를 마저 봉독하고 조장환 장로 댁 앞집 천의(?)수 댁에서 몇 형제가 조반식사 함. 김일순, 이재균, 김기주, 김홍석.

1956년 2월 4일은 오후에 신명기 1:1-4:4까지를 화당 교회당 앞방에서 봉독하였음.

1956년 2월 5일(일) 새벽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 교회당 앞방 박옥순씨 방에서 욕기 21:1-36:20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6일(월) 새벽 4시경부터 신명기 4:5-7:14까지를 화당교회당 앞 박옥순 씨에서 봉독함.

1956년 2월 7일(화) 아침은 강진읍 용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신명기 7:15-11:31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8일(수) 아침은 용동 교회당 후(后)방에서 신명기 12:1-16:19까지 봉독함. 이재균 전도사 같이 하심.

1956년 2월 9일(목) 새벽 3시 40분 기(起)하여 용두 교회당 방에서 신명기 16:18-22:7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11일(토) 아침에 부강 교회당 뒷방에서 신명기 27:16-30:20까지 봉독함. 동재인(同在人) 이재균, 안영천.

1956년 2월 12일 주일 저녁에 공식집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허리 아픈 일로 인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시편 1-3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말씀 증거는 안영천.

1956년 2월 13일(월) 아침에 신명기 31-34말절까지를 부강 교회당 뒷방에서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2월 15일 아침에 부강교회당 뒤 방에서 다니엘 1:1-4:16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16일 새벽에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다니엘 4:17-7:28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18일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다니엘 11:31-12:13과 또 다시 1:1-3:7까지 봉독하는 중 이경님 자매 혼사에 대한 말을 하였습니다. 성철이가 왔습니다. 아침에 다니엘 11:31-12:13까지 봉독함. 15일 아침 부? 매 아침에 봉독하는 것은 다 봉독함.

1956년 2월 19일 주일 아침은 대전자택에서 이층에서 시편 4-8장까지 봉독함. 주일 아침에 또한 시편 9-16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금나트 예배는 반암동 교회에 가서 지내고 오식 후 돌아옴. 강신규, 성철, 완례, 은석 다녀왔습니다.

1956년 2월 20일(월)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여호수아서 6:22-10:14 절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23일(목) 아침은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여호수아서 21:1-24:18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24일(금) 아침은 부강 강단 뒤에서 여호수아서 24:19부터 사사기 3:31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25일(토) 아침에 부강교회 뒷방에서 봉독함. 사사기 4:1-7:8.

1956년 2월 26일 주일 아침 부강교회당에서 시편 17:1-24장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27일(월) 아침은 ??이서 서울 가는 통근차 중에서 사사기 7:9-10:18까지 봉독. 다니엘 8:1-11:30까지 봉독함.

1956년 2월 29일(수) 아침은 부강교회당 강단 앞에서 사사기 15:9-19:30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1956년 3월 1일(목) 아침에 부강교회당 강단 옆에서 사사기 20:1-사무엘상 2:11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2일(금) 아침에 부강예배당 강단 옆에서 룻기 1-4장까지 봉하고 계속 사무엘상 2:12-3:10까지 봉하는바 부강교회당 강단 옆에서.

1956년 3월 4일 주일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시편 25:1-34:22까지 봉독하는 완례씨와 명순이가 같이 보았습니다.

1956년 3월 6일(화) 새벽은 부강교회당 주택 방에서 사무엘상 14:1-17:7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7일(수) 아침에 부강교회당 뒤 골방에서 사무엘상 17:8-20:18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8일(목)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사무엘상 20:19-24:22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9일(금) 아침에 부강서 골방에서 사무엘상 25:1-29:3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10일(토) 아침까지에 사무엘상 29:4-사무엘하 3:19절까지 부강교회당에서 봉독함.

1956년 3월 11일 주일 아침에 부강교회당 강단 옆에서 시편 35:1-41:13 말절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12일(월) 아침 사무엘하 3:20-7:29말까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함.

1956년 3월 13일(화) 아침에 사무엘하 8:1-13:9까지를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봉독함.

1956년 3월 14일(수) 아침은 예배당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사무엘하 13:10-16:11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3월 15일(목)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사무엘하 16:12-19:30까지 봉독.

1956년 3월 16일(금) 아침에 사무엘하 19:31-23:7까지 봉독하는바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봉독함.

1956년 3월 10일 아침부터 17일 아침까지 본 사무엘하를 다 봉독함. 부강교회당에서.

1956년 3월 17일(토)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사무엘하 23:8-열왕기상 2:20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3월 18일 주일 아침에 부강교회당에서 봉독하는바 시편 42:1-51장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19일(월) 아침은 금식중이며 부강교회 골방에서 열왕기상 2:21-6:16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20일(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상 6:17-8:53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21일(수) 아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열왕기상 8:54-11:34까지 봉독.

1956년 3월 22일(목) 아침에 부강교회 골방에서 열왕기상 12:1-16장까지를 봉독.

1956년 3월 23일(금) 아침에 열왕기상 16:23-20:7까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함.

1956년 3월 24일(토) 아침은 이른 아침에 성경을 예정대로 못 봉독하고 아침 식사 후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함.

1956년 3월 25일(일) 아침에 마음에 감화됨에 따라 사도행전 1:1-2:12까지를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주일 아침에 시편 52-62장까지 봉독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1956년 3월 26일(월) 아침은 지난밤을 샌 곳.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열왕기하 1:1-4:34절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27일(화) 아침은 예배당에 안 나가고, 열왕기하

4:35-8:9까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공부함.

1956년 3월 28일(수) 아침에 열왕기하 8:10-11:16까지 부강교회 골방에서 봉독.

1956년 3월 29일(목) 아침에 부강교회 강단에서 아니 보고, 골방에서 11:17-15:36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30일(금) 아침 부강교회 골방에서 열왕기하 15:37-19:13까지 봉독함.

1956년 3월 31일(토) 아침 일찍이 오늘은 성경봉독 못함. 오정에 겨반 될 때에 열왕기하 19:14-23:16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

1956년 4월

1956년 4월 2일(월)에는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를 다 봉독함. 3월 26일부터 봉독 시작하였습니다. 봉독 시작은 부강에서.

1956년 4월 2일(월) 아침 대전 주택에서 열왕기하 23:17-역대기상 2:17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3일(화) 아침에 역대기상 2:17-6:48까지를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함.

1956년 4월 4일(수) 아침에 부강교회 골방에서 역대기상 6:49-10:14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5일(목)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역대기상 11:1-15장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6일(금)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역대기상 16:1-21:5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7일(토) 아침에 부강교회당에서 골방 안에서 21:6-26:13까지 봉독함.

본서 역대기상 봉독 시작은 1956년 4월 2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1956년 4월 9일 아침까지에 본서 역대기상 봉독. 또한 열왕기하 2장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8일에는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교회에서 시편 71:1-78:20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9일(월) 아침에 역대기상 26:13-역대기하 2:18까지 봉독함.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최길수씨 방에서 봉독.

1956년 4월 10일(화) 아침에는 청주시 운천동 백인회 양로원에서 역대기하 3:1-15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4월 11일(수) 아침은 부강교회 골방에서 역대기하 7:16-13:8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12일(목) 아침에 봉독치 못 하고 10시가 지난 후에 역대기하 13:9-18:34까지 봉독함. 부강교회 골방에서.

1956년 4월 13일(금) 새벽에 김재수 목사가 새벽예배 인도함. 나는 골방에서 역대기하 19:1-23:15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14일(토)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역대기하 26:16-28:15까지 봉독함. 김재순, 최성례 두 형제 광주 가심.

1956년 4월 15일에 부강교회당에서 골방에서 78:21-86:7까지 봉독. 주일 아침.

1956년 4월 16일(일) 아침에 또한 부강교회 골방에서 역대기하 28:16-32:11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17일(화)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역대기하 32:12-35:27절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18일(수) 아침에 부강교회 골방에서 이 역대기하 36:1-본서 에스라 4:12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19일(목)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에스라 4:13-8:36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20일(금) 아침에 본서 에스라 9:-12장말까지 봉독함. 느헤미야 2:20까지 봉독함. 부강교회 골방에서.

1956년 4월 21일(토) 아침은 대전 판암동 애생원 교회 부흥회 중속소에서 느헤미야 3:1-7:60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22일 주일 아침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 소속 교회에서 시편 86:8-89:23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23일(일) 아침은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 소속 교회당 강단 옆에서 봉복하다 원장실로 옮겨서 느헤미야 7:61-11:12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4월 24일(화) 아침은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 소속 교회당 송조순 원장실에서 느헤미야 11:13-13:31까지 봉독함. 또한 에스더 2장 13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4월 25일(수) 아침에 부강교회 골방에서 에스더 2:14-9:10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26일(목)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에스더 9:11-10:3과 이사야 1:1-5:3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4월 27일(금) 아침에 부강교회 골방에서 이사야 5:4-10:15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28일(토) 아침은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 원장 따님 헤련 백일잔치에 가서 교회당에서 이사야 10:16-17:8까지 봉독함.

1956년 4월 29일 주일은 7시 40분부터 8시 45분까지에 시편 95:1-104:35까지 부강골방에서 봉독.

1956년 4월 30일(월) 아침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이사야 17:9-24:16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956년 5월 1일(화) 아침에는 돈암동 조봉순 자매 댁에서 이사야 24:17-30:6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2일(수) 아침은 수원시 세류동 1구 1통 30반 천막교회 안에서 이사야 30:8-36:7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3일(목) 아침 수원 하나님 성회당에서 이사야 36:8-40:31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4일(금) 아침에도 수원교회에서 이사야 41:1-45:7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5일(토) 아침은 식사 후에 들 초장에서 이사야 45:8-51:11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6일(일) 아침 수원 동생 정천(?) 방에서 시편 105:1-110:7절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7일(월)은 1956년 5월 7일은 지난 밤 차중에서 지낸

고로 4시후 송? 지나서 이사야 51:1-57:9까지 봉독. 호남 차중 33열차에서 이사야 51:1-57:9까지 봉독하였다가 또 57:10-59:7절까지 봉독함.

날짜미상.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 해병통신대 앞 그리스도의 교회당 강단 앞에서 본서 이사야 59:8-66:24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5월 9일(수) 아침은 목포 진장로 댁 끝 골방에서 예레미야 1:1-본(4장) 22절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0일(목) 아침에 목포 교회당에서 예레미야 4:13-8:6까지 봉독함.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1961년)

1956년 5월 11일(금) 아침은 목포 교회 강단 옆에서 예레미야 8:7-12:14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2일(토) 아침은 목포 진장로님 골방에서

예레미야 12:15-17:4까지 봉독.

1956년 5월 13일 주일 아침 목포 진장로님 방에서 시편 111:1-119:64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4일(월) 아침 목포 진장로님 방에서 예레미야 17:5-22:7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5일(화) 대통령 거선(擧選)하는 날 목포교회당 강단 옆에서 예레미야 22:8-25:33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6일(수) 아침 목포교회당에서 예레미야 25:34-30:3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7일(목) 아침에는 목포교회 이층에서 예레미야 30:4-32:44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8일(금) 아침은 1시반경까지 목포교회에서 예레미야

33:1-36:32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19일(토) 아침은 6시 10분까지에 예레미야 37:1-41:10까지를 목포 교회당에서 봉독함.

1956년 5월 20일 주일아침 목포 진장로님 방에서 시편 119:65-124:8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21일(월) 아침에 목포 진장로님 방에서 예레미야 41:11-46:22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22일(화) 아침은 목포 교회당에서 예레미야 46:23-50:9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23일(수)은 아침 후에 예레미야 50:10-52:6절까지 목(포) 진장로님 방에서 봉독.

1956년 5월 24일(목) 아침에 목포 진장로님 방에서 예레미야 전부를 봉독 마침이요, 아침은 오정이 다 될 때까지 예레미야 52:7-3:41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25일(금)은 또한 본서 예레미야애가를 목포의 진장로님 방에서 다 봉독함. 에스겔 4:17까지를 봉독함. 낮에 목포 진장로님 댁에서 예레미야애가 3:42부터 본서 에스겔 4:17까지 봉독.

1956년 5월 26일(토) 아침은 목포 유달산에서 에스겔 5-10장말까지 봉독함. 610-719분까지였음.

1956년 5월 27일 주일 아침에 목포 유달산에서 시편 125:1-139:24까지 봉독함. 아주 험한 바위 옆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1956년 5월 28일(월) 아침은 목포 유달산 산맥 기상대 있는 산에서 에스겔 11:1-15:5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29일(화) 아침 목포 기상대 산에서 에스겔 16:6-19:6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30일(수) 아침에 목포에 진장로님 방에서 에스겔 19:7-22장까지 봉독함.

1956년 5월 31일(목) 아침에 에스겔 22:27-26:21까지 봉독. 목포 진장로님 방에서.

1956년 6월

1956년 6월 1일(금) 아침은 목포 진장로님 댁 예배실에서 에스겔 27:1-31:14까지 봉독함.

1956년 6월 2일(토) 주일 밤 대전 자택에서 시편 (1)45-(1)47 마지막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아침 목포 예배당에서 에스겔 31:15-35:6까지 봉독함.

1956년 6월 3일 주일에 목포 교회 강단 옆에서 시편 148-150편까지 봉독함.

1956년 6월 4일(월) 아침에 에스겔 35:7-39:11까지를 목포교회당에서 봉독함.

1956년 6월 5일(화) 아침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으나 에스겔 39:12-43:20까지 봉독. 목포교회에서.

1956년 6월 6일(수) 새벽에 목포서 서울 행 34차중에서 에스겔 43:21부터 48:35절까지를 봉독. 동행인 김재순 목사.

1956년 6월 7일(목)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조 댁에서 호세아 1:1-8장까지 봉독 또는 차중에서 9:1-13:16절까지를 봉독함. 김재순 형제와 동행함.

1956년 6월 8일(금) 새벽에 대전 자택에서 호세아 14장 하나를 봉독함. 대전서 목포가는 601차중에서 본 요엘서 1-3장까지 봉독함. 동행 김재순 목사. 대전서 목포 가는 601차중에서 요엘 1:1-아모스 3:8까지 봉독. 동행 김재순.

1956년 6월 9일(토) 아침에 목포 진장로님 댁에서 아모스 3:9-9:15까지 봉독함. 630분(시 30분?)이었음.

1956년 6월 10일 주일 새벽 5시 30분경에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당에서 김동국 목사 안수례를 거행(舉行). 같이 동참 안수한 분 임남규 목사, 박중승, 박중식 두 장로와 김은석 목사가 합수하고, 축도하였음. 성경을 봉독한 것은 요한복음 21:5-22, 사도행전 14:19-23, 디도서 1:5-6, 딤편 4:13-16을 봉독하였습니다. 아침은 방축 교회당에서 잠 1:1-7:26까지 봉독함. 김동국 목사 안수례 함.

1956년 6월 11일(월) 해남 화산서 용동 가는 버스 차 중에서 오바

다 봉독함. 동행자 임남규 목사. 해남 화산서 강진 용동 가는 차중에서 오바다 1장부터 본 요나 4장까지 봉독. 동행자 임남규 목사. 오전 630분경에 해남 화산서 강진 용동 행 자동차 중에서 오바다 1장부터 미가 3장 12절까지 봉독함.

1956년 6월 12일(화) 아침에는 강진 연화동 교회당에서 미가 4:1-나훔 3:19절까지 봉독함. 김규상 형제와 같이함. 강진서 광주행 금성버스 안에서 본서 하박국 1장을 봉독함. 더 봉독하려하여도 흔들려서 못함.

1956년 6월 13일(수) 아침에 광주시 호남동 한공빌딩 상신양복점 신영두 형제에서 하박국 2-3까지 봉독함. 아침에 광주시 호남동 한공빌딩 상신양복점 신집사방에서 스바냐 2:1-3장 마지막까지를 완례씨와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아침에는 광주시 호남동 한공빌딩 상신양복점 신영두 집사 방에서 하박국 2장부터 본서 학개 2장 23절까지 봉독함. 오후에 광주시 학동 1구 169번지 3반 김삼용 씨 댁에서 스가랴 1:1-2:13절까지 봉독함.

1956년 6월 14일(목)에는 광주시 금동교회당에서 새벽 3시 5분에서부터 스가랴 3:1-11:5까지 봉독. 본 스가랴 11:6-부터 14장 21절까지는 목(포)-대(전)행 601열차 중에서 봉독함. 금일은 장성 대전까지에 이차를 탔습니다.

1956년 6월 15일(금)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1:1-5:48까지 봉독함. 종석이 와서 있었음.

1956년 6월 16일(토) 아침에 봉독하지 못하고, 오정이나 된 후에 6:1-10:15까지를 봉독하는바 김명석, 장신금 나 삼 남매가 같이 보았습니다.

1956년 6월 17일(일) 아침은 부강교회당 안에서 잠언 8:1-14:18까지 김낙기, 강신규, 이해순, 나.

1956년 6월 18일(월)은 아침에 마태복음 10:16부터 끝까지를 예배드리는 뜻으로 여러분이 돌려 보았고, 마태복음 11:1-13:35까지 골방에서 봉독함. 부강교회당.

1956년 6월 19일(화) 아침에는 마태복음 13:36-18:8까지 봉독함. 부강교회당에서.

1956년 6월 20일(수) 아침은 마태복음 18:9-22:20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하는바 새벽 예배시에 아울러 봄.

1956년 6월 21일(목) 아침은 마태복음 22:23-46까지는 새벽예배에 들려봄. 강순임, 김은연, 강신규, 김녹기, 병수 조모, 나 같이 보았음. 마태복음 23:1-25장까지 골방에서 나 혼자 봉독함.

1956년 6월 22일 (음력 5월) 14일 이 날은 나의 생일입니다. 부강교회당에서 본서 마태복음 26장 1절로 28장 20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예배 참석하신 분은 강순임, 전도희, 강신규, 김완례, 김녹기, 최병수 조모님과 같이 예배드리었습니다. 이해순 자매님은 음식 준비하심.

1956년 6월 23일(토) 아침은 영운동 고전도사 댁에서 나와서 청주역실에 와서 마가복음 3:1-6:17까지 봉독하고, 1:1-2:27까지는 고광석 전도사 댁에서 봉독하였습니다. 동행은 강신규 자매 수리교회 가는 도중.

1956년 6월 24일 아침은 수리 예배당에서 잠언 14:19-20:20까지 봉독함.

1956년 6월 25일(월)은 수리교회당 숙소에서 5시 40분에 일어나서 5:18-8:38까지 봉독.

1956년 6월 26일(화) 서울 아현 그리스도의 교회 천막안의 ??장소에서 마가복음 9:1-12:12까지 봉독함. 금번 이와 같이 서울에 온 것은 테일러 선교사를 만나려 함이었음. 강신규 자매가 동행함.

1956년 6월 27일(수) 아침은 서울서 서정리행 하는 차중에서 마가복음 12:13-16:20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6:2까지가 차중이요, 16:3-16:20까지는 서정이 동생 집에서 봉독함. 동행하여 신앙담과 교회일 의논은 강신규 자매이었습니다.

1956년 6월 28일(목)은 대전 판암동 애생원 그리스도의 교회 숙소에서 누가복음 1-3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금일 판암동 간 것은 박치환 전도사 일로 갔었습니다.

1956년 6월 29일(금)은 오후에 충남 연기군 동면 월산동 황골교회 전도사 방에서 4:1-6:49까지를 봉독함. 금일도 강신규 자매와 동행함.

1956년 6월 30일(토)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누가복음

7:1-10:16까지 봉독함. 강신규 자매 조동 가심.

1956년 7월

1956년 7월 1일 주일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잠언 20:21-26:21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2일(월)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누가복음 10:17-12:59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3일(화)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누가복음 13:1-17:14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4일(수) 아침은 충남 대덕군 구즉면 신동리 나연찬 형제 덕 마루에서 누가복음 17:15-21:9까지 봉독함. 21:10-38까지는 검세강? 편에서 봉독함.

1956년 7월 5일(목) 아침에 부강 교회당 골방에서 누가복음 22-24장 봉독.

1956년 7월 6일(금) 새벽 4시경에 충주시 충인동 동양 상회 김일제씨 덕 이층에서 요한복음 1:1-4:38까지 봉독함. 이동주씨도 유숙함. 나는 조동까지 갔다올 예정.

1956년 7월 8일 주일 아침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초등학교 마당교단에서 앉아서 잠언 26장 22절부터서 31장 끝까지 봉독함과 전도서 1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주일 아침 잠언과 계속하여 이 전도서 1장을 봉독하였음.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오바다 1장과 요나 1-4장까지와 미가 3장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9일(월) 아침은 가좌교회 전도회 자매 방에서 요한복음 7:25-10:18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10일(화) 새벽 2시경에 대전 집에서 요한복음 10:19-12:8까지 봉독하고, 12:9로 13:38까지는 6월 급행열차 대전서 4시 31분발 서울행 차중에서 봉독하는데 오늘 이 차에 서울 가는 일은 김명석 전도사 부인 급한 구급 보조할 일을 선교부에 의논차로 가는데 또한 가좌교회 일과 또한 다른 일도 좀 의논할까 함.

1956년 7월 11일(수) 아침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가장골 교

회당에서 요한복음 14:1-18:3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12일(목)은 충북 음성읍에서 대전행 서울 버스공사 차
중에서 요한복음 18:1-21장 말절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13일(금) 아침에 부강교회당 방에서 사도행전 1:1-4:37
마지막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14일(토) 부강교회당에서 사도행전 5:1-8:25까지 봉독
함.

1956년 7월 15일 주일은 부강 교회에서 전도서 1:1-7:29까지 봉독
함.

1956년 7월 16일(월)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 18번지 김교인
장로택에서 사도행전 8:26-11:30까지 봉독함. 12:1-25절까지는 저녁 9
시후 수원행 버스 중에서 봉독함.

1956년 7월 18일(수) 아침은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교회당
간판 옆에서 사도행전 16:1-19:41까지 봉독함. 아침 식전과 식후도 읽
다가 나가서 기도드리다가 사도행전 20장 1절로 23장 26절까지 수리
교회당에서.

1956년 7월 20일 금요일은 수리교회 강당 뒤에서 22장 27-28장까
지 봉독함.

1956년 7월 21일(토)은 아침에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
고 아침식사 후에는 4:1-5:11절까지를 충북 동양면 조동리 교회당 옆
에서 박상구 청년과 봉독함.

1956년 7월 22일 주일 아침에 전도서 8:1-아가서 3:11까지 봉독. 조
동교회당에서. 주일 아침은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에서 전도서 8:1-
본 아가서 3:11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23일(월)은 5:12부터 로마서 8:11일까지는 교회당에서
봉독하고 8장 12절부터 9:33절까지는 대홍수가 난 강변에서 봉독함.
강변에 나온 사람은 강신규, 김완례, 권옥난, 방순미, 전숙자, 나 6인
이었음.

1956년 7월 26일(목) 아침은 청주시 영운동 교회당에서 고린도전
서 1:1-6:20까지 봉독함. 아침에 강당 뒤에서 7:1-11:19까지 봉독함. 아
침은 강단 뒤에서 11:19-15:49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28일(토) 아침에는 청원군 청주시 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당 강단 뒤에서 고린도전서 15:50-고린도후서 5:4절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29일 아침은 부강교회 강단 뒤에서 아가서 4:1-8:14까지 봉독. 오늘까지에는 시가로 된 것은 다 봉독. 욕, 시, 잠, 전, 아, 애, 6시가를 다 봉독함.

1956년 7월 30일(월) 아침은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고린도후서 5:51-11:6까지 봉독함.

1956년 7월 31일(화) 아침은 대전 주택에서는 고린도후서 11:7-갈라디아서 2:21까지 봉독하는바 고린도후서 13장서 갈라디아서 2:21까지는 성철이와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8월

1956년 8월 1일(수)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갈라디아서 3:1-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갈라디아서 3:1-4장까지는 김완례씨와 철성(성철?)이 같이 봉독함.

1956년 8월 2일(목) 아침은 목포시 죽교동 사구 동 2반 399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에베소서 2:1-빌립보서 2:14까지 봉독함.

1956년 8월 3일(금) 아침은 목포 교회당에서 빌립보서 2:15-골로새서 3:23까지 봉독하는바 골로새서 3:11-25까지는 도주일 자매와 함께 봉독.

1956년 8월 4일(토)은 대전 자택에서 골로새서 4장 1절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6장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아침에는 대전 자택에서 골로새서 4장1절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어제는 오전에 목포서 성경을 공부하였으나 오후 16시 15분발 34열차로 대전에 24시 30분에 도착하였습니다.

1956년 8월 5일(일) 아침은 경부선 서정리 침례회 예배당 안에서 디모테전후서를 다 봉독함. 유재춘 전도사 대전에 가심. 아침 서정리 침례회당에서 본 아가서를 또 봉독하였음. 1-8장까지.

1956년 8월 7일(화) 아침은 서정리 교회당 방에서 디도서 1장으로

3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서정리 교회당 방에서 디도서 1장으로 이 빌레몬서 1장과 히브리서 2장까지 봉독함.

1956년 8월 8일(수) 아침은 또한 서정리 교회당 마루와 방에서 히브리서 3:1-9:7절까지 봉독함.

1956년 8월 9일(목) 아침은 청주 영운동 교회당에서 히브리서 9:8-12:29까지 봉독함. 밤 열시 후에 본 히브리서 13장을 대전 주택에서 봉독하고 저녁 예배드리는 중에 창18:1-19:17절까지 봉독함.

1956년 8월 10일(금) 아침은 대전 주택에서 야고보서 1장으로 5장까지 봉독. 베드로전서 2장 9절까지 더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8월 11일(토) 아침은 경부선 부강역전 예배당에서 골방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5장, 베드로후서 1장으로 3장까지 봉독함. 아침은 경부선 부강예배당 끝 방에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말까지 봉독.

1956년 8월 12일 주일 아침은 경부선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아가서 1-8장까지 봉독함.

1956년 8월 13일(월) 아침은 경부선 부강역전 교회당 강단 옆에서 본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5장 21절까지 봉독함.

1956년 8월 14일(화) 아침은 또 경부선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요한 2,3서, 유다서, 본 묵시록 4장 4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6년 8월 15일(수) 아침은 대전 주택에서 묵시록 4장 5절로 11장 14절까지 봉독함.

1956년 8월 16일(목) 아침은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교회당 주택방 한 000집사 댁 방에 전도사 은영이 거주하는 곳에서 묵시록 11:15-18:4까지 봉독함.

1956년 8월 17일(금) 아침까지 창세기 1장부터 묵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봉독함. 마지막까지 봉독한 장소는 충북 청주시 영운동 교회당 안에서입니다. 같이 계신 분은 김은영, 고광석, 노의수, 나 4인이었습니다.

1956년 9월

1956년 9월 4일(화) 나의 몸이 병편하여 부강서 이른 아침 떠나서 대전으로 가는 중 통근 차 안에서 본서 예레미야애가서 5장을 봉독하면서 새로이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1956년 9월 6일(목) 저녁에 나는 아직 병고 중에서 본서 예레미야애가 5장을 다시 봉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 상태에 공생을 탄식함을 감히 생각하였습니다.

1956년 9월 7일(금) 아침은 대전시 은행동 1번지 10통 41반 자택에서 본 예레미야 15장을 봉독하면서 조흔경계에 말삼을 깨다랐습니다.

1956년 9월 9일 주일 대전 자택에서 시편 94장 1절로 끝 절까지 봉독함.

1956년 9월 18-20일(화-목)까지 추석.

1956년 9월 25일(화) 아침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박종승 장로 댁 사랑에서 시편 (119편) 89-136까지 봉독하는바 김일순 전도사가족 여러분이 같이 앉았다.

1956년 9월 30일 주일 아침에 충북 청원군 가좌교회 예배처소에서 전도회 자매 방에서 시편 89편을 봉독함.

1956년 11월

1956년 11월 1일(목) 아침 나는 주님 앞에서 신앙이 약하여져서 교회를 위해 지금 고통 중에서 예레미야 6장을 봉독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편집자 주: 예레미야서 6장에 한자로 크고 진한 글씨로 고로(古路, 옛적 길=선한 길, 16절)라고 적어놓음.>

1956년 11월 2일(금) 아침 대전 자가에서 이사야 59장을 봉독하는바 범죄자는 형벌 받는 것 더욱 명백함.

1956년 11월 15일(목) 신천동 1구 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부흥회 마치는 날 이상 느헤미야 9장을 봉독함. 조국형 목사 댁 사랑에서 배병 나서 좀 괴로운 중.

1955년 11월 25일 아침 주일 아침에 전남 강진군 작천면 하당리 최일복 씨 방 그리스도인 집회소에서 시편 106장 봉독함.

1956년 12월

1956년 12월 13일 새벽(목)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일어나 앉아 기도)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으로 서울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드러난) 일리(일이) 있음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뉘에(생각하여) 작덩(작정)하고 김재순 목사께 편지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여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빌립보서)를 보난 중 1장 27-2:1-2, 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갓치(같이) 하는 일은 마음을 갓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갓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져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갓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여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 었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댁 객실에서 記(기록)함. 김은석 止(?끝).

제13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7년

1957년 1월

1957년 1월 3일(목) 부강예배당 골방에서 창세기 7-9장을 봉독함.

1957년 1월 6일 주일은 대전 판암동 교회에서 지내며 시편 110-112편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8일(화) 금일은 또한 대전 자택에서 매일 독(讀)하는 대로 요한복음 6장부터 8:20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10일 새벽 3시경에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미가 1-7장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11일(금)에 부강에서 수원 가는 중 차안에서 창세기 28장 30장까지 봉독함. 수원 가는 일은 12일(토) 어머니 생에 감. 부강서 수원 어머니 12일 생신 가면서 차중에서 본서 오바다 봉독함.

1957년 1월 13일 주일 아침에 부강교회 골방에서 시편 4-7장까지 봉독함. 아침 부강교회 골방에서 시편 19장을 봉독함.

1957년 1월 14일(월)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창세기 25-27장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16일(수) 아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창세기 41-43장까지 봉독.

1957년 1월 17일(목) 아침에 부강교회 골방에서 창세기 43-45장 봉독.

1957년 1월 18일(금) 아침 부강교회 골방에서 창세기 46-48장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19일(토) 아침은 부강교회 골방에서 창세기 49장 출애굽기 1장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20일 주일 아침 대전시 은행동 고례계통(고신파) 장로

회 예배당에서 출애굽기 2-4장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21일(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출애굽기 5-7장까지를 봉독함.

1957년 1월 22일(화)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출애굽기 8-10장까지 봉독.

1957년 1월 23일(수)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출애굽기 11-13장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24일(목)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출애굽기 14-16장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25일(금)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출애굽기 17장-20:17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26일(토) 아침은 식사 후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출애굽기 20:18-30장말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27일 주일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시편 7-12장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28일(월)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28:35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29일(화) 아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출애굽기 28:36-32:6까지 봉독함.

1957년 1월 31일(목)은 아침에 성경을 다 봉독치 못하였고, 오후에 걸쳐서 출애굽기 27:10-40장 말절까지 봉독하였다.

1957년 1월 31일(목) 아침은 작정성경을 잘 봉독치 못함. 오후에 걸쳐 37:10-본(레위기) 3장말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1957년 2월 1일(금) 아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레위기 4:1-9:14절까지 봉독함. 새벽예배 안 나감.

1957년 2월 2일(토) 아침은 대전 주택 2층에서 레위기 9:15-14:32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3일 주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시편 20:1-28편 말절까

지 봉독하였습니다.

1957년 2월 4일(월) 아침에 레위기 14:33-19장 말절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1957년 2월 6일(수) 아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레위기 21:12-26:13절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7일(목)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레위기 26:14-민수기 1장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8일(금)은 저녁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민수기 2:1-4:20절까지 봉독함. 이른 아침은 충남 연기군 동면 명확리 원당골 김봉구씨 따님 영애씨 혼사로 갔었습니다.

1957년 2월 9일 토요일은 청주경찰서 옆 김창수 형제 방에서 민수기 4:21-6:18절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11일 월요일에는 저녁에 부강예배당 골방에서 민수기 6:19-9:14절까지 봉독.

1957년 2월 12일(화) 아침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초등학교 교원 윤묘중 그 모친(이완수) 그 동생 조제, 그 딸이 효상이 방에서 민수기 9:15-12:16 마지막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13일(수)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민수기 13-15장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14일(목) 아침은 새벽예배에 참석안함. 전도회 자매가 성경을 증거 하심. 나는 본서(민수기) 15:17-17:13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15일(금) 아침은 민수기 18:1-20:29까지 부강교회당에서 봉독함. 새벽예배 안영천 형제가 성경증거 하심.

1957년 2월 16일(토)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민수기 21-24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17일 주일 아침에는 대전 주택에서 시편 113-117장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18일(월) 아침은 대전 주택 2층에서 민수기 25-26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19일(화) 아침은 부강교회 골방에서 민수기 27-30장 마지막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20일(수) 아침은 부강교회 골방에서 민수기 31-32장 말절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21일(목) 아침은 또한 부강교회 골방에서 민수기 33:1-36장 마지막절까지 봉독함. 금년 또 다시 이 민수기를 봉독하는 바에 큰 이상함을 배운 것은 진(을) 친 수가 40곳 된 것입니다.

1957년 2월 22일(금) 아침에 또한 부강교회골방에서 신명기 1-2장 37말절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23일(토)은 아침 식사 후 3:1-5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아침식사 전은 김상호 목사와 담화함.

1957년 2월 24일 주일 아침에 시편 13-18장 마지막 절까지를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함.

1957년 2월 25일 월요일에는 오전과 오후를 걸쳐서 신명기 6-9:5까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함.

1957년 2월 26일(화) 아침에 부강교회당에서 신명기 9:6-11:32까지 봉독함. 새벽예(배) 업섯습니다(없었습니다?).

1957년 2월 27일(수) 아침에는 이동주씨 댁에 가서 식사를 한 후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12-14장까지 봉독함.

1957년 2월 28일(목)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15:1-18:15까지 봉독함. 최덕임, 이혜순 두 자매 동행함.

1957년 3월

1957년 3월 1일(금)은 부강교회당에 골방에서 신명기 18:16-22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2일(토) 아침에 부강교회당에서 신명기 23:1-26장 말절까지 봉독함. 새벽예배 전상규 형제가 성경증거.

1957년 3월 3일 주일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시편 29:1-34:22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4일(월) 아침은 식사 후에까지 아울러 신명기 27:1-28:68 마지막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5일(화) 아침은 식전 신후를 아울러 신명기 29:1-31:30

까지를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함.

1957년 3월 6일 수요일 아침에 32-34장말까지를 부강교회당에서 봉독함.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공부하는 기간에 봉독함.

1957년 3월 7일(목) 아침에 부강교회당에서 여호수아서 1-6장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8일(금)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여호수아서 7:1-9:2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9일(토) 아침에는 부강교회 골방에서 여호수아서 9:3-11:9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10일 아침에 시편 35:1-41:13절 마지막까지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새테말 교회당 한영희 여? 방에서 봉독함.

1957년 3월 11일(월)에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교회 갔다가 여호수아서 11:10-13:28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12일(화)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여호수아서 13:15-18장 말절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13일(수)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서용석)이라는 학생같이 여호수아서 19-24장까지 봉독.

1957년 3월 14일(목)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사사기 1:1-4:24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15일(금) 부강교회 골방에서 5:1-8:21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16일(토) 아침은 못 봉독하였는데, 오전에 대전 자택에서 8:22-11:39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17일 아침 이 주일은 시편 42-48편까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1957년 3월 18일(월) 금일은 아침에 조금 봉독하고 분망(奔忙)하였었는데 저녁에 청주 영운동에 도착하여서 봉독한 것까지가 사사기 12:1-15:8절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19일(화) 아침은 청주 용운동교회 주택 방에서 사사기 15:9-18:31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에 20:1-21:25까지 봉독함. 19장은 19일인 어제 청주 영운동 예배당에서 이춘근 ?신복 자매 결혼식에서 봉독함.

1957년 3월 20일 수요일 아침 사사기 20장부터 룻기 2:23까지 봉독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1957년 3월 21일(목) 아침에 본 룻기 3:1부터 사무엘상 2장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22일(금) 아침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사무엘상 3:1-9:8까지를 봉독함.

1957년 3월 23일(토) 아침은 수원 동생네 집에서 사무엘상 9:9-12:13까지 봉독함. 이번 길은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 삼 아(兒)를 인천 학익동 이종만 보육원에 입원 차이다.

1957년 3월 23일(토) 오후는 인천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이종만 댁에서 사무엘상 12:14-13:23말까지 봉독함. 오늘 여기 온 것은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을 입원차로 음.

1957년 3월 24일 주일 아침에 구원 정원 집에서 시편 49:1-58장까지 봉독. 이번 이 길은 인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이종만인데,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을 다 두고 오난 길에 된 일이다.

1957년 3월 25일(월)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사무엘상 14:1-17:7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26일(화) 아침에 부강교회당에서 사무엘상 17:8-20:17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27일(수) 아침은 부강 부용초등학교 교원 윤묘중 선생 댁에서 식사하며 사무엘상 20:18-24장 말절까지 봉독함. 이효상이 안고 봉독함.

1957년 3월 28일(목) 아침은 부강교회 골방에서 사무엘상 25:1-29:3까지 봉독함.

1957년 3월 29일(금) 아침은 부강교회당과 부용학교 선생 윤묘중 댁에서 사무엘상 29:4-사무엘하 3:16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7년 3월 30일(토) 아침은 사무엘하 3:17-8:2절까지 부강교회 골방에서 봉독함.

1957년 3월 31일 주일 아침 부강교회당에서 시편 59:1-68:35절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1957년 4월 2일(화) 아침은 충남 논산군 부적면 안촌말 최영식 장녀 정순자매 결혼식 주례차로 온 중에서 사무엘하 13:18-16:11까지 봉독. 버스 내서.

1957년 4월 3일(수) 아침에는 충남 논산군 연산면 청룡굴 안명수 씨 댁에서 사무엘하 16:12-19:30절까지 봉독.

1957년 4월 4일(목)은 석양에 대전 자택에서 사무엘하 19:31-23:7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5일(금)은 병석에서 지내는 중 대전 자택에서 사무엘하 23:8-열왕기상 2:40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6일(토) 아침은 열왕기상 2:41-4장 마지막 절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 병석에서.

1957년 4월 7일 주일 아침에 시편 69:1-75편 마지막 절까지 대전 집에서 봉독함.

1957년 4월 8일(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상 5:1-8:21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9일(화)은 완례씨 병(病)으로 분망(奔忙) 중(中) 아침에 못 봉독하고, 오후에 열왕기상 8:22-11:9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10일(수) 아침에 또한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상 11:9-14:5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11일(목) 아침은 청주 영운동 교회당에서 14:6-18:4까지 봉독. 송안성과 같이 함.

1957년 4월 12일(금) 아침에 열왕기상 18:5-20:43까지를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정유순 자매 집 교회당에서 봉독.

1957년 4월 13일(토) 아침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당 안에서 열왕기상 21:1-22:53절까지와 열왕기하 2:10까지를 봉독함.

1957년 4월 14일 주일 아침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당에서 시편 76-82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15일 아침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당에서 아모스 1-9장 마지막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16일(화) 아침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에서 열왕기하 2:11-5:27까지 봉독.

1957년 4월 17일(수) 아침은 또한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당에서 열왕기하 6:1-9:16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18일(목)은 충북선 증평역전과 차중에서 열왕기하 9:17-13:9까지 봉독함. 문암교회 도착.

1957년 4월 19일(금) 아침은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교회당에서 열왕기하 13:10-17:18까지 봉독.

1957년 4월 20일(토)은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교회 신정철씨택 모친 회갑연에서 열왕기하 17:19-20:11까지 봉독함. 대전 자택에서 저녁에 하박국 1-3장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21일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시편 83:1-90편 말절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22일(월)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20:12-24장 말절까지 봉독함. 진도희 자매는 가좌교회로 가심.

1957년 4월 23일(화) 대전서 열왕기하 24:1-역대기상 3장말까지 봉독하고 오전 11시발 목포행 차로 목포에 도착함.

1957년 4월 24일(수)은 목포시 죽교동 사구 동이반 399번지 교회당에서 역대기 4-6장까지 봉독과 7장은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 가는 중 용당이 가는 배안에서 봉독함.

1957년 4월 25일(목)은 정찬성 목사 별세. 전남 해남 소(송)지면 매화리교회 가는 중 광주버스 타고 해남읍 도착하여 차중에서 역대기상 7:20로 10장까지와 화산에 도착 황순홍 자매 방에서 11장 봉독. 매화에 도착 12:1-7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27일(토) 아침은 전남 해남군 마산면 장성리 이공님 자매 방에서 역대기상 17:1-22:11절까지 봉독함. 김규상, 고광석 형제 같이 있었음. 김일순 형제는 송지에 가심.

1957년 4월 28일 주일은 강진군 강진읍 용동면 황동면하고 산상에 시내산 위에서 시편 91-1-2편까지 봉독함.

1957년 4월 29일(월) 역대기상 22:12-27장까지를 전남 강진군 군동면 남신리 연화동 교회 강단에서 봉독함.

1957년 4월 30일(화)은 강진 출발 해남 화당교회를 향하는 중에서 버스 안에서 역대기상 28장 봉독. 조장환 장로 댁에서 역대기상 29장부터 역대기하 2장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1957년 5월 1일(수)은 전남 해남군 북평면 월성리 김숙명 자매 댁을 방문 중에서 역대기하 3-7장까지를 봉독함. 해남군 옥천면 도림리 교회에서 김일순 윤옥동 자매와 같이 동행 함.

1957년 5월 2일(목)은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흥교회에 도착함. 역대기하 8-13장까지를 버스 중에서 봉독함. 김일순, 윤옥동, 주관보, 최장석씨, 김숙명, 김상열이 동행함.

1957년 5월 3일(금) 아침은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리 뒷산 묘역에서 역대기하 14-18장까지 봉독.

1957년 5월 4일(토) 아침은 역대기하 19-23장까지 봉독함. 화당교회당에서.

1957년 5월 5일 주일 아침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교당 공청에서 시편 103:1-107장까지 봉독.

1957년 5월 6일(월) 아침은 해남군 옥천면 화당리 어떤 집 뒤에서 역대기하 24:1-28:15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6일(월)은 역대기하 28:16-30:27까지 봉독하는바 아침에 못하고 때때로 함.

1957년 5월 7일(화) 아침 화당교회당 강단 뒤에서 역대기하 31-34장 말절까지 봉독.

1957년 5월 9일(목) 아침은 전남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곽형도씨 댁에서 떠나서 목포를 향해 가는 중 역대기하 35:1-에스라 2장말까지를 봉독함. 동행자 송안성, 곽형도, 임현건, 김일순, 김숙명, 정매실, 백전순, 김은석이었음.

1957년 5월 10일(금) 아침은 목포 교회당 강단 뒤에서 에스라 3:1-7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11일(토) 아침은 또한 목포시 죽교동 사구 동 399번지

교회당 강단 옆에서 에스라 8-10장까지 봉독함. 9-10장은 잡혼(雜婚)한 것 경계.

1957년 5월 12일 아침은 전남 강진군 작천면 화당리 최일복 씨 댁 방 교회에서 시편 108:1-119:7절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13일(월) 낮 시간에 강진군 작천면 화당리 최일복씨 댁에서 느헤미야 1:1-6:9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14일(화) 아침은 강진군 작천면 죽현동 김준수씨 댁을 떠나서 노중과 차중에서 느헤미야 6:10-9장말 38절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15일(수) 아침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번지 민병록 방에서 느헤미야 10:1-11:12까지 봉독함. 서울서 부강 오는 중 차에서 느헤미야 11:13-12:36까지 봉독함. 저녁에 부강교회당에서 느헤미야 12:37-13:22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16일(목) 아침은 본 느헤미야 13:23-에스더 2:13절까지를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봉독함. 낮에 또한 2:14-4장말까지를 대전자택에서 봉독함. 석양에 대전 자택에서 5-7장까지 봉독.

1957년 5월 17일(금)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에스더 8장을 봉독함. 오후에 대전 자택에서 에스더 9-10장까지, 욥기 1-2장까지를 봉독.

1957년 5월 18일(토) 아침은 부강가는 차 중에서 3-5장까지 봉독함. 전현재, 김은영, 김숙명, 백정순 두 자매 같이 감. 낮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욥기 6-7장까지 봉독함. 저녁에도 부강에서 욥기 8-9장말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19일(주) 아침은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교회당에서 시편 (119편) 17-72절까지 봉독함. 주일 낮과 저녁에는 73-160절까지 봉독하는바 괴산 수리 가는 차중과 수리 김태규씨 방에서 봉독함.

1957년 5월 20일 아침부터 석양까지 말씀 봉독하는바 이사야 1-6장까지 봉독 김명석 형제 동행.

1957년 5월 21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사야 7-12장까지 봉독함. 청주서 부강 오는 차중과 부강 교회당.

1957년 5월 23일 아침은 부강예배당 강단 뒤에서 이사야 13-14장까지 봉독함. 낮 오후는 대전행 차중에서 이사야 15-19장까지 봉독함. 대전서 부강 오는 차중에서 이사야 20장부터 22장까지를 부강교

회당 골방에서까지 봉독함. 23-24장까지 부강서 봉독함. 금(일)은 저녁에는 못 봉독함.

1957년 5월 24일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이사야 25-26장까지 봉독함. 오전에 또한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이사야 27-28장을 봉독함.

1957년 5월 25일 아침도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이사야 30:15-31:9까지 봉독함. 부강서 청주 가는 차중에서 이사야 32-33장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26일은 오후에 대전 주택에서 시편 119:161절로 128:6까지 봉독함. 주일 저녁때에 시편 132-136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7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은 대전 주택에서 이사야 34:1-37:24까지 봉독함. 오후에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37:25-38:21까지 봉독.

1957년 5월 28일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이사야 41-42:17절까지 봉독함. 오정에 이사야 42:18-43:28말절까지 봉독함. 밤중에 새(이사야) 44:1-28 마지막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29일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이사야 45-47장까지 봉독함. 오정에 또한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이사야 48-49:13까지 봉독. 밤에는 49:14-50장까지 봉독함.

1957년 5월 30일은 아침과 낮과 석양에 걸쳐서 52-60장까지 봉독. 부강과 차중과 대전 자택에서.

1957년 5월 31일은 대전 자택에서 이사야 61:1-65:12까지 봉독함. 석양 부강교회당에서 65:13-66장 마지막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1957년 6월 1일 아침도 부강교회당에서 예레미야 1-2:19까지 봉독함. 낮에 2:20-3:13까지 봉독. 부강에서. 석양에 부강교회당에서 예레미야 3:14-4장말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7년 6월 2일 주일 아침은 부강 부용초등학교 선생 윤묘중 자매택에서 식사 중 시편 137:1-140까지 봉독. 1957년 6월 2일에 차중에서 시편 141-144까지 봉독함. 백정순 자매 동행. 참 대전행 중.

1957년 6월 3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5장 하나 봉독. 금일은 4:1-8:6까지 봉독함. ? 흥기형 형제가 아가(我家)동숙(同宿)함.

1957년 6월 4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8:7-9장말까지 봉독함. 낮 시간은 박점상 형제 댁에서 예레미야 10-12장까지 봉독. 동행자 이해순 자매였다.

1957년 6월 5일 아침과 낮에 예레미야 13-15장까지 대전 주택에서 봉독함. 김완례씨 집에 오심. 저녁도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16:1-18:17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6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18:18-20장말까지 봉독. 석양에 최춘선, 송안성 두 형제 같이 지냈고, 예레미야 21-22:9까지 봉독.

1957년 6월 7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22:10-23:15까지 봉독함. 최춘선, 송안성 두 분 서울 가심. 밤은 문암 전도사 방와(?) 자도 참(參)중에서 예레미야 23:16-25장 끝 절까지 봉독.

1957년 6월 8일 아침은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교회 전도자 김은영 방에서 예레미야 26:1-27:11까지 봉독함.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교회를 문암교회에서 떠나가는 중 산 고개를 넘다가 예레미야 27:12-29장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9일 주일 아침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교회 전도회 자매 방에서 시편 148편 1절부터 잠언 3장 10절까지 봉독함. 석양에 가좌교회 간 중 초등학교 앞에서 잠언 3:11-5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함. 이날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교회에서 시편 158:1-잠언 5장까지를 봉독함과 말라기 1:1-4장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10일은 가좌교회에서 떠나서 노중에서와 송정교회당에서 예레미야 30:1-32:5까지 봉독함. 석양에 또한 송정리 교회당에서 예레미야 32:6-34:5까지 또 봉독함.

1957년 6월 11일 아침은 예레미야 34:6-35장말까지 송정교회에서 요. 35:1-36장말까지는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저녁에 예레미야 37-38장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1957년 6월 12일 아침은 대전 주택 침소에서 예레미야 39-41장 말 절까지 봉독함. 오후에 또한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42-43장을 봉독함. 밤에 예레미야 44장-45장까지를 부강역실에서 서정리를 향하는 중이었다. 차비는 890환이다.

1957년 6월 13일 아침은 서정리 동생 집에서 예레미야 46:1-48:25까지 봉독함. 나는 장위가 좀 불편함. 대전시는 나는 서정교회 홍사윤 형제 약혼사로 인한 여행 중 천안 문화식당에서 예레미야 48:26-49:13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14일 아침은 송정교회에서 예레미야 49:14-50:13까지 봉독함. 홍사윤, 석상영 두 분 약혼기념 사진을 백이고 떠나서 가시는 홍사윤, 김금인 두 분 전송하려 증평에 가서 예레미야 50:14-말 46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15일 아침은 또한 송정서 한 자매 방에서 예레미야 51:1-40절까지 봉독함.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교회에서부터 봉독을 예레미야 51:41-52: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여 남일면 황청리 교회에 도착하여 석양에 마지막 봉독함.

1957년 6월 16일 아침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교회당에서 잠언 6-9장까지 봉독. 낮 시간은 잠언 10장을 봉독함. 황청리에서 떠나서 중로(中路)에 잠언 11-12장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17일 아침은 방서리 한 교인 댁에서 에스겔 2-4장까지 봉독함. 낮시간에 인천을 향하는 중에 에스겔 5-6장을 봉독함.

1957년 6월 18일은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에스겔 7-8장 마지막까지 봉독. 낮과 석양에 에스겔 9장으로 12장까지를 인천 교회당과 서울 왕래하는 버스에서 봉독함.

1957년 6월 19일 아침은 인천교회당에서 에스겔 12장을 봉독함. 아침부터 석양까지 에스겔 13장부터 16장 46절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20일은 아침부터 봉독함은 에스겔 16:47-21:17절까지였음. 인천서.

1957년 6월 21일 아침은 김재순 형제와 같이 담화하게 되었으므로 오후에 에스겔 21:18-23:35까지 봉독. 석양에 에스겔 23:36-24장까지 인천교회에서 봉독함.

1957년 6월 22일은 아침부터 석양까지 에스겔 25-29장까지 봉독함. 인천교회당에서.

1957년 6월 23일 주일 아침에는 인천시 학익동 430번지 이종만 목사 방에서 잠언 13-16장까지 봉독함. 오후는 인천시 떠나서 서울특별

시 마포구 아현5동 이학재 집사 방에서 잠언 17:1-18장까지 봉독함.

1957년 6월 24일은 아침은 성경을 못 보다가 석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월동 32의 6인 하(학)교 아모(아무)실에서 에스겔 30-33장까지라 함.

1957년 6월 25일 아침부터 석양까지 에스겔 34-37장을 서울 신학교에서 봉독함.

1957년 6월 26일 아침은 서울 신학교 식당에서 식사 후에 에스겔 38:1-39:11까지 봉독함. 아침부터 석양까지 에스겔 38:1-41장까지 봉독하는바 이태원 교회에서.

1957년 6월 27일 아침부터 에스겔 42:1-46:12까지를 이태원교회당에서 봉독함.

1957년 6월 28일 아침은 이태원 하나님의 성회예배당 간단 뒤에서 에스겔 46:13-48장 말절까지 봉독. 석양에는 다니엘 1:1-2:10까지를 하나님(의 성회)회당 최요열 형제 방에서 봉독.

1957년 6월 29일 아침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북부 하나님의 성회당 최요열 형제 방에서 에스겔 2:21-3:7까지 봉독함. 석양까지에 또한 다니엘 3:8-5:11까지 봉독함. 서울 이태원 교회에서.

1957년 6월 30일 주일은 서울 이태원 교회 강단 뒤에서 잠언 19:1-21장까지 봉독.

1957년 7월

1957년 7월 1일 아침은 서울 이태원 교회에서 다니엘 5:12-6:15까지 봉독함. 수원시 고등동 268번지 1통 1반 동생 집에서 다니엘 6:16-9:8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2일 새벽에 수원 동생 방에서 다니엘 9:9-10:21절까지 봉독함. 다니엘 9:9-10?까지는 수원 동생 집에서 봉독하고 11장-12장 끝까지는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금일은 강신규 자매가 오심과 박점삼 형제와 김명숙 자매도 다녀가심.

1957년 7월 3일 아침은 호세아 1-2장까지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아침부터 1:1-8장까지 봉독함. 대전서 시작 저녁에 청주 영운동에서

함.

1957년 7월 4일은 청주 영운동 회당에서 호세아 9-14장까지 봉독하는바 김명석, 강신규, 이원노, 나, 4인이 봉독함.

1957년 7월 5일 아침은 청주 영운동 교회 김명석 형제 방에서 요엘 1:1-암모스 3장 말절까지 봉독. 송안성, 김명석, 나 3인이 같이 봉독함. 아침에는 청주 영운동교회 김명석 형제 방에서 요엘 1:1-아모스 3장 말절까지 봉독.

1957년 7월 6일에 또한 아모스 4-9장까지 봉독함. 대전 자택에서.

1957년 7월 7일 주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잠언 22-26장까지 봉독함. 오후 석양에 잠언 27-28장까지 선화동 교회당에서 봉독함.

1957년 7월 8일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오바다와 요나와 미가서 3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오바다, 요나 1-4장과 미가서 1-3장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9일 아침은 경부선 서정리 역전 침례회당에서 미가 4-7장까지 봉독함. 오정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8번지 침례회당에서 전도부인 박유선씨 방에서 미가 3장을 봉독함. 1-2장을 서정리에서 봉독함. 윤낙역(영) 목사를 방문차로 행함.

1957년 7월 10일 아침은 서울시 서대문구 동 번지 박기서 목사 댁에서 스바냐 1-3장과 학개 1-2장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11일 아침에 영등포구 영등포동 48번지 침례회당에서 스가랴 1-3장까지 봉독. 오후에는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만교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1957년)

최춘선 댁에서 스가랴 4-6장까지 봉독. 저녁에 또한 김포 그리스도인 집회소에서 스가랴 7-8장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12일은 아침부터 석양까지 봉독함에 스가랴 9-14장까지 봉독하는바 김포 최춘선 형제 댁에서부터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정리 최병록 형제 댁에서 이었습니다.

1957년 7월 13일(토)은 석양에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도당에 원경선 형제 댁에서 마태복음 1-5장까지 봉독함. 최춘선 형제도 동행함.

1957년 7월 14일 주일 아침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도당리 원경선 형 댁에서 잠언 29-30장까지 봉독함. 석양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당 골방에서 본 잠언 31장을 봉독함. 이흥식 형제가 봉사하시는 교회라 동행 권영숙, 김확실. 주일 석양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잠언 31장부터 전도서 2장까지 봉독함. 권영숙, 김확실 자매 동행하심.

1957년 7월 15일(월)은 청량리에서 떠나서 돈암동 김태달씨 방에서 마태복음 6장부터 14:15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16일(화)은 서울시 도원동 교회에서 마태복음 10:16-13:35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17일(수) 아침은 서울 도원교회에서 마태복음 13:36-14:36까지 봉독함. 오후에는 15:1-16:20까지는 서울 도원동 박집사 방에서 이었다. 임미라씨와 같이 봉독함. 석양에 또한 도원동 교회당에서 마태복음 16:21-18:8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18일(목) 아침은 또한 도원동 교회당에서 마태복음 18:1-22:14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19일(금)은 마태복음 22:15-25:46까지를 도원동 예배당 안에서 봉독함.

1957년 7월 20일(토)은 또한 도원동 교회당에서 봉독하는바 김정숙, 이정자, 정경화, 이승운, 권영숙, 오순자, 김정애 시모님 같이 봉독함.

1957년 7월 21일 주일에 본 전도서 3-4장을 도원동 교회에서 봉독함.

1957년 7월 22일(월) 아침 도원동 집회를 마친 후 송월동 32의 6 신학교 사무실에서 마가복음 1:1-2:12까지 봉독함. 저년에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산 11의 161호 김태달씨 방에서 마가복음 2:13-4장 말절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23일(화) 아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11의

161호 김태달 방에서 마가복음 5-7장까지 봉독하고 8장말까지도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1957년 7월 24일(수) 목포를 향하는 중 차중에서 마가복음 9:1-13:13까지 봉독하는바 김향자씨께 ?.

1957년 7월 25일(목)은 목포 출발하여 강진을 가는 차중과 강진읍 기룡리 용동교회 임만규 형제 방에서 까지에 마가복음 13:14-16장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26일(금) 아침은 강진 용동교회당에서 이문길, 김재환, 임남규 나 4인이 1:1-2:29까지 봉독.

1957년 7월 27일(토)은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누가복음 2:30-4:44까지 봉독함. 낮에 또한 이상 동 장소에서 5장을 봉독함. 밤에 부강교회당에서 이사야 39-40장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28일 주일은 해남군 ?에서 전도서 5-6장을 봉독함.

1957년 7월 29일(월)은 전남 해남군 마산면 강성리 이공님 자매 댁과 성전에 버스 승강장에서와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지소 김상옥 씨 댁에서 누가복음 6:11-8:39까지 봉독함.

1957년 7월 30일(화)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에서 누가복음 8:40-9:36까지 밖에 못 봉독함.

1957년 7월 31일(수)은 온 종일을 지낸 후 저녁에야 전남 광주시 금동 46번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누가복음 9:37-11:20까지 봉독함.

1957년 8월

1957년 8월 1일(목) 광주서 대전행 차중에서 누가복음 11:21-54까지 봉독함. 우목사라는 분께 복음을 전함. 저녁에는 대전 자택에서 누가복음 12:1-12까지 봉독.

1957년 8월 2일(금)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누가복음 12:21-59까지 봉독함. 오전과 석양에 누가복음 13:1-15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 대전 자택에서.

1957년 8월 3일(토) 대전 자택에서 누가복음 16:1-18:43까지를 봉독

함. 문원섭 형제가 오심. 오전에 대전시 판암동 교회 이 집사 방에서 19장 한 장을 봉독함.

1954년 8월 4일 주일은 대전 자택에서 아침에 전도서 7:1-9장까지 봉독함. 각처에서 수해소식 있음.

1957년 8월 5일(월)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일은 여행 중 누가복음 20장 15장 7절까지 대전서 방서리 또는 충북선 차중에서 봉독함.

1957년 8월 6일(화) 충주시 충인동 김일레씨 댁 떠나서 대전에 도착함. 누가복음 23:8-24장까지 말까지 봉독.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요한복음 1장을 봉독함. 한명희, 이원노, 한미자, 박자매, 박상호 형제 자매가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 가져 오시는 바 닭도 두 마리를 가져 오심.

1957년 8월 7일(수) 아침에 요한복음 24장까지를 대전 자택에서 이원노 형제와 같이 봉독. 5장은 오후에 대전 자택에서 나 혼자 봉독. 완례씨 병을 간호함.

1957년 8월 9일(금) 아침 도대련? 주택에서 요한복음 8:21-9:12까지 봉독함. 또한 대전 자택에서 저녁에 9:13-11:39까지 봉독함.

1957년 8월 10일(토) 아침에 또한 대전 자택에서 요한복음 11:38-13:1까지 봉독함. 김은명, 전도회 다 마침 가심. 금일도 대전 자택에서 저녁에 요한복음 13:2-15:4까지 봉독함. 금일은 나의 손목시계 산 날 만 일 년이 되는 날이다.

1957년 8월 11일 주일은 대전 판암동 뒤 수도산(식장산)에서 디모데전후서를 봉독함. 판암동 교회당에서 디도서 1-3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전도서 10-12장까지 봉독.

1957년 8월 12일(월) 아침도 대전 자택에서 15:5-18:3까지 봉독함. 오후는 충북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1구 고동주씨 댁에서 요한복음 18:4-19:9까지 봉독.

1957년 8월 13일(화) 아침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그리스도인 집회처에서 요한복음 19:10-20:18까지 봉독함.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교회에서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를 가는 중 버스 안에서 요한복음 20:11-21장까지 봉독함.

1957년 8월 14일(수) 금일 9시 인천시 학익동 이종만 목사 모친

박신애씨 별세하심. 오전에 사도행전 1-3장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이신 목사 방에서 봉독. 오후에 또한 4장을 수리 교회당 기와 이 는 것 구경에서 봉독함.

1957년 8월 15일(목) 아침에 수리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사도행전 5:1-7:38까지 봉독함. 오후는 괴산군 불정면 갖돈 부락 이종철씨 댁에서 사도행전 7:39-8:25까지 봉독. 동행 이신 형제.

1957년 8월 16일(금)은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말 교회를 떠나서 충주경유 중 사도행전 8:26-12장까지 봉독. 중원(충주시) 양성면 능골 에 도착함. 안혜옥 대. 김명석 형제 유하심.

1957년 8월 17일(토) 아침은 중원군(충주시) 양성면 능곡(암?)리 김 경수씨 방에서 사도행전 13:1-14장까지 봉독. 이신형제가 동행함. 아 침에 중원군 양성면 능골 대화이발관 석중환씨에게 전도하고 이발을 하여 이신 형제와 같이 함. 사도행전 15장을 봉독함.

1957년 8월 18일 아침은 중원군 양성면 능곡리 안혜옥 방 김명석 댁에서 아가서 1-3장까지 봉독.

1957년 8월 19일(월)은 충북 중원군 동양면 조동교회에서부터 황 청교회도착하여 사도행전 16-19장까지 봉독.

1957년 8월 20일(화)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교회에서 20-25장 까지 봉독함.

1957년 8월 21일(수) 아침은 황청교회당에서 26:4-28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계시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교회 당에서 (로마서 4장을) 봉독함.

1957년 8월 22일(목) 아침은 로마서 1-3장까지를 황청교회에서 봉 독함. 지난 밤 몽사에는 안해(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에 갔다고 하며 가정물건도 가지고 갔다며 성철이 섭섭함을 보다 나도 기분이 상함을 지내었음. 오후에 또한 황청교회당에서 로마서 5-7장까지 봉 독. 주명삼씨라는 용문산 신학생 상봉.

1957년 8월 23일(금) 주명삼 형제와 시계를 황청교회당에서 교환 함. 아침은 또한 로마서 8-9장까지는 황청교회당에서 봉독함. 석양에 는 황청리 한홍석씨 방에서 로마서 10:1-11:12절까지 봉독함. 저녁집 회는 기독교장로회 전도자 지(池)씨가 합석하였는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책잡으려는 주의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각 교회 분위 형편은 대체가 그러하다.

1957년 8월 24일(토) 아침은 로마서 11:13-12장까지를 황청교회에서 봉독. 김은영이는 떠나서갔음. 석양에 황청교회당에서 로마서 14장을 봉독함.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교회 집회 마치는 날인데, 한예눅 장로 저서 영원한 복음 책에서 유전죄론이 분명함과 유아무죄설 다 단 해석 불합니설(불합리설로?) 보았다. 저녁 때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한홍석씨 방에서 로마서 15-16장까지 봉독함. 주안성 전도자가 아주 혈기력(적?)인 인물리라 염녀(려)함을 드렸습니다(들었습니다).

1957년 8월 25일 아침에 주일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교회당에서 아가서 4-6장까지 봉독.

1957년 8월 26일(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1:1-2:9까지 봉독함. 어젯밤 고린도전서 7장 3절대로<참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지내었고, 편지를 받은 최춘선,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태일러, 박은병씨가 온 것이었다. 집이 민망함은 완례씨가 항상 불만생활을 함입니다. 심영(령)병이 있음으로 육신병이 임함. 오전 9시 48분경에 고린도전서 3:9-4장말까지 봉독하는 중 내가 크게 각성을 가지게 된 것은 4:9<참고: “내가 생각전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과 4:11<참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이하 바울이 경천애인 생활한 것을 보고 위안 받음.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5-6장까지 봉독함. 김은영, 최근수, 이신, 김윤구, 김영애, 고광석, 임은년, 7남매가 다녀가심. 최근수, 김은영은 혼인사로, 이신은 목포 강사로.

1957년 8월 27일(화)은 목포 가는 601열차로 이신과 나는 교역자 회 강사로 김은영과 최근수는 혼인사로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까지 가는 동행 중 고린도전서 7-9장까지 봉독은 대전과 이리간 봉독함. 목포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중 고린도전서 10-13장까지

봉독하며, 대전 삼성동 사시는 승무원 진중열씨께 전도함.

1957년 8월 28일(수) 아침은 최근수 혼행을 위하여 김은영과 내가 동행하여야 상월리 교회가는 중 목포 선창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봉독함. 아침은 목포를 떠나서 전남 영암군 학사면 상월리 쌍암에 최재화씨 누나 옥남 자매와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교회 최근수 형제와 약혼식 차로 행보하는 중 선중에서와 도착지에서 본 디도서를 봉독하였고 약혼식도 행하였습니다.

1957년 8월 29일(목)은 본서 고린도전서 15-16장까지 봉독함. 목포 성경연구회에서 봉독함.

1957년 8월 30일(금)은 본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목포 유달교회당에서 봉독함. 이번 집회는 진행해 가기가 극난인 것인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유는 선교사 주최라 함이다. 오후에 목포시 중앙 산상에서 고린도후서 3-7:4까지 봉독함.

1957년 8월 31일(토)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한 것은 선교사들에(의) 행사가 불이(의) 함으로 동참 아니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데 몇 분은 같이 하자하고, 어떤 분은 곧 그만 두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은 복잡함을 금할 수 없으며, 알고 보며(면) 부족함은 누구에도 있습니다. 저녁때에 목포 진 장로님 방에서 고린도후서 9-12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

1957년 9월

1957년 9월 1일 이 주일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예레미야애가 1-2:7까지 봉독함. 금번 목포에 도착하여 있음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남 전도자 수양회 중에 강사로 옴이다. 저녁때에 목포전녀 고하도예를 내슈 선교사와 동행 12인이 이순신 비석지를 보고난 후 본서 시편 21-22:10절까지 봉독함. 이신 형제, 도주일 자매는 상월리 교회에 다녀오심. 주일 아침 목포교회당에서 아가서 7-8장을 봉독함. 금번 목포교회에 온 이유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남 전도자

수양회가 있어서이다.

1957년 9월 2일(월) 아침에 목(포) 교회당에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봉독함. 금번 목포 모임은 태일라 선교(사)가 주최로 전남 교역자수양회. 목포 어떤 냉면집에 가서 선교자(사) 내슈와 문대연 통역 형 같이 함. 냉면은 일기(一器) 2백환이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을 봉독함. 오후에 목포교회당에서 1:20-2장말까지 봉독함. 오후에 목포교회당에서 1:20-2장말까지 봉독함.

1957년 9월 3일(화) 아침은 갈라디아서 3:1-4:11까지를 목포교회당에서 봉독함. 오후에 4:12-6장까지를 목포교회 진 장로 방에서 봉독함. 선교자 태일러씨 에게서 돈 6천환을 여비로 받았다. 태일러씨는 000와 같이 제주도 에 가십과 금번 교역자집회는 금일로 마쳤다.

1957년 9월 4일(수)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에베소서 1:1-2:12까지 봉독함. 선교사 내슈, 문대연씨도 서울에 가시고, 이안식, 도주일, 김규상, 박병우, 안영숙, 임혜숙, 다 작별하고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로 가는 중 광영호라는 배표 300환 주고 산 후 광영호 배 안에서 에베소서 2:13부터 봉독.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 장우(문?)원, 김은순은 처질부여인데 방문을 가서 에베소 3-6장까지 봉독함. 김은영도 같이. 성결교회에서 봉사하는 처(妻)질서(姪孥) 장문(우?)원과 김은순 질녀를 방문하고 오는 중 광영호라는 선상에서 본서 골로새서 1-2장을 봉독함. 동행은 김은영이었습니다.³⁸⁾

1957년 9월 5일(목) 아침은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당 안에서 빌립보서 1-4장까지 봉독함. 새벽예배는 베드로전서 1:17-2:11를 인도함. 김은영도 같이었음. 이 대조리 교회는 처질내외가 전도자로 있을 때이다.

1957년 9월 6일(금) 새벽에 목포 교회당에서 골로새서 3-4장을 봉독함. 지난밤 신상식, 김은영 같이 유숙. 박치환 형성교회 집회 가십. 김은영 상곡리 행. 안영호로 해남군 마산면 장성리로, 김은석 나는 하이도행 외령호로 무안군 하의면 하태로 각기 행선함. 풍세가 심하여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하나만 봉독하였습니다. 석양에 하의

38) 김은영과 김은순은 김완례 사모의 조카.

도 하태 전도하시는 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3장까지 봉독.



하이드 교회(1958년)
임혜숙 전도사, 전남 무안군 하의면 하태

1957년 9월 7일(토, 추석명절) 아침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에서 전도하시는 윤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5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 윤양춘씨 방에 계시면서 전도하시는 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

니가후서 3장까지 봉독함. 본 빌레몬서, 히브리서 4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하태뒷산에를 나가서 수 시간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만해천산을 바라보는바 하나님에 능력을 자랑하는 듯함을 보는 중 한배위가 이상하게 솟아남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 이름은 지실이라고 한답니다. 산에서 내려와 히브리서 5:7-7까지 봉독함. 산에서 본 옥명한 지실이란 바위를 보았다. 저녁에 노루먹이 심방하고 전도한 후 히브리서 7:8-10:23까지 봉독함.

1957년 9월 8일(일, 추석당일, 이해 윤달 추석은 10월 7-9일이었음). 금일은 음력 8월 15일이며 주일인제,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기동 윤양춘씨 댁 임혜숙 자매 방에서 예레미야애가 2:8-5장말까지 봉독함. 금년 매주일 봉독하는 시가서를 마지막으로 봉독하였습니다.

1957년 9월 9일(월, 추석명절) 미명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기동 윤양춘 씨 방에 임혜숙 자매 거주소에서 히브리서 10:28-13장 마지막까지 봉독함.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기동부락을 떠나서 임혜숙 자(子)와 동행하여 하의 본도에도착하여 보령호를 타고 배위에서 야고보서 1-2장까지 봉독함. 목포에 도착. 오늘 하의에서 떠날 때 임혜숙 자매에 외로와함 보면서 동정심이 심하였다.

1957년 9월 10일(화)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계속하여 야고보서 3-5장까지 봉독함. 목포서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 행중 배간과 버스 안에서 베드로전서 1-3장까지 봉독함. 연화동 교회 도착하여 작천교회와 화동교회에서 몇 분 오심을 상봉함.

1957년 9월 11일(수) 아침은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 김규상 형제의 방에서 베드로전서 4-5장까지와 베드로후서 1-2장까지 봉독함. 새벽예배에는 마태복음 5:17-20과 요한복음 8장에서 몇 절. 저녁에 베드로후서 3장부터 요한일서 1장을 강진 연화동교회에서 봉독함.

1957년 9월 12일(목) 새벽예배 후에 강진 연화동 교회당 강단 뒤에서 본 요한일서 1-5장과 요한2서까지 봉독함.

1957년 9월 13일(금) 아침에 강진 연화동 교회당에서 요한3서와 유다서를 봉독함. 묵시록 1-3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당에서 요한3서 유다서 묵시록 1-3장까지 봉독함. 저녁때에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당 뒤 산골에서 양말과 손수건 세탁을 하고 또한 본서 묵시록 4-9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1957년 9월 14일(토) 아침은 또한 연화동 교회당에서 10-13장까지 봉독함.

1957년 9월 15일 주일은 강진군 연화동 교회당에서 욥기 1장과 계시록 17:1-3장까지 봉독함.

1957년 9월 16일(월) 아침은 또한 강진 연화동 교회당에서 묵시록 17:4-19:21까지 봉독함. 박용기, 문광예 두 분이 결혼식을 함.

1957년 9월 16일(월) 아침은 또한 묵시록 20-21장까지 봉독하는 바 이요 금일은 22장까지 봉독할 것인데 박용기 형제와 문광예 자매 결혼식이 있었다. 금일은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봉독하기 시작한 성경전서를 마지막 묵시록 22장까지 봉독한 날이며 연화동 교회 박용기군 문광예 양이 결혼식한 날이며 전남 강진군 작천면 화당 교회 도착함이며, 묵시록 22장을 작천교회당에서 봉독.

1957년 9월 18일은 전남 강진서 역대기상 1장을 봉독함.

1957년 9월 18일은 대전서 부강왕복 중 차 안에서 역대기상 2장을

봉독함.

1957년 9월 19일은 대전서 충주 가는 버스 중에서 나는 수리교회에 가는 중 이 역대기상 3장을 봉독함.

1957년 9월 22일 주일 부강교회당에서 욥기 2-3장까지 봉독함. 부강서 대전행 차중에서 욥기 4장 봉독.

1957년 9월 23일 월요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출애굽기 2-3장을 봉독함.

1957년 9월 24일(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출애굽기 4장을 봉독함.

1957년 9월 25일(수)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출애굽기 5장을 봉독함.

1957년 9월 26일(목)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출애굽기 6장을 봉독함.

1957년 9월 27일(금) 아침은 또한 부강교회당에서 출애굽기 7-8장까지를 봉독함. 새벽예배도 송안성 형제가 증거 함.

1957년 9월 28일(토)은 이재천, 이신, 주명삼, 나 사인이 각각 노나진(?헤어진) 후에 나는 송령교회를 가는 중 송령산상에서 출애굽기 9-11장까지 봉독함.

1957년 9월 29일(일) 송령 교회당에서 욥기 5-6장 봉독함.

1957년 9월 30일(월) 아침은 청주 영운동 교회당에서 새벽 예배드리는바 전도회 이복동 자매와 같이 (열왕기상과 베드로후서 등을) 봉독 후 출애굽기 10:12-12:20까지 봉독함.

1957년 10월

1957년 10월 1일(화)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출애굽기 12-13장까지 봉독함.

1957년 10월 2일(수)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출애굽기 14-15장까지 봉독함. “오늘 아침(은 ?하) 여러분이 도라 가심. 왔단 갖타 하는 분들 위함. 불안이 잇습.”

1957년 10월 3일(목) 아침은 부강교회당 강단 뒤에서 출애굽기

15:11-16:20까지 봉독.

1957년 10월 4일(금)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출애굽기 16:21-18:16까지 봉독함.

1957년 10월 5일(토) 아침 부강교회당에서 출애굽기 18:17-20:26까지 봉독함.

1957년 10월 6일 주일 아침은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욕기 7-8장까지 봉독함.

1957년 10월 7일(월) 아침 부강 서대전가는 차중에서 출애굽기 20-21장까지 봉독함.

1957년 10월 8일(화) 서대전에서 부강 가는 차중에서 출애굽기 22-24:8까지 봉독함.

1957년 10월 9일(수)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출애굽기 24:9-26:25까지 봉독함. 대전 여(女) 강집사와 청주 안집사와 이신 목사는 각기 본택(宅)에 가심.

1957년 10월 13일(일)은 오전 경에 부강교회 골방에서 출애굽기 29장을 봉독함. 아침에 부강교회당에서 잠언 13장 봉독함.

1957년 10월 20일 주일은 대전 자택에서 욕기 9장을 봉독함.

1957년 11월

1957년 11월 7일에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잠언 21장을 봉독.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경북 대구, 1956년경)

1957년 11월 14일(목) 아침에 황청교회당에서 사무엘하 22장을 봉독.

1957년 11월 10일 주일은 대전시 은행동 1번지 11통 47반 자택에서 잠언 1-2장까지 봉독함.

1957년 11월 11일 아

침에 대전 자택에서 예레미야 1:1-2:19까지 봉독함.

1957년 11월 12일 아침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장로교회당에서 이사야 30-31장을 봉독.

1957년 11월 17일 주일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시편 89편 봉독함.

1957년 11월 19일은 지철의 형제 결혼식을 위하여 지철의, 김정만 나 3인이 601열차로 학교역까지 동행 차중에서 아모스 1장으로 5장 13절까지 봉독하며 도착하는바 영산포역에 1여인이 차에서 사망함.

1957년 11월 21일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전도서 3:1-15까지 봉독. 전남 영광읍에 도착함. 저녁식사 강월선 자매 댁에서 하며 예레미야 52장 15-32절까지 봉독.

1957년 11월 23일 토요일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노광수씨 댁에서 베드로전서 1:17-25까지 봉독. 장운(순?)임, 임의령 동행. 아침 최성윤씨 댁 영광 강월선 댁에서 아침 식사 하며 시편 41편 봉독.

1957년 11월 25일(월)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공산리 신흥부락 윤일상 형제 댁에서 민수기 11:1-18:7까지 봉독.

1957년 12월

1957년 12월 21일(토) 아침에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교회 집회 중 열왕기상 3:8까지 봉독.

1957년 12월 26일(목) 아침 영광읍 교회당에서 열왕기상 4장을 봉독.

1957년 12월 27일(금) 아침 영광 교회당에서 열왕기상 5장을 봉독함.

1957년 12월 30일(월) 아침은 전남 장성읍 장재리, 귀제원, 윤근오 씨 방에서 열왕기상 7장을 봉독.



EVANGELIST KIM EUN SUK
<For christ in korea> 1957년 9월호

제14장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연도별 일지: 1958년

1958년 1월

1958년 1월 1일(수)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상 8장을 봉독함.

1958년 1월 2일(목) 아침은 경부선 부강역전 초등학교 선생 윤묘 중씨 댁에서 아침식사.

1958년 1월 12일 주일은 신탄진 교회를 가는 중 차내에서 시편 107:1-108:13까지 봉독함.

1958년 1월 14일(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상 18장을 봉독함.

1958년 1월 15일(수)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상 19장 봉독함.

1958년 1월 20일(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1-2장까지 봉독함.

1958년 1월 21일(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2-3장을 봉독함.

1958년 1월 22일(수)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4장을 봉독함. 나와 성철이가 봉독. 김명석과 김은영이가 같이 함.

1958년 1월 25일(토) 금일은 두통 복통으로 종일 누웠었으며 선화동교회 못 갔으며 고광석 전도사 대전에 돌아오심.

1958년 1월 26일 주일 아침은 대전시 은행동 1번지 자택에서 시편 11-13장까지 봉독함.

1958년 1월 27일(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8장을 봉독함. 고광석, 도주일 자매가 왔었습니다.

1958년 1월 28일(화) 금일 병중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9장 봉독.

1958년 1월 29일(수) 아침은 또한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10장을 봉독함.

1958년 1월 30일(목)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11장을 봉독함. 김완례씨 수원에 어머니 생신에 갔습니다.

1958년 2월

1958년 2월 1일(토)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열왕기하 12장을 봉독함.

1958년 2월 2일 주일 아침에 대전 자택에서 시편 74장을 봉독함.

1958년 2월 3일(월) 아침에 또한 열왕기하 13장을 대전 자택에서 봉독함.

1958년 2월 6일은 이문구 형제 혼사로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에서 열왕기하 15장 봉독.

1958년 2월 8일(토) 아침은 청주 영운동 교회에서 열왕기하 16장 봉독.

1958년 2월 9일 주일은 충북 중원군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에서 시편 65장 봉독 67장까지 봉독. 오후 신이면 교회당에서 시편 102장 봉독함.

1958년 2월 10일(월)은 오정이 된 때에 중원군 이유면 쇠실 지철리? 댁에서 열왕기하 17장을 봉독.

1958년 2월 11일(화) 아침은 조동교회 전도사 방에서 열왕기하 18장을 봉독함.

1958년 2월 17일(월) 아침은 충주경찰서 병사주임 조대식 댁에서 지난밤 유숙하고 열왕기하 19장 봉독.

1958년 2월 20일(목) 아침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당에서 열왕기하 22:1-23:3까지 봉독.

1958년 2월 24일(월)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당에서 열왕기하 23:19-25장말까지 봉독.

1958년 3월

1958년 3월 7일(금)은 오후에 대전 자택에서 본 역대기상 9장을 봉독함.

1958년 3월 11일(화) 아침은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교회당 안에서 역대기상 11장 봉독함. 박병우 형제, 최영임 자매 결혼식 함.

1958년 3월 13일(목)은 전남 광주를 떠나며 차중에서 본 역대기상 12장을 봉독함. 오후 2시경에 대전에 도착함.

1958년 3월 14일(금)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역대기상 13장을 봉독.

1958년 3월 15일(토) 아침은 또한 대전 자택에서 역대기상 14장을 봉독.

1958년 3월 17일(월) 아침은 부강교회당에서 역대기상 15장을 봉독.

1958년 3월 18일(화)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한망남 방에서 역대기상 16장 봉독.

1958년 3월 19일(수) 아침은 충북 청원군 가덕면 금암 송석회 자매 덕과 남일면 문주리 1구 3반 고동주, 우정예에서 역대기상 17장을 봉독함.

1958년 3월 21일(금)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역대기상 19장을 봉독함. 이 19장에서 조상(弔喪)을 하던 일에 불행이 생긴 일.

1958년 3월 22일(토) 오후에 대전 자택에서 역대기상 20장을 봉독함.

1958년 3월 24일(월) 부강교회 교실 주택에서 역대기상 21장을 봉독함.

1958년 3월 26일(수) 아침에 부강교회당에서 역대기상 23장을 봉독.

1958년 3월 30일 주일은 부강교회에서 지내며 덕 래쉬, 최순국 두 형제도 같이 지내며 안영천 형제도 같이 있었다. 오후는 대전 판암동 교회에 감. 시편 1-2편을 봉독.

1958년 4월

1958년 4월 26일 오후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고동주씨, 우정예 자매 덕에서 (역대기하 ?-21장) 봉독.

1958년 10월

1958년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 침례회 병원에 입원 후
16일에 분서 호세아를 다 봉독.

제15장 김은석 목사의 반천련(伴天連)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49년 8월 15일 일본에 입국한 지 반세기쯤 지났을 때 일본에 기독교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기독교인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부들을 반천련(伴天連)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란 뜻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7월에 반천련들은 2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라는 반천련 추방령을 내렸다. 또 조서를 내려 기독교인들을 엄히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가운데 '다카야마 우콘'이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배교하라는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각하께 목숨은 드릴 수 있지만, 저의 신앙은 버릴 수 없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이 끝나기 1년 반 전인 1597년 2월 5일 6명의 예수회 신부들과 일본인 기독교인 20명을 나가사키(長崎)시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었다.

김은석 목사에게도 반천련 곧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수가 많아서 여기에 다 일일이 거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료가 가능한 인물들만 선별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김명석(김성철 목사의 친부), 박점상, 김교인,³⁹⁾ 신현창, 김재순, 최춘선,⁴⁰⁾ 정찬성,⁴¹⁾ 김상호,⁴²⁾ 김태수,⁴³⁾ 김재순,⁴⁴⁾ 함태영, 이신, 강

39)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함.

40) 김포교회 설립, 사회사업가. 소천 전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 1951년 6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주시 동양면 조동(동량)교회 설립.

41) 순복음으로 이적함.

42) 순복음으로 이적함.

43) 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

44) 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

순명,⁴⁵⁾ 이원노, 김정만, 심영진, 장주열,⁴⁶⁾ 최요한, 김동열,⁴⁷⁾ 장성만, 김은영, 고광석, 임남규, 전도희, 등이 있다.

1. 김명석(주일) 목사(1906-?)

김명석 목사의 본명은 김주일이다. 그는 1931년 25살 때 일본에 건너가 부인 구봉림과 함께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가까운 바닷가 ‘야마구찌계(山口峴) 아사’라는 동리에서 살았다. 그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26회 언급되었다. 그가 김은석을 처음 만난 것은 1936년 30살 때인 어느 주일날 아침 일본 산구현(山口峴)교회에서였다. 그날 김은석은 초청강사였다. 이후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고 늘 붙어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였다. 해방 후 경남 밀양에 가까운 예림이란 곳에 자리를 잡았으나 김은석을 추종하였으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이 무렵 자녀를 갖지 못한 김은석에게 둘째 아들 김성철(1938.5.17-)을 1948년경에 양자로 넘겼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1955년 후반기에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를, 1957년에는 충북 청주 영운동 교회를 섬겼다.

2. 박점삼 목사/장로(1928.03.23. 음력-)

박점삼 목사는 1928년 3월 23일(음력) 경남 함천에서 태어났으며, 1933년 4월 여섯 살 때에 묘산면 관기리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를 따라 간 것이 믿음생활의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병에 들었으나 약도 없고 나올 길이 없어 점쟁이를 찾았는데, “당신은 큰 신(神)을 믿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하루는 꿈에 외국인이 나타났는데, 윗마

45) 광주 천혜 경로원 설립.

46) 최요한 목사의 큰 동서.

47)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 설립.



박점상 목사

을 교회에 찾아가서 보니, 강단 옆 벽에 걸린 예수님이 바로 꿈에 본 그분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서 8킬로미터나 떨어진 교회를 일 년을 열심히 다녔더니, 일 년 후 알게 모르게 병이 다 나아 버렸다. 한편 아버지가 큰 외삼촌의 보증을 섰다가 집안형편이 심히 어렵게 되었으나 어머니는 맥추헌금을 넉넉히 걱정하였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겁도 없이 헌금을 많이 걱정하였다고 비방하였다. 하루는 박점상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지개를 지고 어머니를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짜리버섯을 발견하였는데, 두 번에 나눠서 가져와야할 만큼 양이 많았다. 장날에 내다 팔았더니 걱정한 헌금을 내고도 돈이 남았다.

1937년 2월 열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도(東京都) 아다지(足立區)에 위치한 큰 강 건너 꽤 먼 거리의 일본인 교회를 출석하였는데, 그 교회는 매주일 성만찬을 거행하는 교회였다. 일본에서는 교파이름을 쓰지 않고 '기리스도노 코오카이'(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통칭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례와 매주 성찬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 누님 댁으로 이사를 들어갔다. 그런데 주변에 교회도 없고 큰 누님은 믿지 않는 분이라 핼박이 있어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루는 김은석 조사(전도사)가 우연히 찾아와 도쿄에서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야마구찌곶(山口岬) 도구야마시(徳山) 가스가조(春一町)

8032번지를 소개해 주었다. 그곳으로 이사하여 갔더니, 몇 가구가 함께 사는 교회당이었는데, 마침 두 개의 빈 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그곳 교인들이 예배당을 따로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박점상의 모친은 소다제조회사에 다니며 모운 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벽돌을 헌납하였다.

이때부터 김은석 목사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이때의 김은석의 이름은 일본말로 간다긴세기 신전 은석이었다. 별명은 합바지(무명 바지) 조사(전도사)였고, 시모노세키(하관), 아사(김주일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지방 등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유명해지는 한편, 일본은 대동아전쟁 때부터 교회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였고, 목사들을 미국의 스파이로 의심했던 일본당국은 요주의 인물로 김은석을 꼽았다. 김은석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예배 시작 전에 현인신現人神으로 믿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를 거부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었다. 한번은 교회입구 통로에서 잡으러 온 왜경과 김은석이 어깨를 서로 마주치고 지나친 적도 있었다. 이후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김은석은 박점상 가족과 함께 도쿄에 집을 얻어 이사하였다. 농동을 하면서 한 집에서 방 하나씩 차지하고서 김은석, 박점상 가족, 최창신 전도사와 그녀의 외손녀 히로코(홍자)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박점상은 김은석이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동경교회를 다니다가 18살에 해방이 되어 김은석의 주소를 들고 서울로 나왔으나 혼잡한 기차에 오르면서 지갑(수첩)을 도난당하여 찾지 못하고 고향 합천으로 갔다가 다시 김은석을 찾아 김제군 망경읍으로 갔다.

박점상은 한국에 나오면서 김은석이 맡겨둔 짐 가운데 무거운 것은 가져오지 못하고 코트와 의류만 챙겨왔다. 책은 왜경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남지 않았다. 1946년 박점상은 망경읍에서 담임목사의 도움으로 주소는 모르지만 김은석이 서울에서 300만 부흥운동의 부흥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 편지를 쓰고 받는 이의 주소를 무작정 “서울 김은석 목사님 귀하”라고만 써서 부쳤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이 못 되어 김은석으로부터 망경읍

에서 40여리 떨어진 마채본 집사의 딸집에서 동짓날 만나자는 답신이 왔다. 그러나 김은석은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김은석 목사의 소식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 가족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을 때 박점상은 이웃에 방을 얻어 살았다. 김은석이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기 이전인 지라 재건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을 탐색하였는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1946년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김은석은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운동에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지만, 침례와 성만찬 등의 교리가 성서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박점상은 1947년 부강으로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며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 그는 1949년 4월 금강에서 침례를 받자마자, 정찬성 목사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세운 외령교회를⁴⁸⁾ 개척하여 섬기다가 신탄진 교회로 옮겨가자, 박점상이 외령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후에 수릉교회를 개척하였다. 1950년 6.25 동란 때 고향 합천으로 피난하였다가 9.28 수복 후 외령교회로 돌아갔으며, 1951년 1.4 후퇴 때 다시 합천으로 피난하였으나 살길이 막막하여 합천 세무서에서 8월까지 일하다가 김은석 목사가 이동 중에 징집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선교사를 통해서 미8군 종교담당자의 이름으로 통행증을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주었으므로 광주로 김은석을 찾아가 그곳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⁴⁹⁾ 공부하던 자매 정규남과 김은석 목사의 중매로 1951년 8월 13일(음력) 결혼하여 전남 평산리 처가에 신접살림을 꾸렸다.

한편 처가 근방에 있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던 10여명의 성도들이 평산리에 있었는데, 교회가 30여리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박점상이 목회하다 온 줄로 알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여 필요한 선교사에게 개척자금을 요청하였다

48) 지철희 목사의 누님 집. 당시 지철희는 12세 정도의 소년이었음. 후에 박점상이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처가 마을의 정귀남 집사의 딸을 지철희에게 소개함.

49)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창현 함태영 목사 등이 운영.

니,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었다. 이에 박점상은 신흥교회를 오가면서 눈여겨 보아둔 주포의 빈 집을 사서 그 재목을 배로 운반하여 처가가 내준 땅에 평산리교회를 건축하여 개척하였다. 그 후 얼마 못되어 충북 청원군 강서면 송절리라는 곳에 이성화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문암교회의 전신)로 환원하자 부임하여 섬기다가 다시 이성화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침례교회로 넘어감으로써 사임하였다. 얼마 있다가 1953년에 필요한 선교사의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 마중 나온 힐 선교사의 차를 타고 도강증 없이 한강을 건너 장충동신학교에 입학하여 1년 반을 공부하였다. 1956년에 대전침례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식구가 일곱 명이나 되었으므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소개한 평택 서정리에 김은석의 큰 동생 집에서 서정리침례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온양 온천침례교회를, 후에 장항교회를 1960년 졸업 때까지 섬겼다.

침례신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이 많아 받아 주는 교회가 없고, 가족부양도 문제인데다가 목회하면서 생활에 얼마이면 샅꾼 목회자가 될 것이라 믿어 목회를 그만 두었다. 그러고 나서 대전에서 기술자를 두고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하였고, 서울 남대문에서 노점상과 업자를 상대로 시계수리를 하던 중에 노동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시계수리1급자격증을 받았다. 1967년 성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신인 남산동 교회에서 장로안수를⁵⁰⁾ 받고 재무로 시무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회를 조직하여 총무를 맡아 보았다. 1982년에는 생활의 기반을 잡은 후여서 지온어린이집의 부속 교회에서 장로로서 무보수로 목회를 하다가 1983년 1월 남부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남부중앙교회는 홍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교인이 구입했던 것을 최윤권 목사가 재구입하여 교회가 지속되게 하였고, 후에 교회가 자금을 마련하여 최윤권 목사로부터 실비로 매입한 교회였다. 1983년 3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고 1950년대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이원노(로) 목사와 함께 협동목사로 부임하여 은퇴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이때 명목

50) 이때 김규상 목사 안수 받음.

상의 담임목사는 최윤권이였다.

박점상 목사는 서울기독교대학교 법인이사로 36년간 섬겼고, 동 대학교에서 2009년 8월 24일 선교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현재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사모 정규님과 더불어 혜숙 목사(전대웅 목사 사모, 방글라데시 선교사) 성희, 성숙, 혜자, 정숙, 정희, 남숙, 남희를 두었다.

3. 김교인 장로(1890-1970)

김교인(金敎人)은 김은석 목사를 모셨던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의 장로였다. 민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한문성경을 읽고 깨우친 후에 전도인 활동을 하고 선교사로부터 생활비보조금을 받다가 1936년에 부강으로 이사하여 양약방을 열었다. 오데골에는 김교인 장로가 죽과 김규상의 모친 구봉례 집사와 작은 어머니 정도가 모이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를 끌고 나갔다.

1944년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 부인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노회가 열려 참석하였다가 김은석 목사를 소개받아 1945년 가을에 담임목사로 모시게 되었다. 김은석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선언하고 시행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노회로부터 자제하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이에 굴복하지 않자, 노회는 김은석을 제명하였다. 이 일로 김교인은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고, 1946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대전 성화교회 오재건 장로의 <신앙체험기>에 의하면, 김교인은 대지 500평을 하나님께 바쳐 부강교회를 짓게 하였으나 후대의 목회자들이 교회대지를 여러 명목으로 조금씩 매도하여 1976년경에는 147평만이 남았다고 한다. 이 대지를 김태수 목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오재건 장로에게 관리를 위임하였고, 오재건은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크리스천 미션 재단에 넘겨 관리하게 하였다.

김교인은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에 김교인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

교인은 최요한이 1946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에 개척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47년에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으로 옮겨 김교인 앞으로 등기된 땅 위에 세운 석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이적 시켰고, 추후 이 교회에 700평 땅을 바쳐 50평 예배당을 짓게 하였다. 이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1956년 12월 13일 이후에 김교인과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와 신생동 교회, 그리고 이들 교회들을 인도했던 노의수 집사(전도사)에 대한 언급이 모두 끊겼다.

순복음교회로 이적할 당시 김교인은 이미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였다. 김은석 목사의 1956년 7월 16일(월)자 메모에 의하면, 김교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18번지에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섬겼으며, 1970년에 숙한으로 신촌교회에서 소천 하였다. 사모 김정렬로부터 김재순 목사, 김태수 목사, 김철수 목사, 김복수 집사, 외손자 엄규석 목사 등을 두었다.

큰 아들 김재순(1922-1958) 목사는 해남, 영광, 함평, 금동(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김은석 목사의 기록에 의하면, 1958년 2월 26일 광주에서 소천 하였다. 김태수 목사는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55년 3월 3일 헬요한이 교장으로 있던 서울성서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였으며, 50년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통역)를 역임 하였다. 70년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하여 LA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다. 김철수 목사, 엄규석 목사도 LA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다.

4. 신현창 장르

신현창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의사였다. 그가 김은석 목사를 만난 때는 부장으로 이사하여 병원을 개업하면서였다. 김은석과 함께 신화신학성경연구회를 조직하여 강사로 섬겼다. 1964년에 논산 증곡리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여 계시다가

소천 하였다.

5. 정찬성 목사(1913.05.06~1957.04.25)



정찬성 목사

정찬성 목사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반릉(半陵)이 고향이다. 친구인 이학재(감리교 장로)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인이었다. 낮에는 편지를 배달하고 저녁에 교회를 다녔다. 일제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하자, 정찬성은 신앙에 어긋난다며 가미사마에게 절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다리가 얼음 속에 박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치료를 받기위해 청주 모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병원에서 성경책을 주며 읽도록 권하였다. 마침 교회를 다니고 있던 터라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서 병을 낫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고 했는데, 기도한 후에 정말 다리가 낫게 되어 김용선 자매와 결혼까지 하였다. 결혼하고 나서야 김용선은 정찬성이 다리를 조금 전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정찬성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노방전도를 다녔는데, 왜경들이 늘 추적하였고, 김상호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 어른들의 핍박도 상당히 심했다고 한다. 그는 믿는 사람들(목사들)의 고발로 체포되어 청주 남조동, 대전 신탄진, 충주로 이송되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처형이 사는 만주

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만주에서는 산에 올라 초근목피 하였고, 구두땀이 통을 만들어 왜경의 눈을 피해가며, “일본의 가미사마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 무렵에 만주 길림성에서 김은석 조사(전도사)를 만났다.

해방 후 고향인 충북 괴산군 불정면으로 돌아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연못골 자택에서 반농교회를 하다가 적산건물인 사립학교를 구입해서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만주에서 만났던 김은석 목사와 연락이 닿아 부강에서 해후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고려통신신학을 수료하였고, 1946년에 시작된 초창기부터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1948년에 신탄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25전쟁을 만났다. 전쟁 중에 김정만 목사(정찬성을 스승으로 생각함)가 살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1950년 겨울에 북한군에 잡혀 밤새 고문을 당하였다. 북한군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자 밤새도록 총대로 구타하였다. 아침에 북한군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총으로 난사하였는데, 당시 정찬성은 기도를 하느라 머리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살짝 빗나가면서 구사일생하였다. 총알 세례를 받고 난 후, 눈을 뜨고 자기 몸을 꼬집어보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정찬성 목사는 충청지방에 7-8군데 교회를 세웠다. 해방 후 고향인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돌아와 외령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1948년에 예배인도 차 심방하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동막교회(현 시골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소속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켜 1949년 4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시무하였으며, 1951년에는 김은석, 최춘선과 함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의 조선기독교회를 조동(현 동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켜 건지부락 산 밑으로 예배당을 이전하여 건립하였다.

그밖에도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 삼방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정찬성은 1951년 5월 15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구 마을에 이흥식 전도자가 조남철의 가정에서 1950년 3월 19일에 시작한 그리

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0월까지 1대 목회자로 섬기다가 이신에게 넘겼다. 이신은 그곳에서 김은석, 함태영과 함께 광주에서 하던 신학교를 이어갔고, 정찬성도 참석하여 공부하였다. 정찬성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약 400여리 떨어진 곳에서 오촌 조카와 가족들을 데리고 간단한 짐만 손수레에 싣고 14일 걸려 이사하였다. 그곳으로 가게 된 동기는 한 독지가로부터 수천 평의 땅을 헌납 받아 5촌 조카(정석기 장로)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자신은 교회를 시무하기 위함이었다.

정찬성 목사는 부여 합송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성령론 논쟁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탈퇴하여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김상호와 함께 (추측컨대 최요한도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5년 4월 27일에 목사안수를 받고 기하성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여 합송리를 떠났고,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이적한 정찬성은 충주순복음교회의 전신인 오순절 충주교회를 개척하였고, 1957년 2월 15일에는 기하성 본부의 후원으로 신탄진 강희천의 집을 매입하여 삼정순복음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삼남 정형기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왜정 때 신사참배 거부로 매를 맞았던 것이 병이되어 복막염으로 4월 25일에 소천 하였다. 소천일자 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 의존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김상호 목사와 함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회년 50인 인물'에도 올랐다.

슬하에 인자(목사 사모), 용기(공주 탄천순복음교회 목사), 형기(순복음예광교회 목사), 인순(집사)과 동순(일본 고베순복음교회 사모)을 두었다.

6. 김상호 목사(1922-2007.11.24)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김은석 목사를 만나 그리스도의 교



김상호 목사(2007년 11월 6일 오산리침식기도원)

회로 환원하였다. 신화 신학성경연구회에서 말씀을 배우던 중 김은석 목사의 권유로 1949년 서울 필운동교회에서 강좌를 열었던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를 김은석 목사와 함께 다녔다. 김상호는 이곳 교수들(힐, 성낙소, 최요한, 백

낙중)의 다른 가르침은 다 좋게 받아드렸으나 성령론이 불만스러웠다. 6.25전쟁으로 신학교가 문을 닫자, 부강에 내려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성령론 연구를 계속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 무렵 김은석 목사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09쪽에 의하면, 1951년 늦은 가을에,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로 개척한 상태였다. 아마 이 무렵 어느 날에 김은석 목사가 “김 형제, 교회를 받아 수고 좀 하계.”라고 김상호 목사에게 부탁하였고, 김상호는 극구 사양하였으나 청원에 못 이겨 부강교회 제2대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김상호 목사의 이름은 단 한 차례만 등장하였다. “1957년 2월 23일(토)은... 아침식사 전은 김상호 목사와 담화함.” 그러나 김상호 목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를 탈퇴하여 광주에서 개최된 1953년 4월 8일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정찬성 목사와 함께 (추측컨대 최요한도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회년 50인 인물’에 올랐다.

<순복음가족신문>에 의하면, 김상호 목사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충청도 지역에 40여 교회를 개척하였다. 남원순복음교회, 청주순복음교회, 부산순복음교회를 담임하였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국장, 교육처장, 교무처장, 오산리최자실기념침식기도원 주임목사, 엘림복지타운 원목으로 시무하였다. 김상호 목사는 2007년 11월 24일 소천 하였다.

7. 만교 최춘선 목사(1921-2001.09.08)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의 제자로서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 시무하였고, 사회사업가였으며,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수원행 전철 안에서 소천 하였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그래서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최춘선은 말년에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그래서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1) 김은석 목사와의 관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⁵¹⁾ 131쪽에 의하면, 최춘선은, 1949년 필요한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다. 필요한도 1972년에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에서 이 무렵에 김은석의 영향으로 김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점을 인정하였다. 1951년에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의 조선기독교회를 조동(현 동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51)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1864-1936)를 중심으로』(대전: 한성신학교, 1991), 131.

최춘선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14회 등장하였다. 최초의 언급은 1953년 8월 24일자로 되어 있다. 이 날 최춘선은 김은석, 이복춘, 이시봉과 함께 충북 충주시 남주동 2구 350번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는 정찬성 전도자를 상봉하였다. 1957년 6월 6일에는 송안성과 함께 김은석 목사의 대전 자택에 머무른 후 7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다. 1957년 7월 11일(목) 오후에는 김은석이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만교 최춘선의 자택에 도착하여 저녁에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스가랴 7-8장을 봉독하였다. 13일(토)에는 김은석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면 도당 원경선의 자택에 머물렀다. 1957년 8월 26일에는 편지를 받고 최춘선이 김은석의 대전 자택으로 내려왔는데,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태일러, 박은병도 참석한 자리였다.

최춘선의 이름은 김은석의 통신 및 신화신학성경연구회 명단에 빠짐없이 들어 있다. 김은석은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 최춘선이 포함되어 있다. 또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과가, 8월 1일로 9월 10일까지는 집중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자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김은석 목사가 1960년도에 연하장을 보낸 자들의 명단과 양녀 김명순의 혼인 청첩자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들어 있다.

또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⁵²⁾ 319쪽에 실린 김정만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최춘선은 부강교회 김은석에게 쌀가마를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이토록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 목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였다.

(2) 무소유와 희생의 삶

최춘선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존댓말을 하였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52)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1956-2006)』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319.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최춘선은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던 거부였고, 자동차를 다섯 대나 소유하였었다. 그러나 6.25 직후 길에 떠도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집으로 데려와 거두기 시작하였고, 국가나 단체의 보조 없이 고아들을 길러냈다. 또 유산으로 받은 땅을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조금씩 떼어주고서 남은 건 단지 3천 평뿐이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믿었기에 등기도 하지 않았다. 그걸 알고 누군가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 남은 땅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지만 힘든 표정 한번 짓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수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서른 번도 넘게 이사를 다녔다.

내일 아침 먹을 쌀만 남았을 때도 누가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마저도 퍼주었다. 아내가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 먹이나”고 걱정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달랬다. 새 옷을 사다드리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다 떨어진 헌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바울아(아들) 너는 따뜻한 옷이 또 있지?”라고 말하며, 아들의 잠바들도 모두 나눠줬다.

최춘선 목사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도장하나만 찍으면 증손자까지 4대가 학비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닐 뿐 아니라, 나라가 반쪽인데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춘선은 5남매를 목사와 교수 등으로 길러냈다.

(3)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은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와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수재였고, 가가와 도요히코와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유학시절 군사훈련을 거부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만주로 가서 광복군의 섭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전후에 김은석을 만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으며,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추측컨대 20여 년 가깝게 고아들을 돌보다가 1970년 초 50

세 무렵에 모든 사역을 접고 문서선교와 노방전도에만 전념한 것 같다.

최춘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2003년부터 ‘팔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김우현 감독이 맨발로 길거리 전도를 하는 할아버지 최춘선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분의 일상을 다큐로 만든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 이후부터이다.⁵³⁾



최춘선 목사의 묘(대전 현충원 제2외국지사 묘역)

광복군 섭외 부장을 지냈던 최춘선은 대한민국이 분단 상태에 있으므로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1970년 초 50

세 무렵에 “남북통일이 되기 전엔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미스코리아 유관순, Why Two Korea? 미스터코리아 안중근, Why Two Korea?” 이 외침은 유관순과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참 한국인이며, 그런 이들만 있다면, 왜 두 개의 한국이 있겠느냐는 의미였다고 한다.

아들 최바울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최춘선은 아들의 결혼식 때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었고, 버스기사에게 떠밀려 골반 뼈가 부서졌을 때도, 예수쟁이라는 폄박을 받았을 때도,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 피가 흘렀을 때도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최춘선은 2001년 9월 8일 80세의 일기로 소천 하던 순간까지 30년을 넘게

53) 김우현, 『김우현 다큐북 팔복 I_맨발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서울: 규장, 2004).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소천 하던 바로 그 날도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전도하던 중에 의자에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대전 현충원 제2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8. 창현 함태영 목사(1914.5.24-1983.11.28)



창현 함태영 목사

창현 함태영은 부친 함봉표의 항일의병전투참가로 왜경에 쫓기고 옥고까지 치름으로써 가세가 기울고 몇 차례 이사를 다녀야했던 환경에서 청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20대 초반에 부친의 유훈, “生則義士 死則義鬼”(살아서는 항일의사가 되고, 죽어서는 항일의귀가 된다)에 따라 항일운동을 꺾하였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生則福音 死則麥粒”(살아서는 복음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의 신조로 도시보다는 농촌, 난민촌, 빈민촌에서 목회자로, 교육 사업

가로, 신약성서교회 운동가로 일생을 헌신하였다.

함태영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부친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초등학문을 배운 후 17세가 돼서야 비로소 보통학교를 마쳤다. 18살에 부산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중학과정을 21살에 마쳤고, 이 기간에 공사장에서 미장, 조적, 조각, 설계 등을 배워 건축기술자가 되었다. 같은 해 일본군징용을 피하여 만주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1936년 22세 때 담양선 철도 부설작업 한국인 조장을 맡았는데, 칼을 찬 일본인 조장이 한국인들을 멸시함으로 대항하여 맞서다가 일본인 조장이 빼든 칼에 함태영이 턱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방어하던 함태

영의 핑이에 일본인이 맞아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담양사건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건으로써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본인들이 복수를 하려고 함으로 피신하여 신의주로 갔다. 이때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동창 1명과 함께 압록강철교를 절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1937년(23세)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선천으로 옮겨 기독교인 정용옥을 만나 결혼하였고, 장모 이봉녀 권사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고 이듬해 24살 때 세례를 받았다. 1941년 27세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감금되었으나 탈출 후 만주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4년(30세)에 고향 순천에 혼자 내려와 몸을 숨겼다. 그러나 발각되어 투옥되었다가 8.15광복 때 석방되었다. 함태영은 곧바로 순천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하였고, 장로교 해룡면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사재를 처분하여 전남 승주군 별량면에 장로교회를 개척하였다.

1947년(33세)에 순천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으로 온 가족이 이사하여 월남난민촌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강순명(교역자회) 목사를 도와 천막학교에서 교육과 전도에 힘썼다. 이때 김은석의 가족은 아현동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양자 김성철과 함태영의 장자 함동진이 이 천막학교에서 함께 공부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듬해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무렵 마포가 내려다보이는 도화동산에 대지를 마련하여 주택을 짓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종친인 함태영(咸台永)⁵⁴ 목사가 학장으로 재직 한 조선신학교(현 한신대)에 입학하여 장로회신학교(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였다. 장로회신학교는 1947년에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신학생 51명이 김재준 목사의 신학입장에 반발하자 총회가 조선신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 시작된 신학교이다. 장로교는 기존세력인 통합파에서 1951년에 고려파(고려신학교)와 1953년에 기장파(조선신학교)가 떨어져 나갔다.

함태영은 이 무렵에 북에서 월남한 장로교 재건파신자 정희건을 만나 사귄 후 학업과 생업을 위해서 함께 나무젓가락 공장을 운영하

54) 심계원 원장 및 대한민국 부통령 역임.



서울성서신학교 제1회 졸업(1955년 3월 3일)

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신약성서교회 운동에 매료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고, 서울성서신학교(교장 힐요한 선교사, 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 편입학하여

1955년 3월 3일 제1회로 조국형, 김봉석, 성수경(성낙소 목사의 아들), 김태수(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역임), 김현숙(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 이사 역임), 이종운, 유현성, 정희건(교역자회 소속), 변승택, 이흥미, 최병식과 함께 졸업하였다.

함태영은 1950년(36세)에 6.25전쟁이 터지자 홀로 고향인 전남 승주군 외서면 장산리로 피신하였다가 공산주의자인 초등학교 친구의 밀고로 붙잡혀 옥고를 치렀으나 선친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몰래 풀려나 숨어 지냈고, 가족들은 서울 함락 2주 후에 별도로 피신하였으나 사모 정용옥이 승주군 해룡면으로 친정 식구들을 찾아 나섰다가 공산주의자들의 검문에 걸려 투옥되었다가 탈출 후에 가족이 모두 안전한 부산으로 피신하였다. 부산에서는 1951년 2월 9일 기독교신보사가 주관이 되어 조직된 기독교선무원으로 발탁되어 국방부정훈국 산하에 파견되어 군목으로 종군하였다.

함태영은 1951년 3월에 전남 광주시 방림동의 서병렬(徐炳烈) 목사의 집으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이곳에서 이신(李信)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이신은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에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으로 고향 돌산에 피신하여 지내던 때였다.

광주 학동에 창틀까지 축조된 상태에서 6.25전쟁으로 중단된 큰 교회당 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을 대

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던 전라지방 젊은이들과 통합하기에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함태영은 1951년 5월에 광주 사직동 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사재를 처분한 돈과 부친의 지원금과 영광의 임모 장로의 현금으로 일본 적산가옥 2층을 매입하여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강좌를 개설하였다. 김은석과 김태수의 가족들도 같은 건물에 입주하였다. 의술을 가진 함태영의 셋째 동생 함태중이 재정을 후원하였고, 김은석, 이신, 김태수 등이 교수로 섬겼다. 이 건물에 강순명 전도자가 1952년 7월 13일에 천혜 경로원을 설립하였다. 이때 화가 지망생이었던 이신은 받침에 헬라어로 '로고스' 글자를 삽입한 '메노라'(일곱 가지 등대) 문양과 교명을 새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현판을 제작하였다. 10여년 후 이신은 대전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의 현판도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동년 1951년(37세)에 김은석의 집례로 이신, 최요한, 장주열(최요한의 동서), 김재순(김교인 장로의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또 함태영은 6.25전쟁 중에 통행의 제한을 받는 젊은 신약성서 교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종군당시 사귀었던 미8군 군목을 찾아가 통행증에 사인을 받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다.

함태영은 동년(1951) 가을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사하여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현 금성교회)를 개척하였다. 동년(1951)에 이신도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에 부임하여 10월까지 제1대 목회자로 섬긴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주하여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이곳에 개설하였고, 김은석, 함태영, 이신이 교수로 수고하여 김확실, 정찬성 등이 배출되었고, 환원신학 잡지, <로고스>를 발행하여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배포하였다.

함태영은 1952년 11월 15일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 마을회관을 빌려 복음국민중학교를 설립하였다. 함태영의 가족은 복음중학교 관리와 교사들의 식사제공문제로 거소를 충곡리 교회에서 신교리 교회로 옮겼다. 함태영의 셋째 동생 함태중은 운영후원자로, 막내 함

태욱은 영어 강사로, 사모 정용옥은 교사들의 식사제공과 세탁 등으로 헌신하였다. 함태욱은 후일 서울성서신학교를 거쳐 한국성서신학교를 나와 여러 교회들에서 목회하였다. 복음공민중학교는 후일에 창현의 후배 겸 제자인 이춘식 목사가 인수하여 대명중학교로 개명하였다.

함태영은 1953년(39세)에 부친 송암 함봉표 지사(음력 3월 24일)와 사모 정용옥(7월 13일)을 사별하였다. 함봉표 지사는 유림에 속했으나 맏아들 함태영의 목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사모 정용옥은 모친과 함께 함태영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였고 영양실조와 병고로 32세에 요절하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였다. 당시의 궁핍했던 생활을 함태영이 남긴 요약설교지가 각종 이면지, 즉 경리장부, 요금고지서, 영수증, 전단지, 캘린더, 전보지, 결혼청첩장 등이었던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사모가 눈을 감는 날 함태영은 부여 귀암면 합송리 신학교에 가 있어서 임종을 보지 못했다. 사모는 장남 동진에게 “내가 죽은 후에 동생들을 잘 돌보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라”고 유언으로 당부하였고, 고요히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로 가셨다. 동년 1953년 8월 4일 힐요한과 통역 최순국이 신교리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와 복음중학교를 물질로 크게 후원하던 함태중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맸었고, 함태영은 경기도 광주군 분원리 소재 송실중학교의 교장과 교목을 맡아 이사하였다. 힐요한은 이신과 함께 송실중학교를 찾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함태영은 동년 11월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산의 주택을 김모 여전도사에게 기증하여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하였다.

1955년(41세) 3월 3일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를 제1회로 졸업을 하였다. 이 무렵에 함태욱도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957년(43세)에 전북 이리로 주거를 옮겨 교회개척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주거지를 전주로 옮겨 금암동에 주택을 지었고, 인후동 반공포로 정착촌의 주택을 매입하여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겸하여 정착촌 의무실을 개설하였다.

1958년(44세)에는 금암동의 주택을 매각하고, 전북 완산군 용진면 소양리(현 전주시 소재)에 대지 200평에 건평 100여 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용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완제품 약종상을 차려 원광대학교에 다니던 장남 동진이 군입대할 때까지 운영케 하였다. 함태영은 자신보다 13세나 아래인 이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초빙하여 부흥집회를 개최하고 침례를 베풀며 목회사역을 협의하였다.

1960년(46세)에 청주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며 교회를 개척하였다. 1962년(48세)에는 목회를 쉬며 시험을 받았다. 대전시 가오동 천변(川邊)에 판자로 움막을 짓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시멘트블록 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에 시달렸고, 갓 제대한 동진이 작업을 도왔으나 경영이 부실하였다. 이 무렵 타 교단으로부터 유혹이 있었으나 물리치고 신앙노선을 지켰다.

1964년(50세)에 충북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남일면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였다. 건축이 전문이므로 교회를 꾸미고 보수하는 일을 자주 하였다. 한 번은 교회의 지붕을 보수하다가 낙상하여 갈비뼈가 상하는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1970년(56세) 1월 25일 장남 동진이 최윤권의 주례로 결혼하였고, 1974년(60세)에는 논산 대명중학교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설립자로서 공로표창과 황금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1975년(61세)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장자 동진의 집에서 이신, 구강서, 이종만, 조충연, 설하운, 함명덕, 임상규(이상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갑연을 가졌다.

1980년(66세)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목회를 마지막으로 노환(반신마비와 당뇨) 때문에 은퇴하였고, 1983년(69세) 11월 28일 충남 대전시 가오동에서 소천 하였다.

창현 함태영(唱泫 咸泰英) 목사는 “生則福音 死則麥粒”(살아서는 복음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의 신조로 도시보다는 농촌, 난민촌, 빈민촌 등지에서 목회자로, 교육 사업가로, 신약성서교회 운동가로 재물과 재능을 다 바쳐 헌신하였고, 남의 땅에 세운 시멘트 블록 움막과 낡은 찬송가와 성경책과 몇 권의 신학서적만을 남겼

다.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2007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75주년 기념대회 때 함태영과 장자 함동진에게 환원상(메달)이 각각 수여되었다.

창현 함태영의 부친, 송암(松庵) 함봉표(咸鳳表)는 항일의병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운 독립지사로서 일제의 핍박을 피하여 전남 승주군 외서면 장산리에 정착한 유림에 속하였으나 맏아들 함태영의 목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사모 정용옥은 친정 모친과 함께 함태영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여 궁핍했던 시절 불평 없이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다가 영양실조와 병고로 32세에 요절하였다.

함태영의 막내 동생 석비 함태욱(皙譬 咸泰昱) 목사는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를 나와 창현 함태영 목사의 목회활동과 복음중학교에 기여하였고, 장남 함동수 전도자(교역자회)가 시무한 청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동역하였다.

순동식 목사는 창현 함태영의 셋째 사위로서 복음중학교 출신이며, 한국성서신학교를 나와 대전과 홍성 등에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장산 함동진(長山 咸東振)은 함태영의 장자로 전북일보사 서무원, 시사통신 전북지사 무전사, 합동통신 전북지사 부무전사(副無電士) 등 주경야독으로 전주 공업 고등 기술학교 무선통신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성서신학교(서울기독교대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대전)를 각각 중퇴하고, 서울기독교대학 통신신학을 나와 서울 응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개척교회 전도 활동을 하였고, 1970년대에 문서전도의 일환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 본부'라는 이름으로 문서전도지를 저술하고, 서신회답도 하였으며, '신약교회'라는 연재물을 필경으로 작성하여 두 곳 교회의 주보에 제공하였다. 현재는 문인(시인, 아동문학가, 서예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기독교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학회 회원 등)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함동진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1991년 6월 11일(음력4월30일) <창현 함태영 목사 전기>를 작성

하였고, 1993년 함태영 탄생 79주년에 수정 증보하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구에 기여하였다.

9. 이신 목사/신학박사(1927.12.25-1981.12.17)



이신 목사/신학박사

이신의 자녀들이 펴낸 『술리얼리즘과 영(靈)의 신학』⁵⁵⁾에 의하면, 이신(李信, 1927-1981)은 전남 돌산 출신으로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여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산 초

량상업학교(부산상고)를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도 예술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얻어진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구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신학의 길을 걷게 하였다. 1945년에 결혼한 이신은 이듬해 1946년에 미술도구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5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충남 전의에 전도사로 부임하였으나 6·25전쟁으로 고향에 피신했다가 이듬해 1951년 봄에 김은석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공부와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았고, 신약성서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약성서교회운동과 일치운동에 공감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어 김은석이 회장으로 뽑혔고, 목사안수식도 있었다. 이때 이신도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 김동열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동년 5월에 함태영이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있던 일본 적산가옥 2층을 매입하여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

55) 이신, 이은선, 이경, 『술리얼리즘과 영의 신학』(서울: 동연, 2011).



교하였는데, 이때 이신은 교수로 섬기는 일을 처음 시작하였다. 또 이때 이신은 받침에 헬라어로 '로고스' 글자를 삽입한 '메노라'(일곱 가지 등대) 문양과 교명을 새긴 그리스도의 교회 신

학교 현판을 제작하였다. 10여년 후 이신은 대전 가장동의 한국성서 신학교의 현판도 동일한 문양으로 제작하였다.

1951년 가을에 함태영목사가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사하여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현 금성교회)를 개척하였고, 이신 목사도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 부임하여 10월까지 제1대 목회자로 섬긴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주하여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옮겨와 김은석, 함태영과 함께 운영하였고, 환원신학 잡지, <로고스>를 발행하여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배포하였다. 이 무렵에 이름을 이만수(李萬修)에서 이신(李信)으로 고쳤다.

이신이 부여 합송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타 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특별한 외적 역사, 즉 사도들과 같은 특정인에게 주어졌던 신유, 예언, 방언 말함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 신약성서의 완성과 신약교회창립이후에도 여전히 특정인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끊겼는가에 대한 견해차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의 본질이 신유, 예언,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인가, 아니면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고 인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인가를 놓고 목회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신을 포함하여 김은석을 추종하던 많은 이들은 전자, 즉 특별한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성령론을 공유하였으나 선교사들과 성낙소를 비롯한 일부 목회자들은 후자 즉 특별한 은사가 끊겼다는 정통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성령론을 공유하였다. 이 문제는 부여 신학교에서만 아니라, 서울 신학교에서도 지속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정찬성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탈퇴하여, 1953

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부강 교회를 잠시 맡았던 김상호와 함께 (김교인 장로는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5년 4월 27일에 목사안수를 받고 기하성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여 합송리를 떠났고,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최요한 목사도 이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 1953년 초부터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1957년 9월까지 목포 복음교회를 담임하다가 1957년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다시 환원하였다. 반면에 1960년대 중반에 최요한의 동생 최요열(순복음신학교 제1회 졸업)은 순복음교회로 다시 넘어갔다.

이런 일련의 문제로 부여 교회를 사임한 이신은 전남 영암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상경하여 힐 선교사를 만나 신학교를 도와 일하면서 동역하였다. 이신은 1953년 힐과 함께 함태영이 교장 겸 교목을 맡아 옮겨간 경기도 광주 분원 숭실중학교를 격려차 방문하였다. 함태영은 동년 7월 13일에 사모 정용옥과 사별한 후 자신이 설립한 충남 논산 신교리 소재 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떠나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 후 이신은 충북 괴산에 있는 수리교회로 옮겨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이 무렵의 상황이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나온다. 이신의 이름은 1954년에 2회, 57년에 11회 나오는데, 이신은 김은석과 함께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와 본인이 시무하는 수리교회에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강좌를 열어 가르치고 있었다. 이신과 김은석은 1954년 6월 14일부터 최요한의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 예배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현판을 붙여놓고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이틀 뒤 16일(수) 이신의 부친이 별세하였다.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수리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있었고, 1957년에 8-9월에도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와 수리교회에서 가르쳤다. 이신과 김은석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정으로 9월 집회 후에 최요한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환원하였다.

최요한 목사는 1946년 2월초에 김은석을 만난 이후로 1947년 7월

에 영광 무영교회를 환원시키는 등,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 10월초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석성(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손불면 주포리에 세웠던 것을 이전), 1947년 1월초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⁵⁶⁾ 1948년 3월초에 광주 사동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 전북 고창에 고창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에 전남 목포시 남공동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로부터 동서 장주열, 김재순, 함태영, 이신, 김동열과 함께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최요한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53년 초에 목포시에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였고, 1955년 9월 25일에는 목포 복음교회를 담임하였다. 그러던 최요한 목사는 1957년 8·9월에 김은석, 이신 등이 인도하는 집회들을 통해서 복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10월 1일 전남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최요한 목사가 돌아와 오늘의 목포교회로 발전시킨 데에는 이신과 김은석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정과 신념과 확신의 공유(공감)가 있어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 이신은 1957-58년에 1951년 광주에서 만나 교제한 함태영이 전주에 개척한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와 용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열고 침례를 베풀었다. 함태영의 장손 함동진도 1958년 6월에 이신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이신은 1959년과 60년 전반기에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방송설교를 내보냈다.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서 1980년에 펴낸 책이,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⁵⁷⁾이다. 1959년 초에 부산에서 버트 엘리스 선교사 부부와 조 세걸키 선교사 부부가 한국방송밋손(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하였다. 이 방송의 설교자로 이신은 1958년 12월에 태일러 부부, 래쉬 부부, 여러 한국인 사역자들의 추천을 받아

56) 1951년 음력 8월 13일부터 거주한 박점상 목사는 자신이 건축하여 개척하였다고 증언함.

57) 이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서울: 기독교문사, 1980).

채용되었다.

한편 전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가출로 1955년 한국을 떠났던 힐요한은 선교사 제인 키네틱트와 재혼 후 1959년 여름에 부산으로 입국하였다. 두 달간 알렉스 빌즈 가정에서 머물다가 대전으로 올라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등과 함께 그해 12월 1일에 대전성서신학교를 지금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60년에 이신이 부산에서 교수진에 합류하였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학교를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이신은 이후 서울 돈암동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였고, 1965년 9월부터는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회랍어를 가르쳤으며, 교회를 사임하고 1966년 9월에 마흔 살의 늦은 나이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림을 그려 학비를 조달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짊어지는 고학 끝에 1967년 5월에 네브라스카(Nebraska) 기독교대학을 졸업하고, 8월에 드레이크(Drake)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드레이크대학교를 한 해 동안 다니다가 1968년 9월 밴더빌트(Vanderbilt)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옮겨 1969년 12월에 신학석사학위, 1971년 5월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귀국직후 삼선동의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했다가 사임하고 자신이 1958년 6월에 전주 용진교회 부흥회 때 침례를 베푼 창현 함태영의 장손 함동진과 함께 종로2가 한국기원 건물 강당에서 서울기독교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혜화동으로 옮겨 1973년까지 지속시켰다. 이때 함동진은 주보발행과 기타 문건을 필경 발행하였다. 이신은 또 월 2회씩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주제를 발표하고 토의를 하는 ‘포이에티스트’라는 학술모임을 결성하고 이끌었다. 이 모임에 함동진,⁵⁸⁾ 강성기,⁵⁹⁾ 김소영,⁶⁰⁾ 김웅삼,⁶¹⁾ 김태수,⁶²⁾ 방하

58) 서기, 일신계강주식회사.

59) 효광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광주 및 부여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수학.

60) 시인, 상록서점운영.

식,⁶³) 안광남,⁶⁴) 안동수,⁶⁵) 최승,⁶⁶) 윤기열,⁶⁷) 김송자⁶⁸) 등이 참석하였다.

1975년 여름 명륜동 산동네의 무허가 집이 시에 의해서 헐리자 수리교회로 내려가 1978년까지 목회하다가 서울 원효로의 친척집에 머물렀고, 1981년 열악한 식사와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설교, 강의, 번역 등의 일을 강행하다가 병을 얻어 12월 17일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소천 하였다.

이신은 1951년 이후 줄곧 1950년대에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1960년대 전반기에 한국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목회와 방송선교활동을 겸하였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문화신학),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윤리학), 그리스도대학교(히브리어 및 신학),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 조직신학), 순복음신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윤성범의 '한국종교사학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방송설교를 묶어 만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있고, 번역서로는 니콜라이 베르자이에프(N. Berdyaev)의 『노예냐 자유냐』⁶⁹)와 소천 후 변선훈 박사가 번역을 마무리 짓고 출판한 베르자이에프의 『인간의 운명』⁷⁰)이 있으며, 유고 집으로는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과 『이신 시집: 돌의 소리』⁷¹)가 있다. 이밖에도 1974년 3월 25일자에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 1980년에 출판된 『기독교대백과사전』에 실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 순복음교회 청년 선교지 <카리스마>

61) 호남정유주식회사 훈련과장.

62)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63) 홍제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중앙일보사 조사부 부장, 미국이민.

64) 철학인.

65)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66) 서울영어학원장.

67)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후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로 이적.

68)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미국이민.

69) N. 베르자이에프, 『노예냐 자유냐』 이신 역(도서출판 인간, 1979).

70) N. 베르자이에프, 『인간의 운명』 이신 역(현대사상사, 1984).

71) 이신, 이경(유휘) 지음, 『돌의 소리: 이신 시집』(서울: 동연, 2012).

에 기고한 ‘카리스마적 신학,’ ‘삶과 죽음,’ ‘이단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공식으로는 1972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 1979년 한국기독교신학회 회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이신 목사의 업적은 한국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 곧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과 교회의 원형태를 회복하여 한국적 토착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데 있다. 그는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논하였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일 때면 항상 “근본”이라는 단어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10. 김정만 목사(1927.5.20-2017.8.30)



김정만 목사

김정만 목사는 스스로를 정찬성과 김은석의 제자라고 말한다. 그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2회 나온다. 김정만은 1957년 11월 19일에 지철희의 결혼식을 위해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까지 김은석, 지

철희와 함께 갔다. 이듬해 1958년 5월 5일 김은석 목사는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하였는데, 김정만은 통보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김정만은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초기에 공부하였고, 정찬성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김정만은 충북 증원이 고향이다. 1945년 12월 하순경에 정찬성 목사가 시무하는 이웃마을 반능교회에 김은석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말씀에 취해 큰 은혜를 받았다. 부흥회 때 침례식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주면서 자신에게만 주지 않자, 이를 방관치 않고 간청하였다. 이에 김은석과 정찬성은 김정만을 넷가로 데려가 김은석이 위해서 기도하고, 정찬성

은 입은 옷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베풀어 주었다. 침례를 받고 나니 너무 기뻐고,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옷이 금세 말랐다고 한다.

1946년 반농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 정찬성의 권유로 부강 신학 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3개월 후 정찬성이 김정만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임하자, 교회를 맡아 일하면서 성경공부를 위해 반농과 부강을 오갔다. 반농에서 부강까지는 80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월요일 새벽예배를 마친 다음 출발해서 저녁까지 걸어서 부강에 도착하곤 하였다.

김정만은 1946년 가을 정찬성, 김은석 두 목사들과 함께 서울 필운동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성낙소, 최상현이 교수로 있던 이곳 신학교에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다.

어느 날 저녁은 너무 추웠던지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고 김정만 혼자만 부강에 도착하였다. 부강에 도착하여 평상시처럼 저녁 예배를 드린 후 식사시간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자, 김은석은 소금물이라도 끓여오라고 했다. 그 날 저녁은 소금물을 놓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였고, 그 다음날도 새벽예배를 드린 후 아침식사로 간밤에 마시다 남은 소금물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밖에서 배달부가 왔다는 소리가 났고, 나가보니 최춘선이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이 형님네 갖다 드리라고 했다면서 놓고 갔다. 최춘선이 돌아가자마자 김은석은 쌀을 반 가마씩 나누는 후에 “반 가마는 내가 먹고 반 가마는 김형제가 가져가게.” 하면서 주었다. 그 때 김정만은 “도대체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스승을 더욱 잘 모셔야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충주교회에 부임하여 열심히 전도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 45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였다. 김정만은 그 교회를 스승인 정찬성에게 넘겨주고, 사모의 친정이 있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1954년에 예배당을 짓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그때 김은석 목사가 설교를 위해 참석했는데, 큰 딸 순명이 우니까 얼른 안아주었는데, 그만 어린 딸이 실례를 하여 예복이 적고 말았다. 그러나 김은석 목사는 웃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입

고 설교하고 돌아갔다.

그 후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김광희 집사) 교회로 옮겨갔다가 다시 반농교회로 옮겼는데, 폐병을 얻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월간 한길사(1959)는 김정만 형제가 죽었다고 부고하였다. 그러나 김정만은 기도로 고침 받고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원근 각처에서 교인들이 모여들어 격주로 충북 각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들도 뜻을 같이 하였다.

김정만 목사가 폐병만기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필요한 선교사가 병문안으로 찾아와 약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김정만은 최후의 수단으로 항상 기도하던 음성 고사리봉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당시 눈이 내려 쌓였었는데, 김정만이 있던 곳은 눈이 녹아있었고, 앉았던 자리의 소나무는 뽑혀 있었다. 그만큼 혼신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져 집에 내려와 보니 씻은 듯이 병이 낫아있었다.

그 후 충북 중원군(현 충주시)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에 개척을 하고, 다시 반농교회로 왔다가 1968년에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갓돈 교회(현 삼방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전 주민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김정례 집사와 지재성 집사는 갓돈교회를 이루는 기둥이 되었다.

1971년에 강원도 원주교회를 개척하고, 1973년에 서울 상계동 희망촌 교회로 부임하였다가 1981년 12월 이신이 소천 하던 때에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중병을 얻어 연세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고쳐주었고 오늘의 상계 그리스도의 교회 자리를 매입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 김정만은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993년 이 상계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은퇴하였다.

목회자로서 김정만은 김은석, 정찬성을 스승목사로 모셨고, 김재순, 최요한, 심영진, 이신, 김상호, 이원로(노), 조길재, 지철희, 이재석, 홍승만(이상 목사), 김교인, 이학재, 김길홍, 조춘식, 박오복(이상 장로), 박양순, 최돌연, 김광희, 박정희, 김옥수, 이희, 김정례, 지재성, 정현매, 권영신(이상 집사) 등을 잊을 수 없는 동료들로 기억하였다.

김정만 목사는 3남1녀를 두었으나 가난하여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

다. 한 때는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였다. 목회 중에 성령님의 역사도 많았다. 자만할까 봐 거뒤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다. 교회를 핍박하던 동네 강패를 회개시키기도 하였다. 쌀이건 보리건 들어오면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새끼 돼지를 나눠주며 교인들이 살아갈 방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정만 목사는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며 신약성서교회 회복에 힘썼다. 성서에 없는 것은 결코 따르지 않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지 아니한 것이었다.

11. 장주열 목사(1923.5.4-1983.12.18)



장주열 목사(뒷줄 3번째)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식 기념(1961년 3월 19일)

장주열은 최요한 목사의 큰 동서로 불교가정에서 자랐으나,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본 여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가 그 여자와 결혼할 욕심으

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였다. 장주열은 약속대로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영흥교회에서 학습세례를 받고 김순례와 혼인을 하였다.

1946년 1월에 전남지방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던 김은석에게 큰 은혜를 받고, 영흥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1946년 2월에 영흥교회에서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손아래 동서인 최요한과 처제 김정녀를 그 부흥회에 초청하였다. 그 부흥회에서 최

요한과 사모 김정녀, 장주열과 사모 김순례는 교우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하려 했던 부흥회가 열흘로 연장되었다.

이후 장주열은 최요한이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서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직접 교회당을 지었고, 10여리 떨어진 곳에서 신흥교회를 걸어 다니며 봉사하였다.

장주열은 동서 최요한, 함태영, 김재순과 함께 광주와 목포 신화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로부터 김은석의 주례로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 이신, 김동열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았다.

장주열이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할 때 아들 장복남이 폭격을 맞아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기도하고 교회에 뛰어 놓고 전도를 나갔으며, 15일이 지나자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주일 날 성만찬을 하려고 잔에 물을 부으면 곧 예수님의 피같이 되었다고 김순례 사모는 회고하였다. 또 공산군에 잡혀 인민재판 중에도 몇 번이고 풀려났으며, 부산에서 성령 대부흥회를 인도할 때에는 조용기 목사까지도 장주열의 안수를 받았다고 김순례 사모는 회고하였다.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는 1958년 5월 5일에 김은석 목사로부터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받았고,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란 주제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을 때 참석하였으며, 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도 참석하였다. 1961년 3월 19일에는 힐요한(통역 김찬영)을 초청하여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내천동 706번지에 소재한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였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안양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장주열 목사는 청주교회, 수원교회, 안양교회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83년 소천 하였다. 자녀로는 복남, 성순, 성례, 성님이 있다.

12. 최요한(용환) 목사(1923.01.20-1998.03.28)



최요한(동환) 목사

최요한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에서 장로교인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고종황제시절부터 친가와 외가 모두가 3대에 걸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1944년 1월 20일 역시 장로교인인 김정녀와 목포장로교회에서 결혼하였다. 세례교인이었지만, 1947년 7월 중에 전남 영광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침례가 성서적임을 깨닫고 김은석 목사에게 침수세례를 받았다.

(1) 자생적 신약성서교회 활동

최요한은 재건파와 고려파 신앙과 맥이 같이 하였다. 최요한이 김은석을 처음 만난 것은 큰 동서인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장로교회 장주열 집사가 우연히 김은석의 순회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큰 은혜를 받았고, 김은석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자고 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그 날짜를 1946년 2월초로 잡았다. 장주열은 부인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손아래 동서 최요한 부부를 찾아가 부흥회 소식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하였다.

부흥회 다섯째 날에 진리의 영이 최요한에게 임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70쪽에 의하면, 최요한은 이날 자기 마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분쟁은 죄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한다. 참석한 100여명의 신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였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하려 했던 부흥회가 열흘로 연장되었다. 이 부흥회 기간에 최요한, 김정녀 부부는 김은석을 집으로 초청하여 성경강의를 들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최요한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 자택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최요한이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택에서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김은석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7개월이나 앞서는 것이고, 충청이남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김은석이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은 해방직후인 1945년 가을이었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반해, 김규상 목사의 증언에 의존하여 그보다 일 년이 늦은 1946년 가을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요한은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회 때 혹은 자신의 집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만 목사는 1945년 12월 하순경에 정찬성과 김은석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정만은 1946년 반농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 정찬성의 권유로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46년 가을에는 정찬성, 김은석 두 목사들과 함께 서울 필운동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가르치는 성낙소, 최상현와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이 증언은 김은석이 1945년 가을에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46년 어느 때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또 박점상 목사는 1946년에 김은석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찬성 목사는 1946년에 공부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제1기생으로 알려져 있다. 정찬성은 김은석에게 오데골 장로교회를 나온 후 새로 시작한 부강교회의 이름을 로마서 16장 16절을 들어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를 것을 권하였다는 김정만 목사의 증언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이러한 자료들은 김은석이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이 1945년 가을이었고,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가 1946년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목포교회의 주장처럼, 1946년에 시작된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여부를, 다만 몇 개월간이라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들이라면, 성낙소에 의해서 1927년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사랑채에 세워진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에 이어 충청이남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긴 신약성서교회 운동이 될 것이다.

최요한은 1946년 4월에 시작한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가 10월에 50여명에 이르자 김재순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10월초에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 동네 창고를 대여 받아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였다가 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사하여 예배당을 짓고, 이름을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정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이 교회의 창립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노의수 집사가 석성리 신생동 교회와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를 인도하였으나 발전하지 못하다가 김재순이 석성리 청학동으로 옮겨와서 신앙촌을 만들어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교회 터가 김재순의 부친 김교인 장로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무렵에 김교인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복음 교회로 이적 시켰고, 700평 땅을 기증하여 50평 예배당을 짓게 하였다.

김교인은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김교인이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서 1957년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김은석의 1954-56년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와 '신생동 교회'가 여전히 노의수 집사(전도사)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고, 김은석이 내려와 이 두 교회에서 백일 성경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은석의 1954년 6월 14일(월)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김은석이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김교인의 집에 잠시 들리고 있고, 8월 8일(일)자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김은석이 오전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김교인 장로댁에서 아가서 4장을 읽고, 오후에는 손불면 신흥교회 주택에서 아가서 4-6장을 읽고 있다. 1956년 7월 16일(월)자 언급에 의하면, 김은석이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18번지 김교인 장로댁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956년 12월 13일(목)에는 김은석이 김교인과 함께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의

객실에 머물렀다.

김은석은 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2월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월까지 이 두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열어 노의수 집사 등을 헌신적으로 가르쳤다. 이 백일성경연구집회 때는 유난히 추웠는지, 10월 20일(목)에 일기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였고, 12월 16일(금)은 크게 추웠다 (“今朝는 大寒이 되엿슴)고 적었다. 이날 아침 김은석은 대전에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었다. 김은석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에 대한 언급은 백일성경연구집회 중이었던 1955년 10월 21일(금) 이후에, 신생동 교회는 1956년 12월 13일 이후에 끊겼다. 김교인과 노의수에 관한 언급도 끊겼다.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김은석의 헌신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로 이적한 김교인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음은 김은석이 남긴 1956년 12월 13일자 성경통독메모이다.

1956년 12월 13일 새벽(목)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으로 서울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 일리 있음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뉘에 작당하고 김재순 목사께 편지하고서 지금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여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를 보난 중 1장 27-2:1-2,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갖치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갖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져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갓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여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였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댁 객실에서 記함. 김은석 止.

(2) 1946-50년 기간에 세워진 교회들

최요한은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후, 이듬해인 1947년 1월초에 전남 무안

군 현경면 평산리⁷²⁾ 김광음(정귀남의 모친) 집사 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평산리 교회에 관한 언급은 김은석의 성경통독 메모(1953-58)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임춘봉, 박점상, 지철희 등이 목회하였고, 정귀남⁷³⁾ 집사(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갈라져 오늘에는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성낙소 목사는 단기 4286(1953)년 7월 3일에 『신약교회 목회학』를 발행한바 있다. 이 귀한 책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가 지철희 목사로부터 기증받아 매우 어렵게 편집한바가 있다. 지철희는 이 책을 정귀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희”라고 적혀 있다.

최요한은 1947년 7월에 영광 무영교회 임장로 가정과 김집사 가정을 환원시켜 영광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김재순에게 위임하였다. 임장로의 딸은 그 후에 김재순의 제수가 되었고, 건축업자였던 임장로가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최요한은 1948년 3월초에 광주 사동에 김윤선 집사의 소를 팔아 2층집을 세내어 광주 사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 최요한, 장주열, 김재순, 김동열 등은 광주에서 노방전도에 전념하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광주 사동 교회는 1954년 9월 한 달 동안만 언급되었으며, 주소는 광주시 남구 사동 22번지였다. 이후 김동열이 광주 금동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명칭을 바꿔 이어가고 있다.

1951년 늦봄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었고, 초대회장에 김은석이 선출되었으며, 김은석의 주례로 최요한, 장주열, 김재순, 창현 함태영, 이신(이만수), 김동열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추측컨대 안수 장소는 사동교회가 아니라, 함태영이 1951년 5월에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사재를 처분한 돈과 부친의 지원금과 영광 무영의 임장로의 헌금으로 구입한 일본 적산가옥 2층이었을 것이다. 이 건물은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겸 신화

72) 박점상의 처가 마을, 1951년 음력 8월 13일부터 이곳에 거주한 박점상은 자신이 건축하여 개척하였다고 증언함.

73) 지철희의 장인, 정일홍 목사의 부친.

신학 성경연구회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에 강순명이 1952년 7월 13일에 천혜 경로원을 설립하였다.

최요한은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김윤선 집사와 김남수 집사가 영광무영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향인 고창 김윤선 집사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6.25전쟁 중에 8명의 순교자를 낸 곳이다.

이상 언급된 6곳의 교회들은 최요한이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세운 교회들이며, 오늘까지 남아 있는 곳은 김동열 계열의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와 광주 금동(사동) 그리스도님의 교회뿐이다.

(3) 1951-55년에 세워진 교회들

최요한은 1951년 봄에 목사안수를 받고나서 장성기도원을 맡아 8개월간 시무하면서 침례와 성만찬예배를 드리며, 200여명이 함께 먹고 자며 기도하는 은혜의 동산을 만들었지만, 조순례 원장이 환생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1952년 1월초에 기도원을 박차고 나와 기도하던 중에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최요한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추측컨대 정찬성, 김상호와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3년 초에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였다. 이곳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진성구 장로가 구입한 건물의 2층이었다. 그러나 최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성찬예배에 대한 신념도 확고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김은석은 성경통독메모에서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2동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을 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등을 인도한 것으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1955년 9월 25일에는 김사라 집사가 개척한 목포 복음교회를 시무하였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기공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건축이 된

상황에서 교회명칭에 대해 고민하던 중 최요한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로 정하기를 원했고, 제직자들의 투표에서도 그렇게 결정되었으나 창립자인 김사라 집사 측과 교회명칭으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자 1957년 10월 5일에 사임하였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금도 침례와 주의 만찬을 소중히 여기는 대형 독립교회로 남아있다.

(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최요한은 1957년 8-9월의 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10월 5일 목포 복음교회를 사임하기 직전에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창립연월을 일 년 앞당겨 1956년 10월 1일로 확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요한 목사가 장성 기도원을 박차고 나온 후, 1953년 초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유달교회(순복음)를 개척할 때까지, 1952년 1월초에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1년 정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바가 있어서 이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1957년 9월말부터 사택에서 20여 가정이 모여 기도예배를 전념하면서부터 잉태되었다. 진성구 장로가 큰 힘이 되어 오늘의 목포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는 장로교회에서 장로안수를 받은 이로서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던 중에 최요한을 만나 1952년에 상월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고, 1953년에는 자신의 건물 2층을 유달 교회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57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될 때에는 창립멤버로 전 가족이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1968년에 목포 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듬해인 1958년에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예배당 16평, 사택 10평을 마련하였다. 이 가옥은 크기가 200평이나 되는 건물로써 교회가 차지한 공간은 왼쪽 가장자리 26평이었다. 1961년에 이 가옥 뒤편 24평을 구매하였다. 이에 최요한은 50평 크기의 석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반대하여 1968년에 진성구 협동장로, 1969년에 세 명의 장로들이 목포복음교

회로 이적하였다. 최요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50평 석재 본관건축을 착공하였다.



목도 그리스도의 교회

1971년 말에 1층 50평, 이어서 이층 25평의 석재 예배당의 공사를 완료되었다. 1972년 4월에는 현관을 아치형으로 개조하였고, 1977년 3월부터 3층 25평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총 건평 100평이 완공되었다. 1984년 11월 11일에 26평 아파트 한채를 목사관으로 구입하였다. 1989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교육관 50평을 확장하였다. 1995년 2월 27일에는 산정동 1112-3 대지 1500평을 매입하였고, 1995년

11월 6일에 착공하여 4층 720평의 예배당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1997년 11월 27일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1967년에는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고하도 교회 옆 자리에 1971년 감람산 기도원이 설립되었다.

최요한은 슬하에 6남 2녀를 두었다.⁷⁴⁾ 동생 최요열은 순복음신학교(현 한세대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서울 이태원 순복음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1960년대 기간에 필요한 선교사가 막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겼다. 1965년 12월 5일부터 부천시에 위치한 새소망교회(순복음)를 맡아 크게 성장시켰다.

74) 목회자3, 장로2(교수1), 사모1, 집사2(안과의사1).

최요한 목사는 1992년 12월 29일 은퇴 후 1998년 3월 28일(토)에 소천 하였다.

(5) 최요한의 신학적 신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33-359쪽에 의하면, 최요한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40여년을 섬기는 동안 줄곧 3생명, 즉 말씀의 생명, 성령의 생명, 성찬의 생명을 선포하였다. 이는 말씀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속죄와 구속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이 더해져야 비로소 생명의 완전성이 확보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믿음을 떠받치기 위해서 최요한은 1년에 몇 차례씩 주일 대예배 때 구약의 성막도를 강단 벽에 걸어놓고 지성소의 언약궤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던 돌비들은 말씀의 생명을,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성령의 생명을, 향아리에 담긴 만나는 성찬의 생명을 예표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생명은 상징이나 기념 또는 형식 그 이상의 것,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이며, 구원과 직결되는 생명이다. 따라서 신약성서교회처럼 기도에 전념하는 동시에 신령의 예배, 진리의 예배, 진정의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6) 최요한 목사와 전남지역 그리스도의 교회들

1950년대 충청이남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1960년대는 힐요한 선교사와 대전에 세워진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힐의 영향력은 충청권에서 김은석의 것에 못지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김은석만큼 크지 못하였다. 반면에 목포교회 최요한 목사의 영향력이 전남에서 점차 커져갔다. 힐 선교사가 은퇴하고 30대 중반의 김찬영 목사가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장이 된 1970년대부터는 김찬영과 한국성서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북을 포함한 충청권과 최요한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남권의 영향력이 점차 양분되어졌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548-550쪽에 의하면, 최요한 목사는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궁산리)에 그리스도의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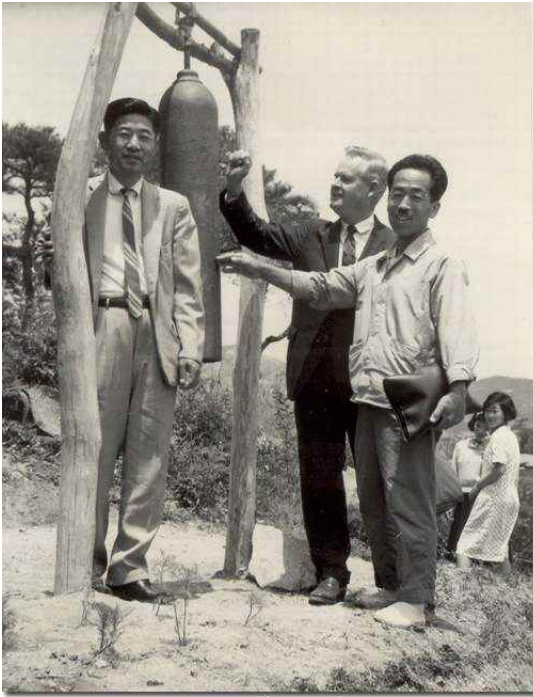
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에 전남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5년 후인 1957년 10월 1일에 오늘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를 환원시켰고, 이어서 진도 군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매화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도 환원시켜 총 4개 교회를 환원시켰다. 이후 1963년에 목포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해남 상공 그리스도의 교회, 1970년 목포 외달도 그리스도의 교회, 1973년 목포 달리 그리스도의 교회, 그밖에 여수 화정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금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6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1972년 최수신 전도사의 광주 발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1년 광주 무등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6년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3곳은 최요한 목사의 지원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새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죽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형제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3곳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태가 되어 개척되었다.

이밖에도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마명리(화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사포리(화산 반석)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읍 부호리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압해면 고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서남 그리스도의 교회, 영암군 영암읍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7곳이 최요한 목사의 영향을 받아 환원한 교회 또는 개척된 교회들이다.

13. 고광석 목사

고광석 목사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1950년대 중반부터 김은석 목사의 제자와 동역자로 활동하였고, 필요한 선교사



고광석 목사(좌측)
김은석 목사의 제자이자 할로한 선교사의 동역자였다.

가 대전에 정착한 1959년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60년대 내내 힐 선교사의 사역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9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광석은 신학 신학 성경연구회 학생이었다. 고광석은 1955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집중공부에 참여하였다. 김은석은 이때 이미 그를 전도사로 호칭하였다. 1955년 5월

27일자 메모에 의하면, 이날 남녀 합하여 18명이 공부하였는데, “소수교회당에서 백 일간에 공부하는 중에 공부함. 김재순 목사 서울 가심. 고광석 전도사님은 권영수, 전도회 두 분과 전도 가심.”이라고 적었다.

둘째, 고광석은 바울의 디모데처럼 김은석의 충실한 제자였다. 김은석이 가는 곳에 바늘과 실처럼 동행하였다. 1955년 6월 18일(토) 오후에 김은석, 김완례 부부와 동행하였고, 7월 8일에는 김은석과 함께 청주에서 소수교회로 향하였다. 또 12월 21일(수) 아침에는 김은석과 함께 서울성서신학교 숙사에서 지냈다. 1957년 4월 27일(토)에는 고광석이 김은석, 김규상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장성리에 머물렀다. 김은석 목사의 병문안 또는 부름을 받고 자택을 방문한 기록이 1958년 1월 27일까지 몇 차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고광석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들을 근거로 볼 때,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었거나 충북 청주시 영운동이 거주지였거나, 1956년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운동에 개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석牧사는 1956년 6월 23일(토) 아침에 청주역에서 기차 타고 소수교회로 가기 위해서 강신규 자매와 함께 영운동 고광석 전도사 집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하였고, 8월 17일(금)자 기록에 의하면, 김은석이 김은영, 고광석, 노의수와 함께 충북 청주시 영운동 교회당에 머문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김은석의 주소록에 남아있지만, 필요한 주소록에서는 찾을 수 없다.

넷째, 고광석은 병약하였다. 1955년 7월 19일 아침에 김은석이 대전 자택에서 부강으로 향하였는데, 부강에 도착해 보니, 고광석 형제가 병중이어서 수리교회에 가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1955년 8월 16일 김은석은 사모 김완례와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와 더불어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를 병문안하고,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愛生園)을 방문하였다.

고광석牧사는 1960년대 필요한 선교사의 선교사역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필요한 선교사는 가족과 함께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다. 1959년 12월 1일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에서 신학교를 개교하고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에 고광석이 필요한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오재건, 고재윤, 김찬영 등과 함께하였고, 수업시간 혹은 개강예배에도 참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듬해 1960년에는 고광석이 시무하던 선화동교회로 옮겨 수업을 계속하였다. 이후 19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 참석하였고, 힐 선교사가 남긴 사진들에서 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14. 지철희 목사(1937.08.29.-2010.11.21.)

지철희 목사는 1937년 8월 29일생으로써 소년시절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을 자주 접할 기회를 가졌다. 12세 무렵에 정찬성 목



지철희 목사(김동열 목사 사택에서)

사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교회를 지철희의 누나 집에서 시작한바가 있고, 20대에는 박점상 목사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강면 평산리 교회의 정귀남 집사의 딸을 소개받아 김재순 목사의 약혼식 주례와 김은석 목사의 결혼식 주례로 1957년 11월 말에 결혼하였다. 김정만

목사도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지철희는 젊어서 김은석 목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초기 목회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에서 이뤄진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참석하여 강의와 설교를 듣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 무렵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순, 나연찬, 김태수, 김철수, 심영진, 박병우, 김정만, 박점상, 김은성, 김은영, 모갑경 등이었다. 지철희 목사는 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였다.

당시 부강에서 성경공부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가난했다. 나도 그랬지만, 대략 모인 사람들이 100-150명 이상이었는데, 항상 있는 사람은 7-8명 정도로써 대략 식량을 가져오는데 1-2말 가져오고 반찬도 제각기 가져오고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서 부강 근처 들녘으로 가서 버려진 배춧잎 무청, 고구마줄기 같은 것 그리고 장날이면 장터에 버려진 먹을 만한 것들을 주어다가 충당하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전기충전소와 같이 은혜와 말씀이 그리우면 또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서도 불만이 없고 그저 형제자매 모매님 하면서 걱정해주고 위로하였다. 환자가 많이 왔는데, 함께 간호하고 기도하며 누가 무엇을 시키지도 않고 무엇을 하라는 감독도 없었다.

전남 지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왔고, 주로 청주와 대전근방에서 왔다. 충주에서 이종석, 이갑수, 정석기, 이원로(노), 조춘식, 김정만, 지철희, 이안식, 이학재 등이 왔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설교를 듣다가 너 무나 기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찬송이 나오고, 결국에는 설교자나

듣는 이가 자연히 합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 하시면 무릎을 꿇은 채로 30-40cm까지 뛰기도 하였다. 얼마나 뛰었는지 결국 마루 장까지 꺼졌다 한다. 그러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부강 장날 거리를 급히 오고 가면서 외치기를 이 썩은 보리 찬밥 덩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생명 떡으로 배불림을 받고 쉼을 받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다.

고 김은석 목사님의 설교는 대략 열변이 아니고 조용한 강의식이었다. 신구약 성경을 오가면서 구약에서 물으면 신약에서 답을 하고 신약에서 물으면 구약에서 답이 나오는데 정확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답보다 훨씬 새로웠다. 그래서 듣는 이가 무릎을 치며 기뻐하고 감사하곤 했다. 내가 보기로는 어느 성경학자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달한 분이었다.

어느 산이든 풀밭이든 앉으면 그 자리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쉬고 먹는 시간외에는 성경을 보고 찾는데, 성경이 곁레쪽같이 낡고 찢어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에게 모인 것 같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엄격히 가르친 것은 동참죄를 가르친 것 같다. 그리고 우상타파와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세례 성찬을 왜곡함으로 구원받는 문제도 그들은 어렵다고 하셨다.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을 것이다.

지철희 목사는 최요한 목사가 평산리 처가 마을에 1947년 1월초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결혼한 1957년에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평산리 교회는 1960년대에 대전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친 임춘봉 목사와 박점상 목사가 목회하였고, 지철희의 장인인 정귀남 집사(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갈라져 오늘날에는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성낙소 목사는 단기 4286(1953)년 7월 3일에 『신약교회 목회학』를 발행한바 있다. 이 귀한 책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가 지철희 목사로부터 기증받아 매우 어렵게 편집한바가 있다. 지철희는 이 책을 장인 정귀남 집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

휘”라고 적혀 있다.

김은석 목사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서 보낸 1958년 5월 5일자 전보수신자에 지철희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김은석은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이 개설된다는 것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문을 총 54명과 6곳의 교회에 보내었는데, 그 속에도 지철희 목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지철희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였고, 1973년에 제21회로 졸업하였다. 지철희는 일평생 교회개혁에 힘을 썼으며, 개혁 후 교회가 성장하면 미련 없이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 떠나곤 하였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벨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였고, 암으로 투병 중에 73세의 나이로 2010년 11월 21일 소천 하였다.

15. 심영진 목사(1921.02.28-)

심영진 목사와 김은석 목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몇 장의 사진들뿐이다. 1958년 4월 13일 산상연합집회 중에 김은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 한국성서신학교가 설립된 직후, 교수로서 1959-60년 겨울에 힐 선교사 부부, 김은석, 김태수 및 오재건, 고재윤, 고광석, 김찬영 등과 함께 자신이 시무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지만, 심영진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나 통신 및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명단에서 찾을 수 없다.

심영진은 유교와 불교를 전전하며 10여년을 방황하다가 계시를 받고 개종하였다. 1953년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309번지 유천면 장 손기섭씨 가정에서 성도 9명으로 장로교회를 창립하였고, 1954년 4월에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장소로 옮겨 천막교회를 세웠다. 1958년 8월에는 흙벽돌로 20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명칭을 성화교회로 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가 1959년 12월 1일에 시작된 장소

가 바로 이 건물이었다.

심영진은 바로 이 무렵, 즉 1958년경에 김은석을 만나 환원하였다. 성경을 읽고 세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가 받은 약식세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일로 고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김은석 목사가 대전 은행동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저물도록 세례에 관해서 토론하였으며, 그 후 일주일간 매일 만나 성경을 놓고 토론하던 중에 더욱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 같은 주간에 방서리 교회에서 김은석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있었는데,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고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영진은 1958년 4월 13일 산상연합집회에 참석한 기념으로 김은석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심영진 목사(중앙, 1960년대)
좌측 김순철(목사), 우측 오재건(장로)

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명칭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경하였다. 그 후 5년 만에 현재의 건물인 500평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집회에서 돌아온 심영진 목사는 김은석 목사로부터 부부가 대전 유등천에서 침례를 받았다. 심영진은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양심상 장로교회를 할 수 없다고 설득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1963년 9월에 시멘블록과 스텔트로 40평 교회를 신축한 후 성화교회(聖火教會)를 도마기독지교회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1975년 12월 4일에 연화 벽돌로 91

1958년에 환원한 심영진 목사는 1960년대 기간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고 필요한 선교사와 협력하였다. 또 심영진 목사는 1959년에 개최된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 성낙소, 장성만, 최요열, 이신 등과 함께 참석하였고, '신약교회로의 환원'을 주제로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도 필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 김찬영, 김성철, 이신, 장주열, 성낙소, 안일승, 고재운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심영진은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계시록 연의>, <계시록 서기>, <성막 조성론>, <선지자의 사명>, <창조와 섭리>를 저술하였고, 은퇴하고 서울 돈암동교회를 담임하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와 개척교회를 섬겼다. 사모 박영자로 더불어 일곱 남매를 두었다.

16. 김동열 목사(1922.09.05.-2008.08.23)



김동열 목사

김동열 목사는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초창기에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이원노 등과 함께 공부하였다.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김은석 목사의 100일 집회에 김규상과 함께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어 김은석이 회장으로 뽑혔고, 목사안수식도 있었다. 이때 김동열은 이신,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는 1954년 7월부터 1955년 7월까지 만 1년간의 행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1954년 7월 22일 아침 신탄진 예배당에서 예레미야 2:9-3장을 봉독함. 오정에 신탄교회당내에서 예레미야 4장 봉독. 김도철, 김동렬 합석 교회사 의논함. 밤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예레미야 5장 봉독.

1954년 7월 27일 저녁에 서울시 동대문구 승인동 72의 77번지 천세영씨 큰 댁에서 아모스 1-2장을 봉독. 김동열 형과 동류(同留)함.

1954년 7월 28일 저녁에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5번지 삼신상회 이기철 형제 댁에서 아모스 8-9장을 봉독함. 동행동류 김동열 형과 모친님. 서울서 대전 자택에 돌아와서 차서(此書) 오바다를 봉독함.

1954년 7월 29일(목) 서울서 대전 오는 중 김동렬 모친 분과 동행 중 차내에서 마태복음 14-16장까지 봉독함.

1955년 6월 23일(목) 오후에 부강교회당 방에서 에스라 1:1-2:59까지 봉독. 김완례씨 대전가심. 오후에야 마가복음 10:47-12:12과 에스라 2:60-6:7까지 봉독함. 김동렬 형제가 부강교회에서 상봉. 전도회 자매 청주가심.

1955년 7월 12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이사야 41:1-43:28까지와 누가복음은 10:17-11:20까지를 김은순, 김명순, 김완례씨와 같이 봉독함. 5시 20분 발차로 부강행 차 김동렬 형제 동행. 부강 도착.

1955년 7월 19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새(이사야) 63:9-66:24까지 봉독하고 부강행중 차내에서 누가복음 17:14-18:30까지 봉독함. 부강도착해 보니 고광석 형제가 병상에 있어서 수리교회도 못가셨다 함. 작일 18일 김동열목사 내부(來芙, 부강에 오시기로) 약속하였었는데 못 오셨으니 하(何)유사(有事)인가 함이라.

1955년 7월 27일(수) 아침 부강교회 강단에서 예레미야 23:14-25:33까지와 요한복음 2:1-3:24까지 봉독함. 김태열 자매 수리 가심. 서울행 차중에서 마태복음 11-13장까지 봉독. 서울행 하게 되는 사명은 선교사 방문차 김동렬 형 모친님과 삼인 동행. 오후에 교사 1차 요함.

마지막으로 김동열 목사는 김은석 목사로부터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받고 있다.

김동열 목사는 1960년대부터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Kwang Ju Church of Christ)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사회'를 이끌

었다. 그러나 김동열 목사의 “폐쇄적 근본주의 노선”을 타 교단에서 오해하여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발전에 타격을 입었다.⁷⁵⁾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는 한 때 15개 교회에 이르렀으나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김동열 목사의 두 자제 김승복 목사와 김환 목사가 시무하는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를 포함하여 5개 교회 정도만 남아있다.

75)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1956-2006)』, 381.